정책연구 2020_01

OPEN 공공누리 출처표시 상업용금지 변경금지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신남방 지역(아세안 10개국, 인도) 문화교류 활성화 방안

류정아

Korea Culture & Tourism Institute

한국문화관광연구원
Korea Culture & Tourism Institute

정책연구 2020-01

신남방 지역(아세안 10개국, 인도) 문화교류 활성화 방안

Plan for Promoting Cultural Exchange with the New Southern Policy (NSP) Region

류정아

한국문화관광연구원
Korea Culture & Tourism Institut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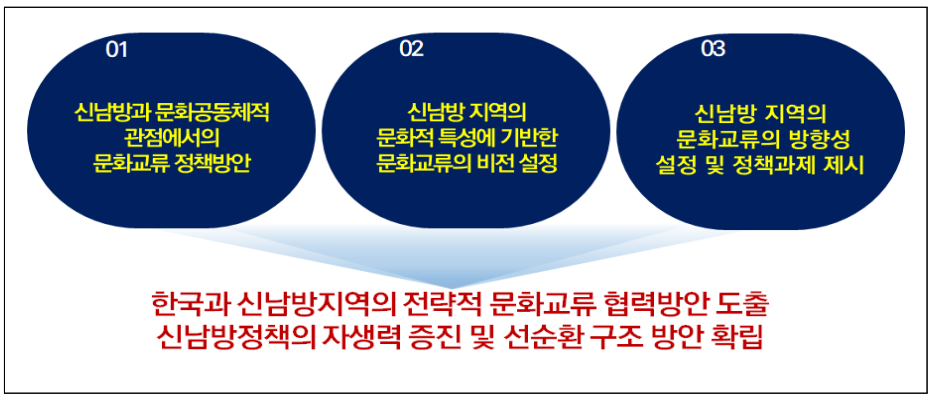
연구책임

류정아 한국문화관광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연구개요

1. 연구의 목적과 필요성

- 아세안, 인도와의 관계를 한반도 주변 4대국(미국, 중국, 일본, 러시아) 수준으로 끌어올리고자 하는 신남방정책 발표(2017년 11월) 이후 아세안 10개국 및 인도와의 문화교류·협력에 대한 중요성이 빠르게 부각
- 아세안 및 인도의 문화 정책, 문화예술 생태계 현황, 한국과 신남방 지역 국가들의 상호간 문화교류의 수요 등을 분석하여, 한국-아세안 개별 10개국과 한국-인도 양자 관계, 그리고 아세안 사회문화공동체를 통한 다자관계에서의 전략적 문화교류·협력 방안을 도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2. 기존 신남방정책의 기본 방향

- 문재인 정부의 신남방정책에서는 사람(people), 번영(prosperity). 평화(peace) 등을 기본원칙 3P로 제안함. 신남방정책의 3대 비전과 목표 및 16대 과제 중, 문화와 관련된 것은 관광교류, 문화교류, 인적교류 등으로, 본 연구는 이 중에서 신남방지역과 쌍방향 문화교류 확대 부분을 중심으로 연구가 진행
- 특히 문화교류 거점 확충 및 문화 ODA 사업, 아세안 문화·언어 콘텐츠 확산 등 아세안에 대한 인식 개선 등을 중심으로 하여 추진 가능한 정책과제와 사업 등을 제시함

3. 신남방 지역 문화교류 사업 성과와 한계

- 동남아 지역은 지금까지 상당한 정도 경제적 이윤창출의 매개 또는 수단으로서 '활용'되는 지역이었으나, 바로 이 지점에서 빠른 프레임 변화가 일어나고 있음. '수단'이나 '대상'으로서가 아니라, '파트너'로서 '상생'하는 협력국가(지역)로의 관계적 위상 변화를 직시해야 함
- 경제적 교류 일변도의 정책방향에서 문화예술, 문화산업, 관광, 스포츠 등 다각적인 분야로 정책방향의 질적인 변화를 유도해야 하며, 외면적인 성과뿐만 아니라, 질적인 수준에서 관계설정의 변화를 적극적으로 유도하고자 하는 정부의 인식변화가 성과로 드러나야 함
- 문화정책의 경우 그 세부과제들이 추진되는 지역적 환경이 하나의 '신남방 지역'으로 통칭되기 어려울 정도로 각 국가와 지역의 역사와 문화, 전통과 관습, 종교 등이 상당히 달라 이러한 차이에 대한 섬세한 고려가 필요함
- 신남방 지역 국가들의 사회와 문화에 대한 이해가 우선되어야 한다는 것인데, 개별 국가에 대한 분석을 통해서 국가 간 공통점과 차이점을 파악하고, 각 국가가 실제로 우리나라와의 교류에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수요파악을 통해서 정책분야의 우선순위를 정해야 할 것임
- 정부의 신남방 정책에 발맞춰 아태지역 문화유산 ODA 사업이 발전하였고, 관련 분야 사업의 수요가 증대되고 있음. 특히 디지털 문화유산 ODA 사업과 박물관 건립·보존 사업과 같은 역사·문화 ODA 사업이 양적으로 증가하고 있음
- 문화재청은 기존 동남아시아에 국한되었던 문화유산 ODA 역할을 정부의 신남방 정책에 발맞춰 신남방 지역으로 확대함은 물론 중앙아시아, 우즈베키스탄 등과도 국제개발 협력 사업을 확대하고 있음
- 정부-유관기관 간 아태지역의 문화예술교류를 다자간 확대하고 이와 관련한 교류가 확산되고 있음

4. 기존 국제문화교류(정책)의 프레임 전환 필요

- 다양한 지역을 대상으로 국제문화교류의 대상을 다변화함에도 불구하고 권역별 국가적 특수성을 반영한 국제문화교류 전략이 부재하고, 개발도상국이나 저개발국가 대상 문화교류사업은 쌍방 간의 상호 문화교류가 아닌 주로 경제적 지원이나 산업개발 등 일방적 수혜의 개념으로 국제문화교류를 접근하면서 교류의 효과가 반감되고 있음
- 국제문화교류 활동내용을 보면 사업의 유형별, 분야별로 불균형이 발생하고 있음. 특정 시기에 특정 분야에 집중되면서 일회적 이벤트로 끝나버려 지속가능성의 토대를 만들어가지 못함. 국제문화교류 활동을 선순환시킬 수 있는 생태계 시스템 구축이 미비하고, 공공기관 뿐 아니라 다양한 기관에서 실행 중인 다양한 사업들 간에 유사한 내용의 중복이 많음. 교류를 통한 문화예술의 질적 향상이라는 궁극적 목표의식이 부재하여 문화예술이 갖는 고유한 가치 공유를 통해 문화적 발전을 도모하는 것에는 한계가 있음
- 문화관광 교류사업에서 신남방 지역의 문화관광 콘텐츠 구축 및 문화유산 관광인프라 개선을 위한 구체성·다양성·전문성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황임
- 이것이 결과적으로 신남방 지역 문화유산 관련 문화관광 콘텐츠 DB 구축 및 다채로운 콘텐츠 개발이 미흡해지는데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음
- 문화인력 간 교류 사업을 추진하고 이를 뒷받침해줄 수 있는 전문인력을 양성해야 함. 관련 분야 종사자간 상시적 참여 시스템이 부족하며, 그 결과 문화교류 및 문화 확산의 효과가 미흡한 것으로 연결됨

5. 국제문화교류 정책의 개선방향 및 신남방 정책에의 적용

- 이러한 문제들을 극복하기 위해서 기존의 유럽과 동북아시아 중심에서 벗어나 문화교류 대상의 범위 확장 및 각 대상지역별로 각기 차별화된 전략, 일회성 교류사업이 아닌 지속가능한 사업 추진, 장기적 목표가 있는 로드맵 하에 전문성을 강화해야 함

■ 또한 타문화에 대한 분석과 이해를 통해 다문화 감수성의 폭을 넓히고 다양성을 추구하는 정책적 접근, 국제교류의 다양한 콘텐츠 개발 및 문화교류 내용별로 균형적 배분 전략, 국제문화교류 활동의 생태계 구축을 위한 시스템 구축과 네트워킹 채널 구축, 중복사업들을 통합 관리할 수 있는 온·오프라인 통합시스템 구축, 문화예술의 가치공유, 문화의 발전을 통한 인류가치의 보존과 발전이라는 가치를 재고해야 함

6. 신남방 지역 문화교류 수요분석

〈조사개요〉

구분	내용
조 사 명	신남방 지역 문화교류 정책 관련 전문가 조사
조사목적	신남방(아세안 10개국, 인도) 지역 문화교류 활성화 방안 관련 전문가 의견 수렴
조사대상	신남방 지역 국가별 전문가
조사기간	2020년 6월 22일 ~ 7월 14일 (총 23일)
조사방법	구조화된 설문지에 대한 전문가들의 응답 작성
조사내용	신남방 정책 전반에 대한 견해, 문화교류 관련 기존 정책 및 향후 개선 방향성 의견
유효표본	총 80개 조사 대상 중 44개 표본의 응답 수집

■ 동남아 지역 및 인도 지역과 관련한 정부정책에 대한 견해에서는 현 정부가 신남방 지역에 대한 높은 관심도 대비 국가 간 교류 방식이 일방향적이고 경제적 측면에 국한되어있는 한계를 지니고 있다고 평가

■ 전반적으로 현재 시행되는 정책의 방향성이 '경제교류협력'에 역점을 두었다고 판단하며, 향후 '사회문화교류협력', '인적교류' 순으로 더욱 정책적 노력이 필요하다고 인식하고 있음

■ 현 정부는 신남방 정책의 전반적인 방향에 있어 '경제교류 협력'에 역점을 두고 추진하였으며 이는 괄목할만한 성과를 내었다고 평가되었으나, 향후에는 경제적 측면을 넘어 사회문화적, 인적 교류 등 교류의 분야를 확장하고, 다각화된 접근 및 교류 방식에 대한 고민이 필요할 것으로 시사함

- 가장 큰 성과는 '한류·대중문화 향유 및 수출'(응답자의 18.8%)로 인식하고 있는 반면 성과가 가장 미미한 부분은 '신남방 지역 출신 이주민에 대한 편견 감소'(응답자의 15.3%)로 조사됨
- 성과 부재의 원인으로 '체계적 정책 시스템의 부재'(20.5%)와 '문화교류의 지속성 부족'(19.7%), '관련 인력 부족'(16.7%)을 꼽고 있어 실질적인 문화교류 성과를 위해서는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정책 시스템 및 신남방 지역 특성에 대한 이해와 관련 전문 인력 양성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 문화교류 정책사업의 성과가 잘 드러나는 국가의 경우 1순위 '베트남'(42명 선택, 47.7%), 2순위 인도네시아'(23.9%), 3순위는'태국'(17.0%) 순으로 나타남
- 문화교류 사업 추진 지역으로 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할 국가의 경우 1순위 '인도네시아'(37명 선택, 28.0%), 2순위 '베트남'(18.9%), 3순위 '태국'(15.2%) 순으로 집계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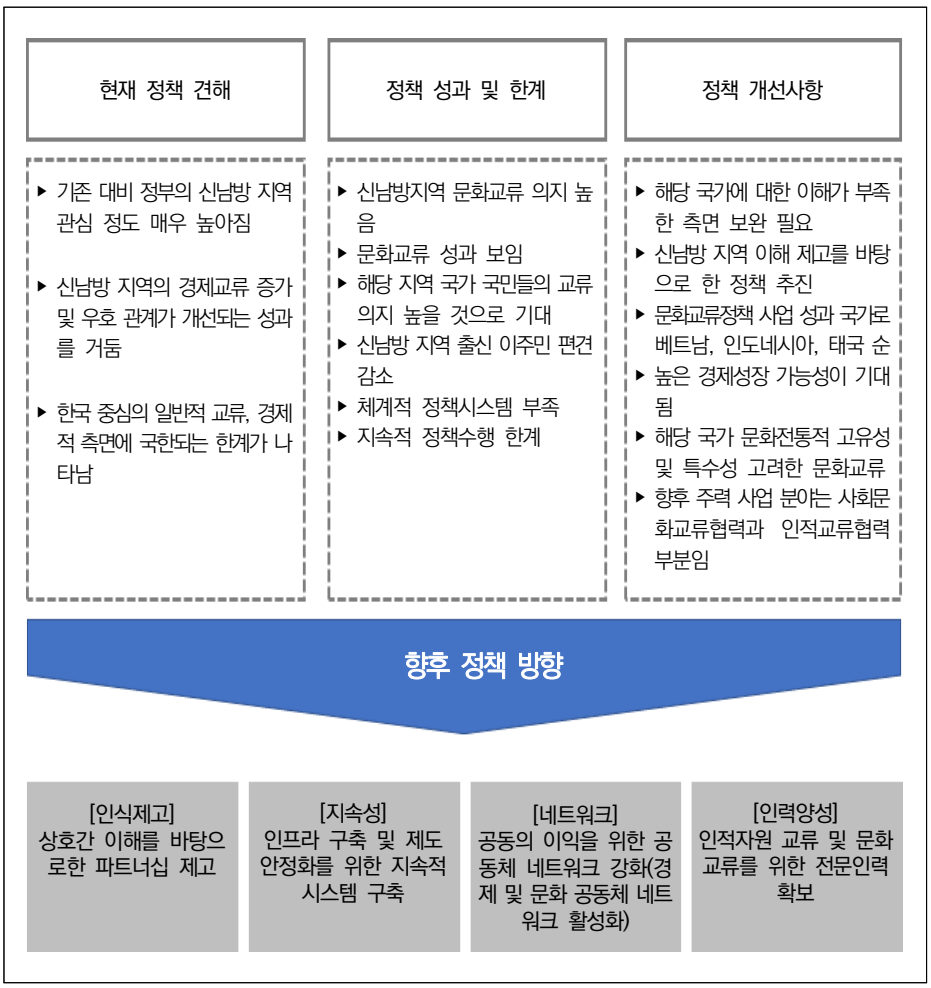
7. 향후 신남방 문화교류 정책 방향

- 향후 신남방 지역 문화교류 활성화를 위해 가장 우선 보완되어야 할 부분은 '현지에 대한 이해'가 1순위, '인력양성 시스템 구축'이 2순위로 언급되어, 상대문화에 대한 깊은 이해와 이를 뒷받침하는 전문성을 갖춘 인력이 양성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됨
- 동남아 지역을 중심으로 주변의 인도와 중국 멀리 중동지역까지 폭넓은 시각을 가진 전문가의 역량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볼 수 있으며, 신남방국가의 역사적 소양과 문화적 가치를 인식하고 있는 전문가 육성이 필요함
- 신남방 지역문화교류 사업 향후 사업 추진 시 가장 고려해야 할 사항은 '상대국의 교류 기초 데이터 확보'라는 의견이 18.9%로 가장 높게 조사됨
- 쌍방향 문화교류를 위해서는 동남아/인도에 대한 우리 국민들의 인식이 개선되는 것이 필요함. 신남방지역 문화교류 사업을 추진할 시 문화교류의 양방향

성을 지향하여 일회성 및 단기 목표성 사업을 지양하고 장기적 시스템 및 인적 투자에 집중해야 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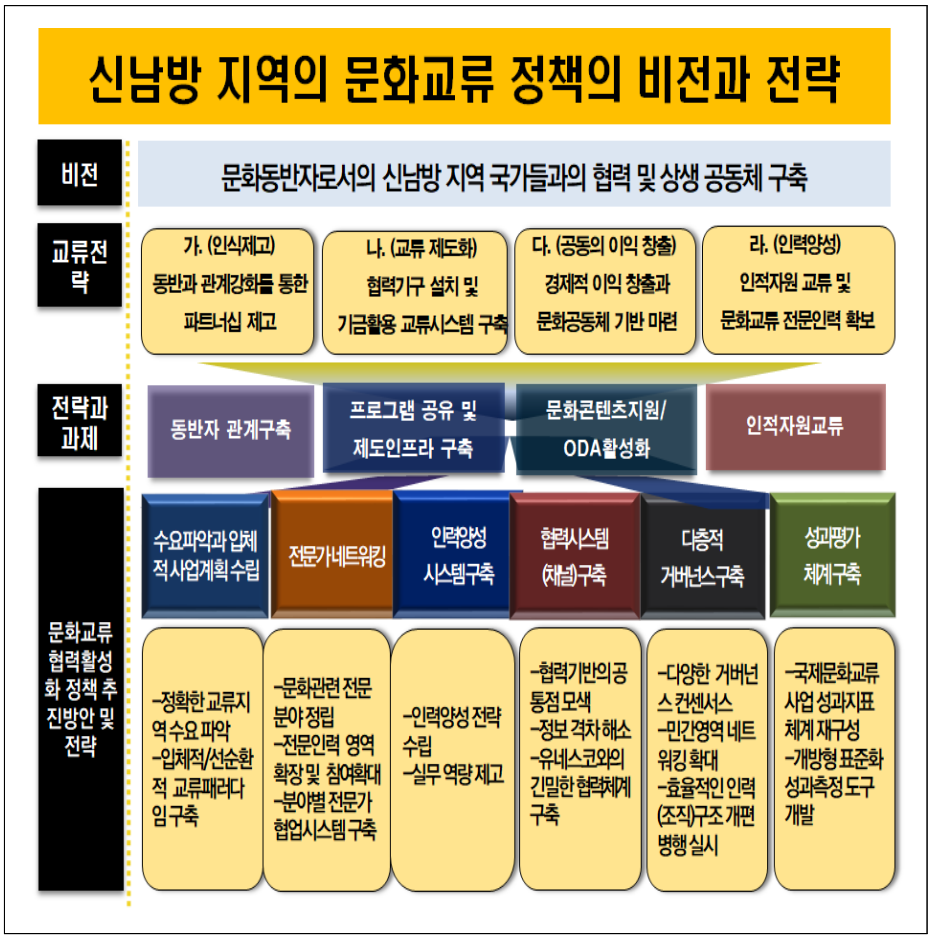
- 일반대중은 한류의 영향으로 한국에 대해 과도하게 좋은 이미지를 갖고 있으나 실제 정책을 집행하는 여론주도층은 한국에 대한 인식이나 신뢰가 극히 낮다는 사실을 인지해야 함
- 국내 관련 지역 전문가의 부족 및 기존의 전문가에 대한 활용 부족 측면을 고려해야 한다는 의견 제시. 현지 상황에 대한 폭넓은 이해를 바탕으로 한 장기적이고 체계적인 정책 마련 필요

[설문조사를 통한 신남방정책 성과 및 향후 정책 방향]



8. 비전 및 추진과제 개요

[신남방 지역 문화교류 정책 비전과 전략 종합 개요도]



〈추진사업 리스트 및 수요조사 반영 우선순위〉

	과제	추진사업		우선순위
I	동반자 관계 및 파트너십 강화	1	신남방 개별 국가와의 문화교류 MOU 체결	5
		2	국내 문화다양성 보호 증진 사업을 통한 신남방 인식제고	2
		3	문화예술분야 민관 기관 간 교류네트워크 구축	3
		4	신남방 국가간 문화 콘텐츠 제작 협력 사업	4
		5	국가 간 문화주간 행사개최 지원	6
		6	신남방 문화연구 네트워크 구축사업	1
II	문화 콘텐츠 및 자원교류	1	한국어학과 개설 지원 등 한국어 교육 활성화 사업	4
		2	신남방 지역 언어교육 지원 사업	1
		3	콘텐츠 유통 플랫폼 개발 사업	4
		4	방송영상콘텐츠 국제공동제작	4
		5	신남방 지역 유·무형 문화유산 보존 지원 사업	2
		6	관광콘텐츠 개발 및 활성화를 위한 문화자원 발굴 사업	3
III	인적자원 교류	1	분야별 전문가 교류사업(초청연수 및 국내 전문가 파견)	1
		2	청년예술가 창작 교류 지원 사업	4
		3	청년·청소년 문화교류 네트워크 구축	1
		4	전통음악 커뮤니티 구축 및 활성화	5
		5	스포츠 교류활동 지원 사업	5
		6	정보통신기술(ICT) 기반 문화유산 보존·활용 역량 공유 사업	3
IV	프로그램 공유 및 교류	1	예술계 장학 프로그램 교류 사업	4
		2	아시아전통오케스트라 공연 프로그램 교류 사업	6
		3	한-아세안 국립박물관 전시프로그램 교류 사업 확대	2
		4	한-아세안 국립 문화기관 콘텐츠 및 프로그램 교류 협력 활성화 사업	1
		5	아시아 국가문화유산 포털 구축	3
		6	신남방 지역 관광 활성화 국제포럼 개최	5
V	제도 및 인프라 구축 협력	1	신남방 지역 공공(작은)도서관 문화 조성사업	4
		2	신남방 지역 문화의 이해증진을 위한 스마트시티 플랫폼 구축	3
		3	교류 협력국 문화 교육 정보화 인프라 구축 사업	2
		4	정보통신기술(ICT)을 활용한 신남방 지역 문화 기술 지원 협력	1
VI	ODA 사업 활성화	1	문화유산 보호·활용 및 인재 양성 ODA 추진	1
		2	농촌마을 정보화 ODA 사업	5
		3	취약계층의 문화교육 ODA 사업	4
		4	지역관광자원 개발 및 활용 ODA 사업	3
		5	문화유산 디지털 DB구축 사업	2

■ 여기서 말하는 우선 순위는 전문가 설문조사 결과 정부 차원에서 우선적으로 추진되어야 할 사업으로 지적해 준 순위를 명시한 것임

목차

제1장 서론 ····· 1

제1절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3

1. 연구의 배경과 필요성 3
2. 연구 목적 4

제2절 연구 방법 6

1. 선행연구 분석 6
2. 전문가 의견조사 8
3. 연구추진체계 9

제2장 신남방정책 추진 환경 ····· 11

제1절 신남방정책의 방향과 특징 13

1. 신남방정책의 기본 방향 13
2. 신남방정책의 3대 비전과 목표 및 16대 과제 15
3. 신남방 지역과의 교류 추진 체계 및 방향성 16

제2절 한국의 국제문화교류 정책 추세 및 문제점 20

1. 한국의 국제문화교류 정책 현황 및 개요 20
2. 한국의 국제문화교류 특징과 방향성 21
3. 부처 및 기관별 국제문화교류 정책 현황 개요 23
4. 국제문화교류(정책)의 추세와 한계점 및 개선방안 31

제3절 신남방 문화교류의 현황 및 방향성 35

1. 신남방 문화교류 정책현황 35
2. 주요사업 성과: ‘ODA’ 사업 중심 37
3. 기존 신남방 정책의 한계 및 방향성 42

제3장 신남방지역 문화교류 환경 및 현황 분석: 국가별 분석 종합 ····· 45

제1절 신남방 지역 국가별 문화교류 환경 분석: 한국과의 교역액 기준 국가군 분류 47
1. 상위 교역액 국가 문화교류 환경 분석: 인도네시아, 인도, 베트남 47
2. 중위 교역액 국가 문화교류 환경 분석: 태국, 필리핀,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60
3. 하위 교역액 국가 문화교류 환경 분석: 라오스, 브루나이, 캄보디아, 미얀마 77

제2절 기관 및 단체의 문화교류 현황 90
1. 공공기관의 신남방 지역 문화교류 현황 90
2. 민간기관의 신남방 지역 문화교류 현황 95

제3절 신남방 지역 문화교류의 성과 및 한계 100
1. 신남방 지역 문화교류 사업 성과 100
2. 신남방 지역 문화교류 정책 및 효과의 한계 102

제4장 신남방 지역 문화교류 수요분석 ····· 105

제1절 수요조사 개요 107
1. 수요조사의 목적과 방향 107
2. 수요조사의 대상과 방법 108

제2절 설문조사 결과 111
1. 동남아 지역 및 인도 지역 관련 정부정책에 대한 견해 111
2. 신남방 지역 문화교류 정책 성과 113
3. 신남방 지역 문화교류 정책 운영방향 및 개선사항 119
4. 6가지 추진전략별 우선 추진 세부과제 121
5. 향후 정책 방향 127

제3절 수요조사 결과 분석 및 시사점 도출 130
1. 동남아 지역 및 인도 지역 관련 정부정책에 대한 견해 130
2. 신남방 지역 교류정책의 성과 131
3. 신남방 지역 문화교류 정책 운영방향 및 개선사항 132
4. 6개 추진전략별 우선추진 세부과제 133
5. 향후 신남방 문화교류 정책 방향 135

제5장 신남방 지역 문화교류 정책의 비전과 전략 및 추진과제(안) ····· 139

제1절 신남방 지역 문화교류 비전 수립의 방향과 전략 141
1. 비전 및 추진과제 개요 141
2. 전략 및 방향 142

제2절 추진과제 145
1. 동반자 관계 및 파트너십 강화: 인식제고 및 협력강화 146
2. 문화콘텐츠 및 자원교류: 문화자원 활용으로 문화성장 추동 151
3. 인적자원 교류: 예술·문화 전문가 및 지역 공동체 간 교류 159
4. 프로그램 공유 및 교류: 프로그램 제작 노하우 및 지식 교류 확대 166
5. 제도 및 인프라 구축 협력: 문화교류 기반 및 여건 조성 사업 173
6. ODA 사업 활성화: 국제문화교류 차원의 상생적 개발원조 사업 181

제6장 신남방 지역 간 문화교류 및 협력활성화 정책과제 추진 방안 ····· 191

제1절 문화교류 수요파악과 입체적인 사업계획 수립 194
1. 정확한 교류지역 수요 파악 194
2. 일방적/일회적 접근에서 입체적/선순환적 접근으로 교류 195
패러다임 변화 195

제2절 전문가 네트워킹 196
1. 문화관련 전문분야 정립 및 전문인력 관리 196
2. 관련영역 확장 및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 참여 확대 198
3. 분야별 전문가 협업시스템 구축 198

제3절 인력양성 시스템 구축 200
1. 인력양성 전략 수립 200
2. 실무역량 제고 201

제4절 협력시스템(채널) 구축 202
1. 협력기반의 공통점 모색 202
2.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정보플랫폼 구축 202

제5절 다층적 거버넌스 구축 204
1. 다양한 행위자와의 거버넌스(협치)체제를 통한 컨센서스 형성 204
2. 국가 간, 기업 간 거버넌스 결성으로 정책협력 및 문화산업 활성화 205
3. 거버넌스를 중심으로 한 민간영역과의 네트워킹 확대 208
4. 거버넌스 구축과 동시에 효율적인 인력(조직)구조 개편 병행 실시 209

제6절 성과평가 체계 구축 211
1. 국제문화교류사업 성과지표 체계 재구성 211
2. 협력기관 전체가 동의할 수 있는 개방형 표준화 성과측정 도구 개발 212

제7장 결론 ····· 213

참고문헌 / 219

ABSTRACT / 229

부록 / 233

【부록1】 설문지 / 235
【부록2】 문항 간 교차분석 표 / 245
【부록3】 국가별 문화교류 사업 우선 순위비율 / 251
【부록4】 교역액 기준 국가별 문화특성 비교표(종합분석표) / 255

표 목차

〈표 2-1〉 한-아세안 협력사업(안) 14
〈표 2-2〉 국제문화교류 영역별 세부 분야 22
〈표 2-3〉 문체부 신남방지역 대상 주요 협력 채널 37
〈표 2-4〉 2007~2015 문화재 국제원조 추진 실적 38
〈표 3-1〉 상위 교역액 국가별 현황 비교 47
〈표 3-2〉 상위 교역액 국가별 구성 특성 48
〈표 3-3〉 상위 교역액 국가별 문화적 특징, 상징 및 사회 갈등 요인 49
〈표 3-4〉 상위 교역액 국가별 한국문화의 접점 콘텐츠 49
〈표 3-5〉 국가별 한류심리지수 추이 50
〈표 3-6〉 상위 교역액 국가의 한류 특성 50
〈표 3-7〉 상위 교역액 국가에서의 한글 위상 51
〈표 3-8〉 신남방 지역 문화적 특징 52
〈표 3-9〉 한국-인도네시아 문화교류 주요 연대기 53
〈표 3-10〉 한국-인도 문화교류 주요 연대기 56
〈표 3-11〉 주인도 한국문화원 및 주한 인도문화원 현황 57
〈표 3-12〉 한국-베트남 문화교류 주요 연대기 59
〈표 3-13〉 국가 현황 비교(2) 61
〈표 3-14〉 국가별 구성 특성(2) 61
〈표 3-15〉 국가별 문화적 특징, 상징 및 사회 갈등 요인 62
〈표 3-16〉 신남방 국가와 한국문화의 접점 콘텐츠 63
〈표 3-17〉 신남방 지역 국가의 한류 특성(2) 63
〈표 3-18〉 신남방 지역 국가에서의 한글 위상 64
〈표 3-19〉 신남방 지역 문화적 특징 65
〈표 3-20〉 한국-태국 문화 교류 및 관련 조약체결 67
〈표 3-21〉 한국-필리핀 문화교류 주요 연대기 70
〈표 3-22〉 한국-말레이시아 문화교류 주요 연대기 73
〈표 3-23〉 한국-싱가포르 문화교류 주요 연대기 76

〈표 3-24〉 하위 교역액 국가 현황 비교 77
〈표 3-25〉 하위 교역액 국가별 구성 특성 78
〈표 3-26〉 하위 교역액 국가별 문화적 특징, 상징 및 사회 갈등 요인 78
〈표 3-27〉 하위 교역액 국가와 한국문화의 접점 콘텐츠 79
〈표 3-28〉 하위 교역액 국가의 한류 특성 79
〈표 3-29〉 하위 교역액 국가에서의 한글 위상 80
〈표 3-30〉 하위 교역액 국가의 문화적 특징 81
〈표 3-31〉 한국-라오스 문화교류 주요 연대기 82
〈표 3-32〉 한국-브루나이 문화교류 주요 연대기 84
〈표 3-33〉 한국-캄보디아 주요 문화 교류 연대기 86
〈표 3-34〉 한국-미얀마 교류 및 문화관련 조약체결 88
〈표 3-35〉 문화유산 ODA사업 주요내용 100
〈표 3-36〉 아태지역 문화교류 현황 101
〈표 3-37〉 창·제작 선순환 시스템의 문제점 분석 사례 104
〈표 4-1〉 조사개요 108
〈표 4-2〉 조사내용 108
〈표 4-3〉 응답자 현황: 성별·관심분야·관심지역·활동기간 110
〈표 4-4〉 현 정부의 신남방 지역에 대한 관심도 111
〈표 4-5〉 신남방 정책의 성과 112
〈표 4-6〉 신남방 정책의 한계 112
〈표 4-7〉 현재 및 향후 신남방 정책 역점 분야 인식 비교 113
〈표 4-8〉 타 국가(지역) 대비 신남방 문화교류 비중 및 의지 114
〈표 4-9〉 타 국가(지역) 대비 신남방 문화교류 성과 인식 114
〈표 4-10〉 신남방 지역 국민의 한국 문화교류 의지 및 효과 평가 예상 115
〈표 4-11〉 신남방 문화교류 정책 성과 부문 115
〈표 4-12〉 신남방 문화교류 정책 비성과 부문 116
〈표 4-13〉 신남방 문화교류 정책 성과 분야 및 비성과 분야 인식 비교 117
〈표 4-14〉 신남방 문화교류 비성과 원인 118
〈표 4-15〉 향후 주력 신남방 문화교류 정책 118
〈표 4-16〉 신남방 문화교류 정책사업 성공 국가 인식 119
〈표 4-17〉 신남방 문화교류 정책사업 우선 추진 고려 국가 인식 120
〈표 4-18〉 우선 고려대상 신남방 문화교류 추진전략 121
〈표 4-19〉 '동반자 관계 및 파트너십 강화' 전략 추진 세부사업 122

〈표 4-20〉 우선추진 3개국 '동반자 관계 및 파트너십 강화' 전략 추진 세부사업 122
〈표 4-21〉 '문화콘텐츠 및 자원교류' 전략 추진 세부과제 123
〈표 4-22〉 우선추진 3개국 '문화콘텐츠 및 자원교류' 전략 추진 세부과제 124
〈표 4-23〉 '인적교류' 전략 추진 세부과제 125
〈표 4-24〉 프로그램 공유 및 교류전략 추진 세부과제 우선순위 인식 125
〈표 4-25〉 제도 및 인프라 구축 협력전략 추진 세부과제 우선순위 인식 126
〈표 4-26〉 ODA 사업 활성화전략 추진 세부과제 우선순위 인식 126
〈표 4-27〉 신남방지역 문화교류활성화 정책 추진 시 보완사항 127
〈표 4-28〉 향후 문화교류 사업 추진 시 고려사항 128
〈표 4-29〉 전문가 설문조사 결과 요약 정리표 129
〈표 5-1〉 신남방 지역의 문화교류 정책 추진과제 및 세부 사업 145
〈표 5-2〉 2020년 문화체육관광부 MOU추진 대상국가 147
〈표 5-3〉 국립아시아문화전당 대표 국제교류 사업 158
〈표 5-4〉 문화예술위원회의 해외협업 프로젝트 170
〈표 5-5〉 국립싱가포르예술위원회-한국문화예술위원회 사업진행 체계도 170
〈표 5-6〉 추진사업 리스트 및 수요조사 반영 우선순위 189
〈표 6-1〉 무형유산 전문 인력 및 역량 강화 프로그램 예시 197
〈표 6-2〉 전문 인력 역량 강화 프로그램 예시 - 국립아시아문화전당 197
〈부록표 1〉 Ⅰ-2. 문재인 정부의 전반적인 신남방 정책 방향 중 가장 역점을 둔 부분
* Ⅰ-3. 2017년에 시작된 문재인 정부의 신남방 정책 중 가장 큰 성과 245
〈부록표 2〉 Ⅰ-5. 향후 신남방 정책에서 보다 더 역점을 두어야 할 분야
* Ⅰ-4. 문재인 정부의 신남방 정책의 한계 246
〈부록표 3〉 Ⅲ-13. 신남방 문화교류를 우선적으로 추진해야 할 국가
* Ⅲ-13-1. 선택한 이유 247
〈부록표 4〉 Ⅲ-13. 신남방 문화교류를 우선적으로 추진해야 할 국가
* Ⅱ-11. 향후 신남방 문화교류정책에서 가장 역점을 두어야 할 부분 248
〈부록표 5〉 SQ. 응답자 관심지역 * Ⅲ-14. 신남방 지역과의 문화교류정책
추진전략으로 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할 부분 250
〈부록표 6〉 Ⅲ-13. 신남방 문화교류를 우선적으로 추진해야 할 국가 * Ⅳ-15. 동반자
관계 및 파트너십 강화전략 중 우선 고려되어야 할 세부 추진과제 251
〈부록표 7〉 Ⅲ-13. 신남방 문화교류를 우선적으로 추진해야 할 국가 * Ⅳ-16. 문화콘텐츠
및 자원교류전략 중 우선 고려되어야 할 세부 추진과제 252

〈부록표 8〉 Ⅲ-13. 신남방 문화교류를 우선적으로 추진해야 할 국가
* Ⅳ-17. 인적자원교류전략 중 우선 고려되어야 할 세부 추진과제 253
〈부록표 9〉 Ⅲ-13. 신남방 문화교류를 우선적으로 추진해야 할 국가
* Ⅳ-19. 제도 및 인프라 구축협력전략 중 우선 고려되어야 할 세부 추진과제 254
〈부록표 10〉 한국과의 교역액 상위 국가 문화 특성 비교표 255
〈부록표 11〉 한국과의 교역액 중위 국가 문화 특성 비교표 256
〈부록표 12〉 한국과의 교역액 하위 국가 문화 특성 비교표 257

그림 목차

[그림 1-1] 신남방 문화교류활성화 방안 연구의 목적 5
[그림 1-2] 연구추진체계도 9
[그림 2-1] 국제문화교류 핵심 추진 목표와 추진전략의 상응관계 25
[그림 2-2] 홍낭시다 위치도, 유적사역도, 공간구성 40
[그림 2-3] 홍낭시다 복원 전후 모습 40
[그림 2-4] 문화유산 보존 인프라 구축사업 예시 41
[그림 3-1] 아세안 지역의 콘텐츠 시장 동향(2014년~2019년) 55
[그림 3-2] 국립민속박물관의 다문화꾸러미 사업 93
[그림 3-3] 해외문화PD 우리의 이야기, 2018년 해외문화PD 제작 대표영상 94
[그림 4-1] 현재 및 향후 신남방 정책 역점 분야 인식 비교 113
[그림 4-2] 우선 고려대상 국가 응답 120
[그림 4-3] 우선추진 3개국 '동반자 관계 및 파트너십 강화' 전략 추진 세부사업 123
[그림 4-4] 우선추진 3개국 '문화콘텐츠 및 자원교류' 전략 세부과제 124
[그림 4-5] 설문조사를 통한 신남방정책 성과 및 향후 정책 방향 137
[그림 5-1] 신남방 지역의 문화교류 정책의 비전과 전략 141
[그림 5-2] 문화재청 국가문화유산포털 화면 172
[그림 5-3] (가칭) 한-아세안 미술관 협의체 구성(안) 180
[그림 6-1] 신남방지역 문화교류 정책 비전과 전략 및 추진방안 종합 개요도 193
[그림 6-2] 전 세계 5개 지역별 문화산업 수익 및 종사자 집계(2013) 206

제1장

서론

제1절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1. 연구의 배경과 필요성

아세안, 인도와의 관계를 한반도 주변 4대국(미국, 중국, 일본, 러시아)과의 관계 수준으로 끌어올리고자 하는 신남방정책 발표(2017년 11월) 이후 아세안 10개국 및 인도와의 문화교류·협력에 대한 중요성이 급부상하였다. 이에 따라 문체부는 2019년 '한-아세안 특별문화장관회의' 개최[1] 등 아세안을 비롯한 신남방지역과의 문화교류·협력 확대를 위한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준비를 하고 있다.

아세안은 인구 6억 5,000만 명, 평균 경제성장률 5~6%, 인구 절반 이상이 30세 이하인 무한한 성장잠재력이 있는 지역으로 한국의 제2대 교역 대상지역이다. 특히 이 지역은 한국 대중문화콘텐츠의 인기가 높은 지역으로 한국콘텐츠 수출액도 최근 급성장하고 있으며, 한국인의 제1위 해외방문지로 2018년 상호방문객이 1,144만 명에 달한다. 여기에 인도까지 합치면 그 규모는 훨씬 더 커질 것이다. 아세안 국가의 콘텐츠 시장은 2014년~2019년 연간 8% 이상의 높은 성장률을 보이고 있으며, 주요 6개국의[2] 콘텐츠 시장 규모는 2021년까지 약 10% 성장할 것으로 전망된다[3]. 이는 국내에서 새로운 시장을 창출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다.

따라서 현재 주변 4대국 및 선진국에 편중된[4] 국제문화교류 대상 권역 및 국가를 다양화하고, 문화분야 신남방정책을 효과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고민해야 할 시점이다.

---

1) 아세안과의 문화교류 경험, 정보, 지식이 부족한 상황에서 한국이 추진하고자 하는 다양한 분야의 협력사업에 대한 논의가 중점적으로 이루어졌음

2) 인도네시아, 태국, 베트남,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필리핀

3) 문화체육관광부(2019.10.24.). "한·아세안 문화협력 강화 획기적 발전 계기 마련"

4) 공공·민간 모두 상위 5개국(중, 일, 미, 불, 독) 편 중 [문화체육관광부(2017). 『국제문화교류 지표개발 기초연구』. 한국문화관광연구원(연구책임: 김혜인)]

이를 위해서 본 연구에서는 아세안 및 인도의 문화정책, 문화예술 생태계 현황, 한국과 신남방지역 국가의 상호 간 문화교류 수요 등을 분석하여 한국-아세안 개별 10개국과 한국-인도 양자 관계, 그리고 아세안 사회문화공동체를 통한 다자관계에서의 전략적 문화교류·협력방안을 도출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국정과제로서의 비중을 고려하고 과제 이후 실제 신남방 교류정책의 방향과 기준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연구의 구체성과 실효성을 분명히 할 것이다. 따라서 문화체육관광부의 국제문화교류 업무뿐 아니라 문화재청, 국립아시아문화전당 등을 비롯한 국공립 국제문화교류 관련업무 수행기관과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추진가능한 사업방향을 제시하는 것, 그리고 민간기관과의 협업 방향이나 전략을 제시하는 작업이 연구범위에 포함될 것이다.

2. 연구 목적

본 연구는 무엇보다도 신남방 문화정책의 비전과 목표를 수립하고 이에 상응하는 한국과 아세안, 인도 지역의 문화교류 비전을 제시하면서 국가, 기관, 사람 간의 문화예술 교류와 협력을 증진할 수 있는 구체적인 전략과 과제 그리고 세부 사업방향을 도출해 낼 것이다. 본 연구의 목적은 다음과 같다.

첫째, 신남방지역과 문화공동체적 관점에서 효과적인 문화교류 정책을 추진할 수 있는 정책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는 국가 간 공공의 영역에서 추진할 수도 있으며, 민간 또는 민관공동으로 추진할 수도 있다. 이러한 문화예술공동체 간의 문화교류 생태계를 구축하고 이를 바탕으로 상호 간 문화네트워크를 수립한 후 향후 문화교류의 확장과 타분야와의 시너지 효과 방안을 도출할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미 수행되고 있는 기존의 활동, 즉 국립아시아문화전당, 한국국제협력단 등과 같은 공공기관에서 진행되고 있는 문화교류의 현황과 실적, 그리고 한계점들을 분석하여 향후 신남방 문화교류정책 수립의 보다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정책방안을 제시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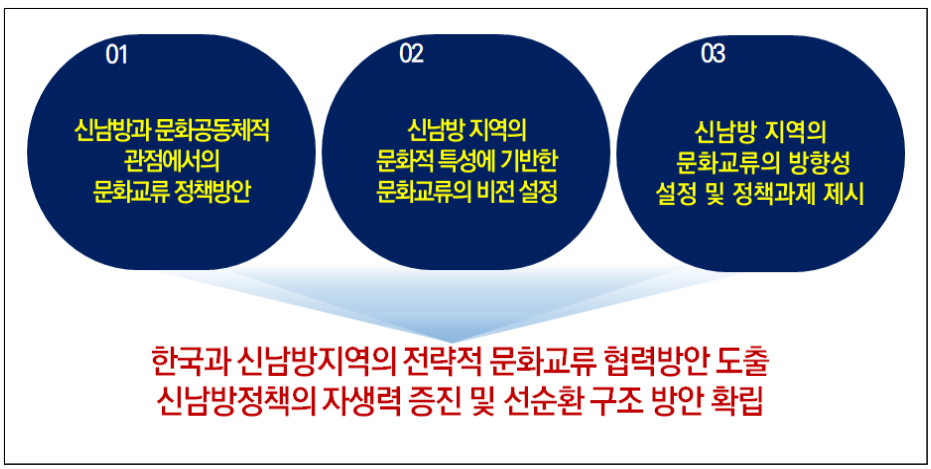
둘째, 기존의 국가 간 문화교류 정책과 차별화하면서 신남방 지역과의 문화적 특성에 기반한 문화교류의 비전을 설정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서 아세안 및 인도 지역

에 수행된 기존의 문화교류 사업의 특징을 분석하는 작업을 우선적으로 수행할 것이다. 예를 들어 해당 지역 문화유산 ODA사업과 같은 경우 기존의 영역을 확장하여 협력국의 문화유산 보호제도 구축 뿐 아니라 신남방 지역의 공동체 역량을 강화하고 관광의 연계수요 증대까지 이어지는 사업의 구체적인 방안과 전문적인 실행방향까지 제시할 것이다.

셋째, 동남아 10개국 및 인도지역 전문가 대상 의견조사, 각 국가별 문화특성, 우리나라와의 문화교류 현황 분석을 통해 향후 효율적인 신남방 문화교류의 방향성을 설정하고 추진가능한 과제와 구체적인 사업들을 예시적으로 제시하고자 한다. 이 연구는 신남방 국가 및 인도지역과의 전략적 문화교류의 방향을 설정하고 실질적인 협력방안을 수립하기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될 것이며, 해당 지역 간 문화교류 및 협력 활성화의 지속가능한 정책 추진을 위한 입체적 사업계획안 수립의 원칙 및 방향을 정립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세부 연구목적은 결국 한국과 신남방 지역의 전략적 문화교류·협력방안을 도출하고, 장기적 관점에서 전문가 육성·관련 정보수집 등 신남방 정책의 자생력을 높이면서 선순환 구조방안을 확립하는 데 기여하게 될 것이다.

[그림 1-1] 신남방 문화교류활성화 방안 연구의 목적



제2절 연구 방법

1. 선행연구 분석

신남방(아세안 10개국, 인도) 지역 문화교류에 관한 기존 선행연구는 크게 다음과 같은 세 가지 분야의 내용을 다루고 있다. 1)한국과 신남방 지역 간 정치적·외교적·경제적·문화적 정책 비교연구)[5], 2)신남방 지역, 동북아, 동남아, 아세안 지역연구 및 개별국가와의 협력방안과 국제관계 연구[6], 3)한·아세안 신남방 정책의 현황 및 구체적인 방향과 시사점을 도출하는 연구[7] 등이 그것이다. 이러한 방향성을 대표하는 선행연구는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다.

나승권 외 2인(2018)은 일본 및 중국의 소프트파워 활용사례 분석을 통해 신남방 정책에 있어서 소프트파워를 활용하는 것이 어떠한 역할을 할 수 있는지를 분석하였다. 정부의 신남방정책에서 소프트파워에 대한 중요성을 파악하였고, 소프트파워가 문화콘텐츠·교육·ODA 등의 분야와 연계된 점을 강조하면서 문화콘텐츠를 통한 소프트파워 활용이 신남방정책의 성과를 극대화시킬 수 있을 것으로 예측하였다.

정책기획위원회(2018)[8]는 아세안 지역과의 협력강화를 위한 시스템 구축의 필요성을 지적하였고, 교육 및 문화협력을 통해 우호적인 인재풀과 네트워킹 확대방안이 필요함을 제시한다. 더불어 신남방 지역 수출의 내용을 콘텐츠 및 서비스 등으로 다각화하여 현지수요에 맞는 품목의 개발방안이 필요함을 주장하였다.

---

5) 이혁구(2019). "한국과 대만의 대 (對) 아세안 경제정책 비교". 「비교경제연구」, 26(2), 115-138

6) 최영종(2019). "인도태평양 시대 한국의 '신남방정책'과 새로운 지역주의 전략의 모색". 「동북아연구(구 통일문제연구)」. 34(1). 5-35; 김형종(2013). "한국의 말레이시아 연구 동향". 「아시아리뷰」, 3(2), 107-138

7) 나승권 외 2인(2018). "일본·중국의 소프트파워 정책과 신남방정책에 대한 시사점", 「오늘의 세계경제」. Vol. 18.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우양호(2019). "동아시아 해역공동체를 향한 '신남방정책'의 의미와 평가". 「인문사회과학연구」, 20, 135-175; 국립외교원 외교안보연구소 아세안인도연구센터(2018). 『신남방정책의 전략환경 평가 및 추진방안』(연구책임: 최영종 외 5인); 조대현(2019). "한-아세안 경제협력 성과와 과제: 신남방정책 추진경과와 방향". 「POSRI 이슈리포트」. 포스코경영연구원

8) 정책기획위원회(2018). 『신남방정책 기본 추진전략 연구』.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연구원(연구책임:성백웅)

국립외교원 외교안보연구소 아세안인도연구센터(2018)는 신남방정책의 배경과 비전 및 방향성에 대해 검토하고 사회·문화 분야 협력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공공외교 촉진을 통해 주한 아세안 국가 공관의 역할을 촉진하는 방향으로 문화교류 방안을 제시하였고, 사회문화 협력 일환으로 한류와 같은 문화산업 노하우를 전수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조대현(2019)은 신남방정책에 대한 향후 과제로서 중국, 일본과의 차별화된 협력모델 개발 필요성을 제시한다. 그리고 차별화된 협력모델 일환으로 한류의 경제화를 통한 중견 및 중소기업의 시장진출 확대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최영종(2019)은 미-중 양자 간 대결 구도 속 인도·태평양 지역 차원의 갈등과 분열의 위험성을 극복하기 위해 한국 정부의 신남방 정책의 전략적 의의를 살펴보고 추진현황을 평가하고 있다. 한국정부의 신남방 정책은 '지역주의 전략 2.0'과 함께 동아시아 지역협력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고, 동아시아 공동체 미래비전을 공유하여 한반도 평화정착과 공동번영에 새로운 지역주의 전략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우양호(2019)는 한국 신남방정책의 추진경과와 주요성과를 조사하고, 정책적 관점에서 향후 과제 및 추진방향을 심층적으로 도출하는 연구이다. 이 연구에서는 신남방정책의 지속성과 제도화, 장기적 비전과 전략의 구체화, 협력부문의 확대와 네트워크식 접근, 아세안 내부관계와 현안 지원, 강대국 대외정책과의 조율과 협력, 전문가 및 인재 육성과 지적기반 확대, 국내 여론과 국민적 시각의 환기 등을 제안하여 신남방정책의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김형종(2017)은 국내 아세안 관련 학위논문, 학술논문, 단행본 등을 검토하여 아세안 연구 동향과 특징을 고찰하고 있다. 아세안 관련 연구물의 시기별 연구 추이를 살펴보면, 5년 단위로 지역기구 및 제도, 경제협력, 정치안보, 사회문화, 동아시아, 한-아세안 등 6개 분야로 구분된다. 이 연구는 아세안공동체 정책연구를 넘어 장기적인 관점에서 '아세안학'의 가능성을 모색하고, 정책적·학문적 노력의 필요성을 제시하고 있다.

최근 정책적으로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신남방지역 관련 연구는 많은 경우 신남방 지역을 전체적인 권역으로 평가하여 주로 정치적인 특성과 경제적인 성장 부문, 그리고 우리나라와의 경제적 교류의 성과와 가능성 등을 다루고 있을 뿐 문화교류

를 본격적으로 다루고 있는 연구는 거의 없으며 개별 단위사업으로 언급되고 있는 정도이다. 한국, 동아시아와 동남아 지역의 한류 및 대중 문화연구[9]와 대외문화교류 및 국제문화교류 진흥에 관한 정책연구[10]도 일부 있으나 문화교류적인 측면에서 신남방 지역을 본격적으로 분석한 최신연구는 미흡한 것이 사실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본격적으로 관심이 집중되고 있으며 향후 그 연구수요가 폭증할 것으로 판단되는 신남방 지역과 우리나라와의 문화교류 정책방향을 설정하고 구체적인 정책내용을 수립하는 데 기여하는 연구가 될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2. 전문가 의견조사

본 조사는 신남방 지역 문화교류 정책 관련 전문가 조사에 해당한다. 구체적으로 신남방 지역 문화교류 활성화 방안에 대한 전문가 의견을 수렴함으로써 신남방 문화교류 현황을 명확히 진단하고, 향후 국제문화교류 활성화를 위한 정책 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고자 의견조사를 실시하였다.

전문가 의견조사는 국내 신남방 지역 관련 대학 학과 및 연구소 소속 전문가를 대상으로 서면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총 80명 설문조사지를 발송하여 유효 표본 44개를 확보하여 설문결과를 분석하였다. 구체적인 조사방법은 이메일 발송을 통한 설문조사로 구조화된 설문지에 전문가들이 응답을 기술하는 방식으로 진행하였다. 조사기간은 2020년 6월 22일 ~ 7월 14일(총 23일) 동안 진행되었다.

조사내용은 기존 정부 대비 신남방정책 전반에 대한 견해, 문화교류 관련 기존 정책의 성과와 추진 가능한 사업의 예시와 우선순위, 그리고 향후 신남방 지역과의 문화교류 정책 차원에서 개선되어야 할 사항을 묻는 것으로 구성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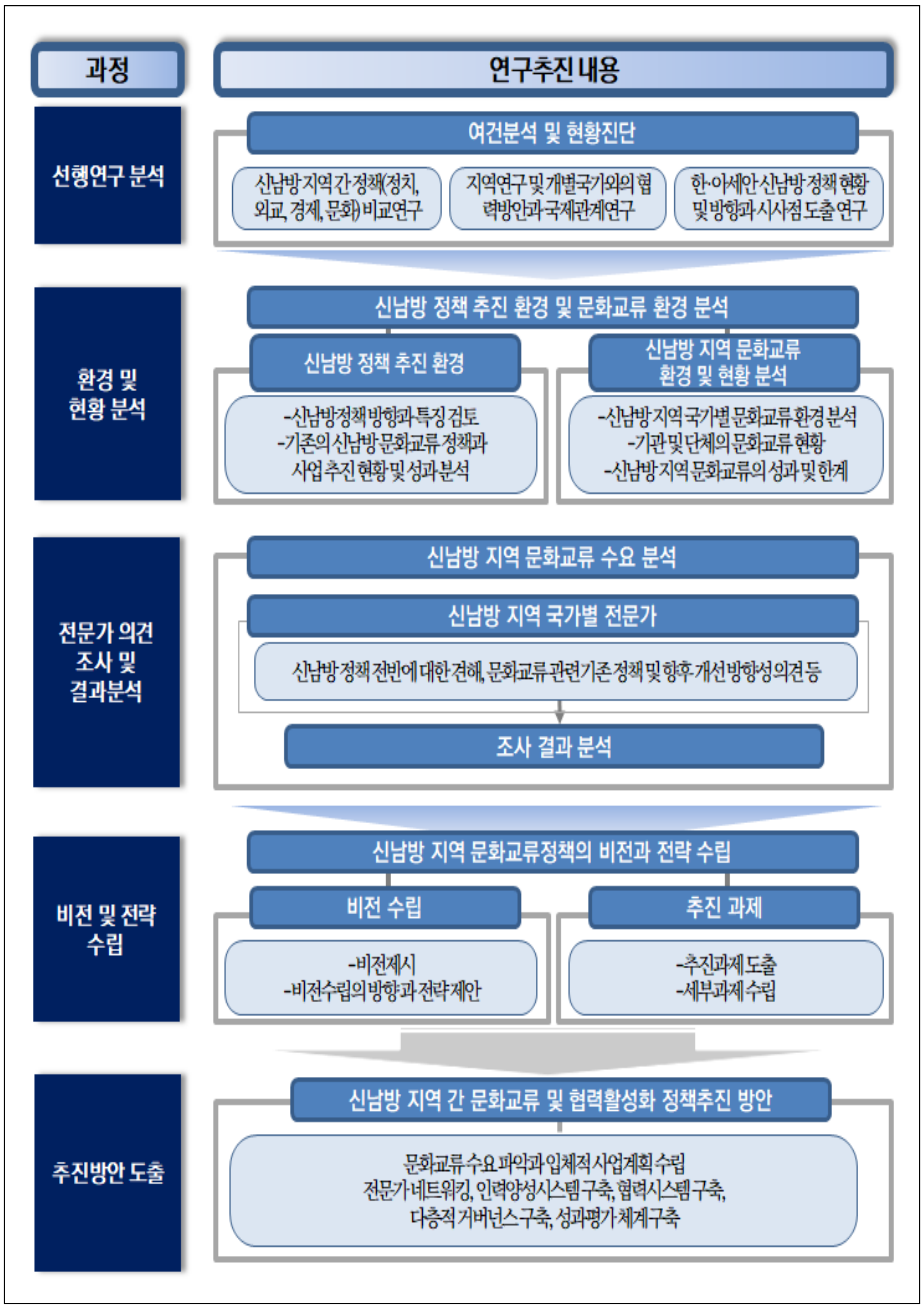
---

9) 심두보(2013). “The Korean Wave in Southeast Asia: The Case of Singapore”.「동남아시아연구」, 23(1), 277-311; 김수정(2012). “동남아에서 한류의 특성과 문화취향의 초국가적 흐름”.「방송과 커뮤니케이션」. 13(1). 5-54; 채향순(2011). “동아시아 사회문화공동체 형성에 따른 무용예술교류의 방향”「한국사회체육학회지」. 46(1). 207-220

10) 문화체육관광부(2010).『대외문화교류 업무의 효율화를 위한 기초연구』. (사)미래정부연구원(연구책임: 김병섭) ; 문화체육관광부(2018).『국제문화교류 진흥 종합계획 수립 연구』. 한국문화관광연구원(연구책임: 김혜인)

3. 연구추진체계

[그림 1-3] 연구추진체계도



제2장

신남방정책 추진 환경

제1절 신남방정책의 방향과 특징

1. 신남방정책의 기본 방향

정부는 2017년 11월 동남아 순방을 계기로 "한-아세안 미래공동체"가 추구하는 지향점을 제시하면서 신남방정책을 천명한 바 있다. 이것은 신남방지역과의 교류와 협력관계를 4개국(미·중·일·러) 수준으로 격상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고, 외교다변화를 통해 중국과 일본의 신남방지역에 대한 영향력 확대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자 하는 것이다.

2015년 개최한 아세안정상회담에서는 ① 고도 통합·연결된 경제권, ② 경쟁력·혁신성 강화, ③ 연계성 강화, ④ 포용성·인간 중심성 강화, ⑤국제화 등 추진목표를 합의한 바 있고 나아가 2017년 신남방정책의 비전에서는 3대 목표, 16대 과제를 설정하고 있다.

문재인 정부의 신남방정책은 사람(people), 번영(prosperity), 평화(peace) 등을 기본원칙 3P로 제안하였다. 즉 이것은 국가를 구성하는 사람을 위한 협력과 공동체의 평화와 번영을 최우선으로 한다는 의미이다. 여기서 말하는 '번영'은 한국과 아세안의 상호번영을 의미하는 것이다. 과거 한국정부가 아세안을 경제성장의 수단이나 대상 정도로 간주하였다면, 현재의 아시안이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것은 물론 이거니와 문화잠재력 또한 높아 이들과의 적극적인 교류가 상호 간 발전의 시너지 효과를 창출할 수 있다는 점에서 신남방정책의 상호발전성을 강조하고 있다. 따라서 아세안과 한국이 상호 간 그리고 아시아 지역 공동체 전체의 평화를 정착시키고 이를 통해 각국의 번영을 달성할 수 있는 선순환 구조를 정립해야 할 필요가 있다. 지속가능한 평화는 사회적 안정은 물론이고, 상호 간 경제적 번영을 보장해 주는 기본적인 토대가 되기 때문이다.

문화체육관광부는 '2019 한·아세안 특별문화장관회의'[11]를 광주 국립아시아문

화전당에서 개최하고 한-아세안의 문화예술 협력방안 및 비전을 논의하였다. 이 회의에서는 상호문화이해, 공동창작, 문화예술기관 간 협력강화, 문화산업 교류, 문화유산 보존·활용 등 다양한 분야에서 한·아세안 간 폭넓은 협력을 위한 방안을 논의하였다. 문체부는 신남방 정책과제 중 하나인 한-아세안 쌍방향 문화교류 확대 등을 위해 다양하고 구체적인 문화분야 협력사업을 제안하고, 광주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이 아시아 현대 문화예술 교류와 창작의 장이자 한-아세안 문화협력을 위한 핵심기관으로서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요청하였다. 그 중 대표적인 협력 제안사업으로는 현재 활발하게 논의되고 있는 한-아세안 간 영화 협력 촉진을 위한 기구 설립, 세계유산 등재협력·약탈 문화재 환수 공동 대응 등을 위한 아시아-태평양 문화유산 협력기구 신설, 한국의 우수한 정보통신기술(ICT)을 기반으로 하는 아세안 문화유산 활용 콘텐츠 개발 등을 꼽을 수 있다.

〈표 2-1〉 한-아세안 협력사업(안)

분야	협력(안)
상호문화이해 증진	상호문화교류의 해 개최
	아시아문화주간
	한·아세안 문화정체성, 협력증진 포럼 개최
공동 창작 활성화	한·아세안 예술가/단체 협력 공동 지원 논의
	한·아세안 청년예술가 창작 워크숍
	전통음악인 레지던시
문화산업 협력	문화산업교류행사 상호 협조
	한·아세안 영화기구 설립
	저작권 인식제고 및 보호 공동노력
문화유산 보존·활용 협력	아태 문화유산 협력 기구 신설
	정보통신기술(ICT) 기반 문화유산 보존·활용 협력
문화예술기관 협력 강화	국립박물관·미술관·도서관 교류·협력 확대

출처: 문화체육관광부 내부 보고자료

11) 이 행사는 한·아세안 대화관계 수립 30주년을 기념해 열리는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보다 약 한 달 앞서 열리면서 한·아세안 문화예술분야 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사전 대화의 장을 마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 것임. 이에 문체부는 아세안과의 관계를 한반도 주변 4대국(미국, 일본, 중국, 러시아) 수준으로 끌어올리기 위한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아세안 10개국 문화장관을 한국으로 초청해 한·아세안 특별문화장관회의를 개최한 것임

2. 신남방정책의 3대 비전과 목표 및 16대 과제[12)]

가. 'PEOPLE'

'사람공동체'라는 비전에서 강조하는 것은 교류 증대를 통한 상호이해 증진을 제고한다는 의미로, ① 신남방지역의 방한 관광객 확대(중국과 일본에 집중된 방한 관광객을 신남방지역 국가로 다변화하여 국내 관광시장을 활성화하는 것을 목표로 함), ② 신남방지역과의 쌍방향 문화교류 확대(문화교류 거점 확충 및 문화ODA 사업(아세안 문화·언어 콘텐츠 확산 등 아세안에 대한 인식 개선 등이 추진됨), ③ 신남방 지역 학생, 교원, 공무원 대상 인적자원 역량 강화(장학생 지원사업 및 대학생 초청연수 등을 통한 학생교류 및 공무원 연수 규모 확대 등 추진), ④ 공공행정 역량 강화 지원으로 거버넌스 증진에 기여(공공행정 경험을 공유하여 신남방 지역의 지속적인 협력수요 충족 및 시민사회 교류를 통한 민주적 가치 증진), ⑤ 상호 간 체류 국민의 권익보호 증진(신남방 지역 노동자의 한국 내 조기적응 및 귀국 후 재정착 지원, 다문화 취약가정 여성·아동 지원), ⑥ 신남방 국가의 삶의 질 개선(빈곤퇴치 및 자립역량 강화를 위한 새마을운동 등 농촌개발 사업 추진 및 보건 의료 개발 협력을 통한 질병 대응역량 강화) 등을 과제로 제시하고 있다.

나. 'PROSPERITY'

'상생번영공동체'라는 비전에서 강조하는 것은 호혜적이고 미래지향적인 상생의 경제협력 기반을 구축하고자 하는 것으로, ⑦ 무역·투자 증진을 위한 제도적 기반 구축(아세안 역내 추진 중인 지역 및 다자·양자 간 자유무역협정 공동모색), ⑧ 신남방 지역 내 연계성 증진을 위해 추진 중인 인프라 개발 적극 참여(교통·에너지·수자원 등 중점분야 협력을 통해 우리 기업의 신남방 지역 인프라 개발사업 진출 지원), ⑨ 중소·중견기업의 시장진출과 상호 교류활동 지원(우리기업의 신남방지역 내수시장 진출지원 및 농·수산 (K-Food, K-Seafood), 미용(K-Beauty) 등 유망시장에 대한 진출 지원 확대, ⑩ 신산업 및 스마트 협력(글로벌 개방형 혁신 플랫폼 구축 및 한·아세안·인도 간 4차산업 혁명 공동대응을 위한 과학기술·신산업 협력), ⑪ 신

12) 신남방정책 특별위원회(http://www.nsp.go.kr/policy/policy02Page.do)

남방 각 국가별 맞춤형 협력(각국의 협력 필요에 따라 농·수산업, 자동차·철강·석유화학 등 기간산업의 고부가가치화를 위한 맞춤형 협력모델 적용) 등을 세부과제로 제시하고 있다.

다. 'PEACE'

'평화공동체'라는 비전에서 강조하는 것은 평화롭고 안전한 역내 안보환경을 구축하는 것으로, ⑫ 신남방국가들과의 정상 및 고위급 교류 활성화(아세안 10개국 정상 방문, 2년마다 인도와 상호 정상 방문 등), ⑬ 한반도의 비핵화 및 항구적 평화체제 구축(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인 평화정착, 남북/미북관계 개선을 선순환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아세안 국가의 지지 및 저변 확대), ⑭ 포괄적인 국방·방산 협력(한-아세안 국방 협의체 활성화 등 국방 채널 간 고위급 교류 확대, 방산기술 이전, 현지 생산 등 포괄적 협력 추진), ⑮ 테러·사이버·해양 안보(테러 및 폭력적 극단주의, 사이버 범죄 등에 공동으로 대처하고, 해양 테러와 쓰레기 등 환경 문제 등 안보 관련 주요 이슈 공동 대응), ⑯ 긴급사태 예방 역량과 신속 대응 및 복구 역량 강화(분쟁, 자연재해 및 기후변화 취약 지역에서의 재난 예방 및 대응 역량 강화 등 신남방지역 복원력 향상 지원)이라는 세부과제를 제시하고 있다.

총 16개 신남방정책 주요 과제 중 문화와 관련된 것은 앞의 3가지 과제, 즉 관광교류, 문화교류, 인적교류 부분이다. 본 연구는 이 중에서 특히 두 번째 과제인 신남방 지역과의 쌍방향 문화교류 확대 부분을 중심으로 연구가 진행될 것이다. 특히 문화교류 거점 확충 및 문화 ODA 사업, 아세안 문화·언어 콘텐츠 확산 등 아세안에 대한 인식 개선 등을 중심으로 추진 가능한 관련 정책과제와 사업 등을 제시할 것이다.

3. 신남방 지역과의 교류 추진 체계 및 방향성

가. 신남방지역과의 교류 추진 체계

아세안 공동체는 인구 6억3천만 명으로 중국과 인도에 이어 3번째로 인구수가 많은 지역이다[13]. 신남방 지역은 일반적인 자본주의 발전단계를 따르지 않고 전통

산업에서 디지털 경제로 빠르게 이동하고 있음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아세안 국가 간 우수인재 및 기술교류 확대, FTA 등 제도적 기반 확충, 상생협력의 플랫폼 구축, 대형 경제협력사업 발굴, 국방 및 방산 분야 협력 강화 등 중점 협력사업을 국가적 차원에서 논의하고 있다.

외교부는 2019년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를 계기로 캄보디아, 라오스, 미얀마, 필리핀, 베트남 등 아세안 5개국과 신남방 ODA 전략을 추진하기 위한 구체적인 이행방안을 담은 양해각서(MOU)를 체결하기도 하였다. 이 양해각서에 따라 한국과 아세안 5개국은 신남방 ODA 전략 5대 프로그램으로 ① 포용적 개발을 위한 디지털 파트너십, ② 더 나은 미래를 위한 고등교육, ③ 한-메콩 미래 평화공동체 조성, ④ 자연과 사람이 함께하는 스마트 도시개발, ⑤ 균형성장을 견인하는 포용적 교통을 추진하기로 합의하고 관련사업을 통해 상호 간 개발협력을 확대해 나가기로 하였다[14].

신남방 ODA 5대 프로그램 이행을 촉매로 하여 정보통신기술(ICT), 대학 간 교류, 스마트 기술 및 교통 인프라 등의 분야에서 한-아세안 교류협력이 더욱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외교부는 한국국제협력단(KOICA) 및 국내 여타 ODA 시행기관과 긴밀한 협의를 통해 구체적인 협력사업을 발굴·추진하고, 이를 통해 한-아세안 '평화를 향한 동행, 모두를 위한 번영'에 기여해 나갈 것이다. 정부는 2022년까지 아세안에 대한 ODA 예산을 2.5배 증액[15]하고자 하며, 3P(People, Prosperity, Peace) 전략과 연계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그리하여 각종 전담조직이 조직되었는데, 대표적으로 신남방정책의 범정부 컨트롤타워인 '신남방정책특별위원회(이하 '신남방위원회')'는 정책기획위원회 산하 특별위원회로서 한국 아세안 미래공동체를 구현하고자 구성되었다[16]. 동 위원회의 지원기구인 "신남방정책추진단"도 15개 부처 파견 인원으로 조직되어 운영 중이다. 2018년 말에는 신남방 지역현장에서 총괄 및 조정 거점공간으로서 "주아세안 대표부"의 역할이 확대되었다. 2019년 6월에는 '신남방정책특별위원회 민간자문단'이

13) 이재현(2018). "Zoom In : 외교 다변화로 위기 극복…신남방정책 날개 편다". 「통일의길」. Vol. 409. 평화문제연구소
14) 연합뉴스(2019.11.25.). "정부, 베트남 등 5개국과 '신남방 ODA' 양해각서 체결"
15) 2019년 6145억, 2020년 7701억 원
16) 2018. 8. 28. 현판식을 개최하였음

출범하였고, 여기에는 국립외교원, KIEP, 한국동남아연구소, 한국동남아학회, KF 등 민간전문가들과 시민단체가 참여하고 있다. 또 정부부처와 재외공관과의 유기적 협력을 통해 신남방정책의 추진전략을 구체화하고 대표사업을 발굴하는 등 가시적 성과가 도출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신남방 비즈니스 데스크'는 기업들이 가장 필요로 하는 전문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구성되었다. 이 조직은 기업간담회, '신남방 비즈니스 연합회' 등을 통해, 국내에서 신남방 진출을 전담하여 지원하는 조직을 만들어 달라는 업계의 요구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2019년에 결성된 민관합동 기업지원 협의체이다. 무역협회(회장사)를 비롯 경제단체와 업종별 협력단체가 참여(총 25개)하며, 신남방정책추진단과 KOTRA가 간사역할을 하고 있다.

나. 신남방 문화교류 정책의 방향성 검토

신남방 정책에 대한 정부의 추진의지는 기존에 상대적으로 소외되었던 지역에 대한 국가적 관심이 대두된 지정학적 상황과 그 맥을 같이 한다. 국제적 정세에서 우리나라의 위상이 과거에 비해 급격히 높아지면서, 신남방정책의 본격적 추진은 기존의 선진국 중심 정책 일변도에서 방향을 전환하는 중요한 터닝포인트라고 볼 수 있다.

사실 동남아 지역은 정부에서 지금까지는 상당부분 경제적 이윤창출의 매개 또는 수단으로서 '활용'되는 대상으로 여겨왔으나 현재 그러한 프레임 변화가 빠르게 일어나는 중이다. 다시 말해, 저렴한 인건비 대비 상대적으로 우수한 노동력을 활용하여 우리나라의 기업생산비 절감 지역으로 간주하여 경제적 이윤을 얻어내는 전략적인 지역으로 활용되던 지역에서, 서로 상생하는 지역으로 지역을 이해하는 인식 패러다임의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 즉 '수단'이나 '대상'으로서가 아니라 '파트너'로서 '상생'하는 협력국가(지역)로 한국 정부가 이러한 관계적 위상 변화를 적극적으로 주도하겠다는 의지의 표명인 것이다.

물론 정부에서도 경제적 교류 일변도의 추진방향으로부터 문화예술, 문화산업, 관광, 스포츠 등 다각적인 분야로 정책내용의 질적인 변화를 추동해야 한다는 명분이나 당위성은 암묵적으로 인정하고 있기는 하다. 하지만 실제 현재 실행 중인 각 부처의 신남방정책에서 이러한 질적인 변화에 대한 고려가 부족한 실정이다. 현재와 같은 경제정책 중심, 국가별 다양성이 고려되지 않은 신남방정책은 상당한 시행

착오를 겪다가 일회성 이벤트 정책에 그칠 위험이 높다. 경제적 교류나 상생의 원칙도 해당 국가의 전통과 문화, 규범과 밀접한 관계를 갖기 때문에 총체적인 문화적 이해 없이 신남방정책을 추진하게 되면 지속가능성을 보장할 수 없게 된다.

또한 외면적 성과뿐 아니라 질적인 수준에서 관계설정의 변화를 적극적으로 유도하고자 하는 정부의 인식변화가 성과로 드러나기 위해서는 추진방향과 틀이 초기에 설정되어야 함에도 현재 명확한 방향성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 정치, 경제, 문화가 동일한 레벨에서 기계적으로 배치되어 있을뿐더러 문화 쪽은 비중이 상당히 미미한 것이 사실이다. 특히 '신남방위원회'의 실제 업무내용도 거의 경제교류 위주로 기존의 경제교류를 이미 담당하고 있는 산업부나 코트라의 역할을 대리하는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 게다가 정부 부처 간, 위원회 간에 업무가 중복되면서 신남방국가와의 문화교류사업 추진에 비효율성이 발생하고 있다.

특히 문화정책의 경우 '신남방 지역'으로 통칭하기 어려울 정도로 각 국가와 지역의 역사와 문화, 전통과 관습, 종교 등이 상당히 다양하다. 따라서 이러한 각 국가별 특수성을 사업기획 시 섬세하게 고려하는 것이 필요함에도 실질적으로 정책에는 이러한 측면을 적용하지 못하는 실정이다. 이것은 신남방 지역 국가의 사회문화에 대한 이해가 우선되어야 한다는 것인데, 개별 국가에 대한 분석을 통해 국가 간 공통점과 차이점을 파악하고, 각 국가가 실제로 우리나라와의 교류에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수요파악을 통해서 정책 분야의 우선순위를 정해야 할 것이다.

또 해당 국가의 국민을 대상으로 교류의 실질적인 수요파악이 우선되어야 할 것이다. 해당지역 구성원들이 문화교류에 관해 실제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또는 실제로 그들은 우리와 적극적인 교류를 원하는지, 그들이 지향하는 바와 우리가 지향하는 바의 차이점은 무엇인지, 그리고 그러한 차이점은 어떻게 극복하여 교류를 성공적으로 이끌어낼 수 있는지에 대한 사전 분석이 우선 필요하다.

신남방 지역은 각국의 사회적 맥락과 문화적 환경에 대한 관심과 이에 기반한 정책적 전략이 필요하다. 특히 문화영역이 정치나 경제의 하위 분야로 다루어질 것이 아니라 별도의 영역으로 분류해 섬세한 정책 로드맵을 구축해야 한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야만 세부 정책과제 및 사업이 도출될 수 있을 것이다.

제2절 한국의 국제문화교류 정책 추세 및 문제점

1. 한국의 국제문화교류 정책 현황 및 개요

국제문화교류 분야는 소위 문화의 전 분야를 아우르고, 이의 시행은 다양한 공공 및 민간의 범주를 포함한다. 그리하여 국제문화교류의 핵심적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다양한 문화예술관련 전문기관들이 사업단위의 다양한 활동을 추진하고 있으나 이러한 복잡성으로 문화체육관광부(2017)[17]는 전체 기관에서 개별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국제문화교류 정책사업 분석에 한계를 제시한다.

본 연구는 정책적 방향성을 설정하는 데 목적이 있으므로 주로 공공, 특히 중앙정부 및 산하기관과 비영리기구 및 국제기구와 같이 공공의 성격을 갖는 기관을 중심으로 현황을 분석하고자 한다. 중앙정부 중에서도 '국제교류'의 중심역할을 수행하는 외교부와 '문화교류'의 핵심부처인 문화체육관광부의 정책과 사업을 중심으로 국제문화교류 현황을 파악해본다. 이와 더불어 부수적으로 중앙정부 산하기관[18] 및 문화예술관련 NPO, NGO, 국제기구와 같은 민간기구에서 추진 중인 국제문화교류와 관련한 직간접적인 정책 및 사업현황을 살펴보는 것이 큰 분석의 축이 된다.

또 본 절에서 각 기관이 수행한 각종 국제문화교류정책 및 사업이 어떠한 내용 위주로 선별되고 실행되는가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국제문화교류사업의 유형을 분류하는 것이 필요하다. 선행연구인 문화체육관광부(2017)[19]에서는 국제문화교류 세부 활동을 크게 작품교류[20], 공동프로젝트[21], 국제행사 참여[22], 학술/정책/인적

17) 문화체육관광부(2017). 『국제문화교류 지표개발 기초연구』. 한국문화관광연구원(연구책임: 김혜인)
18) 문화예술관련 전문기관, 문화예술 NPO, NGO, 국제기구, 중앙정부와 지역정부 산하의 문화재단, 한국문화예술위원회, 한국콘텐츠진흥원, 서울문화재단, 문화예술재단 등이 직·간접적으로 관련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음
19) 문화체육관광부(2017). 『국제문화교류 지표개발 기초연구』. 한국문화관광연구원. 65-66(연구책임: 김혜인)
20) 완성형 작품 중심교류를 말하는 것으로 공연 및 전시 작품교류, 문화재교류 등이 포함됨
21) 프로젝트 협력형 교류로, 공연, 전시, 행사 등의 공동기획 및 제작 등 프로젝트 협력형 교류를 말함

교류[23], 기반조성[24], 문화홍보[25]와 같이 5개의 유형으로 나누고 있다. 이 절에서 파악하고자 하는 각 기관의 사업내용을 위 5개의 유형구분을 통해 어떠한 사업들이 주로 수행되어 왔는지 그 비중을 파악하는 데 활용하고자 한다.

결국 한국의 주요기관 위계별 국제문화교류의 현재 상황을 검토함으로써 궁극적으로는 우리나라의 국제문화교류가 갖는 특수성과 한계, 문제점을 보완할 수 있는 방향성을 제언한다. 그 방향성이란 결국 신남방국가를 대상으로 하는 국제문화교류 정책 및 사업에도 해당되는 것으로, 신남방국가의 국제문화교류정책이 거시적 관점에서 한국의 국제문화교류가 지녀야 할 방향성을 따를 뿐 아니라 한편으로는 신남방 국제문화교류정책이 한국의 국제문화교류 경향에 새로운 돌파구를 제시하는 계기가 되도록 그 구체적 방법과 전략을 제시하는 것이 본 연구가 갖는 의의인 것이다.

최근에 각 기관에서 수행하고 있는 국제문화교류의 양상은 기관의 특성에 따라 조금씩 그 역할이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예를 들어 중앙정부인 외교부과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수행하는 정책 및 사업은 국가 차원에서 정책이나 의제를 합의하거나 진흥을 위한 정책협력의 성격을 갖는 반면, 정부 산하기관 및 공공기관은 민간교류사업에 대한 지원이나 주관자로서 다양한 사업을 개발하여 추진하는 역할을, 국제기구 및 비영리단체의 경우 소규모 프로젝트 단위의 현장밀착형 사업을 실시하고 중앙정부의 지원을 받는 수혜집단이 된다[26].

2. 한국의 국제문화교류 특징과 방향성

국제문화교류의 영역은 학자별로 상이하지만, 문화정책 집행을 위한 법조항을 기준으로 나누어보면 다음과 같이 문화예술, 전통문화, 언어, 스포츠 총 5개 영역으로 분류되고, 각 영역의 포함분야는 다음 〈표 2-2〉와 같다[27].

---

22) 전시/공연물 발표 등을 통한 교류를 말하는 것으로 국제아트마켓, 수교행사, 페스티벌, 축제 등이 포함됨
23) 인적교류를 말하는 것으로 국제심포지움, 펠로우십, 전문인력 파견, 장단기연수, 레지던시 참여 등을 말함
24) 국제문화교류 확장을 위한 국제네트워크/플랫폼 구축, 해외시장진출 인프라 구축, ODA형 교류 등을 말함
25) 한국문화 및 유산보존과 관련된 것으로 전통문화홍보, 한국어 교육 등이 포함됨
26) 문화체육관광부(2017). 『국제문화교류 지표개발 기초연구』. 한국문화관광연구원. 65-66(연구책임: 김혜인)
27) *ibid.*, 66-67

〈표 2-2〉 국제문화교류 영역별 세부 분야

영역	포함 분야
문화예술	문학, 미술(응용미술 포함), 음악, 무용, 연극, 영화, 연예, 국악, 사진 건축
전통문화	유형문화재, 무형문화재, 한식, 한복, 한옥, 한지, 국악
문화산업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제1장 제2조 제1항에 명시된 모든 산업
언어	〈국어기본법〉 제1장제3조에 포함되는 한국어 관련 사업
스포츠	〈스포츠산업 진흥법〉 제2조에서 규정하는 범위에 속하는 모든 종목 및 관련 학문분야

국제문화교류 정책 추진성과와 추진계획의 검토에 앞서 우선 한국의 국제문화교류 정책의 특징과 방향성에 대해 논의할 필요[28]가 있다. 한국의 국제문화교류 정책은 그 활동에 있어 재정, 인력, 인프라 그리고 직접교류로 분류하여 그 특징을 제시했는데 정책 수단의 특징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국제문화교류 활동에 있어 재정 지원은 국내외 문화예술기관이나 예술단체, 콘텐츠 제작자나 기업 등을 대상으로 보조금을 교부하고 필요 경비를 지원하는 형태로 이루어진다. 둘째, 인력지원은 각 영역별 전문성을 갖춘 인력의 양성, 기존 전문가 능력 심화를 위한 연수 개최, 지원, 파견 등의 수단이 활용되고 있다. 셋째, 인프라 지원은 국제문화교류 관련 정보자원의 구축, 국내외 유관 네트워크 및 플랫폼 구축 등이 이루어지고 있다. 넷째, 직접 교류 분야는 주로 문화홍보 및 언어교육 분야에서 집중된다. 세종학당, 문화원 등이 매개역할을 하고, 재외공관, 현지 협력기관 및 단체 등이 주체로 나서는 경우가 많다. 국제문화교류의 핵심 추진목표는 협력의 국제문화교류, 다양한 권역과 소통, 세계 속 문화적 존재감 향상, 전문성 제고 그리고 지역의 국제문화교류를 제시하였다.

국제문화교류와 관련한 법률과 정책은 2007년 국제문화교류 법제화가 그 시작이다. 2017년 3월 21일 문화체육관광부는 국제문화교류 기반조성과 국가 간 상호문화에 대한 이해 증진, 세계문화 발전에 한국문화가 기여하기 위해 '국제문화교류진흥법'을 제정하고 2018년에는 해당법 제2조를 개정하여 기존에 문화교류 대상이었던 문화/예술/관광분야에 더해 체육분야도 중요한 국제문화교류의 대상으로 포함되도록 하였다. 더욱이 종합계획과 실천계획 수립을 의무화함으로써 국제문화교류 사업이 정부 차원에서 총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었다. 이와 결부하

28) *ibid.,* 541

여 해외문화홍보원 운영, 해외한국문화원 확대, 세종학당 설립 운영, 국제문화교류 전담기관 지정, 국제문화교류정책협의회가 구성되어 운영되었다.

3. 부처 및 기관별 국제문화교류 정책 현황 개요

가. 문화체육관광부[29]

'국제문화교류진흥법'이 2017년 제정된 이후 국제문화교류 정책 추진에 있어 가장 뚜렷한 변화는 국제문화교류 사업이 문화체육관광부에 의해 체계적으로 기획되고 관리된다는 점이다. 국제문화교류 사업을 종합적으로 관리하는 책임관을 두었고, 이의 보좌를 위한 각 분야별 담당관을 둔다. 2020년부터는 산하기관인 '한국국제문화교류진흥원'을 전담기관으로 지정해 운영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하였다.

2017년에는 중장기 법정계획인 '제1차 국제문화교류 진흥 종합계획(2018~2022)'를 발표[30]해 일회적이고 단편적인 국제문화교류 체계를 지속가능한 방향으로 틀을 잡기 위한 것이다[31]. 이 계획의 3대 정책목표는 체계적 문화교류 지원, 국제문화교류의 자율성 강화, 지속가능한 문화교류 생태계 조성이며, 4대 추진전략으로 1) 국제문화교류 진흥 체계화[32], 2) 국제문화교류 대상의 다양화[33], 3) 지역과 민간의 국제문화교류 활성화[34], 4) 국제문화교류 기반조성[35]으로 설정했다. 그리고 이에

---

29) 문화체육관광부(2019). 『2019 문화예술정책백서』: 문화체육관광부(2020). 국제문화교류진흥 시행계획

30) 2020년에는 이 계획에 대한 시행계획으로서 '국제문화교류진흥 시행계획'을 문화체육관광부에서 발표함

31) 이와 별도로 문화체육관광부가 2018년에 발표한 '문화예술교육종합계획(2018~2022)'에도 일부 국제교류 관련 문화예술 교육내용이 수록되어 있음

32) 국제문화교류 진흥 체계화 전략은 국제문화교류 활성화를 위한 기반조성과 지원체계를 구축하는데 목적이 있음. 대표사업은 '재외문화원 국유화를 통한 시설 개선', 러시아 문화원의 리모델링 공사착공, 필리핀 문화원 리모델링 공사, '재외한국문화원 신설 및 확충'이 대표적임

33) 국제문화교류 대상의 다양화 전략은 국제문화교류 활성화를 위한 기반을 조성하고 지원체계를 구축하는데 목적이 있음. 대표사업은 '북방지역 문화 공적개발원조(ODA) 협력 강화', 2020년에는 문화동반자 신남방·신북방 참여 확대, 네트워크 강화 및 지속교류를 위한 해외동창회('16년(베트남, 인도네시아, 필리핀), '17년(태국), '18년(미얀마), '19년(몽골), '20년(우크라이나, 예정))관리사업, '동아시아문화도시 협력 강화', '해외 공공도서관 조성' 사업 등이 있음

34) 지역과 민간의 국제문화교류 활성화 전략은 지자체의 우수 문화자원 발굴 및 국제문화교류 역량을 강화하는데 목적이 있음. 지자체의 우수 국제문화교류 사업을 공모하여 관련 사업비와 전문가 자문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대표사업은 '해외 레지던스 프로그램 참가 지원 확대', 미국, 영국, 프랑스 등과 각각 지정형 레지던스, 주영한국문화원 공동 기획프로그램 추진, 몽펠리에 국립안무센터와 MOU, '2020 예술가 해외 레지던스 지원' 사업, '국제문화교류 협의체 운영'이다. 주한 외교단, 국내 유관기관 및 지자체로 구성된

대한 17개 세부추진과제, 39개의 세부사업이 시행될 예정이다.

이는 문화체육관광부의 국제문화교류정책의 방향성을 검토하고, 나아가 구체적이고 실증적인 사례를 살펴보는데 유용하다. 특히 기존에 문화체육관광부(2017)에서 제시한 국제문화교류의 5가지 핵심 추진목표와 이 계획에서 제안하는 추진전략은 서로 상응하는 것을 알 수 있다([그림 2-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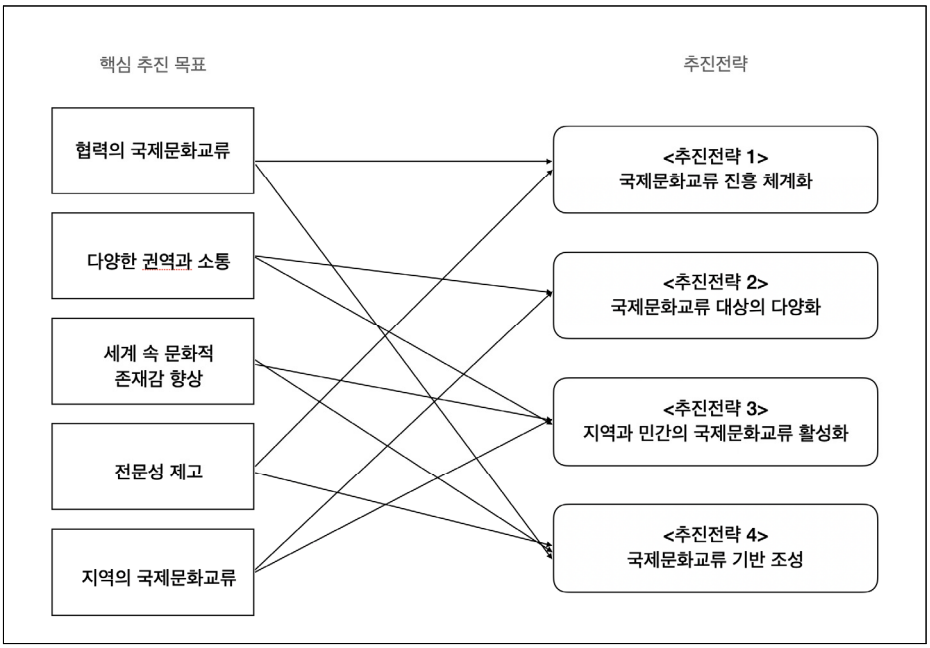
문화체육관광부의 2019년 사업을 본 절 서두에 분석기준으로 설정한 국제문화교류 세부 활동 유형분류를 바탕으로 사업을 재분류해보면, '작품교류'나 '공동프로젝트' 유형의 사업을 직접적으로 기획해 실행하기보다는 국내외 문화예술기관이나 예술단체, 콘텐츠 제작자나 기업 등을 대상으로 문화자원 교류, 발굴사업에 보조금을 교부하고 필요 경비를 지원하는 형태로 이루어지는 것을 알 수 있다. 예를 들어 '해외창작 레지던스 프로그램 참가지원 확대사업[36]'은 해외에 레지던스를 건립하고 대상국과의 교류를 활성화하는 데 목적이 있다. '국제행사 참여'사업은 '한중일 문화관광장관회의', '제40회 유네스코 총회 계기 문화장관회의' '헝가리 수교 30주년 기념 문화행사', '한-브라질 수교 60주년 기념 문화행사', '폴란드 수교 30주년 기념 행사', '한-필리핀 상호문화교류', '한-아세안 특별문화장관회의', '한-덴마크 상호문화교류의 해', '파리 코리아 센터 개원' 등이 있다. 특히 '동아시아문화도시 협력강화'로 한중일 간의 개·폐막식 공동개최, 문화행사 수시 추진, 동아시아문화도시 공모 및 선정작업을 공동으로 수행 중이다. '인적교류' 유형사업은 국제문화교류 전문인력 해외기관 파견 지원, 프로젝트 추진, 교육과정 운영 등이 있다.

국제문화교류 협의체 운영 등이 있음

35) 국제문화교류 기반 조성 전략은 전문인력 양성을 통한 국제문화교류 기반 강화 및 활성화를 추진하는데 목적이 있음. 국제문화교류 전문인력 해외기관 파견 지원, 프로젝트 추진, 교육과정 운영 등이 주요한 사업내용임. 대표 사업은 '국제문화교류 종합정보시스템 운영' 국제문화교류 종합정보시스템인 '문화로'를 구축 운영, 28개 유관기관 정보연계 네트워크 구축, 유관기관 국제문화교류 사업 정보 취합 및 DB 제작과 정보연계 확대, 온·오프라인 홍보물 제작 및 배포, 정보저작권 및 개인정보관리사업, '국제문화교류 실태조사'가 있음

36) 대표사업은 '해외 레지던스 프로그램 참가 지원 확대'가 있다. 본 사업은 예술가의 해외 창작 레지던스 프로그램 참가 지원을 통해 우리 예술가의 창작역량 강화 및 한국예술의 국제교류 네트워크 기반을 확대하는데 목적이 있음. 2019년에는 예술위, 레지던스 기관 간 협력을 위해 21개국 26개소를 운영하여 창작거점을 확보함. 2020년에는 중장기적 성과 창출을 위한 신규 레지던스 기관 및 국가 발굴을 추진 중임. 미국, 영국, 프랑스 등과 각각 지정형 레지던스, 주영한국문화원 공동 기획프로그램 추진, 몽펠리에 국립안무센터와 MOU를 추진 중임. 또한 '2020 예술가 해외 레지던스 지원' 사업을 통해 정책의 연속성을 유지하고 있음

[그림 2-1] 국제문화교류 핵심 추진 목표와 추진전략의 상응관계



'기반조성형' 유형으로는 주한 외교단, 국내 유관기관 및 지자체로 구성된 '국제문화교류 협의체'를 운영, 통합 워크숍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주한외교단, 문화예술센터, 국제축제, 공연·전시단체 간 정보공유 및 업무협력을 위한 플랫폼을 구축 중이다. 또 국제문화교류 종합정보시스템 운영시스템 '문화로'를 구축하고 28개 유관기관 간 국제문화교류 사업 정보 취합 및 DB 제작과 정보연계 확대, 온·오프라인 홍보물 제작 및 배포, 정보저작권 및 개인정보관리방안 등의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국제문화교류 관련 공공기관·민간기관의 활동 및 사업 현황, 공공기관의 지원 실태, 전문인력 현황, 국제적 동향 파악과 같은 통계정보를 체계화하는 '국제문화교류 실태조사[37]'사업도 수행한다. 정보구축뿐 아니라 물리적 인프라 구축사업도 기반조성 사업에 포함되는데, 유럽에 설치한 파리코리아센터 건립, '재외문화원 국유화를 통한 시설 개선', '재외한국문화원 신설 및 확충'이 있다.

특히 문화ODA유형의 사업도 적극적으로 지원하는데, '북방지역 문화 공적개발

37) 2019년에는 국가승인통계 작성을 위한 예비심사가 승인되었고, 2020년 3월에 국제문화교류 실태조사 계약이 체결되었음. 이후 동년 11월까지 실태조사가 진행 중임. 결과 분석 및 활용 방안 검토와 국가통계 승인 신청이 2020년에 이루어질 예정임

원조(ODA) 협력 강화' 일환에서 문화동반자 신남방·신북방 참여 확대, 네트워크 강화 및 지속교류를 위한 해외동창회[38]의 지속적 관리사업이 있다. '해외 공공도서관 조성' 사업도 문화ODA사업으로 볼 수 있는데 개발도상국에 도서관 환경 개선과 교육 콘텐츠, 한국문화를 소개하는 내용으로 2020년에는 하노이시립도서관(어린이도서관)개관을 준비 중이다.

나. 한국국제문화교류진흥원[39]

한국국제문화교류진흥원은 2018년에 국제문화교류진흥법이 시행되면서 국제문화교류 전담기관으로 법적으로 지정되었다. 이 기관은 향후 국내외 유관기관과 지역 및 민간에서 수행하는 국제문화교류활동의 네트워크 중심 역할을 수행하고 다양한 국제문화교류 기획, 연구, 인력양성 역할을 목표로 한다.

이 기관에서 수행하는 다양한 사업들을 내용유형별로 분류해보면 '작품교류' 유형으로는 해외의 우수한 영상물을 한국에 방영하고 한국의 영상물도 다른 국가에 무상보급해 한국문화를 알리는 '세계영상물교류사업이 있다. '공동프로젝트' 유형으로는 한류가 유행인 동남아 지역 및 미주, 유럽 지역에 한국 대중문화를 알리는 다양한 문화행사를 기획하는 사업이 중심이 되고 있으며, 부가적으로 쌍방 국가의 전통 및 현대문화예술을 접목한 문화행사도 기획하고 있다. '국제행사 참여' 유형의 사업은 아직 사업이 미미하다.

'학술/정책/인적교류'유형의 경우 '문화산업 현황 시장조사', '한류동향 보고서 및 연구서적 발간', '한류지수 개발'과 같은 학술사업과 '한류포럼 및 세미나 개최' 사업과 '아시아드라마컨퍼런스'와 같은 정책교류활동이 있다. 또 인적교류 사업은 '한류기획단 운영', 주한 외국인 유학생들에게 한국문화와 사회적응을 돕는 한국문화탐방단 '아우르기' 운영, '세계 문화/언론 오피니언리더 초청사업'이 있다. '해외통신원 운영'사업을 통해 각국에 주재하는 문화산업전문가인 통신원들이 세계문화산업 동향을 알리는 역할을 지원해주고 있다.

'기반조성형' 사업으로는 '한류문화정보시스템 운영'사업이 있는데 이것은 한류

38) '16년(베트남, 인도네시아, 필리핀), '17년(태국), '18년(미얀마), '19년(몽골), '20년(우크라이나, 예정)
39) 한국국제문화교류진흥원(http://kofice.or.kr/) 문화체육관광부(2019).『2019 문화예술정책백서』

문화 관련 체계적인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해 정보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해외통신원 및 주재원과 연계하여 신속한 업데이트가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 '문화홍보' 관련사업은 한류팬클럽이나 한류커뮤니티 단체를 지원하고 정기모임을 갖는 '해외한류커뮤니티 지원' 사업이 대표적이다.

다. 외교부[40]와 외교부 산하 한국국제교류재단[41]

외교부는 국제문화교류를 '공공외교'의 측면에서 인식[42]한다. 2016년부터 시행된 공공외교법을 체계적으로 이행하기 위해서 2018년에 수립한 '공공외교 종합시행계획'을 전담하는 '공공외교위원회'를 설립하였으며, 공공외교 예산을 증액하는 등 국제문화교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법제도적 기반을 내실화하였다. 이 종합시행계획에서는 디지털을 통한 국가 간 청소년 교류, 한국어 보급, 다국어 국제방송 제작과 같은 교류방향을 강조하기 시작했는데 디지털 사회에 진입하면서 온라인을 통한 정보교류가 국경을 넘어 활발해지면서 국제문화교류의 방식을 온라인에서도 적극적으로 추진하려는 움직임으로 볼 수 있다.

외교부에서 2018년 기준으로 추진 중인 국제문화교류 활동의 특징은 주로 앞서 언급했던 내용의 유형분류에 따르면 '문화홍보' 차원의 사업이 가장 많은 것을 알 수 있다. 전 세계 140여 개 공관에서 전통예술 공연, 전시, 강연, 영화제, K-pop 등 다양한 한국문화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한국주간행사', 말레이시아, 베트남, 루마니아 등 22개국 대상 한국관련 퀴즈쇼인 '퀴즈온 코리아'와 '케이팝월드페스티벌'로 구성된 '코리아콘테스트사업'이 대표적이다.

'작품교류' 유형의 경우, 전세계 92개 재외공관에 국립현대미술관 소장품 2천여

---

40) 외교부(2019).『2019 외교백서』

41) 한국국제교류재단(2019).『2019 한국국제교류재단 연차보고서』

42) 엄밀한 의미에서 '국제문화교류', '공공외교'는 개념적 차이가 있음. 문화체육관광부(2015: 19-20, 연구책임: 김혜인)에 의하면 국제문화교류는 공공 및 민간단체, 개인 등 다양한 주체가 수행하는 행위인 반면, 공공외교는 정부(또는 위임기관)에 그 주체가 국한됨. 또한 수행목표는 전자의 경우 문화자체의 발전과 중립적 이해관계를 추구하나 후자는 국가이미지 향상 및 정치, 경제적 상호이해라는 국익증진을 추구함. 또 수혜대상의 경우 전자는 상대국가의 국민 및 문화종사자들이지만 후자는 상대국가 일반국민이며, 전자는 과정을, 후자는 결과를 중시하는 패러다임의 차이가 있음. 사업의 형식이나 교류가 전자는 쌍방향이지만 후자의 경우 일방적 홍보나 선전형식을 쌍방교류와 병행하며, 사업의 내용 역시 전자는 주로 문화예술에 국한되는 반면 후자는 문화예술에만 활동을 제한하지 않는다는 것이 이 둘의 주요 차이점임

점을 전시하는 '재외공관 국가브랜드 전시사업'이 있다. '공동프로젝트'는 한-불어권국제기구와 한국 내 프랑코포니 축제를 공동개최해 국내에 프랑스권 국가들의 다양한 음악, 영화, 연극, 문학을 소개하는 행사를 진행하거나, 재외 한인예술인을 활용한 문화행사를 재외공관에서 개최하여 주재국에 한국의 문화와 예술을 함께 공유하는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국제행사 참여' 유형의 경우 한국과 수교한지 10년/25년 혹은 특별한 해(100주년)가 되는 국가들과의 기념행사로 전시회, 세미나, 정책세미나, 공모전 등을 수행하는 '주요 외교계기 기념사업'을 수행하였다. '스포츠 공공외교 협력사업'도 추진하였는데 90개 재외공관에서 태권도대회를 개최하는 등의 활동을 하였다.

'학술 및 정책, 인적교류' 유형의 경우, 정책교류 차원에서는 주로 미국 및 서유럽과 같은 선진국, 아시아 중에서는 중국 및 일본과의 정책공공외교사업으로 포럼, 인터뷰, 간담회, 심포지엄, 기념비 현장방문, 한류공연 등을 개최하고 있다. 특히 중국과 일본과 함께 2018년에 공공외교포럼을 개최하였는데, 한중일 간 경제적 교류뿐 아니라 상호 간의 정서적 공감대 형성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것에 동의하고 이는 문화를 통한 민간차원의 교류를 활성화하기 위한 당위성을 강조하는 자리를 마련하였다. 공공외교담당관으로서 각국의 재외공관들과의 협력도 적극적으로 추진하였는데 우선 선제적으로 2018년에 동남아 및 아프리카 지역 재외공관과의 논의를 시작했고, 인도와는 '18~'22 문화교류계획서를 체결하여 양국의 문화교류 기틀을 마련하였다. 2017년 문재인 대통령의 신남방정책 발표 이후부터는 주요 신남방국가들과도 정책공공외교를 위한 심포지엄 개최 등 교류가 활성화되는 중이다.

'인적교류' 유형에 속하는 사업으로는 정부초청 외국인 학부 및 대학원 장학생 선발지원, 네팔, 인도, 라오스, 베트남 4개국에 봉사단을 파견해 음악, 미술, k-pop 등 무료교육을 진행하는 봉사단원을 파견하는 '글로벌 문화꿈나무 사업', 재외공관 34곳에 현장실습원을 파견해 현지 공공외교 사업을 지원, '청년공공외교단'을 선발해 주한외국인을 대상으로 한국의 역사-외교 테마투어, 전통문화 체험, 한식 소개 등의 활동을 지원하고 있다.

외교부의 공공외교정책을 실질적으로 사업화하여 그 임무를 수행하는 산하기관인 한국국제교류재단은 산업, 한국학, 사회적 가치, 문화와 같은 전반적인 학술, 인적, 문화의 국제교류 사업을 추진하고 있어 문화교류는 전체 사업의 부분을 차지한

다. 그래서인지 학술분야는 크게 '글로벌 한국학 진흥'이라는 대과제 속에 인적분야는 '국제협력 네트워킹', 문화분야는 '문화교류협력 강화'로 사업부문을 세 갈래로 명시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작품교류' 활동은 진행하고 있는 사업이 부재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공동 프로젝트' 유형의 경우 국내에서 다양한 장르의 한국 및 세계의 문화예술공연과 전시를 개최하거나 세계 유수 박물관의 한국실에 다양한 한국문화 소개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것이 대표적이다.

특히 한국국제교류재단에서 중점을 두고 있는 것이 '학술/정책/인적교류' 부분이다. 한국학자 지원, 펠로우십 프로그램, 워크숍 등 다양한 한국학 지원사업[43]에 적극적으로 재정을 투입하고 있다. 또한 주요 국가정책연구소에 한국관련 연구활동 지원사업 및 상설대화 고위급포럼을 통한 공공외교 정책교류 활동을 진행 중이다. '기반조성형' 사업에는 글로벌공공외교네트워크, 차세대 정책전문가 네트워크 구축, 유력인사 초청을 통한 한국문화 체험프로그램 등을 제공해 국제적 교류네트워크를 마련하고 있다. 특히 '한-중앙아협력포럼사무국' 운영은 중앙아시아 5개국과의 상생협력과 활발한 교류 목적으로 설치하였다.

'기반조성형' 사업도 비교적 적극적으로 하고 있는데, 해외박물관에 한국미술 전문인력을 대상으로 한 기금을 조성하고 있으며, 2017년에는 아세안문화원을 개원하여 국내 및 아세안 10개 국민들을 대상으로 각국의 문화를 향유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거나 교류협력 사업을 통해 쌍방국가 간의 우호관계를 강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건립되었다. 마지막으로 '문화홍보'와 관련해서는 KF글로벌센터 운영을 통해 다양한 문화예술행사(전시, 강좌, 공연, 영화 등)을 진행해 국민 및 재외국인들이 한국문화를 접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또 정기간행물(KOREANA)이나 한국관련 외국어서적 출판사업을 통해 한국사회를 자세히 소개하는 대외홍보사업을 추진 중이다.

43) 외국의 주요 대학을 대상으로 한국학 교수직을 설치, 현지 교원 고용을 지원, 객원교수 파견, 대학원생 펠로십, 박사후과정/방한연구/한국어펠로십 사업, 외국인 한국학 교육자 대상 워크숍과 같은 다양한 연간 기획사업을 추진 중임

라. 비영리단체 및 국제기구: 한국국제협력단, 유네스코한국위원회

문화ODA란 예술, 관광, 스포츠, 미디어 등 문화영역 콘텐츠를 활용하며, 개도국 주민의 감성과 자긍심, 고유문화를 존중하며 발전을 추구하는 분야로 정의한다(문화체육관광부, 한국문화관광연구원, 2010[44]). 사실 한국의 ODA사업은 주로 경제적 원조에만 치중해 수혜국가의 정신적 빈곤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으로서(정환문, 정다정, 2014: 7[45]), 혹은 문화를 경제적 부가가치 창출의 도구적 수단으로 활용되는 등(정정숙, 2010[46])의 문화ODA에 대한 고려가 아직 미흡한 실정에 있다.

우리나라는 문화ODA사업은 가이드라인이 없이 몇몇 개별사업들이 KOICA나 문화재청, 국제기구(유네스코)와의 사업으로 추진되고 있는 상황이다(유네스코, 문화재청, 2015: 44[47]). 그 중에서 한국국제협력단(KOICA)은 그동안 ODA사업을 대표하는 기관이다. ODA사업은 주로 교육, 보건, 공공행정, 농림수산, 산업에너지, 범분야, 기후변화대응 등 7대 중점협력 분야를 비전으로 제시하고 있지만 문화예술 분야에 대한 비전은 전무하다.

2015년 기준으로 KOICA의 문화ODA사업을 추진유형을 분류해보면, 문화예술과 관련된 교류보다는 지역관광 개발이나 문화재 보존의 성격을 갖는 사업을 문화ODA 일환으로 추진한 것을 알 수 있다. 예를 들어 역사자료 전산화사업(이집트, 콜롬비아), 지역관광개발사업(페루,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 문화도시 마스터플랜사업(네팔, 베트남)이 있다. 그밖에 한국어 초청연수사업이나, 한국어교육, 태권도, 음악, 미술, 도자기 공예 등과 같은 다양한 한국문화 봉사단 파견 등의 사업을 진행하였다.

유네스코한국위원회[48]에서는 한국문화재재단, 코이카, 문화재청과의 협력 및 각국 유네스코사무국과의 네트워크를 활용해 국제문화교류의 일환으로 개도국의 세계유산, 무형유산, 기록유산과 같은 문화유산을 보존하기 위한 사업을 추진해왔다.

---

44) 문화체육관광부(2010). 『문화분야 공적개발원조(ODA) 사업개발 연구』. 한국문화관광연구원(연구책임: 정정숙)

45) 정환문, 정다정(2014). 한국 문화분야 ODA 문제와 나아가야 할 방향. 「문화산업연구」. 14(1). 7-16

46) 문화체육관광부(2010). 『문화분야 공적개발원조(ODA) 사업개발 연구』. 한국문화관광연구원(연구책임: 정정숙)

47) 유네스코한국위원회, 문화재청(2015). "문화유산 국제개발협력의 파트너십 전략". 「유네스코 문화유산 개도국 협력 전략세미나」. 세미나자료집

48) *ibid.*

그 중에서도 특히 위 사업은 아태지역 및 아프리카의 저개발국가를 주요 타깃으로 하고 있다. 최근에는 한국의 훌륭한 디지털 기술을 활용해 저개발국가 문화유산을 디지털화하는 DB구축, 인터넷기반조성 사업, 홈페이지 제작, 3D스캐닝를 통한 문화유산 기록, 관련기술의 보급, 지식교육과 인력양성 사업을 부차적으로 수행 중이다.

4. 국제문화교류(정책)의 추세와 한계점 및 개선방안

앞서 분석한 중앙정부 및 대표기관들의 국제문화교류 추세를 보면 초반에는 주로 선진국을 위주로 한 문화교류사업 및 정책을 위주로 진행하다가 최근 들어 개도국, 저개발국가로 대상이 확대되고 있다. 국제문화교류 기간을 조사한 결과, 미주가 평균 18.8년 전으로 가장 오래된 것으로 나타났으며, 아시아(평균 13.5년), 유럽(평균 12.1년)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49]. 특히 문화체육관광부는 주로 기존에는 유럽, 미국, 동아시아 3개국 위주로 문화외교 형태의 사업을 추진하던 것에서 점차 지역을 신남방, 신북방국가와 같은 개발도상국과 저개발국가로 확대하고 있는 변화가 포착된다.

우리나라의 국제문화교류 현황에서 나타나는 한계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다양한 지역을 대상으로 국제문화교류의 대상을 다변화함에도 불구하고 권역별 국가적 특수성을 반영한 국제문화교류 전략이 부재하다는 것이다. 지역별로 차별화된 전략을 갖고 있기보다는 개별단위사업의 개수를 늘려나가는 교류확대 방식을 취하고 있어 장기적 비전이 부재하다. 그 결과 국제문화교류가 일회성, 단발성 사업에 그치는 경향이 발생한다. 각 기관들은 최근 신남방정책 이후 아세안 및 중앙아시아 국가와의 네트워크를 확대하는 등 선진국 중심의 공공외교에서 그 교류의 대상을 다양화하고 있다. 그러나 아세안이나 중앙아시아를 대상으로 한 국제문화교류 프로그램이 다양하게 효과적으로 진행되고 있지 않은 초기단계로 해당 국가의 문화에 대한 이해도가 아직은 낮은 것으로 보인다.

둘째, 개발도상국이나 저개발국가 대상 문화교류사업은 쌍방 간의 상호 문화교류가 아닌 주로 경제적 지원이나 산업개발 등 일방적 수혜의 개념으로 국제문화교류

49) 문화체육관광부(2015).『국제문화교류정책 중장기계획 연구』. 한국문화관광연구원. 403(연구책임: 김혜인)

를 접근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선진국 대상으로는 주로 고급문화예술을 함께 공유하는 활동이 주가 되지만 개도국이나 저개발국가를 대상으로는 기반조성 혹은 한국문화를 전수하는 성격의 사업을 기획하고 있다. 선진국과의 문화교류의 경우 그들의 선진정책이나 문화를 우리나라에 소개하고 학습하는 데 주력하는 반면, 개발도상국이나 저개발국과의 교류는 기본적으로 우리나라의 문화적 수준이 그들보다 높다는 것을 전제로 우리의 문화를 알리며 교육시키고 한국문화를 정착시키고자 하는 의도를 엿볼 수 있다.

우리나라의 비영리단체, 국제기구가 수행하는 문화ODA 사업 및 문화유산 보존사업 일환의 국제문화교류도 문화예술의 교류라기보다는 일방적으로 수혜국에 우리나라의 문화를 전파하거나, 기존 ODA사업의 주요 접근방식인 지역개발사업의 한 분야로서 관광개발, 문화유산 보존 및 활용과 같은 방법으로 접근하고 있다. 이러한 공적개발원조의 철학 하에서의 사업추진 방식은 수혜국 입장에서는 본다면 또 다른 형태의 문화침투일 수 있다는 점이 문화ODA사업의 한계점이다(정환문, 정다정, 2014:14)[50].

셋째, 국제문화교류 활동내용을 보면 사업의 유형별, 분야별로 불균형이 발생한다는 점이다. 〈표 2-2〉의 국제문화교류 영역분류를 반영해볼 때 전반적으로 공공영역 국제문화교류사업은 아래의 5개 분야 중에서 90~2000년대 초에는 전통문화, 스포츠에 치중했다면 최근에는 문화산업, 언어영역에 집중하는 양상을 보인다.

예를 들어, 한국국제문화교류진흥원에서 수행하고 있는 국제문화교류 활동은 국제교류 대상이 되는 영역을 다양하게 선정하고 있지 않고 문화산업, 그 중에서도 한국의 대중문화인 한류에 치중하는 경향이 짙다. 다양한 각국의 문화예술 분야 작품을 교류하기보다는 한국에서 최근에 유행하는 한류문화 콘텐츠에 주력하는 것이다. 특히 아시아 지역을 대상으로는 우리의 대중문화를 알리고 교육시키는 방향으로 사업을 추진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또 외교부의 경우 직접교류 분야는 언어교육 분야에 집중하고 있다. 이러한 측면이 민간단체의 국제문화교류와의 차이점이라고 볼 수 있는데 민간의 국제문화교류는 주로 문화예술 작품이나 콘텐츠와 관련한 협업이 많은 것과는 대조적이다.

50) 정환문, 정다정(2014). 한국 문화분야 ODA 문제와 나아가야 할 방향. 「문화산업연구」. 14(1). 7-16

넷째, 국제문화교류 활동을 선순환시킬 수 있는 생태계 시스템이 부재하다는 것이다. 국제문화교류 생태계라면 '물리적 인프라 조성- 문화예술교류 콘텐츠 개발- 문화예술교류 인력양성 - 문화예술교류 네트워킹- 문화교류 정책개발- 홍보'와 같은 일련의 체계를 말한다.

문화체육관광부의 경우 기관 특성 상 다양한 국제문화교류 기관 간의 네트워킹, 협력플랫폼 마련, 사업통합 관리를 위한 정보시스템 구축 등의 사업이나, 초기 비용이 많이 소요되는 물리적 인프라 조성사업 위주로 주로 기반을 조성하는 역할을 담당하는 것을 알 수 있다. 기반조성 사업 역시 국제문화교류라는 활동생태계의 선순환 구조를 고려하지 않고 단순히 건물을 짓거나 정보시스템을 마련하는 등 하위사업들을 매년 늘려가는 식으로 사업이 진행되고 있어 보다 사업내용 간 유기적인 분배전략이 필요하다. 한국국제문화교류진흥원 역시 국제문화교류 허브 역할이라는 명목 상 기관설립 목적에 비해 다양한 국가와의 네트워크에 대한 전략은 매우 부족한 상황이다. 또 사업내용 측면에서도 주로 인적교류 사업이 중심이 되고 있는 등 이러한 사업추진방향의 불균형은 국제교류활동의 중심기관으로서 지속가능성을 위해 장기적 관점에서 국제문화교류 생태계를 조성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이 필요할 것이다.

다섯째, 공공기관뿐 아니라 다양한 기관에서 실행 중인 다양한 사업들 간에 유사한 내용의 중복이 많다는 것이다. 이는 곧 국제문화교류 행위를 조정하는 상위허브 기관이 부재하다는 것을 보여준다. 위 현황분석에는 다루지 않은 세종학당, 문화원, 재외공관, 현지 협력기관 및 단체, 민간문화예술단체들이 추진 중인 다양한 사업들을 통합관리 할 수 있는 채널을 마련하여 우리나라의 국제문화교류활동이 보다 효율적으로 관리되어야 한다.

여섯째, 교류를 통한 문화예술의 질적 향상이라는 궁극적 목표의식이 부재하다. 외교부의 국제문화교류사업은 주로 공공외교의 관점에서 한국의 문화를 상대 국가에 알려 한국의 위상을 높이는 것을 목표로 하는 것이 특징인데, 한국에 대한 학술적, 정책적 지식을 타 국가에 소개하고 알리는 목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혹은 문화예술이라는 콘텐츠를 각국이 공유함으로써 문화라는 대상의 상생발전을 추구한다기보다는 궁극적으로는 각국의 외교적 상황과 정치적, 경제적 이익을 위해 문화예술이라는 것을 협력의 도구로 활용하는 경향이 강하다. 이는 문화예술이라는 콘텐

츠에 대한 교류라기보다는 국가 단위에서 해당국의 제반 사회에 대한 정책과 지식을 알려 그 최종 목표는 국가외교의 격을 높이는 데 목적이 있으므로 문화예술이 갖는 고유한 가치 공유를 통해 문화적 발전을 도모하는 것에는 한계가 있다.

유네스코의 경우에도 문화유산의 관리 차원에서 선진 문화유산 복원 및 자료구축에 대한 노하우를 수혜국에 일방적으로 지원하는 성격을 갖고 있다. 물론 대상국가들과의 협의나 포럼, 교육활동을 통해 소통하고는 있지만 그들의 생활문화, 문화예술, 전통, 역사와 같은 문화콘텐츠 자체에 대해 깊게 이해하고 그들이 추구하는 문화유산 보존과 활용방향을 함께 공유하고 소통하려는 다양한 방식의 교류활동이 부족한 것이 사실이다. 이러한 방식은 자칫 사업의 성격이 단회성, 단기간에 그쳐 지속가능한 교류를 저해하는 요인으로 고착화될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문화유산과 관련한 국제교류 관점에서 보다 쌍방 국가 간에 문화감수성을 더 높이는 방향으로 사업목표를 전환하는 것이 필요하다.

결국 앞서 언급한 문제점과 한계를 보완하기 위한 향후 우리나라의 국제문화교류 정책의 방향성은 다음과 같다. 1) 기존의 유럽과 동북아시아 중심에서 벗어나 문화교류 대상의 범위 확장 및 각 대상지역별로 각기 차별화된 전략이 필요하다. 2) 일회성 교류사업이 아닌 지속가능한 사업 추진이 필요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장기적 목표가 있는 로드맵 하에 전문성을 강화해야 하며, 3) 타문화에 대한 분석과 이해를 통해 다문화 감수성 폭을 넓히고 다양성을 추구하는 정책적 접근으로 쌍방 간 또는 다자간 협의 속에서 문화교류의 목표가 설정되어야 한다. 4) 주로 전통문화콘텐츠와 '한류'를 중심으로 한 일부 대중문화콘텐츠를 제외하고 국제교류의 다양한 콘텐츠를 개발하지 못하고 한 분야에 치중되어 있던 사업내용을 영역별, 문화교류 내용별로 균형있게 배분하는 전략이 필요하다. 5) 국제문화교류 활동의 생태계 구축을 위한 시스템 구축과 네트워킹 채널을 각 지역별, 지역 간 조직해 효율적인 교류가 가능하도록 하고, 6) 다양한 기관들에서 각기 수행하고 있는 유사, 중복사업들을 통합관리할 수 있는 온·오프라인 통합시스템이 구축되어야 한다. 7) 공공에서 수행하는 문화교류의 목적이 단순히 외교수단이나 공적지원 성격이 아니라 문화예술의 가치공유, 문화의 발전을 통한 인류가치의 보존과 발전이라는 가치를 재고해야 한다. 특히 실질적으로 사업을 기획하고 실행하는 정책추진자들은 그러한 문화교류의 궁극적 목적을 항시 환기하는 것이 중요하다.

제3절 신남방 문화교류의 현황 및 방향성

1. 신남방 문화교류 정책현황

문재인 대통령은 2017년부터 2019년에 이르기까지 아세안 10개국과 인도를 순방하면서 포괄적 경제협력 협약을 체결하였다[51]. 기존에 신남방 지역으로의 기업진출은 베트남, 인니, 미얀마 순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태국이나 말레이시아 등은 대규모 자본 유치조건과 같은 현지 규제로 인해 진출이 부진한 상황이다. 인적교류는 증대하고 있는 추세이며[52], 2018년 기준으로 중국에 이어 제2위 교역국을 유지하고 있다. 또한 국내 건설산업의 최대 수주처[53]로 부상하였고 국내 금융기관의 신남방 지역진출은 지속적으로 확대[54]되고 있다.

현재 정부의 신남방정책은 경제성장 중심의 사업내용이 지배적이다. 간헐적으로 문화ODA사업이나 문화체육관광부의 '문화동반자 사업'을 제외하면 문화교류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은 제시되어 있지 않다. 즉 우리나라는 신남방지역과의 문화교류가 단위사업으로 간헐적으로만 추진되고 있었을 뿐 체계적 시스템과 정책 로드맵 및 비전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

그러나 문화교류 증가 추세에 따라 문화산업 분야와 관련된 다양한 교류정책이 확대되고 있다. 특히 뉴미디어 콘텐츠 유통 및 제작 측면을 강화하여 신남방지역에

51) 인도네시아(2017.11), 필리핀(2017.11), 베트남(2018.3), 인도·싱가포르(2018.7), 말레이시아·캄보디아·브루나이(2019.3), 태국·미얀마·라오스(2019.9) 등을 방문하였고, 신남방정책의 본격화 계기를 만든 역내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2019.11.4.)을 타결함

52) 상호방문은 2016년 896만 명, 2017년 1028만 명, 2018년 1171만 명으로 연 평균 14%나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유학생은 유학생 3배가 증가하여 2016년에 13,467명, 2017년에 20,931명, 2018년에 33,681명, 2019년에 44,414명으로 집계됨
(황인원(2019). "신남방정책의 정치적 함의와 말레이시아". 「문화와 관광으로 여는 평화와 번영의 미래」. 한국문화관광연구원 개원 17주년 기념 특별세미나 자료집)

53) 92.2억불(2017년, 32%), 128.2억불(2018년, 41%)

54) 433개 중 171개로 약 40%

의 한류문화 콘텐츠 확산에 이바지하고자 한다. 이와 관련한 정책사업으로는 국제 방송영상마켓(BCWW)'을 아시아 최대시장으로 육성하기 위한 선판매·선투자 전문 투자 설명회 신설, 지역관광과 연계한 부산콘텐츠마켓(BCM)' 지원, '한국의 방송콘텐츠 기획안, 포맷 제공, 뉴미디어 콘텐츠, 이야기(스토리) 등 유통전략 다양화, 신남방 외교정책과 발맞추어 필리핀, 베트남 등 아세안 국가를 중심으로 해외 방송인 초청교육을 진행하는 등이 대표적이다.

또 한류 인기에 힘입어 한국어를 세계로 확산·홍보하고자 세종학당 내 수강을 5~6개월 기다려야 하는 신남방·신북방 지역 국가를 중심으로 세종학당 30개소를 추가 지정하였다[55]. 그에 따라 한국어 교원 파견을 늘리고 온라인학습체계 개선, 다국어 교육콘텐츠 개발, 세종문화아카데미 30개소로 추가 확대해 한식, K-댄스, 한복, 국악 등 한국문화 체험과 한국어 학습을 병행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아울러 국내 신문사, 방송사 등과 함께 쉬운 우리말 쓰기를 홍보하고, 전문용어의 우리말 보급 등을 통해 바른 언어생활 문화를 조성해 나갈 계획에 있다[56].

신남방지역 대상 문화분야 진출 현황을 살펴보면, 문화체육관광부는, 문화·관광·체육 전 분야에서 다양한 교류·협력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특히 2019년의 주요 성과사업은 상호문화교류 활성화, 콘텐츠산업 교류·협력 강화, 방한 관광객 확대 등과 관련된 것이다. 문화·콘텐츠 분야에서는 2019년 한-아세안 특별 문화장관회의 개최를 통해 5개 분야 12개 협력과제[57]를 추진 중이다. 또 신남방 지역과의 효과적인 문화교류를 위한 문화홍보 및 교류의 거점화 일환으로 신남방 내 한국문화원 5개소, 세종학당 8개국 37개소 운영 및 콘텐츠 마케터 파견과 같은 물적·인적 인프라를 구축하고 있다. 또한 문화협력 협의체 및 협력채널로서 한-아세안/아세안+한·중·일 문화장관회의 및 고위급 회의, 아세안+한·중·일 문화협력네트워크 등 조직위계별 협력채널이 가동되고 있는 상황이다.

---

55) 문화체육관광부-"작년과 달라지는 주요사업"
(https://www.mcst.go.kr/kor/s_notice/press/pressView.jsp?pSeq=17429)

56) 세종학당 '19년 180개소 → '20년 210개소 / 세종문화아카데미 '19년 30개소 → '20년 60개소
한국어 교원 파견: '19년 140명 → '20년 180명; 세종학당 운영 지원: ('19년) 201억 원 → ('20년 안) 332억 원; 쉬운 우리말 쓰기: ('20년 안) 35억 원 ; (*ibid.*)

57) 상호 문화 이해 증진, 공동 창작 활성화, 문화산업 협력, 문화유산 보존·활용 협력, 문화예술기관 협력강화를 골자로 함

〈표 2-3〉 문체부 신남방지역 대상 주요 협력 채널

협의체명	수석대표	개최 주기	직전 회의/차기회의
한-아세안/아세안+3 문화장관회의	문체부 장관(우리) - 문화부 장관(아세안, 중·일)	매2년	2019.10(특별개최)/ 2020.10
한-아세안/아세안+3 고위급회의	문체부 문화정책관(우리) - 문화부 국장급(아세안, 중·일)	매년	2019.9/2020.10
아세안+3 문화협력네트워크	문체부 과장급(우리) - 문화부 실무~고위급(아세안, 중·일)	매년	2019.6/2020.8
아세안+3 정보장관회의	문체부 장관(우리) - 정보관계 부처 장관(아세안, 중·일)	매2년	2018.5/2020.6
아세안+3 관광장관회의	문체부 장관(우리) - 관광부 장관(아세안, 중·일)	매년	2020.1/2021.1

2. 주요사업 성과: ‘ODA’ 사업 중심

신남방 지역에서는 디지털문화유산 ODA 사업을 비롯한 역사문화 ODA사업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기존 ODA 사업이 긴급을 요하는 인도주의적 사업이었다면, 최근에는 수혜국의 역사문화적 특성과 장점을 최대한 살리면서 스스로의 자부심을 고취시키고 사회문화적 통합과 해당 국가의 경쟁 잠재력을 향상시키는 데 기여하는 사업 위주로 변화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예를 들어 박물관 건립사업의 경우 박물관 건축 및 운영방안 및 보존처리, 연구 및 교육 기자재 지원, 인력 초청 연수나 전문가 파견 등 지원내용이 확장되는 추세이다. 또는 컴퓨터 그래픽 및 가상현실을 통한 세계문화유산 디지털 복원사업이나, 베트남 후예, 라오스 왓푸사원 및 고대 주거지 내 홍낭시다, 캄보디아 앙코르 등 주요문화유산 복원정비공사와 같은 문화유산 보호기반 구축사업은 지속적으로 추진되고 있으며 점차 관련사업이 민간 차원에서 증가하고 있다[58].

문화재청은 세계유산의 보존, 관리에 참여하여 개도국과 문화유산 교류협력을 강화하고 국가이미지를 제고하고자 해당 국가의 세계유산, 인류무형유산, 세계기록유산 보호 및 자생력 강화사업을 추진하고 이를 위한 예산확보에 주력하고 있다. 또 기관 간 연계를 통해 협력국 문화유산 보호운영 능력을 육성하고 공동체 역량강화

58) 문화재청(2012). 문화재 보존·관리·활용 5개년 기본계획(2012-2016)

를 지원하는 방향으로 사업의 성격이 전환되는 중이다. 예를 들어, 캄보디아 프레아 피투 유적 보존·복원 지원사업은 문화재청과 한국문화재재단, 한국국제협력단이 중장기 복원정비계획 수립, 해당 담당공무원의 초청연수, 기자재 지원, 전문인력 파견, 아시아권 문화재 보존과학 국제연수(ACPCS)[59]사업과 연계 등 아시아권 문화유산분야 전문가들의 인적네트워크 구축을 도모하고 향후 공동연구 및 협업을 장려하고자 하는 목적을 갖는다.

〈표 2-4〉 2007~2015 문화재 국제원조 추진 실적

연도	국가	내용
2007	베트남	세계문화유산 후에 황성 디지털 복원 프로젝트
2008	베트남	하노이 구도심 지역 주민참여형 보존관리 워크숍 개최
	베트남	세계문화유산 후에 유적 내 호권 디지털 복원 사업
2009 ~2010	몽골	무형문화재 보호제도 구축지원 사업
	스리랑카·캄보디아	문화재 보존처리 장비 지원 사업
2011	부탄, 라오스 등	유네스코 인류무형무산 등재 지원
	기타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등재 훈련워크숍 개최
		저개발국 세계유산 보존 지원
2012	몽골	한·몽 문화유산 공동연구 국제학술포럼 개최
2013	미얀마	바간유적 보존·복원을 위한 장비 지원
2014	미얀마, 라오스, 방글라데시, 베트남, 동티모르, 네팔, 캄보디아 등 아시아 14개국	아시아 국가와 함께하는 문화유산 관리자 교육 진행
	아프가니스탄, 방글라데시, 네팔, 키르기스스탄,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 이란, 중국	키르기스스탄 수도 비슈케크에서 2014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아시아 지역 등재훈련 워크숍 개최
2015	기타	라오스 홍낭시다 유적 보존·복원 국제 심포지엄 개최

*출처: 문화재청(2012). 문화재 보존·관리·활용 5개년 기본계획(2012~2016)

또한 저개발 국가의 외화수입에서 관광이 차지하는 비중이 1/3을 넘을 정도로 관광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아 문화유산 ODA사업의 관광효과 창출은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60]. 문화유산과 관광 ODA의 결합을 통한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하는 것은 국내 문화유산 ODA사업이 지속가능한 지역발전에 기여를 할 것임은 분명하다.

59) 아시아권 문화재 보존과학 국제연수(Asia Cooperation Programme in Conversation Science)
60) 향후 관광산업이 세계경제에서 차지할 비중 GDP의 10%로 예상(2023년 예측, WTTC)

최근 이를 위해 OECD DAC[61] 회원국가 간에 관광 ODA 비중 확대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다.

그러나 관광ODA의 이러한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문화유산-관광ODA 간 연계가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문화유산 ODA사업이 문화유산의 복원/보존에 머물러 있는 수준이다. 즉 유·무형 자원조사 및 데이터 구축, 박물관 및 미술관 운영 노하우 전수와 같은 후속사업으로 이어지는 정도가 그나마 사업이 장기화되는 수준에 불과하다. 문화유산 ODA사업의 수혜국이 스스로 경쟁력을 가져 사업이 지속되기 위해서는 문화유산 ODA사업 이후의 지속성을 담보해주는 관광사업과의 연계과정까지 사업내용에 포함되어야 할 것이다.

관광-문화유산ODA사업을 다룰 수 있는 관련 전문가의 수가 절대적으로 부족한 것도 근본적인 원인이다. 기존 관광 ODA사업에 문화유산의 복원, 디지털 DB화를 포함시켜 관광자원으로 활용하고 있으나 사업의 구체성이나 전문성이 부족한 상황이다.

이와 관련한 대표적인 사업은 라오스 왓푸(Vat Phou) 세계유산 내 홍낭시다(Hong Nang Sida) 유적지 보존복원사업[62]이다. 본 사업은 붕괴된 상태로 오랜 기간 방치된 사원의 추가붕괴를 방지하고 긴급 수리보수를 하는 신남방국가 문화유산 ODA로 문화유산 보존을 위한 인프라 구축 및 인력양성 사업 범주유형에 속한다. 이 사업은 2019년에는 대통령의 라오스 순방으로 홍낭시다 사원 복원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특히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에서의 한-메콩 선언문에 '메콩

61) Development Assistance Committee, 開發援助委員會, 개발도상국의 원조를 위해 결성된 OECD 산하 기구를 지칭함. 2018년 현재 DAC는 OECD 29개 회원국과 유럽연합집행위원회로 구성돼 있음. 세계은행, IMF 및 UNDP가 옵서버로 참여하고 있으며, DAC에 가입을 하기 위해서는 가입 적격 여부를 심사하는 기존 가입국들의 토의에서 통과가 돼야 함. 가입을 하면 DAC의 권고 조항을 원조 정책에 반영하고 정례 회의와 최소 한 개 이상의 실무회의에 참석해야 하는 의무가 생김. DAC의 주요 기능은 ① 개발협력에 관한 정보교환,상호 협의 및 조정, ② 회원국의 공적개발원조(ODA, 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의 효율성 제고 등 ODA 관련 지침개발 및 권고, ③ 회원국의 개발협력 실적·정책에 관한 심사(peerreview), ④ ODA 관련 통계 작성 등임(출처: 네이버 지식백과 -DAC(https://terms.naver.com/entry.nhn?docId=645322&cid=43126&categoryId=43126))

62) 2013년부터 2020년까지 지속된 사업은 예산은 7,921백만 원 소요되었음. 2013년~2017년 기간에는 유적 전반에 대한 분야별 기초조사 및 연구를 수행하여 국내 신진연구자들이 동남아시아 및 크메르 유적 전문가로 성장하는 계기를 마련하였고 2018년~2019년에는 신석재 사용을 지양하고 원부재를 활용하여 진정성있는 복원을 시도함. 구조적으로 불안정한 부분(플랫폼, 만다파)을 해체하고 보존처리를 진행하였으며, 2020년에는 만다파 복원을 완료하고 심각한 상태의 홍낭시다 유적을 보수해 원래의 모습으로 복원하는데 성공한 사례임

지역 내 문화유산 보존복원을 통한 지속가능한 스마트 문화관광 발전 실현 '관련 항목을 강조하는 등 문화유산 보존복원사업을 통한 라오스 및 국제사회에서 협력관계 유지에 다음과 같은 결과를 도출한다.

[그림 2-2] 홍낭시다 위치도, 유적사역도, 공간구성

[그림 2-3] 홍낭시다 복원 전후 모습

* (좌) 홍낭시다 복원 전(2014), 복원 중(플랫폼, 만다파) (2018),
(우) 홍낭시다(플랫폼, 만다파) 복원완료 예상도(2020 예정), 신상봉안소(셀라) 복원예상도(2024)

① 국제기구 및 타 공여국 협력을 통한 국제사회에서의 대한민국 이미지 제고

유네스코라는 국제기구와의 사업 협력관계 및 타 공여국과의 협력관계를 구축함으로써 한국의 국제문화교류에의 위상이 향상되었다. 아타프주 수해 피해에 지역 영향 평가단이 참여하였으며(2018.10.), 유네스코 전문가자문단(EAG: Expert Advisory Group)의 정기 모니터링 대상 사업이 되었다. 왓푸 세계유산 지역에서 국제 협력사업을 수행 중인 타 공여국(프랑스, 인도, 일본) 등과 문화유산 보존복원, 지역개발, 관광진흥 등의 분야에서 협력 및 연계관계를 유지하였다. 또 2013년부터 매년 왓푸-참팍삭 국제조정회의를 통해 협조체계를 구축(2016~18, 2회, 한국이 개최)하고, 유네스코, 라오스정부, 국제협력팀(프랑스, 스위스, 독일, 인도, 일본 등)이

참여하여 해당사업에 관한 국제적인 협력을 이끌어낼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는 등 관련기관 및 협력국으로부터 한국에 대한 우호적 인식을 강화하는 계기가 된다[63].

② 문화유산 보존 인프라 구축으로 지속적 문화유산 보존 기반 마련

박물관 환경 개선사업으로 유물 수장공간을 리모델링하여 체계적 유물관리 시스템을 구축하고, 장비 지원과 교육을 통해 과학적 분석 장비 지원 및 박물관 직원 교육을 수행하였다. 홍낭시다 진입로 개선사업은 임시교량 및 우회로 건설, 진입로 보강으로 유적 주변 주민 및 관광객에게 편의를 제공[64]하였다. 또한 병원(Stone Hospital)을 건립하였으며, 문화유산 석재 보존처리 기반시설을 구축하고 운용하여 라오스 최초 전문시설(친환경, 재사용)로 2차사업에 활용하였다. 이러한 문화유산 인프라 구축으로 궁극적으로는 수혜국이 자체적으로 향후 문화유산을 보존하였다.

[그림 2-4] 문화유산 보존 인프라 구축사업 예시

* 박물관 환경개선, 임시교량 및 우회로 구축, 진입로 보강, 병원 건립

③ 문화유산 관련 전문가 인력풀이 부재한 수혜국 대상 인력양성 추진

구체적인 추진사업으로 학위연수(2015~18)사업을 통해 문화유산 전문 교육기관(한국전통문화대학교) 석사학위자 2명을 배출하여 실제로 홍낭시다 보존복원사업에

63) 라오스 유네스코 전문가 자문단으로부터 이례적인 긍정적 평가를 받았음(2019.12.17.). "2019년 2월 이후 상당한 진전을 이루어낸 한국팀에게 경의를 표함. 특히, (i) 만다파 벽과 기둥의 정밀한 복원작업 (ii) 각각의 조각편들까지도 세심하고 진정성 있는 석재보존처리. 또한 다양한 종류의 석재 보존처리 교육을 실시한 것에 감사하다. 마지막으로 극도로 잘 조직되고 정돈된 현장의 모범적인 관리에 대해 한국팀에게 축하의 뜻을 전한다."

64) 이로 인해 왓푸 세계유산사무소로부터 공로상을 수상(2018.12.)하기도 하였음

서 석재 전문 보존처리팀으로 근무 중이다. 현지연수(2016-20)사업은 박물관 유물 보존처리 연수, 석재 보존처리 과정 연수, 석조각 기능공 양성 연수 등으로 수료자 전원 홍낭시다 사업 현장에서 근무하게끔 하였다. 초청연수(2017~18)사업은 정보문화관광부 실무자 대상 한국 유적관리 기술 연수, 정보문화관광부 관리자 대상 문화유산 정책 및 관리 연수를 실시하였다.

이들 사업은 결국 공적개발원조 중 상대적 인지도가 낮은 문화유산 ODA를 홍보하는 효과가 있었다. 그러한 문화유산ODA의 인식제고에 힘입어 이후 금동요니 발굴 관련 한국 ODA사업 해외 홍보(영문기사, 영어방송), 홍낭시다 유적에서 한-라 합동 전통공연(코리아리랑, 2019.12.)을 개최[65]하게 된다. 이는 양국 문화교류를 보다 활발히 하고 수혜국 일반 국민의 문화유산에 대한 인식을 향상시키는 등 세계문화유산과 인류무형유산의 보존과 활용에 관한 하나의 협력모델이 될 수 있다.

3. 기존 신남방 정책의 한계 및 방향성

기존의 전반적인 신남방 정책은 주로 정치, 경제, 문화분야가 동일한 레벨에서 배치되어 있거나 문화는 하위분야로 간주하고 있다. 앞서 제시한 라오스 문화재 복원 사업과 같이 문화로 인한 긍정적 효과가 큰 것이 실제로 입증되었음에도 전반적인 신남방정책은 경제 우선주의로 문화분야 사업의 특수성에 대한 고려가 부족하다. 문화는 별도의 영역으로 섬세한 정책 로드맵이 구축되어야 하지만, 현재는 부처별 개별사업 추진 정도로 진행되는 상황이다.

문화정책 그 자체로만 보아도 세부과제가 추진되는 지역적 환경이 신남방지역으로 통칭될 수 없을 정도로 각 국가와 지역의 역사와 문화, 전통과 관습, 종교 등이 상당히 다양하나 이러한 특성의 차이를 각 사업에 고려하지 않고 있다. 경제적 교류나 상생원칙의 근간은 사실 국가의 전통과 문화, 규범, 일상적 삶의 스타일과 같은 문화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각 국의 문화적 다양성을 면밀히 분석하고 이를 반영한 섬세한 사업기획이 필요하다.

65) 이 공연에서는 라오스 전통공연, 인류무형유산 켄과 해금 '아리랑' 합동공연 등 1시간 40분 공연이 진행되었으며, 정선아리랑 문화재단, 노름마치, 람따이 공연단(라오스) 등이 참여함

즉 신남방과 인도에 대한 이해→ 분석→ 공통점과 차이점 파악→ 수요파악→ 정책 분야 우선순위 파악→ 세부 정책과제 도출과 같은 절차에 입각한 신남방 정책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현재는 이 모든 과정을 한꺼번에 무작위로 진행하여 정책효과성이나 효율성이 부족한 임시방편적 정책이 될 수밖에 없다.

본 연구는 신남방정책 추진에 대한 향후 방향성을 다음과 같이 제언한다.

첫째, 양적 성과를 목표로 하기보다는 장기적 관점에서 질적 성과 달성을 견지하고 질적인 성과지표를 체계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즉 단기적 목표가 아니라 장기적 목표를 우선 정하고, 쌍방 간 또는 다자간 협의 후 양적/단기적/구체적 성과목표가 설정되어야 한다.

그런데 현재는 수치화된 단기적 목표를 달성하는 데 급급한 것이 현실이다. 질적 성과란 수혜국의 한국에 대한 인식제고, 관련분야 인력양성, 신남방 지역의 한국관련 교과과정 개편 등과 같이 양 국민 간 신남방 지역에 대한 이해도 향상, 신남방 지역 R&D 예산 확충을 통한 다양한 현지 기반형 정책연구 등이 있다. 또 문화재 현황 등 신남방 국가의 사회문화적 맥락을 이해할 수 있는 현장연구를 지원함으로써 여타 사업을 추진하는 데 기초자료를 구축하는 사업도 고려해볼 수 있다.

둘째, 일회성 교류사업이 아닌 지속가능한 관계를 위한 추진기관 간 통합협력 네트워크가 필요하다. 지금까지 간헐적으로 추진되어 왔던 정부 간, 지방자치단체 간 다양한 추진사업의 현황을 종합적으로 조사, 검토, 정리해야 한다. 각 사업이 신남방 지역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실제로 기여하고 있는지, 아니면 일회성 사업으로 끝나고 있는지 등에 엄정한 검토와 검증작업이 진행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셋째, 사업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해당 지역민 및 해당국가 국민들이 실제로 원하는 것인지를 사전에 파악하는 수요분석이 우선되어야 한다. 한국과 문화적 차이가 존재하는 상황에서 한국이 경제적인 우위관계에 있다는 것만으로 일방적으로 교류의 방향이나 내용을 결정할 수는 없다. 해당지역이 실제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그들이 지향하는 바와 우리가 지향하는 바의 차이점은 무엇인지, 그러한 차이점은 어떻게 극복하여 교류를 성공적으로 이끌어낼 수 있는지와 같은 사전분석이 되어야 한다.

제3장

신남방지역 문화교류 환경 및 현황 분석: 국가별 분석 종합

제1절 신남방 지역 국가별 문화교류 환경 분석: 한국과의 교역액 기준 국가군 분류

1. 상위 교역액 국가 문화교류 환경 분석: 인도네시아, 인도, 베트남

가. 국가별 특성 항목 비교

1) 인구/경제/교역규모

인도네시아, 인도는 한국과의 교역액이 약 200억여 달러에 이르며, 베트남의 경우 약 683억여 달러에 달하는 국가이다. 세 국가는 신남방 지역 국가 중에서 상위 수준의 교역이 이뤄지고 있다. 각 국가는 모두 2018년 기준 5~7%의 높은 경제 성장률을 보이고 있으며, 특히 인도는 세계 2위 약 13억 인구와 세계 7위 수준의 국내 총생산(GDP)을 기록하고 있다.

〈표 3-1〉 상위 교역액 국가별 현황 비교

국가	인구 (2020년 기준, 명)	1인당 GDP* (2017년 기준, 달러)	GDP (2017년 기준, 백만 달러)	경제 성장률 (2018년 기준)	한국과 교역액 (2018년 기준, 백만 달러)	ODA 총액 (억원)
인도네시아	2억 7,352만	3,850	1,015,539	5.17%	20,034	733
인도	13억 8천만	1,939	2,597,491	6.98%	21,500	-
베트남	9,734만	2,340	223,864	7.08%	68,263	1708

*World Bank, IMF(2017년 기준)

출처: KOICA ODA 정보포털(http://www.oda.go.kr/), 관계부처합동(2019). '19년 국제개발협력 종합시행계획, 나무위키-신남방정책(https://namu.wiki/w/신남방정책), 대한민국정책브리핑(http://www.korea.kr), 세종학당재단(https://www.ksif.or.kr/), 신남방정책특별위원회(2019).『아세안-인도-경제·무역·투자 통계집』, 아세안문화원(https://www.ach.or.kr/), 주베트남 한국문화원(http://vietnam.korean-culture.org/ko), 주인도네시아한국문화원(http://id.korean-culture.org/ko), 주인도한국문화원(http://india.korean-culture.org/ko)

2) 문화적 특성: 한국과의 문화접점/한류 특성

상위 교역국가는 이슬람, 힌두교, 불교 등 다양한 종교를 지니고 있다. 인도네시아의 경우 이슬람교(87%)가 지배적이고, 인도는 힌두교(79.8%)가 주를 이루고 있다. 세 국가 모두 다양한 인종 구성을 이루고 있으며, 언어적으로는 해당 지역의 고유 언어를 중심적으로 사용하고 있으나 이외에도 다양한 지방 어 및 소수민족 언어가 존재하는 특징을 보인다.

〈표 3-2〉 상위 교역액 국가별 구성 특성

국가	예술투자 금액**	주요축제	종교	민족구성	언어
인도네시아	90만 3천	발리 축제: 네삐데이, 오달란, 다니족 축제	이슬람(87%), 기독교, 가톨릭교, 힌두교, 불교	자바족, 순다족 등 300여 종족	인도네시아어
인도	4만 3천	디왈리 축제, 홀리 축제, 두세라 축제, 라다크 축제, 떼이암 제, 데비클람	힌두교(79.8%), 이슬람교, 기독교, 시크교	말레이계, 중국계, 기타	힌디어, 영어
베트남	257만 7천	뗏축제, 덴 흥 축제, 지옹축제, 코끼리 경주 대회, 카테 축제, 다낭 불꽃 축제, 호이안 등불 축제	무교, 불교(12%), 천주교(7%) 등	비엣족 등 53개 소수민족	베트남어

**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에 해당됨, 한국수출입은행, 연도별/업종별 해외투자현황(2018.12월 기준, 달러)

인도네시아, 인도, 베트남 세 국가 모두 종교적, 민족적 다양성을 보유하는 가운데 국가 고유의 문화를 형성하고 있다. 이러한 국가별 고유의 문화는 관광콘텐츠의 가능성이 매우 높다. 반면 이러한 문화적 차이는 세 국가 간 국가적 다양성(다종교, 계급제도, 다민족)의 갈등을 유발하는 요소로 작용하여 종교적 충돌, 계급제도의 잔존 및 극심한 빈부격차 등의 사회문제가 나타난다.

〈표 3-3〉 상위 교역액 국가별 문화적 특징, 상징 및 사회 갈등 요인

교역액 순	문화적 특징	문화상징 대표이미지	사회문제와 갈등의 핵심
인도네시아	다종교 사회이지만 87% 무슬림 이슬람 문화 지배적 다양성 (300여 종족, 600여 종 언어)	보로부두르 불교 사원군, 와양 인형극 바틱 (수공예 직물 염색)	무슬림과 기독교 간의 충돌 증가, 사회적 우려유발 (이슬람-87%)
인도	문화적 이질성과 다양성 (22개 언어, 다양한 종교, 카스트의 잔존)	타지마할(아그라) 발리우드 영화	극심한 빈부격차, 높은 문맹률, 카스트 제도의 잔존
베트남	〈다양성 속 통합〉 다민족사회(54개 민족) 역사 때문에 혼합성을 지니나 고유의 문화 존재	아오자이(전통의상), 논(모자) 하롱베이, 후에 고도유적지	빈부격차 (산간지역소수민족이 총 빈곤 인구의 72%를 차지하는 등의 문제 잔존)

인도와 인도네시아는 대한민국과 1973년 국가 간 외교관계를 수립하였고, 베트남의 경우 1956년 구월남정부와 외교관계 수립 1992년 베트남 정부와 수교가 이루어졌다. 외교 수립 이외에 한국문화와의 접점은 인도네시아의 경우 조선왕조실록에서 조선왕조 초기에 인도 무역상의 방문기록을 확인할 수 있으며, 인도의 경우 허황후 설화에서 2000년전 인도와 한국의 교류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고 이를 기반으로 현재 허황후 기념공원 리모델링 사업 등 관련사업을 추진 중이다. 한편 베트남은 동남아 국가 중 한류가 가장 먼저 일어난 국가로 한류의 진원지이기도 하다.

신남방 상위교역국은 민족, 종교, 지배 및 침략 역사 등에서 기인하는 문화적 다양성, 이러한 다양한 문화의 조화와 융합을 통해 나타나는 국가 고유의 문화가 문화적 힘의 원천으로 작용하고 있다.

〈표 3-4〉 상위 교역액 국가별 한국문화의 접점 콘텐츠

교역액 순	한국문화와의 접점 콘텐츠/계기
인도네시아	• 〈조선왕조실록〉한국의 조선왕조 초기 인도네시아 자와의 마자파힛 왕국에서 한국조선으로 무역상 인의 방문이 있었다는 기록 존재. • 1973년 외교관계수립, 2006년 관광협력 협정, 2007년 문화협력협정 • 2017년 '특별전략동반자관계' 수립
인도	• 허황후 설화(2000년전 인도와 한국 교류). 관련 문화정책 진행 중(허황후 기념공원 리모델링 사업, 설화 역사화 세미나, 기념우표 MOU 등) • 1973년 외교관계수립 및 문화협력협정 체결, 1993년 관광협력 협정 • 2015년 '특별전략동반자관계'로 격상
베트남	• 동남아의 한류진원지(1997년 한국드라마 소개, 인기) • 1956년 구월남정부 외교관계수립, 1992년 베트남 정부와 한국 외교관계수립 • 1993년 문화협력 협정, 2002년 관광협력 협정. • 2009년 '전략적 협력동반자관계'로 격상

인도네시아는 한국, 한류에 대한 긍정적 이미지를 가지고 있으며, 인도에서는 한류가 확산단계로 발전하고 있고, 베트남은 비교적 긴 한류의 역사를 기반으로 K-pop등에 대한 인기가 지속 되는 등 신남방 지역 상위교역의 모든 국가에서 한류가 큰 인기를 끌고 있다. 하지만 세 국가 모두 그만큼 반한류의 가능성이 높은데, 이는 국가의 종교적 가치, 문화민족주의, 케이팝 청소년 열성팬에 대한 반감이 동시에 존재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한류를 기반으로 한 문화교류에 있어서 각 국가의 문화적 특징을 고려한 쌍방향 교류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66](〈표 3-5〉).

〈표 3-5〉 국가별 한류심리지수 추이

	국가	한류심리 지수 (2017)	한류심리 지수 (2018)	한류심리 지수 (2019)	한류심리지수 변화율 (19-18)	비고
한류 고성장 그룹	인도네시아	127.38	133.68	141.90	6.1%	
	베트남	-	-	137.30	-	
	인도	127.23	132.40	137.13	3.6%	
	태국	123.75	129.35	136.87	5.8%	1단계 상승
한류중간 성장그룹	말레이시아	120.58	133.20	127.55	-4.2%	1단계 하락

출처: 한국국제문화교류진흥원(2019). 『2019 한류의 경제적 파급효과 연구』 (공동연구: 전종근, 김승년).

〈표 3-6〉 상위 교역액 국가의 한류 특성

교역액 순	한류 특성	혐한, 반한류 가능성
인도네시아	한류 우호적. 한국에 대한 긍정적 이미지[67]	반한류존재(이슬람 문화-종교적 가치, 문화민족주의, 열성팬 반감)
인도	소수 관심단계에서 확산단계로 발전했다고 진단.(k-pop 인기 증진) 〈올드보이〉이후, 한국영화 리메이크 버전 제작 지속	반한류 공감도 높은편(33.7%)[68]
베트남	한류의 역사가 비교적 길고 오래 지속됨 k-pop 인기 큼 (동호회 46개, BTS 팬클럽 회원수 51만)	존재, 케이팝의 청소년 열성팬에 대한 반감, 한류 콘텐츠의 질에 대한 반감

66) '한류지수'는 각국에서 현재 한류의 대중화 정도를 나타내는 한류현황지수와 한류 인기의 변화 정도를 나타내는 한류심리지수로 구분됨 [한국국제문화교류진흥원(2019). 『2019 한류의 경제적 파급효과 연구』 (공동연구: 전종근, 김승년)] 2018년도에 한류대중화단계에 속하는 국가들이 하나도 없었던 반면 2020년에는 인도네시아, 베트남과 말레이시아가 한류대중화단계에 속하는 것으로 나타남. 여전히 관심 단계에 해당되는 국가는 없는 것으로 나타남. 신남방 지역 국가 중 인도, 태국이 한류 확산단계에 속하고, 인도네시아와 말레이시아는 2018년도보다 1단계 상승하였음을 보여줌 (문화체육관광부, 한국국제문화교류진흥원(2020). 『2020년 해외한류실태조사 보고서』)

3) 한글의 위상과 관광 특성

신남방 상위교역국에서는 한글에 대한 관심이 높은 편이며 한국어 능력시험의 응시자 수도 높은 편에 속한다. 3개국 모두 대학 내에 한국어·한국학을 가르치는 강좌 및 학과를 운영 중이며, 특히 베트남의 경우 중등교육과정에서 한국어를 제2외국어 과목으로 채택하는 교육을 전개하고 있다.

〈표 3-7〉 상위 교역액 국가에서의 한글 위상

교역액 순	현지 세종학당 수[69]	한글의 위상: 제2외국어, 한국어시험 여부	한국어 능력시험 (TOPIK) 시험장 수	국가별 응시자 수	한국어반 개설 현황[70]	문화원 유무	세종학당 개수 (2019년 6월 기준)
인도네시아	6	대학 한국어학과 개설 운영, 한국어 강좌 운영	4	883	41 (주인도네시아 대사관)	0	6
인도	4	대학 한국어학과 개설 운영, 한국어 강좌 운영 TOPIK, 연 2회 시행 (2018 년 904명, 2019년 1,184명)	5	416	-	0	4
베트남	15	전국 29개 학에서 16,000여 명의 학생들이 한국(어)학을 전공(증가추세) 중등학교 제2외국어 과목 채택하는 '2020 교육안' 전개	2	4,430	7 (호치민시 한국교육권)	0	15

67) 2018년도 대한민국 국가이미지 조사 결과 동남아·중남미·서구권 15개국 중 인도네시아가 한민국 이미지를 96.4%로 가장 긍정적으로 인식함

68) 반한류 공감도(한류에 대한 부정적 인식에 공감하는 정도): 인도(33.7%), 일본(28.3%), 중국(27.8%), UAE(25.0%) 순 (문화체육관광부, 한국국제문화교류진흥원(2020). 『2020년 해외한류실태조사 보고서』)

69) 세종학당재단(https://www.ksif.or.kr/) (검색일시: 2019.6.)

70) 2017년 해외 초·중등학교(지원 현황 28개국 1,423교 45.4억원): 재외공관(한국교육원)의 제출 자료에 의함

〈표 3-8〉 신남방 지역 문화적 특징

교역액 순	문화적 힘의 원천,	슬로건, 브랜드	대표 음식	관광경쟁력 순위 WEF2019	관광공사 해외사무실 홈페이지
인도네시아	국가표어: “Bhinneka Tunggal Ika(다양성 속의 통일)”	(관광슬로건) Wonderful indonesia	나시고랭, 미고랭, 사떼	40	-
인도	다양한 종교문화, 서구문화의 영향, 고유의 전통문화	(관광슬로건) Incredible !ndia	커리	34	http://www.visitkorea.in/
베트남	다민족사회, 침략, 지배의 역사 때문에 혼합성을 지니나 고유의 문화 존재	(관광슬로건) Timeless charm	pho(쌀국수), 분짜, 반미	63	https://www.visitkorea.org.vn/

나. 국가별 현황 개요

1) 인도네시아

인도네시아는 남중국해와 인도양 및 태평양이 교차하는 동남아시아의 적도를 따라 남북으로 크고 작은 18,000개의 섬으로 이루어진 국가이다. 면적은 한반도의 9배(1,919,440㎢)에 달하고 중국, 인도, 미국에 이어 세계 4위(2억 6,416만 명)의 인구 대국이다.

인도네시아 경제는 세계적 경기 침체 속에서도 꾸준히 5%대 성장률을 보이고 있으며, 2018년 국가 빈곤율도 1999년 측정 이래 최초로 한 자릿수를 기록하고 있다. 국토의 64%가 산림(124만km2)으로 세계 3위 열대 산림자원을 보유하고 있어, 고용인력 400만 명에 달하는 동남아시아의 최대 목재산업국이다. 인도네시아의 주요 수출입 품목은 수출·수입 모두 석유가스와 비석유가스가 상위 1, 2위를 차지하고 있다.

인도네시아 정부 또한 한국을 주요 외교국으로 평가하고 있으며 한국을 인도네시아 경제발전의 모델로 상정하고 양국 경제협력 증진에 큰 관심을 보이고 있다. 주인도네시아 대사관은 한·인도네시아 양국의 문화 교류를 위해 매년 9월 또는 10월을 ‘한·인도네시아 문화의 달’로 지정하고, K-콘텐츠와 K-푸드, K-애니메이션, 퓨전 콘서트, 패션쇼, 한인니 영화제 등 다양한 분야에서 다채로운 프로그램이 진행된다.

또 2011년 자카르타에 한국문화원을 개설하여 문화 교류 활성화 기반을 구축하고 자카르타 한국문화원 내 세종학당에 한국어 강좌를 마련하여 현지인들에게 우리말과 글을 보급하고 있다. 2019년 기준 자카르타-서울, 수라바야-부산 등 24개 지자체가 자매 (우호)결연을 맺고 있으며, 매년 문화교류 확대 추세에 있다. 한국과 인도네시아는 정부 뿐 아니라 민간 차원에서도 활발하게 문화교류를 진행하고 있다.

〈표 3-9〉 한국-인도네시아 문화교류 주요 연대기

연도	주요 내용
1966	영사관계수립
1973	대사급 외교 관계 수립
2006	'전략적동반자관계'수립
2006	관광협력양해각서
2007	문화협력협정
2011	한국문화원 개설
2012	포스코건설 '해피빌더' 한국-인도네시아 간의 문화교류 행사
2017	'인도네시아 케이(K)-콘텐츠 엑스포 2017' 행사
2017	'특별전략적동반자관계'수립
2017	제5회 한·인도네시아미디어설치전
2017	옹알스공연, 제주도립무용단'천년의몸짓' 공연
2017	한·인도네시아 문화의 달 복합 문화 행사
2018	제 10회한·인도네시아영화제
2018	3·1운동100주년기념공연 '맛있는요리대결비밥', 창작오페라'봄봄&아리랑난장굿' 엄마나라이야기, 서울예대공연'논다논다논다', 국제무형문화제주간'굿보러가자' 공연
2018	GOT7, 워너원, 트와이스, 슈퍼주니어, 아이콘 등 콘서트 개최
2018	헤일로'2018아시안게임기념평화퍼레이드', 'K-Content Expo2018' 등 한류행사
2018	무형문화재주간'한국의여름을상상하다' 전시
2019	K-Pop커버댄스페스티벌
2019	국립부산국악원'고요한아침의나라-100년의길'
2019	크러쉬, 슈퍼주니어, 뉴에스트 등 콘서트 및 한류행사
2019	한국의DMZ평화생명의땅최병관사진전

출처: 외교부(2019). 『2019 인도네시아 개황』, 주인도네시아 대한민국대사관(http://overseas.mofa.go.kr/th-ko/index.do), 문화체육관광부(www.mcst.go.kr)

인도네시아에서는 한국문화에 대한 관심이 계속 높아지고 있고 한류에 우호적인 나라이다. K-pop, K-Drama, K-Movie, K-Food 등 다양한 한류가 인기이며, 온/오프라인 한류 커뮤니티가 활성화되어 있다. 이들은 다양한 행사에 적극적인 형태로 참여할 뿐 아니라 자체적으로 한류행사를 개최하기도 하며 관련 소비력 또한 증가하고 있다. 한국드라마는 2001년 가을동화 이후 꾸준히 그 인기를 이어오고 있고 주요 인니방송국에서 방영되고 있다.

방송 이외에도 OTT 서비스 플랫폼 또한 한국 미디어 콘텐츠를 접하는 주된 통로로 자리잡았으며, 합법적 인터넷 채널을 통해서 유통되고 있다. 한국영화는 CGV가 2015년에 현지에 진출하여 약 370개의 상영관에서 다양한 한국영화를 상영하고 있는데, CGV를 중심으로 작품 수 및 관람객이 매년 증가하고 있다. 인도네시아에서 K-pop은 지속적으로 가장 큰 인기를 얻고 있다.

하지만 반한류의 증가 추세와 우려가 나타나고 있다. 인도네시아에서 반한류 공감의 이유는 '자국의 콘텐츠산업 보호'와 '타문화에 대한 반감'으로 나타나며, 이는 한류가 인도네시아에서 급속히 확산 및 성장하고 있다는 사실과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다.

아세안 주요 6개국(인도네시아, 태국, 베트남,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필리핀)의 콘텐츠 동향[71]을 살펴보면, 한류, K-컬쳐로 대표되는 한국 방송·콘텐츠에 대한 관심 및 경험이 높은 지역으로 나타났으며, 한국 콘텐츠의 경험율은 약 60% 이상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콘텐츠 분야 중 K-Pop, 드라마와 뷰티 분야에서 관심도가 높았으며, 아세안 지역의 한국에 대한 우호도와 문화에 대한 관심도는 과반수 이상이 긍정적 인식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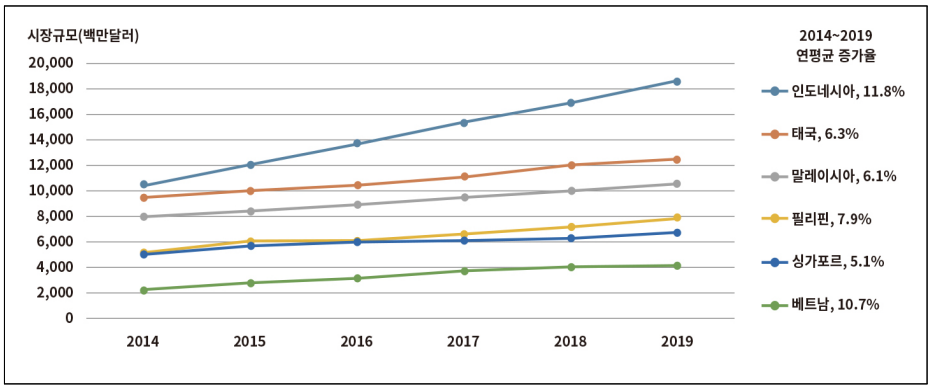
아세안 지역의 콘텐츠 시장 동향[72]에 따르면 인도네시아가 시장 규모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그 다음 순으로 태국, 말레이시아, 필리핀, 싱가포르와 베트남으로 나타난다. 또 아세안 주요 6개국의 콘텐츠 시장 규모는 2016년 기준, 495억 달러로 집계되었으며, 2021년까지 약 10%의 성장을 이룰 것으로 전망한다.

---

71) 길성원(2019). "아세안 국가의 콘텐츠 시장 동향과 콘텐츠 파트너쉽 사업 소개". 「이슈리포트」. Vol. 2019-06. 정보통신산업진흥원

72) *ibid.*

[그림 3-1] 아세안 지역의 콘텐츠 시장 동향(2014년~2019년)



출처: 길성원(2019). "아세안 국가의 콘텐츠 시장 동향과 콘텐츠 파트너쉽 사업 소개". 「이슈리포트」. Vol. 2019-06. 정보통신산업진흥원.

2) 인도

인도는 3,287,263㎢의 면적(세계 7위, 한반도의 15배)의 나라이며 남부아시아 히말라야산맥 남쪽에 있는 공화국으로, 인도아대륙[73]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인구는 UN통계 2018년 기준 13억 6천 만 명으로 세계 2위에 달한다. 주 언어는 힌디어로 헌법에서 인정하는 공용어는 힌디어를 포함하여 총 22개며, 영어는 공용어가 아니지만 의회, 행정부, 사법부 및 사회 각 분야에서 넓게 통용한다.

인도는 힌두교, 불교, 자이나교, 시크교 등 4개 종교의 발생지로 이슬람교, 기독교, 조로아스터교, 유태교 등 다양한 외래종교가 공존하고, 인도에서 종교는 인도인의 일상생활에 지배적인 영향을 끼치는 중요한 요소이다[74]. 인도의 각 지역 종파(sect)와 카스트에 따라 크고 작은 축제와 의례가 치러지는데, 여전히 인도인의 일상생활에 큰 영향을 미치는 사회관습인 카스트제도, 다양한 인종과 더불어 존재하는 다양한 언어, 외래문화를 흡수하는 가운데 단일성을 유지하는 힌두전통과 관습 등은 인도만의 독특한 문화코드[75]를 만들어내고 있다. 또 인도가 가지고 있는 영국

73) 인도 아대륙(印度 亞大陸, 영어: Indian subcontinent) 또는 인도반도(印度半島)는 현재 남아시아에서 인도, 파키스탄, 방글라데시, 네팔, 부탄, 스리랑카 등의 나라가 위치한 지역으로서, 지리적으로 북동쪽은 히말라야산맥, 서쪽은 아라비아해, 동쪽은 벵골만으로 둘러싸여 있음

74) 외교부(2019). 『2019 인도 개황』

75) 지속적 민주주의와 서민구제, 권위주의, 집단적 개인주의, 생활종교의 정착, 카르페디엠, 발리우드 맛살라 무비 등이 대표적임[김윤희, 박치완(2011). "인도의 문화코드와 글로컬문화콘텐츠". 「국제지역연구」, 14(4), 79-106]

의 식민지 역사가 갖는 문화적 맥락도 공존한다, 따라서 이러한 종교적 교리, 계급 제도와 지역별 다양한 문화 및 관습 등의 측면에서 인도의 문화교류 방안을 분석하고 접근해야 할 것이다.

〈표 3-10〉 한국-인도 문화교류 주요 연대기

연도	주요 내용
1962. 4	주뉴델리 총영사관 개설(4.24)
1968. 10	주서울 인도총영사관 개설
1973. 12	외교 관계 수립(대사관 승격 : 12.10) ※ 북한-인도간 외교 관계 수립
1974. 8.	무역협정 / 문화협정 (1974.8월 발효) 1978-2014년 8차례에 걸쳐 한-인도 문화공동위원회 개최
1993. 9	1993년~1995년 한-인도 문화교류 계획서" 서명(서울) , 관광협력협정 (1993.10월 발효)
1996	1996년~1998년 한-인도 문화교류 계획서" 서명(뉴델리), 주뭄바이 총영사관 개설 (2001 폐지, 주뭄바이분관설치, 2005 주뭄바이 분관, 주뭄바이 총영사관으로 승격))
1997	서울 예술단 공연, 국립국악원 공연
1999	1999년~2001년 한-인도 문화교류 계획서" 서명(서울)
2003	국립국악원 공연 및 한국영화제개최(뉴델리, 콜카타, 첸나이, 뭄바이) 대한태권도협회 소속 국가대표 태권도 시범단 공연(뉴델리, 뭄바이) 정동극장팀 공연, 이호신 및 박여송 화가전, 한-인도 공동패션쇼(이리자, 이상봉)
2004	한국 음식축제
2006	한국 드라마 '해신' 국영 DD-TV 방영, 한국 드라마 '대장금' 국영 DD-TV 방영
2006	인도 청소년대표단 한국 방문, 한국 청소년대표단 인도 방문 (2007, 2008, 2009, 한-인도 정부 간 청소년대표단 상호 교류 진행)
2011	"한국-인도 문화교류의 해" 지정 인도: '한국의 해' 개막식(3 월), 타고르 흉상 제막식(5월), '한국의 해' 폐막식(12월) 한국내: '인도의 해' 개막식(6월), 주한인도문화원 개소(7월), 등 다양한 문화교류행사 개최
2012	한국문화원 개설(뉴델리 서남아 최초), 2012 K-POP 콘테스트 (개최 이래 동 콘테스트가 연례 K-POP 행사로 정착)
2013. 3	주첸나이 총영사관 개설
2014.1.~10.	드라마 허준 방영 (DD Bharati TV), 드라마 '허준'시사회 개최(문화원)
2014	2014-2017년 한-인도 문화교류 계획서 서명
2015	K-POP N-Sonic 밴드 인도대학 순회공연,한-인도 정상회담 계기 문화교류 증진 합의
2015~2019	2016 인도배드민턴그랑프리골드, 2017 인도오픈배드민턴슈퍼시리즈, 2019 인도오픈배드민턴선수권대회(Super 500), 2019 인도네시아마스터즈배드민턴선수권대회(Super 500) (주최: 대한배드민턴협회)
2017	〈Korea-India Art Exchange〉 충남 임립미술관-인도교류전(문화원)
2019	한-인도 정상회담 계기 인적·문화교류를 활성화 합의

출처: 외교부(2019).『2019 인도개황』, 주인도 대한민국대사관(overseas.mofa.go.kr/in-ko/index.do), 문화체육관광부(www.mcst.go.kr)

1974년 한-인도 무역협정과 함께 문화협정이 체결된 이래 1978년부터 2014년까지 8차례에 걸쳐 한-인도 문화공동위원회가 개최되었다. 이 때 합의된 한-인도 문화교류계획서에 따라 종교, 문화, 예술, 문화산업, 신문, 방송, 체육, 청소년 등 다양한 분야에서 문화교류를 지속적으로 확대 실시해오고 있다. 2012년에는 뉴델리에 서남아 최초로 한국문화원이 개설되어 우리 문화와 한류확산의 거점 역할을 수행 중이다.

〈표 3-11〉 주인도 한국문화원 및 주한 인도문화원 현황

내용	주인도한국문화원	인도문화원
개원	2012.12.13	2011.7.1
주소	25 A, Lajpat Nagar 4, New Delhi, India http://india.korean-culture.org	서울특별시 용산구 한남동 36-1 www.indoculture.org
주요활동	• 세종학당, 도서관, 한식까페, 태권도 아카데미, 체험실, 전시실, 공연장, 문화 스튜디오 운영 • 한류홍보, 초중등학교연계 활동, 전인도 수필, 퀴즈, K-Pop 등 각종 경연대회 주최 • 주요 국제 페스티벌 참가, 기획 및 특별전시회 운영 , 문화원 내 클럽활동 및 문화강좌 (그림, 수묵화, 꽃꽂이 등) 운영	• 요가, 무용 등 6개 강좌운영 • 인도영화제, 워크숍 개최 지원 • 자체 기획 및 교류협력 공연 및 예술전시회 개최

한국의 국악, 무용, 사물놀이, 판소리 등 전통예술과 전통문화가 인도 현지에서 큰 호평을 받았으며, 점차 연극, 영화, 관광 등 다양한 분야로 양 국간 문화교류가 확대되고 있다[76]. 2014년 한-인도 문화교류 계획서가 서명되면서, 한-인도 국립박물관 간 및 국립아시아전당-인도 국립 인디라간디 예술센터(IGNCA)간 업무협력 약정이 체결되어 한-인도 문화예술기관 간 문화교류협력이 본격화되고 있다.

BTS 등을 중심으로 한 K-Pop과 한류가 인도에서도 본격 확산단계로 발전하며 인도의 한류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지만, K-Pop으로 치우친 일방향적 확산과 보급은 국가 내 다양성과 단일적 집단주의가 공존하는 인도에서 문화적 반발이 일어날 가능성이 있다. 또 최근 할리우드의 영화 개봉도 큰 이목을 끌지 못하고 기존의 인도 영화만이 주류였던 발리우드 시장에 리메이크 한국영화[77] 열풍이 불었는데, 이는 아시아권의 공감대로 접근하고는 있으나 성, 폭력 등에 민감한 인도의 특수성을

76) 외교부(2019).『2019 인도 개황』
77) 헤럴드경제(2016.4.27.). "리메이크 판권 수출 급증, 왜일까?"

고려하지 않았다는 비판이 있다. 이는 우리나라와 인도의 현존하는 문화적 거리를 좁히는 것이 문화교류의 가장 큰 과제임을 알 수 있다.

3) 베트남

베트남은 한반도의 1.5배의 면적으로 인도차이나 반도 중부에 위치하며, 국토의 절반은 중국·라오스·캄보디아와 접해있고 나머지 절반은 태평양에 맞닿아 있다. 이러한 지정학적 특징 때문에 베트남은 과거에 끊임없이 외세의 침략과 지배를 받아왔는데 이는 베트남 문화의 혼합성을 이루는 요소라고 볼 수 있다[78]. 하지만 중국과 아세안(ASEAN) 각 국가를 연결하는 거대 경제권 한복판에 위치함으로 인해 현재 동남아 시장의 허브역할로 떠오르고 있다.

베트남의 정부형태는 공산당이 유일한 정당인 사회주의 공화제로, 행정구역은 5개 직할시와 58개로 구성된다. 전체 인구는 약 9,458만 명으로 비엣족(Viet족, Kinh족)이 전 인구의 대부분(86%)을 차지하며 여타 53개 소수민족이 각 지역에 흩어져 살고 있다[79]. 언어적으로는 공용어는 베트남어이지만 법률상 4종의 소수민족 언어가 허용되고 있다.

대한민국과는 구월남 정부와 1956년 수교가 시작되었고, 1975년 사이공 함락으로 단교하였으나 베트남 전쟁 종전 17년만인 1992년 정식으로 베트남과 외교관계가 성립했다. 2001년에 양국 정상은 우호협력관계를 한 단계 발전시키기 위해 '한·베트남 21세기 포괄적동반자관계'를 공동선언했다. 2009년에는 '전략적 협력동반자 관계'로 격상하는 한편, 2012년 FTA협상 개시(2015년 발효)로 협력관계가 더욱 가속화되었다. 1992년 한·베트남 국교 수립 이래 양국 간 교역규모는 137배로 급성장하였으며, 베트남은 2018년 기준 중국, 미국, 일본에 이어 제4위 교역국으로 중요한 협력 파트너다. 또한, 베트남은 아세안 국가 중 가장 많은 한국인이 방문하는 국가로서 양국 국민의 상호 방문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78) 문화체육관광부, 한국국제문화교류진흥원(2020).『2020년 해외한류실태조사 보고서』
79) 외교부(2019).『2019 베트남 개황』

〈표 3-12〉 한국-베트남 문화교류 주요 연대기

연도	주요 내용
1955	(구월남 정부)월남공화국승인
1956	(구월남 정부)외교 관계 수립
1964.~1973	(구월남 정부)베트남전당시6차례에걸쳐총31만여명파병
1975.4.30.	(구월남 정부)대사관철수(월남 패망 직전)
1992	외교관계수립, 상주대사관설치
1993	주호치민총영사관설치
1993	문화 협력에 관한 협정
1995	과학 및 기술협력에 관한 협정
1999	청소년 교류에 관한 약정
2001	'한·베트남21세기 포괄적동반자관계' 공동선언 발표
2002	수교10주년 계기, 한국및베트남주간선포,국립전통예술단교환공연등 다양한행사개최
2002	관광 분야에서의 협력에 관한 협정
2007	하노이: 「다이내믹 코리아 필름 페스티벌」, 제1회 한국대중음악 베트남 쇼케이스 개최
2009	베트남『한국-베트남 우정의 사진전』
2010	한국-베트남 간 관광협력 MOU 체결
2009	'전략적협력동반자관계' 격상발표
2012	저작권 분야 협력 강화를 위한 양해각서 체결
2013	한국·베트남 현대미술 교류전 '회화지교'
2016~2019	작은도서관(하노이 4개관, 빈푹성 4개관, 푸토성 3개관, 남딘성 3개관) 개관
2019	텔레비전 프로그램 공동제작에 관한 협정

출처: 외교부(2019).『2019 베트남 개황』, 주 베트남 대한민국대사관(http://overseas.mofa.go.kr/vn-ko/index.do), 문화체육관광부(www.mcst.go.kr)

베트남과의 문화교류에 있어서 '한류'는 동남아시아 국가 중 가장 빨리 이루어졌다. 베트남은 동남아 국가 중 가장 먼저 한국드라마가 소개되고 인기를 끌었던 국가이다. 1997년 한국드라마가 소개되었고 1998년 방영된 "의가형제"가 폭발적인 인기를 끌며 베트남은 동남아에서의 한류 진원지였다[80]. 한국문화원 또한 동남아 지역 최초로 개원하였는데, 2006년 APEC 정상회의 베트남 개최를 계기로 개원하여 한국어 교육, 태권도, 한식 요리, 국악, K-Pop 강좌 등 문화교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이렇듯 베트남은 현재 한류열풍이 매우 뜨거운 나라이며, 한국인에 대한 호감도

80) 문화체육관광부·한국국제문화교류진흥원(2020).『2020년 해외한류실태조사 보고서』

도 매우 높다. 베트남 내에 약 50여 개의 전국단위 K-pop 동호회가 운영 중이며, 인기배우를 중심으로 소규모 팬클럽이 있다. 전반적으로 한류흐름이 긍정적이지만, 일부 기성세대를 중심으로 청소년들이 한국 아이돌 가수를 맹목적으로 추종하는 현상에 우려를 표시하기도 하고, 자국 고유문화 발전을 저해하는 요소로서 한국 대중문화의 일방적 유입우려의 목소리가 있기도 하다. 따라서 앞으로의 문화교류에 있어 한류 뿐 아니라 다양한 장르의 문화를 함께 제공 및 교류하고, 베트남 고유문화와 쌍방향적으로 교류할 수 있는 방안 모색이 필요하다.

한편 태권도는 베트남에서 활발한 스포츠이다. 베트남에서 태권도는 1960년대부터 도입되어 1991년 제1회 베트남 전국태권도 선수권대회가 성공적으로 개최된 후 정기적으로 열리고 일반인들의 태권도에 대한 관심도 높아 태권도 강좌가 많이 열리고 있다. 태권도 외에도 스포츠 분야에서의 한-베간 교류는 꾸준히 늘어나고 있다. 특히, 대한민국 전 축구선수이자 축구감독인 박항서 감독이 이끄는 베트남 국가 축구팀이 2018 AFCU-23 챔피언십 대회 준우승, 2018 아세안 축구선수권 대회(AFF Championship)우승 등 베트남 축구 역사상 괄목할만한 성과를 달성하면서 박항서 감독은 베트남의 영웅이라고 불릴 정도로 큰 인기를 얻어 덩달아 한국에 대한 호감도와 인식이 급상승하는 계기로 작용하였다.

2. 중위 교역액 국가 문화교류 환경 분석: 태국, 필리핀,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가. 국가별 특성 항목 비교

1) 인구/경제/교역규모

태국과 필리핀, 말레이시아와 싱가포르는 한국과의 교역액이 약 141억 달러~198억 달러에 이르며, 신남방지역 국가 중에서는 중위 수준 교역이 이뤄지고 있는 국가다. 각 국가는 싱가포르를 제외하고 국민 1인당 GDP가 1만 달러에 아직 미치지 못하지만 전체 GDP는 3,100억여 달러~4,500억여 달러에 달한다.

〈표 3-13〉 국가 현황 비교(2)

국가	인구 (2020년 기준, 명)	1인당 GDP* (2017년 기준, 달러)	GDP (2017년 기준, 백만 달러)	경제 성장률 (2018년 기준)	한국과 교역액 (2018년 기준, 백만 달러)	ODA 총액 (억원)
태국	6,980만	6,590	455,221	4.13%	14,102	-
필리핀	3,237만	2,990	313,595	4.72%	15,644	898
말레이시아	3,237만	9,950	314,500	4.72%	19,201	-
싱가포르	585만	57,710	323,907	3.14%	19,830	-

*World Bank, IMF(2017년 기준)

출처: 나무위키-신남방정책(https://namu.wiki/w/신남방정책), 대한민국 정책브리핑(http://www.korea.kr), 한국무역협회·산업통상자원부 K-stat(http://stat.kita.net/), KOICA ODA 정보포털(http://www.oda.go.kr/), 신남방정책특별위원회(2019).『아세안-인도-경제·무역·투자 통계집』, 관계부처합동(2019). '19년 국제개발협력 종합시행계획, 주태국한국문화원(http://thailand.korean-culture.org/ko), 주필리핀한국문화원(http://phil.korean-culture.org/ko)

2) 문화적 특성: 한국과의 문화접점/한류 특성

중위교역 국가들은 불교부터 이슬람, 기독교, 힌두교 등 다양한 종교를 지니고 있으며, 말레이계와 중국계를 비롯한 여러 민족으로 구성되어 해당 지역의 고유어부터 영어, 중국어 등 다양한 언어가 사용된다. 민족적, 지역적, 종교적 특성을 반영한 축제가 열리며, 그중에서도 싱가포르는 연간 예술투자액이 758만여 달러에 미칠 만큼 예술진흥에 대한 국가적 의지가 높다.

〈표 3-14〉 국가별 구성 특성(2)

국가	예술투자금액** (2018년, 달러)	주요축제	종교	민족구성	언어
태국	-	송크란 축제, 로이 끄라통 축제	불교, 이슬람교	타이족, 화교, 말레이	태국어, 중국어, 말레이어
필리핀	-	시눌룩 축제, 블랙 나자렌 축제	가톨릭교, 이슬람교	말레이계가 주 인종, 혼혈 다수	타갈로그어, 영어
말레이시아	25만 7천	다약축제, 타이푸삼 축제	이슬람교, 불교, 기독교, 힌두교	말레이계, 중국계, 인도계, 기타	말레이어, 영어, 중국어
싱가포르	758만 3천	음력 설 축제(춘절제), 하리라야 푸아사 축제 (무슬림 최대 축제), 디파발리 축제(힌두교 빛 축제)=디왈리	불교, 기독교, 이슬람교, 도교, 가톨릭교, 힌두교	중국계, 말레이계, 인도계	영어, 중국어, 말레이어, 타밀어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에 해당됨, 한국수출입은행, 연도별/업종별 해외투자현황(2018.12월 기준, 달러)

태국과 필리핀, 말레이시아와 싱가포르 모두 국내에서는 해당 국가의 관광 콘텐츠에 대한 친밀도, 인지도가 높은 편이다. 하지만 이들 국가는 대외적으로 가지는 휴양지로서의 이미지와는 사뭇 다르게 민족갈등, 빈부격차, 쿠데타 등 자국 내 갈등 수준이 상당히 높다.

〈표 3-15〉 국가별 문화적 특징, 상징 및 사회 갈등 요인

교역액 순	문화적 특징	문화상징 대표이미지	사회문제와 갈등의 핵심
태국	타이족 85%로 주를 이루며, 화교 12%, 말레이족 2% 등으로 구성, 국민의 95%가 불교	쏭크란(태국 달력 기준 새해맞이 물 축제)	1946년 이후 총 16번의 쿠데타 발생.(국왕이 승인한 쿠데타는 성공으로 평가함.)
필리핀	말레이계가 주종이며 중국·미국·스페인계 혼혈 다수 가톨릭 83%, 개신교 9%, 이슬람교 5%, 불교 및 기타 3%	보라카이, 세부 등 휴양지 아르니스(필리핀 대표 무술)	심각한 빈부격차 치안 불안정. 이슬람 분리 독립파 테러 세력 대 공산반군 등에 의한 테러 위협 상존 공공기관의 부패 두테르테 대통령의 공포정치
말레이시아	62%의 말레이계와 22%의 중국계 민족, 그 밖에 인도계와 외국인 국교는 이슬람교이나 헌법상 종교의 자유 보장	쿠알라룸프르 트윈타워(말레이시아 대표 기업 페트로나스 소유) 실랏(말레이시아 전통 무술, 국제 스포츠, 전통 춤)	민족·종교적 상이성과 중국계와 말레이계의 경제적 격차 때문에 말레이시아는 1960년대부터 최근까지 인종폭동, 민족 간 충돌, 종족별 소비 등의 종족 분쟁 문제를 겪고 있다.
싱가포르	중국계 74.3%, 말레이시아계 13.4%, 인도계 9.0%, 불교 33%, 이슬람교18%, 기독교 15%, 도교 11%, 힌두교 5%, 기타 19% 서울의 1.2배 면적에 500만여 명의 인구가 거주하는 도시국가	머라이언(싱가포르의 상징물로서 상반신은 사자, 하반신은 물고기의 모습을 한 가공의 동물)	복잡한 민족 구성으로 인한 갈등, 중국계로의 부의 집중

신남방 중위교역국은 대한민국과 1940~60년 사이 국가 간 수교를 맺었으며, 태국과 필리핀은 한국전쟁 당시 파병한 전통적 우방국이다. 말레이시아, 싱가포르와는 대한민국의 경제가 성장 초기단계에 있던 1960년대 수교를 맺으며 경제교류를 기반으로 한국과의 관계가 형성되었다.

신남방 중위교역 국가에서는 대부분 한류가 큰 인기를 끌고 있다. 2000년대 초반 한국드라마 등을 통해 처음 한국문화 콘텐츠를 접했으며, 이후 K-Pop, 예능 등 엔터테인먼트 산업 전반 콘텐츠로 소비가 확장되었다. 이들 국가에서는 아직 혐한, 반한류 사례가 명시적으로 드러나지는 않았으나 지금까지의 한류를 기반으로 한 교류가 일방향으로 이뤄졌다는 점, 각 국가에서 가지고 있는 한국인에 대한 인식 등을 고려했을 때 반한류에 대한 우려가 일부에서 나타나고 있다.

〈표 3-16〉 신남방 국가와 한국문화의 접점 콘텐츠

교역액 순	한국문화와의 접점 콘텐츠/계기
태국	• 한국의 9번째 수교국 • 1958년 외교관계 수립. 6·25전쟁당시 전투 병력을 파견한 전통적인 우방국 • ASEAN, ASEM, APEC 등의 다자 관계에서도 밀접한 우호협력 관계
필리핀	• 다섯 번째 수교국, 6.25 전쟁에 7천여 명 파병한 우방국 • 1990년대 대기업의 직접 투자, 중소기업 및 개인 이주 증가로 말레이시아 거주 동포가 확대되다 최근 정체. 한류가 필리핀 관광산업 육성에 적극적으로 활용 • 한국 문화체육관광부에의 공적원조사업인 '문화동반자 사업' 활발[81] • 2017년 기준 필리핀 방문 한국인 160만여 명, 다년간 국가별 필리핀 관광객 수 1위
말레이시아	• 1960년 외교 관계를 수립 • 말레이시아는 동방정책(Look East Policy)을 추진하며 한국을 국가 발전 모델로 삼음 • 할랄 식품 산업으로 국내 기업 진출 확대. 할랄 인증을 받은 한국 라면의 경우 매출 2013년 18억 원에서 2017년 193억 원으로 성장[82]
싱가포르	• 1995년 '예술·문화·체육 협력 협정', '통신 협력 양해각서' 체결 • 1997년 '과학·기술 협정', '체육 교류 약정', 2006년 한-싱 FTA • 양국의 국립 현대미술관을 중심으로 미술, 영상 등 순수예술 분야교류가 활발

〈표 3-17〉 신남방 지역 국가의 한류 특성(2)

교역액 순	한류 특성	혐한, 반한류 가능성
태국	• 2013년 한국문화원 개원. 동남아 한류의 거점으로서 한국 TV 드라마, 영화, 음반 및 게임에 대한 관심	• 아직까지 혐한까지 진행되지는 않았으나 이를 대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옴[83] • 연구에 따르면 태국의 한국에 대한 문화 호감도가 높은 편임[84]
필리핀	• 2003년 필리핀의 대표 공중파 방송인 GMA7에서 〈명랑소녀 성공기〉, 〈가을동화〉 등을 방영한 이후 최근 방영한 〈도깨비〉, 〈힘쎈여자 도봉순〉 등 지금까지 필리핀 주요 방송사를 통하여 300여 편이 넘는 한국 드라마 방영 • 한국 드라마를 '코리아노벨라(Koreanovela)'로 칭함 • 한국문화원이 한류 확산에 적극적으로 기여	• 한류 콘텐츠에 등장하는 문화우월주의 또는 차별주의에 대한 인식이나 한류 팬에 대한 필리핀 기성세대의 부정적인 반응[85][86][87] • 한류에 대한 긍정적인 판단과는 대조적으로 코피노 등 사회적 이슈로 한국인에 대해 다소 부정적인 인식
말레이시아	• K-Pop 과 드라마, 예능 등 엔터테인먼트 콘텐츠 선호가 높음. TV와 OTT를 통한 접촉 다수[88]	• 국내에서는 이슬람 문화에 대한 이해가 상대적으로 부족[89] • 한류 콘텐츠가 이슬람 전통 가치관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우려 존재[90]
싱가포르	• K-Pop과 한국 드라마, 예능 프로그램이 인기를 끌면서, 관련한 공연·연주회·팬 미팅 등이 빈번	• 싱가포르 내에서 엔터테인먼트 산업 콘텐츠를 바탕으로 한국 문화에 대한 관심이 높은 것과는 대조적으로 한국 내에서는 싱가포르 문화에 대한 관심이 사실상 전무

81) 사단법인 국제문화협력지원센터(2014). 「문화동반자사업 우수성과 사례분석 성과보고회」 자료집. 82-85
82) 조의윤, 손승표(2018). "아세안 할랄시장 허브로서의 말레이시아의 잠재력과 한국의 대응방안 연구", 「트레이드포커스」. Vol. 55.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연구원

3) 한글의 위상과 관광 특성

신남방 중위교역국에서는 한류의 인기에 힘입어 한글에 대한 관심이 높은 편이다. 4개국 모두에서 한국어능력시험(TOPIK)이 실시됐으며 대학 내에 한국어·한국학을 가르치는 강좌·학과가 생겼거나 중등교육과정에서 제2외국어로 채택되고 있다.

〈표 3-18〉 신남방 지역 국가에서의 한글 위상

교역액 순	현지 세종학당 수[91]	한글의 위상: 제2외국어, 한국어시험 여부	한국어 능력 시험 (TOPIK) 시험장 수	국가별 응시자 수	한국어반 개설 현황[92]	문화원 유무
태국	4	• 2016년 대학입시에 한국어 제2외국어로 채택. • 방콕, 송클라 등 6개 도시에서 한국어능력시험 (TOPIK) 시행[93]	6	947	114 (태국 한국 교육원)	0
필리핀	4	• 필리핀 수도권인 메트로 마닐라의 10개 공립 고교에서 한국어 선택과목에 추가 • 필리핀 북부 5개 주로 구성된 칼라바르손 지방 8개 고교로 한국어 교육을 확대하기 위해 교원 양성[94]	3	33	-	0
말레이시아	2	• 2014년에는 말레이시아 정규 교육과정에 한국어가 제2외국어로 포함 • 국립말라야대학에는 한국학 전공과정이 개설	1	333	10 (주 말레이시아 대사관)	x
싱가포르	-	• 싱가포르 국립대학 2018년부터 한국어 과목 부전공으로 개설[95] • 싱가포르 중고등학교, 한국어 제3언어로 채택 여부 논의[96] • Topik 응시자 2012년부터 2018년까지 400~500여 명에 달함	1	218	-	x

83) 문효진(2018). "한국 방송콘텐츠의 태국 진출 및 교류 협력을 위한 방안 연구". 「글로벌문화콘텐츠」, (33), 63-87

84) 김상현, 장원호(2016). "국가 이미지와 한류 소비 요인간의 관계 분석: 중국, 태국, 필리핀, 베트남 설문결과를 바탕으로". 「글로벌문화콘텐츠」, 24, 289-310

85) 장원호, 송정은(2015). "필리핀 K-Pop 팬덤이 K-Pop 의 현지화에 미치는 영향: PKCI의 사례를 중심으로". 「한국엔터테인먼트산업학회논문지」. 9(3). 31-43

86) 허윤정, 송정은, 장원호(2016). "필리핀의 한류수용 특징".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16(4). 153-169

87) 임학순(2012). "필리핀 청소년들의 K-pop 소비요인 및 영향인식에 관한 연구". 「비교한국학 Comparative Korean Studies」. 20(1), 85-112

88) 문화체육관광부, 한국국제문화교류진흥원(2020). 『2020년 해외한류실태조사 보고서』

89) 장병옥, 최활식(2013). "말레이시아 주요 산업 및 경제협력에 관한 연구". 「동남아연구」. 22(3). 269-308

90) 하이파, 김진영(2019). "이슬람, 한류에 빠지다". 「글로벌문화콘텐츠학회 학술대회」. 189-193

신남방 중위교역국에서는 다양한 문화적 특성의 조화를 국가의 문화적 힘의 원천으로 활용하고 있다. 네 국가는 모두 식민지배를 받았거나 식민지배의 위협 속에서 국가를 유지해왔고, 내부 단합을 바탕으로 독립국가로서의 지위를 획득한 역사를 가지고 있는 바 다양한 민족적·종교적 특성의 융합을 지향하며 이를 통해 국가의 경쟁력을 제고시키고자 노력하고 있다.

〈표 3-19〉 신남방 지역 문화적 특징

교역액 순	문화적 힘의 원천	슬로건, 브랜드	대표 음식	관광 경쟁력 순위 WEF 2019	관광공사 해외사무실 홈페이지
태국	• 태국 문화의 기조는 인도·미얀마·크메르 문화가 융합 • 불교문화는 인도·스리랑카에서 도입	'Open to the new shade'	• 팟타이, 쏨땀, 똠냥꿍	31	http://english.visitkorea.or.kr/enu/index.kto
필리핀	• 현 인도네시아인 수마트라의 스리비자야 왕국과 자바섬의 마자파힛 왕국과의 교역 역사가 필리핀 문화 원천 • 필리핀 모국어인 타갈로그어에는 산스크리트어를 어원으로 하는 단어가 많음	'It's More Fun in the Philippines!'	• 여러 국가로부터 식민지배를 당한 경험으로 음식 역시 혼합적 형태 • 시식(육류, 해산물류 요리), 아도보(육류 요리)	75	http://english.visitkorea.or.kr/enu/KOO/OO_ENG_8_2.jsp
말레이시아	• 하나의 말레이시아 • 사회 통합과 민족 간 조화로운 문화 발전을 추구[97]		• 나시 르막(코코넛 밀크로 지은 밥과 멸치, 땅콩, 삼발 소스) • 나시고랭, 미고랭	29	https://www.visitkorea.com.my/
싱가포르	• 9,000여개의 다국적기업과 다양한 비즈니스 기회를 바탕으로 MICE산업 발달[98]	PASSION MADE POSSIBLE	• 칠리크랩, 락샤, 피쉬볼	17	http://english.visitkorea.or.kr/enu/KOO/OO_ENG_6_2.jsp

91) 세종학당재단(https://www.ksif.or.kr/) (검색일시: 2019.6.)
92) 2017년 해외 초·중등학교(지원 현황 28개국 1,423교 45.4억원): 재외공관(한국교육원)의 제출 자료에 의함
93) 문화체육관광부 해외문화홍보원(http://www.kocis.go.kr/koreanet) (검색일시: 2020.6.4.)
94) 연합뉴스(2018.11.18.). "필리핀 수도권 10개 고교서 한국어 교육…지방으로 확대계획"
95) 외교부(2019). 『싱가포르 개황』, 117
96) The Straits Times(2019.11.27.). "Korean may be taught as a foreign language in Singapore schools"

나. 국가별 현황 개요

1) 태국

태국은 동남아시아의 중심에 위치하여 인도차이나, 미얀마, 그리고 중국 남부지역을 잇는 게이트웨이 역할을 하고 있다. 면적은 51.3만km^2로 프랑스와 비슷하며, 인구수는 약 6,979만 명[99]이다. 민족은 타이족이 85%로 주를 이루며 화교12%, 말레이족 2% 등으로 구성된다. 태국문화의 기조는 인도·미얀마·크메르 문화가 융합된 것이며 불교문화는 인도·스리랑카에서 도입되었다. 태국 인구의 95%를 차지하고 있는 불교가 사회생활 문화의 저변을 형성하고 있다. 태국은 각종 건축·사원·미술·무용 등은 전통적으로 불교, 크메르 문화, 브라만교의 영향을 받았다.

태국은 지난 1960년대 초부터 적극적인 산업화 정책을 추진해 온 이래 고도의 경제성장을 달성하여 아시아 신흥공업국으로 성장했다. 동남아에서는 인도네시아에 이어 두 번째로 큰 경제 규모이며, 수출이 GDP의 약 59%를 차지하는 중진 개도국이다. 한편 문화분야에서 태국 정부는 1958년 문화부 산하에 문화진흥국을 설립하여 전통문화유산의 보존, 예술 창작 및 진흥 그리고 민족문화에 대한 자긍심 고취하려 노력하고 있다

태국은 한국의 9번째 수교 국가로 1958년에 외교관계가 수립되었다. 태국은 6·25전쟁 당시 전투병력을 파견한 전통적인 우방으로 양자관계는 물론 ASEAN, ASEM, APEC 등의 다자관계에서도 밀접한 우호협력 관계를 유지하는 등 양국 간 정치교류가 활발하다. 특히 태국은 한국을 주요 경제협력 파트너로 인식하고, 무역과 투자확대 등 경제·통상 관계증진을 적극 희망하고 있다.

---

97) Zainal, K., & Salleh, N. M.(2010). Ethnic relation among the youth in Malaysia: toward fulfilling the concept of one Malaysia. *Procedia-Social and Behavioral Sciences, 9*, 855-858.

98) 이재호, 박나리(2012).『싱가포르의 주요 산업: MICE, 의료관광을 중심으로』. 전략지역심층연구 12-18. 대외경제정책연구원

99) 2020년도 통계청, UN, 대만통계청 기준

〈표 3-20〉 한국-태국 문화 교류 및 관련 조약체결

연도	주요 내용
1949	태국, 대한민국 정식 승인
1958	외교 관계 수립 (한국의 9번째 수교국)
1960	상주대사관 설치 합의, 주태국 대한민국대사관 개설
1961	주한 태국대사관 개설
1961	무역협정
2009	재난 환경에 관한 한국영화제(해운대, 괴물 상영)를 개최
2004	문화·교육협력협정
2005	별은 내가슴에 방영
2013	한국문화원 개원
2013	저작권 및 저작인접권 분야 교류·협력에 관한 양해각서(MOU)' 체결
2018	한·태국 수교 60주년: 저명 공연단(코리안 심포니오케스트라) 태국 방문, 문화공연·관광·한식 등 소개「안녕 타일랜드, 싸왓디 코리아」행사 등 다양한 수교 기념 행사 개최
2019	방한객 대상 '2019 태국 환대주간(Korea Welcomes You! 2019 Thai Welcome Week)' 실시

출처: 외교부(2019).『2019 태국 개황』, 주 태국 대한민국대사관(http://overseas.mofa.go.kr/th-ko/index.do), 문화체육관광부(www.mcst.go.kr)

2013년 한국문화원 개원 이래 양국 간 국제문화제 참가와 방송 영상콘텐츠 등 문화콘텐츠 사업 협력, 스포츠 교류 등 다양한 분야에서 문화교류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특히 2018년 한·태국 수교 60주년을 맞아 국립국악관현악단 공연 및 교류를 진행하고 한-태국 청년 간 공동다큐 제작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등 문화교류 프로그램을 진행하였다. 스포츠 측면에서는 태권도 지원을 통해서 태국 내 인기 스포츠[100] 중 하나인 태권도의 현지 저변을 확대하는데 힘쓰고 있다.

태국은 동남아 한류의 거점으로서 한국 TV 드라마, 영화, 음반 및 게임에 대한 관심이 매우 높으며, 민간 차원에서도 동 분야 시장 진출이 매우 활발히 일어난다. 2001년의 가을동화를 시작으로 2005년 풀하우스와 2005년 대장금에 거친 한국 드라마의 방영, 댄스가수 비와 아이돌그룹 동방신기의 태국 진출은 태국에서 한류를 성공적으로 확산하게 하는 두 가지 촉발점이 되었다. 현재 태국에서의 한류는 한국어, 패션, 식품을 넘어 게임, 웹툰, 출판 분야 등 문화콘텐츠에 이르기까지 크게 파급, 확산되고 있다.

100) 태국 내 태권도장 1,500개 이상, 사범 수 2천 명 이상 보유, 태국 태권도는 세계 랭킹 10위권

태국에서는 아직까지 혐한이나 반한류의 기류가 감지되고 있지는 않으나 이를 대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101]. 연구에 따르면 태국 내에서 한국 문화에 대한 호감도가 높은 편이지만[102] 일방적인 한류열풍 상황이 주는 '문화적 자존감 손상' 현상이 지속된다면 혐한·반한류 위험이 발생할 수 있다.

2) 필리핀[103]

필리핀은 대한민국 정부수립 후 미국, 영국 등에 이어 다섯 번 째로 수교한 국가이자 6.25 전쟁에 7천여 명을 파병한 우방국이다. 필리핀에는 한국의 제조업, 서비스업, 건설·공사, 금융 관련 기업 200여 개가 진출해 있으며, 1990년대 대기업의 직접 투자, 중소기업 및 개인 이민 수 증가로 동포가 확대되다가 최근에는 정체 상태에 있다. 양국의 상호 방문객을 살펴보면, 2018년 필리핀을 방문한 한국인이 약 159만 명을 기록하며 필리핀 내에서 외국인 방문객 1위를 차지하고 한국을 방문한 필리핀인도 같은 해 기준 471,532명에 달한다. 또한 우리나라는 필리핀에 경제사회 발전과 빈곤 감소를 위한 무상원조 2.6억 달러, 전화통신망 확충사업 등을 위한 유상원조 9.5억 달러(누적 기준)를 제공한 바 있다.

필리핀은 7,107개의 도서로 구성된 해양국가다. 지리적으로는 전체의 65%가 산악지대에 속하고 고온다습한 아열대성 기후이다. 한반도 면적의 1.3배인 영토에는 1억 700만 명의 인구가 살며 말레이계가 대다수고, 이외에는 중국·미국·스페인계 혼혈이 있다. 언어적으로는 영어와 다갈로그어를 사용하고 있으며, 종교적으로는 스페인 식민지배의 영향으로 국민의 83%가 가톨릭을 믿고 있다. 필리핀의 가톨릭은 토착신앙인 애니미즘이나 필리핀 전통 축제 형식과 결합하여 종교예식을 성대하게 치르는 경향이 있다. 또한 미국의 식민지배 하에 있으면서 개신교가 전파되어 교육과 의료분야에 영향을 미쳤다. 특이할 만한 것은 필리핀은 경작을 위해 아들에게는 토지를 물려주는 대신 딸에게는 교육을 시키는 전통을 가져 여성의 사회 진출이 활발한 편이다[104]. 한편 필리핀은 빈부격차가 큰 국가에 속하며(지니계수 0.46)

101) 문효진(2018). 한국 방송콘텐츠의 태국 진출 및 교류 협력을 위한 방안 연구. 「글로벌문화콘텐츠」, (33), 63-87

102) 김상현, 장원호(2016). 국가 이미지와 한류 소비 요인간의 관계 분석: 중국, 태국, 필리핀, 베트남 설문결과를 바탕으로. 「글로벌문화콘텐츠」, 24, 289-310

103) 외교부(2019). 『2019 필리핀 개황』

농촌의 소득불평등이 심화되는 추세에 있다[105].

한국과 필리핀의 문화교류는 다른 아세안 국가와 마찬가지로 한류가 주요 역할을 맡고 있다. 2003년 필리핀의 대표 공중파 방송인 GMA7에서 〈명랑소녀 성공기〉, 〈가을동화〉 등을 방영한 이후 최근 방영한 〈도깨비〉, 〈힘쎈여자 도봉순〉 등 지금까지 필리핀 주요 방송사를 통하여 300여 편이 넘는 한국 드라마가 방영되었다. 최근 4~5년 간 필리핀의 양대 방송사인 GMA7과 ABS필리-CBN에서는 매일 한국드라마를 방영하고 있으며, 필리핀 국민들은 한국 드라마를 '코리아노벨라(Koreanovela)'라 부르면서 즐겨 시청하고 있다. 드라마에서 시작한 한류는 필리핀 내 한류 팬과 한국문화원의 주도적 역할 하에 꾸준히 확산되어 왔다. 필리핀의 한류 팬들은 커버댄스 콘테스트, 팬 미팅 등을 자체적으로 운영하며 현지에서 한류의 열기를 이어갔으며, 필리핀 한국문화원은 한류팬 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K-Pop과 한국어, 한식 등을 소재로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다[106][107]. 이와 함께 한국의 문화 ODA 사업 일환인 문화동반자사업 등을 통해 인적교류도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다.

필리핀에서는 10대 남녀와 20~30대 여성을 중심으로 한국 드라마, K-Pop 등 한류콘텐츠가 활발하게 소비되면서 2000년대 동남아 내 한류확산의 거점 국가로 역할했다[108]. 특히 필리핀에서의 한류가 현지 관광산업 육성에 적극적으로 활용됐다는 점이다. 필리핀 정부는 한국드라마의 촬영지로 자국의 남태평양 자연경관 등이 담길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전략을 취하며 한류를 통한 호혜적 관계를 형성했다[109]. 또한 한국 문화체육관광부의 공적원조사업인 '문화동반자사업'은 필리핀 학계, 문화계 등 인사들에게 영감을 불러일으켰다는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다[110].

필리핀과의 문화교류는 양국에 상당한 영향을 미쳤지만 다른 아세안 국가와 마찬가지로 성과 대부분이 필리핀 내 한류확산 성과에 치우쳐있다는 한계가 있다. 한국과 필리핀의 관계가 공여국과 수혜국의 관계에서 머물러있다는 점 역시 한계점이

104) *ibid.*, 80
105) 관계부처합동(2016). 필리핀 국가협력전략. 5
106) 허윤정, 송정은, 장원호(2016). 필리핀의 한류수용 특징.「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16(4). 153-169
107) 필리핀한국문화원(http://phil.korean-culture.org/) (검색일시: 2020.5.25.)
108) 허윤정, 송정은, 장원호(2016). 필리핀의 한류수용 특징.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16*(4), 154.
109) 권오신(2007). 필리핀에서의 한류: 현황, 특성, 그리고 지속가능성.「아시아연구」. 10(2). 125
110) 사단법인 국제문화협력지원센터(2014).「문화동반자사업 우수성과 사례분석 성과보고회」자료집. 82-85

다. 또 한류콘텐츠에 등장하는 문화 우월주의, 차별주의에 대한 인식이나 한류 팬에 대한 필리핀 기성세대의 부정적인 반응도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111][112]. 여기에 더해 한류에 대한 긍정적 인식과 대조적으로 코피노 등과 같은 부정적 인식은 한국 문화콘텐츠에 위협요인이 될 수 있다[113].

〈표 3-21〉 한국-필리핀 문화교류 주요 연대기

연도	주요 내용
1949	외교 관계 수립
1954	마닐라에 한국 공사관 설치, 서울에 필리핀 공사관 설치
1958	각 공사관 대사관으로 승격
1961	무역협정
1969	항공운수협정
1973	문화협정
1978	무역협정(1961, 1964 무역협정 대체)
1985	경제기술협력협정
1986	과학기술협력협정
1991	필리핀 한인총연합회 주최, 한-필 문화교류 축제 시작(매년 진행)
1996	투자보장협정
2001	한-필 친선병원 건립을 위한 사업 시행 약정
2003	필리핀 대표 공중파 방송 GMA7, 한국 드라마 〈명랑소녀 성공기〉, 〈가을동화〉 방영
2004	한-필 외국인고용허가제(EPS) 인력 송출 MOU 체결
	필리핀 ABS-CBN 방송국의 신인 탤런트 공개채용 프로그램 'Star Circle Quest'에서 한국인 산다라박 2위 등극하며 필리핀 내 한류 확산
2005	문체부 ODA 사업인 문화동반자 사업에 필리핀 문화인력 참여(매년 진행)
	한국 그래비티 사가 개발한 게임 '라그나로크' 인기 몰이
2007	필리핀 한국영화제 시작(매년 진행)
2009	한국 아이돌 슈퍼주니어 앨범 판매량 10만 장 돌파
2011	한국 수출입은행, 마닐라 사무소 설치
2012	필리핀계 한국인 이자스민, 대한민국 19대 국회의원 당선
2015	필리핀에서 슈퍼주니어, 소녀시대, 빅뱅 등 K-Pop 콘서트 개최
2016	주필리핀 한국문화원, 궁·태권도, 한복 등 소재 전시 개최
	BTS, GOT7, AOA 등 한류 공연
	한국관광공사, 필리핀 최대 해외여행박람회 'Travel Tour Expo 2017' 참가
2017	필리핀 한국문화원, 'MOVING KOREA' 인터렉티브 전시회, '영원한 빛' 미디어아트 전시회 개최
	필리핀 한국문화원, 아세안-한국 그래피티 아트 프로젝트 'Beyond Borders' 진행
2019	한-필 상호교류의 해 지정
	한-필 수교 70주년 기념 『현대미술교류전』, 『한국공예전』(마닐라 메트로폴리탄 미술관 참여)

111) 장원호, 송정은(2015). "필리핀 K-Pop 팬덤이 K-Pop 의 현지화에 미치는 영향: PKCI의 사례를 중심으로". 「한국엔터테인먼트산업학회논문지」. 9(3). 37

112) 허윤정, 송정은, 장원호(2016). "필리핀의 한류수용 특징".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16(4). 165

113) *ibid.*, 154

3) 말레이시아

대한민국과 말레이시아는 1960년 외교관계 수립 이후 정치, 경제, 문화 등 다양한 방면에서 꾸준히 교류하며 호혜적 협력관계를 이어왔다. 특히, 말레이시아는 동방정책(Look East Policy)을 추진하며 한국을 국가발전 모델로 삼아 기술연수생과 유학생 등을 적극적으로 한국에 파견했으며, 비동맹 중립주의 국가로서 대한민국의 한반도 비핵화 및 평화번영 정책을 적극적으로 지지해온 우호국이다. 그동안 한국과 말레이시아는 에너지·건설·교통 등 분야에서 협력관계에 있었지만 교역액이 높지 않아(2018년 기준 192억 달러, 제 14위 교역대상국[114]) 국내에서는 동남아 주변국에 비해 주목도가 다소 낮은 편이었다[115].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류 열풍과 양국 간 직항 증가로 2018년 기준 상호 방문객 수는 790,000여 명, 한국인 말레이시아 방문객은 480,000여 명, 말레이시아인 방한객은 300,000여 명에 달했다. 또한 정부는 2020년 말레이시아와의 수교 60주년을 맞아 양국 관계를 전략적 동반자로 격상시키며 교류 증진을 위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말레이시아는 한반도의 약 1.5배 규모인 연방국가이자 입헌군주제 국가로, 말레이반도 11개 주와 보르네오섬 2개 주 등 13개 주와 3개 연방직할지로 구성된 해양국가다. 인구는 3,200만 여 명으로, 62%의 말레이계와 22%의 중국계 민족, 그 밖에 인도계와 외국인이 인구를 구성하고 있다. 헌법상 국교는 이슬람교이며 이슬람교 계율에 반하는 행동은 엄격하게 제한되지만 종교의 자유가 보장된다. 공용어는 말레이어지만 영어가 통용되며, 중국계와 인도계는 고유 언어를 주로 사용한다. 하지만 이러한 민족·종교적 상이성과 중국계와 말레이계의 경제적 격차 때문에 말레이시아는 1960년대부터 최근까지 인종폭동, 민족 간 충돌, 종족별 소비 등의 종족 분쟁 문제를 겪고 있다[116]. 때문에 정부에서는 2010년부터 '하나의 말레이시아'를 지향하며 사회 통합과 민족 간 조화로운 문화 발전을 추구하는 국가 기조를 띄게 되었다[117].

---

114) 외교부(2019). 『2019 말레이시아 개황』. 78

115) 김형종(2013). "한국의 말레이시아 연구 동향". 「아시아리뷰」, 3(2), 107-138

116) 정법모(2017). "말레이시아에서의 종족 소비: 말레이계를 위한 MARA 디지털 몰의 탄생을 중심으로". 「동남아 이슈페이퍼」. Vol. 19. 서울대학교 아시아연구소

117) Zainal, K., & Salleh, N. M.(2010). Ethnic relation among the youth in Malaysia: toward fulfilling the concept of one Malaysia. *Procedia-Social and Behavioral Sciences, 9*, 855-858.

말레이시아와의 문화교류는 역시 한류를 바탕으로 한 '엔터테인먼트'와 '음식', 그리고 '관광'을 중심으로 이뤄지고 있다. 말레이시아에서는 K-Pop 과 드라마, 예능 등 엔터테인먼트 콘텐츠를 중심으로 선호가 높으며, TV와 OTT를 통한 접촉이 많은 것으로 드러났다[118]. 이들 콘텐츠를 바탕으로 한국의 뷰티산업과 한식에 대한 관심도 높아졌는데, 특히 한식의 경우 말레이시아 내에서는 다수의 한식체인점이 운영되고 있을 만큼 인기가 높은 편이다[119]. 이에 더해 할랄 메카로 자리매김하고자 하는 말레이시아의 정책적 접근과 한국의 경쟁력 있는 식품 기업의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져 할랄 한식이 확산됐으며, 2010년대 중반에는 국내기업의 할랄산업 진출이 활발히 논의된 바 있다. 관광과 관련해서는 말레이시아의 수도 쿠알라룸푸르와 휴양지 코타키나발루가 한국 관광객의 사랑을 받고 있으며, 국내에서는 무슬림 관광시장을 개발하면서 주요 대상으로 말레이시아 방한객을 유치하고자 노력하고 있다[120].

한국과 말레이시아의 교류성과는 교육, 관광, 그리고 한국 대중문화의 차원에서 살펴볼 수 있다[121]. 동방정책의 영향으로 말레이시아의 학생과 공무원 수천 명이 한국 대학, 인재개발원 등에서 교육을 받고 한-말 관계의 매개자로 역할하고 있으며 한류의 영향과 직항편 증가로 양국 방문객 수는 점차 증가하는 추세다[122]. 또한 한류를 바탕으로 말레이시아 내에서 한국과 한국문화, 콘텐츠에 대한 선호도 역시 꾸준히 상승하고 있다[123]. 이에 2014년에는 말레이시아 정규교육 과정에 한국어가 제2외국어로 포함됐으며, 국립말라야대학에는 한국학 전공과정이 개설되었다. 이와 더불어 한국 화장품, SPA 브랜드, 공산품 등은 말레이시아 현지에서 일상적으로 접할 수 있는 상품이 되었다. 일례로 할랄 인증을 받은 한국 라면의 매출이 2013년 18억 원에서 2017년 193억 원으로 10배 이상 성장하기도 했다[124].

한편 말레이시아와의 교류에서도 몇 가지 한계가 확인된다. 말레이시아 현지에서

118) 문화체육관광부, 한국국제문화교류진흥원(2020).『2020년 해외한류실태조사 보고서』
119) 한국국제문화교류진흥원(http://www.kofice.or.kr/) (검색일시: 2020.5.27.)
120) 서울관광재단(http://www.sto.or.kr/) (검색일시: 2020.5.23.)
121) 이경찬, 황인원(2015). The Evolution of Korea-Malaysia Relations: From Low-key to an Interdependent Relationship.「동남아시아연구」, 25(3), 291
122) 외교부(2019).『2019 말레이시아 개황』, 90
123) 문화체육관광부, 한국국제문화교류진흥원(2020).『2020년 해외한류실태조사 보고서』. 219
124) 조의윤, 손승표(2018). "아세안 할랄시장 허브로서의 말레이시아의 잠재력과 한국의 대응방안 연구",「트레이드포커스」. Vol.55.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연구원

한류의 영향이 점차 확대되는 것과는 대조적으로 한국에서는 여전히 말레이시아 관련사업이나 상품을 찾아보기 어렵고, 양국의 민간 행위자들이 네트워크를 형성할 기구 등이 부족하다[125]. 또한 아직 국내에서는 이슬람 문화에 대한 이해가 상대적으로 부족하다는 점이 약점으로 꼽힌다[126]. 실제 이슬람 문화권 일각에서는 한류 콘텐츠를 두고 이슬람의 전통적 가치관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기도 하다[127]. 말레이시아에서 이슬람이 차지하는 사회경제적 비중을 고려했을 때 향후 교류협력에서는 이슬람 등 종교문화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

〈표 3-22〉 한국-말레이시아 문화교류 주요 연대기

연도	주요 내용
1960	한-말 외교관계 수립
1962	주 말레이시아 대한민국 대사관 개설
1964	주한 말레이시아 대사관 개설
1965	문화협정 발효
1982	말레이시아, 동방정책(Look East Policy) 추진
2002	말레이시아서 드라마 〈겨울연가〉 방영
2006	한-ASEAN FTA 발효
2009	말레이시아 케이블TV 사업자 아스트로(Astro), 한국방송전문 채널 One HD 시작
2012	말레이시아에서 2AM, 슈퍼주니어 등 K-Pop 콘서트
	한국 영화 〈도둑들〉에 말레이시아 배우 리신제 출연
2013	서울아트마켓(PAMS)에서 말레이시아 국립문화예술무용단과 아스와라 무용단의 공동 작품인 〈말레이시아 퓨전〉이 소개
	말레이시아에서 열린 'Future Music Festival'에 가수 싸이 참가
2014	한-말, 제2차 동방정책 추진을 위한 지침 문서 및 협력 시범사업(17개)을 채택, 인적교류 및 식품, 전통의학 분야 협력 합의
	말레이시아 정규 교육과정에 한국어를 제2외국어로 포함
2015	말레이시아 내 한국 콘텐츠 소개 채널 Oh!K와 Channel M이 추가
2016	한국어 교원 2명 말레이시아 파견
	말라야대학 말레이시아-한국 연구센터 내 '코리아코너' 설치
2017	한국어 교원 10명 말레이시아 국공립 중등학교서 한국어 강의 진행
	화장품, 미용 전시 '코스모뷰티 아시아 말레이시아'에 한국공동관 운영

125) 이경찬, 황인원(2015). The Evolution of Korea-Malaysia Relations: From Low-key to an Interdependent Relationship.「동남아시아연구」, 25(3), 300
126) 장병옥, 최활식(2013). "말레이시아 주요 산업 및 경제협력에 관한 연구".「동남아연구」. 22(3). 296
127) 하이파, 김진영(2019). "이슬람, 한류에 빠지다".「글로벌문화콘텐츠학회 학술대회」. 189-193

연도	주요 내용
2018	말레이시아 신정부 출범, 동방정책(Look East Policy) 재활성화
	경남 하동아트갤러리에서 '한·말레이시아 현대미술교류전' 개최
2019	드라마 〈겨울연가〉 OST 작곡가 겸 피아니스트, 데이드림이 2019년 6월 26일 말레이시아 악시아타 아레나 (Axiata Arena)에서 열린 마이보이스 마이내이션(MY VOICE MY MALAYSIA)에 참가
	세종문화회관·하나투어 공동 주최의 COA(민·관··예) 프로젝트 통해 한국 예술인 14명 말레이시아 방문, 귀국 후 세종문화회관에서 〈2019 COA project 展 – 초록과 황금의 나라〉 진행
	서울관광재단,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프르서 서울관광 현지 홍보 프로모션 〈서울 컬쳐 쇼룸 인 쿠알라룸푸르〉 개최
	안동국제탈춤페스티벌에 말레이시아 공연단 참가

4) 싱가포르[128]

대한민국과 싱가포르는 1975년 수교 이래 우호관계에 있으며 1982년 비자 면제 협정, 1995년 '예술·문화·체육 협력 협정'과 '통신협력 양해각서' 체결, 1997년 '과학·기술 협정'과 '체육 교류 약정', 2006년 한-싱 FTA 등을 기반으로 활발한 문화교류를 이어왔다. 국가 간 관계뿐만 아니라 동남아시아 국가연합(ASEAN), 아시아 유럽 정상회의(ASEM) 등 회의체를 통해서도 싱가포르와의 교류관계가 긴밀하게 유지되고 있다. 또한, 싱가포르는 아시아의 대표적인 비즈니스·금융··교통·물류 허브라는 점에서 우리에게 동남아 진출의 교두보로 여겨진다. 이러한 영향으로 2018년 기준 한-싱 상호 방문객 수는 총 860,000여 명, 한국인 싱가포르 방문객이 629,451명, 싱가포르인 방한객이 282,359명에 달했다.

사회문화적 특성을 살펴보면, 싱가포르는 서울의 1.2배 면적에 500만여 명의 인구가 거주하는 도시국가이며 말레이반도 남쪽 끝에 위치한 해양국가다. 언어적으로는 영어를 통용어로 사용하되 표준 중국어와 말레이어, 타밀어 등이 사용되고 있으며, 불교와 이슬람교, 기독교와 힌두교 등 종교 구성도 다양한 편이다. 다민족 국가 특성 상 통합의 중요성이 활발하게 논의되며 공동질서 유지를 위해 엄격한 법제도를 유지하고 있다. 산업적으로는 9,000여 개의 다국적기업과 다양한 비즈니스 기회를 바탕으로 MICE산업이 발달했으며[129], 카지노와 복합리조트 등을 중심으로 한 관광산업도 활성화되어 있다. 문화예술 부문에서는 정부의 높은 의지를 바탕으로

128) 외교부(2019).『2019 싱가포르 개황』

129) 이재호, 박나리(2012).『싱가포르의 주요 산업: MICE, 의료관광을 중심으로』.「전략지역심층연구」, 12-18.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르네상스 시티 프로젝트 등 다양한 시도가 이뤄지고 있다[130]. 싱가포르 국립예술위원회가 발간한 VISION 2025에 따르면, 국가적 차원에서 2025년까지 국민 1인당 문화예술 행사 참관 비율을 40%에서 80%로 늘리고, 문화예술행사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비율을 20%에서 50%까지 증대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131].

한국과 싱가포르의 문화교류는 다양한 방면에서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다. 특히, 싱가포르 내에서 K-Pop과 한국 드라마, 예능 프로그램이 인기를 끌면서 관련 공연·연주회·팬미팅 등이 빈번하게 열리고 있다. 연구에 따르면 싱가포르의 외래문화 수용이 일상화되어 있는 역사적 상황과 국내 미디어산업의 저개발 상황이 한국 대중문화 수용에 우호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드러났다[132]. 한국 내에서는 한국국립현대미술관과 싱가포르국립미술관의 공동기획전이 열리는 등 미술분야에서의 협업 수준이 높은 편이다. 이와 더불어 싱가포르에서 열리는 아시아 최대규모의 콘텐츠 마켓인 아시아티비포럼앤마켓(ATF, Asia TV Forum & Market)은 국내 콘텐츠가 아시아 각 국가로 수출되는 기회의 장으로 활용되고 있다.

한-싱 문화교류의 성과는 국내보다는 싱가포르 내에서 보다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싱가포르에서는 한류 열풍을 기반으로 한국어 수강생이 증가하고 있으며, 싱가포르 국립대학에서는 2018년부터 한국어 과목이 부전공으로 개설되기도 했다[133]. 싱가포르 중고등학교에서는 현재 교육하고 있는 일본어, 불어, 독일어 등과 함께 한국어를 제3언어로 채택할지에 대해 논의 중이다[134]. 스포츠 부문에서는 25,000명 이상의 싱가포르인이 280여 개 클럽을 통해 태권도를 수련하고 있으며 매년 한국대사배(杯) 태권도 대회가 개최되고 있다. 이와 더불어 2000년대 초반 드라마 '대장금'의 열풍에 힘입어 시작한 한국음식에 대한 관심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135].

한국과 싱가포르의 문화교류는 상당 기간 지속되었고 그간 이룬 성과도 괄목할만하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나 현재의 문화교류는 쌍방향이 아닌 일방적인 형태를 띤다

130) 이은형, 방정혜(2009). "싱가포르의 르네상스 시티 프로젝트 사례 연구: 한국에 주는 시사점". 「서울도시연구」, 10(4), 121-141
131) (Singapore) National Arts Council(2008). 『Arts Development Plan』
132) 심두보(2013). The Korean Wave in Southeast Asia: The Case of Singapore. 「동남아시아연구」, 23(1), 277-311
133) 외교부(2019). 『싱가포르 개황』 117
134) The Straits Times(2019.11.27.). Korean may be taught as a foreign language in Singapore schools
135) 주 싱가포르 대한민국 대사관(http://overseas.mofa.go.kr/sg-ko/index.do) (검색일시: 2020.5.2.)

는 한계가 있다. 싱가포르 내에서 엔터테인먼트산업 콘텐츠를 바탕으로 한국문화에 대한 관심이 높은 것과는 대조적으로 한국 내에서는 싱가포르 문화에 대한 관심이 사실상 전무하다. 영상, 미술, 공연 등을 통해 싱가포르 문화예술이 국내에 여러 차례 소개된 것에 비해 대중적 관심은 저조하다. 일본과 중국 등지에서 자국 문화가 한류에 잠식될지 모른다는 위기의식에서 발생하는 '혐한류' 역풍 현상이 발견된 것[136]을 고려할 때 문화교류의 깊이와 폭을 보다 다양화할 필요가 있다.

〈표 3-23〉 한국-싱가포르 문화교류 주요 연대기

연도	주요 내용
1975	외교관계 수립 (대사관으로 승격)
1982	비자면제협정
1990	주한 싱가포르 상주대사 부임
1995	예술, 문화, 체육 협력 협정, 통신협력 양해각서 체결
1997	과학, 기술 협정, 체육교류약정
2000	싱가포르, 아시아 티비 포럼 앤 마켓(ATF) 시작
	ASEM정상회의에서 한국과 싱가포르, 장학사업, 정보격차해소 사업 공동 제안[137]
2003	한국 드라마 '대장금' 방영
2005	한국 국립현대미술관, 싱가포르 국립미술관 등 공동기획 순회전 〈아시아 큐미즘〉 개최(~2006)
2006	한-싱 자유무역협정(FTA) 체결
2008	주 싱가포르대사관 주최의 Korea Festival 연례행사로 개최 시작
2011	싱가포르의 아트페어 '아트 스테이지 싱가포르' 창립(매년 개최)
2013	싱가포르 기간방송국 MediaCorp와 공동으로 Korea Festival 개최
2018	조성진, 싱가포르 심포니 오케스트라 주최 '인터내셔널 피아노 페스티벌' 참여
	동남아 최대 규모 K-Pop 페스티벌인 한류팝페스티벌 개최
2019	한국문화예술위원회-국립싱가포르예술위원회 문화예술 협력 MOU 체결
	한국영화 〈국가부도의 날〉, 〈스윙 키즈〉, 〈극한직업〉 싱가포르서 개봉
	조성진, 싱가포르 복합문화센터 에스플러네이드서 리사이틀 공연
	한국 국립현대미술관 주최 '2019 아시아 필름 액 비디오아트 포럼'에 싱가포르 국립대 교수 데이비드 테 참석, 싱가포르 영화감독 호 추 니엔 작품 상영
	싱가포르 국립미술관서 한국 국립현대미술관(MMCA)의 아시아 현대미술전 '세상에 눈뜨다: 아시아 미술과 사회 1960s~1990s'展 개최

136) 심두보(2013). The Korean Wave in Southeast Asia: The Case of Singapore.「동남아시아연구」, 23(1), 297

137) 외교통상부(2012).『2012 ASEM 길라잡이』

3. 하위 교역액 국가 문화교류 환경 분석: 라오스, 브루나이, 캄보디아, 미얀마

가. 국가별 특성 항목 비교

1) 인구/경제/교역규모

라오스, 브루나이, 캄보디아, 미얀마는 한국과의 교역액이 11억 달러 미만으로 신남방지역 국가 중에서는 하위수준의 교역이 이뤄지고 있는 국가다. 브루나이를 제외한 세 국가는 모두 국민 1인당 GDP가 2,500 달러에 미치지 못하지만 2018년 기준 경제성장률은 약 6~7%로 나타난다. 반면 세 국가와 대조적으로 브루나이는 국민 1인당 GDP가 28,290달러로 높게 나타나고 있다.

〈표 3-24〉 하위 교역액 국가 현황 비교

국가	인구 (2020년 기준, 명)	1인당 GDP* (2017년 기준, 달러)	GDP (2017년 기준, 백만 달러)	경제성장률 (2018년 기준)	한국과 교역액 (2018년 기준, 백만 달러)	ODA 총액 (억원)
라오스	728만	2,460	16,853	6.5%	105	889
브루나이	44만	28,290	12,128	0.05%	669	-
캄보디아	1,671만	1,380	22,158	7.52%	984	735
미얀마	5,441만	1,300	69,322	6.08%	1,063	839

*World Bank, IMF(2017. 기준) (출처: 신남방정책특별위원회(2019).『아세안·인도-경제·무역·투자 통계집)

출처: 나무위키-신남방정책(https://namu.wiki/w/신남방정책), 대한민국 정책브리핑(http://www.korea.kr), 세종학당재단(https://www.ksif.or.kr/), 한국무역협회·산업통상자원부 K-stat(http://stat.kita.net/), KOICA ODA 정보포털(http://www.oda.go.kr/), 신남방정책특별위원회(2019).『아세안-인도-경제·무역·투자 통계집』, 관계부처합동(2019). '19년 국제개발협력 종합시행계획

2) 문화적 특성: 한국과의 문화접점/한류 특성

하위교역 국가는 국가마다 지배적 종교를 지니는 특징이 있다. 라오스의 경우 불교(69%)가 주를 이루며 브루나이는 이슬람교가 국교로 지정되어 있다. 캄보디아는 불교(95%)가 지배적이고 미얀마 또한 불교(88%)가 비교적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민족구성은 국가별로 주를 이루는 민족이 있으나 이외에도 다양한 소수민족으로 구성되어 있다.

〈표 3-25〉 하위 교역액 국가별 구성 특성

국가	예술 투자금액 (2018년, $)	주요축제	종교	민족구성	언어
라오스	-	분 삐마이 축제, 분 쑤앙흐아, 탓루앙 축제	불교(69%), 기독교, 무교	라오룸(60%), 라오퉁, 라오숭 등 (50개 공식 종족)	라오어
브루나이	-	하리라야 축제,	이슬람교(국교나 기타 종교 인정, 포교는 금지)	말레이계(65%), 중국계, 기타	말레이어, 영어
캄보디아	60만	본 옴똑 축제	불교(95%), 기타(5%)	크메르족 97%, 소수민족(베트남·중국·참족·고산족)	크메르어(90% 이상), 프랑스어, 영어, 중국어
미얀마	17만5천	파간의 불탑 축제, 카렌족의 신년맞이 축제	불교(88%), 기독교, 이슬람교	버마족(68%), 소수족 등 135개 민족	미얀마어, 기타 소수어

하위 교역액 국가는 각 국가의 주요 종교로부터 기인한 문화적 특징을 지니고 있으며 이는 문화상징의 대표이미지, 관광콘텐츠에도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 네 국가 중 미얀마는 반 무슬림 정서, 라카인사태 등으로 대변되는 종교적, 민족적 갈등이 크게 나타나고 있다.

〈표 3-26〉 하위 교역액 국가별 문화적 특징, 상징 및 사회 갈등 요인

교역액 순	문화적 특징	문화상징 대표이미지	사회문제와 갈등의 핵심
라오스	소수민족의 고향 태국 유사성, 불교에 뿌리	라오스 불교의 상징, 루앙프라방 '탓루앙 불탑'	-
브루나이	이슬람문화(이슬람교가 국교, 왕실권한 절대적)	모스크 사원	-
캄보디아	개방적 성향 앙코르제국의 후예라는 강한 자부심	앙코르와트 유적	-
미얀마	다민족 국가, 인도로부터의 영향이 큰 편, 불교문화 지대	바간(불탑의 도시)	종교 갈등 민족 갈등 존재 (반무슬림정서, 라카인 사태)

신남방 하위교역국은 한국문화와의 접점이 주로 한류를 통해 이루어졌는데, 2000년대 한국 드라마가 주된 콘텐츠 및 계기가 되어 한류가 전파되었다. 미얀마의 경우 비교적 이른 1961년 한국과 수교를 맺었고, 라오스와 캄보디아는 1970년 초 수교하였으나 각각 공산화, 크메르루즈 집권으로 인해 단교 후 90년대 후반에 외교관계가 재개되었다.

〈표 3-27〉 하위 교역액 국가와 한국문화의 접점 콘텐츠

교역액 순	한국문화와의 접점 콘텐츠/계기
라오스	• 태국 TV방송을 통해 한류 인식 • 1974년 외교관계수립(1975년 라오스 공산화 이후 단교, 1995년 외교관계 재개)
브루나이	• 2000년대 초반 드라마 〈겨울 소나타〉 이후 드라마 인기 지속/1984년 외교관계 수립
캄보디아	• 2006년 〈풀하우스〉로 한류 시작 • 1970년 외교관계수립(※ 크메르루즈 집권(1975)으로 관계 단절 1997년 재수립) • 1973년 문화협정(2006년 신규협정으로 대체)
미얀마	• (교류)한국 전쟁시 미얀마의 쌀 지원/(한류)2002년 〈가을동화〉 방영 계기

신남방 하위교역 국가 중 캄보디아와 미얀마에서 한류가 비교적 큰 인기를 끌고 있다. 한국 드라마를 통해 한국문화 콘텐츠를 접했으나 현재는 K-pop의 인기가 상당하고 한식, 뷰티 등 다양한 한류콘텐츠로 인기가 확장되고 있다. 라오스에도 태국 TV방송을 통해 한류를 인식하고 있으며 한국문화의 관심이 커지고 있다. 브루나이의 경우 K-Pop 가수나 드라마 등에 대한 관심은 높으나 높은 소득수준 및 말레이 왕조 정통성을 보유한다는 점에 있어 문화적 자존심이 높아 한국의 문화우월주의적 한류접근은 지양해야 할 것이다.

〈표 3-28〉 하위 교역액 국가의 한류 특성

교역액 순	한류 특성	혐한, 반한류 가능성
라오스	태국 TV방송을 통해 한류 인식	적음
브루나이	여타 동남아 국가에 비해 K-pop 팬 규모, 구매력 낮은 편	가능성 존재
캄보디아	K-POP의 인기 상당. K-POP 스타 중심 동호회 생성	-
미얀마	K-pop, 방송, 한식, 뷰티, e-콘텐츠 등 다양한 분야	-

3) 한글의 위상과 관광 특성

신남방 하위교역국은 국가마다 한류의 인기에 비례해 한국어에 대해 관심을 보이고 있다. 4개국 모두에서 한국어능력시험(TOPIK)이 실시되고 있으며 이 중 캄보디아와 미얀마에서 한국어의 인기와 수요가 상당하다. 하지만 4개국에 한국문화원은 전무하며 세종학당 수도 라오스와 미얀마 각 1개소에 그친다.

〈표 3-29〉 하위 교역액 국가에서의 한글 위상

교역액 순	현지 세종학당 수[138]	한글의 위상: 제2외국어, 한국어시험 여부	한국어 능력시험 (TOPIK) 시험장 수	국가별 응시자 수	한국어반 개설 현황[139]	문화원	세종학당 개수 (2019년 6월 기준)
라오스	1	한국어학과: 라오스 국립대학	2	117	-	x	1
브루나이	-	비교적 낮음	1	37	-	x	0
캄보디아	-	인기와 수요 상당, TOPIK 연 3회, 응시자수 증가 (2011년 257명 〉 2018년 2,000여명)	2	534	-	x	0
미얀마	-	인기, TOPIK 2018년 기준 3,393명 응시 (아세안 3위)	2	3,471	-	x	1

신남방 하위교역국에서는 종교 및 역사를 기반으로 한 문화적 특성이 국가의 문화적 힘의 원천으로 작용하고 있다. 브루나이는 이슬람 문화, 왕조의 정통성으로 문화적 자존심이 높고 캄보디아 또한 앙코르 제국의 후예라는 강한 자부심을 지니고 있다. 라오스와 미얀마에서는 불교를 저변으로 하는 문화적 특징을 지니며 특히 미얀마의 경우 영국으로부터 독립 후 문화부를 설치하여 전통문화 보호 및 육성에 역점을 두고 있다.

138) 세종학당재단(https://www.ksif.or.kr/) (검색일시: 2019.6.)
139) 2017년 해외 초·중등학교(지원 현황 28개국 1,423교 45.4억원): 재외공관(한국교육원)의 제출 자료에 의함

〈표 3-30〉 하위 교역액 국가의 문화적 특징

교역액 순	문화적 힘의 원천	관광슬로건, 브랜드	대표 음식	관광경쟁력 순위 WEF2019
라오스	불교문화.	Simply Beautiful[140]	카오 삐약, 땀막훙	97
브루나이	이슬람문화, 왕조의 정통성 보유라는 문화적 자존심 높음	A kingdom of unexpected treasures	암부얏	72
캄보디아	앙코르와트로 대변되는 찬란한 역사 및 유산	A kingdom of wonder	아목	98
미얀마	영국 독립 후 문화부 설치, 전통문화 보호 육성 역점	Let the journey begin	모힝가 (쌀국수)	-

나. 국가별 현황 개요

1) 라오스

라오스(Lao People's Democratic Republic)는 베트남, 캄보디아, 태국, 미얀마, 중국 등에 둘러싸여 있는 내륙국가이다. 현재 라오스는 내륙국가의 단점을 극복하고 지정학적 이점을 살려 역내 물류의 중심지로 발돋움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1954년 제네바협정으로 프랑스로부터 독립한 라오스의 정치체계는 사회주의이고 1975년 만들어진 '라오인민혁명당'의 1당 체제가 지속되고 있다.

라오스에는 다양한 소수민족이 모여살고 있어 소수민족의 고향으로 불리는데 공식적인 소수민족은 50개(2018년 12월 라오스국회 채택)이며, 라오룸[141] 종족이 전인구의 60%를 차지한다. 인구의 69%가 불교신자로 불교는 라오스인들의 생활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으며 사찰이 전통적으로 촌락 생활의 중심역할[142]을 하는 등 라오스인의 사고방식 속에 불교사상이 잠재한다.

라오스는 지정학적, 역사적 이유로 태국과 경제, 문화, 음식 등 다양한 측면에서 유사성을 가진다. 라오스어와 태국어는 비슷해 라오스인들은 태국어를 90% 정도

140) every contry's tourism slogan (https://mk0fbfinderxb7r4cblw.kinstacdn.com/wp-content/uploads/2016/11/Every-Countrys-Tourism-Slogan-large.png)

141) 라오룸 종족: '저지대 라오족'이라는 뜻으로, 전 인구의 약 60%를 차지하며, 주로 메콩강 유역에서 수전농에 종사

142) 외교부(2019). 『2019 라오스 개황』

이해하며 가정에서 케이블·위성TV를 통해 대부분의 태국방송을 시청하고 있다. 한국 콘텐츠의 경우 주로 태국 방송국에서 송출하는 것을 시청한다[143].

라오스 방문 한국 관광객은 2007년 기준 13,000명 수준이었으나 2018년 에는 174,405명의 한국인이 라오스를 방문[144]했다. 라오스 방문 관광객을 국가별로 보았을 때 라오스의 국경을 접하지 않은 국가 중에서는 한국이 1위에 달한다[145].

라오스는 최빈국인 바 한국의 무상원조도 크게 이루어지고 있다. 문화부분에서의 무상원조를 보면 한국 문화재청과 한국문화재재단이 2013년부터 공적개발원조(ODA)사업에 따라 홍낭시다 사원 보존·복원을 진행 중인 라오스의 12세기 크메르 유적에서 금동으로 된 여근상(요니)이 처음 발굴된 바 있다[146].

〈표 3-31〉 한국-라오스 문화교류 주요 연대기

연도	주요 내용
1973	통상대표 관계 수립
1974	외교 관계 수립, 상주공관 개설
1975	단교(공관 철수)
1995	외교 관계 재개
1996	주라오스 대한민국 대사관 개설, 투자보장협정, 경제과학기술협력협정 체결
2001	주한 라오스 대사관 개설
2005	태권도협회 선수단 시범 공연
2006	'JUMP' 공연: 한국 문화공연단 2006년 이래 10차례 이상 라오스 방문 공연 (비보이 공연, 전통공연 '큰들 문화센터', 대중공연 '한-라오스 우정의 콘서트', '한-라오스수교 20주년문화공연', 한-라오스 현대미술 교류전 등)
2008	5월 한·라오스 친선협회(회장 오명환) 설립, 한-라오스 항공협정
2016	대한체육회, 권영진 야구감독 파견
2016	제3차 대사배 태권도 대회 개최
2018	제4차 한-라오스 친선 국제야구대회 개최
2018	제1회 국기원배 태권도 대회 개최
2019	주라오스 대한민국 대사관 무관부 개설

출처: 외교부(2019). 『2019 라오스 개황』, 주 라오스 대한민국대사관(http://overseas.mofa.go.kr/kh-ko/index.do), 문화체육관광부(www.mcst.go.kr)

143) 외교부(2019). 『2019 지구촌 한류현황』

144) 2008년 일반여권 소지자의 라오스 입국비자 면제조치, 2011년 양국 간 직항 개설 이후 우리 관광객 급증

145) 태국(1,929,934명), 베트남(867,585명), 중국(805,833명), 한국 (174,405명), 미국(49,178명) 순 (2018. 기준)

146) Kotra 국가정보-라오스 (https://news.kotra.or.kr/user/nationInfo/kotranews/14/nationMain.do?natnSn=64)

2006년부터 한국문화 공연단은 라오스에서 비보이, 클래식, 전통문화, 대중음악 등 다양한 분야의 공연을 10차례 이상 진행했다. 라오스는 문화인프라가 열악하고 특별한 문화행사가 거의 없어 한국 문화공연단은 라오스에서 현지인들에게 좋은 문화콘텐츠를 제공하고 있으며 라오스 내 한류 확산과 한국 이미지 제고에 기여하고 있다.

한국인의 라오스 방문 증가와 태국을 통한 라오스로의 한류콘텐츠 유입 확산, 그리고 라오스인의 관심을 끄는 양질의 한류콘텐츠는 라오스에서 근래 한류의 인기를 높이는 요인이다. 아직 공식적인 한류 동호회는 형성되어 있지 않고 K-pop스타에 대한 팬클럽도 다른 동남아에 비해 작은 규모이지만 50여 개의 군소 팬클럽이 활동을 하고 있으며 K-pop 경연대회도 매년 개최한다.

2) 브루나이

브루나이(Brunei Darussalam)는 남아시아 보르네오섬 북서 해안에 있는 술탄 왕국으로, 남중국 해와 맞닿아 있는 해안을 제외하고는 말레이시아 사라왁 주에 둘러싸여 있다. 브루나이는 경기도의 약 1/2에 해당하는 5,765km^2의 작은 면적이나 풍부한 원유와 천연가스를 보유한 자원부국이다. 이러한 자원의 수출(2017년 기준 GDP의 약 54%, 총 수출액의 90%) 및 보유 외환(2017년 기준 43.8억 달러) 해외 운용을 통한 수익금 등으로 안정된 경제를 유지하고 있으며 동남아시아 국가 중 싱가포르 다음으로 소득수준이 높은 국가이다.

종교적으로는 브루나이 인구의 3분의 2가 무슬림이며 이슬람과 왕실의 전통이 융합된 말레이 이슬람 통치철학에 따라 지배되고 있는 왕정국가로 정치·경제·사회 등 모든 분야에서 왕실 권한이 절대적이다.

1960년대 후반부터 브루나이로 우리나라 교민들이 이주하기 시작하여 양국은 친밀한 관계를 유지해왔다. 우리나라는 1984년 1월 1일 브루나이의 영국으로부터의 완전독립과 동시에 양국 간 외교관계를 수립하였고 총영사관을 대사관으로 승격시켜 현재까지 관계를 지속하고 있다. 1984년 브루나이의 볼키아 국왕이 우리나라를 방문하여 자원분야 등을 비롯한 양국 간의 실질관계 강화방안을 모색한 바 있으며 브루나이는 유엔 등 주요 국제무대에서 한국의 입장을 지지해 온 전통 우방국이다.

〈표 3-32〉 한국-브루나이 문화교류 주요 연대기

연도	주요 내용
1984	외교관계 수립, 대사관 승격
1987	주한 브루나이 상주 대사관 설치
1993	태권도 선수 3인 방한(우리나라 문체부 지원 사업), 매년 브루나이 개최 주니어 테니스대회 및 사격대회, 우리 선수 참가
1997	우리나라 예술단 방문, 한국무용 소개
2003	'정동극장 국악무용단' 방문 공연
2004	한-브루나이 수교 20주년 기념 '국수호 디딤무용단' 공연, 국경일 계기 '오은영 마술단' Magic Show 공연
2005	한국영화제 개최(2016, 2017, 2018년 개최)
2006	'청주시립무용단' 공연
2010	청소년 교류협정 체결
2013	국립부산국악원 공연
2014	난타 공연(수교 30주년 기념 행사), 비밥 공연(수교 30주년 기념 행사, Korean Festival 행사)
2015	2015 K-Dream Night(2016, 2017, 2018, 2019), K-Food & Art Festival
2016	2016 Korean Festival 계기 'K-Tigers' 태권도 퍼포먼스 공연, 한국대사관 개관 기념 퓨전국악 고래야 및 '진조크루' 비보이 공연
2018	2018 Korean Festival 계기 넌버벌 퍼포먼스 '옹알스' 초청 공연, 제1회 주브루나이 대한민국 대사배 태권도 대회

출처: 외교부(2019). 『2019 브루나이 개황』,주 브루나이 대한민국대사관(http://overseas.mofa.go.kr/bn-ko/index.do), 문화체육관광부(www.mcst.go.kr)

2000년대 초반 〈겨울소나타〉가 방송된 이후 한국드라마의 인기가 지속되고 있고 K-Pop의 확산과 함께 말레이계 브루나이인 등에게도 한류열풍이 확대되고 있다. 하지만 현재까지 한국의 한류스타가 브루나이에서 공연한 사례는 없는 것으로 나타난다. 이유는 브루나이 여타 동남아국가에 비해 팬 규모나 구매력이 낮은 편이며 민간차원에서 개최하는 외국 예술가의 자국 내 공연을 허용하지 않고 종교적 문제로 검열 및 허가가 엄격한 점에서 찾을 수 있다[147].

147) 외교부(2019). 『2019 지구촌 한류현황』

3) 캄보디아

캄보디아는 인도차이나반도 남쪽 메콩강 하류에 위치한 인민공화제 국가로 태국, 라오스, 베트남 국경과 접하고 남서쪽으로는 타이 해안과 접해있다. 면적은 한반도의 80%(181,035km^2)이며 전 국민의 약 95%가 불교(남방불교) 신자이나 여타 종교 및 외국문화에 대해서도 특별히 제한하지 않은 개방적 성향을 지닌다. 캄보디아의 앙코르 유적은 동남아시아에서 가장 중요한 고고학 유적 가운데 하나이다. 산림지역을 포함해 400㎢ 이상 퍼져 있는 이곳은 9세기부터 15세기까지 크메르 제국의 수도로서 훌륭한 유물을 지니고 있다[148].

캄보디아와 우리나라는 1970년 우리나라와 처음 수교하였으나 단절된 후[149] 1997년 재수교 이래 단기간에 교역, 투자, 개발협력, 문화 등 다분야에서 괄목한 수준으로 발전하였다.

캄보디아와 대한민국 국민이 양국을 방문하는 인적교류 규모는 2017년 기준, 37만여 명으로 1997년에 비하면 20년 만에 260배가 늘어났다[150]. 2004년 한국인 12만 8,423명이 캄보디아를 방문한 이래 5년간 전체 외국인 방문객 1위를 차지하기도 했다. 특히 인도차이나반도 지역 선교거점 국가로 한국 선교사 다수가 거주하고 있으며 단기선교 목적의 방문자도 증가하는 추세다.

2001년 4월 한·캄보디아 문화교류계획서 서명 이후 한국은 국악 공연단 방문 공연, 전통무용단 공연, 국립발레단 공연 등 한국의 문화를 나타낼 수 있는 문화공연을 진행했다. 캄보디아 역시 로열발레단 방한 공연 등을 진행하였고 2006년부터 캄보디아 대사관 주최로 한국영화제를 개최하면서 한국의 대중문화를 캄보디아에 전파하는 등 양국의 문화교류는 활발히 진행되었다. 특히, 2004년에는 서울 역사박물관에서 앙코르와트 유물전시회를 개최하였고 2006년에는 캄보디아에서 앙코르-경주 세계문화엑스포가 개최된 바 있다.

---

148) 유네스코와 유산(heritage.unesco.or.kr)

149) 1975. 4.5. 주크메르 대사관 철수, 외교 관계 중단

150) 외교부(2019.3.15.). "〈캄보디아 국빈방문 첫날, 동포간담회〉 '한강의 기적'을 '메콩강의 기적'으로"

〈표 3-33〉 한국-캄보디아 주요 문화 교류 연대기

연도	주요 내용
1973.1.29	문화협정 ※2006.8.24. 신규 협정으로 대체(발효일: 1973.1.29.)
2001	한·캄보디아 문화교류계획서 서명(2001~2002년간 예술·교육·영화 등 양국 간 문화교류 시행)
2001	한국 전통예술 공연단 방문 공연
2003	국악공연단방문 공연(동남아 지역 순회공연 일환), 허트리오 캄보디아 방문 공연
2004	앙코르와트 유물전시회 개최 (2004.6.29.~9.12, 서울역사박물관), 캄보디아 로열발레 방한 공연 (2004.8.31.~9.5), 인천시립무용단, 한국 전통무용 공연(아시아 순회공연의 일환)
2006	관광협력 기관간 약정(발효일: 2006.3.22.), 문화협력에 관한 협정(발효일: 2006.8.24)
2006.9.	제1회 한국영화제 개최 ※ 이후 매해 개최, 2018년도에 12회 한국영화제 개최
2006.	앙코르-경주 세계문화엑스포(2006.11.21.~2007.1.9., 시엠립) 남원 국립민속국악원 방문 공연(시엠립 2회, 프놈펜 1회 공연)
2007	김해 시립 가야금 연주단 방문 공연, 타악 그룹 '공명' 방문 공연 (외교 관계 재개 10주년 기념 일환), 베이비복스 공연(이후 2017년에는 가수 비, 가수 CL(전 2NE1 멤버) 콘서트 개최), 강릉 단오제팀, 캄보디아 고대 전통춤 축제 참가
2008	경기도립전통무용단 공연
2010	정동극장 무용단 전통 공연, 한국음악가 초청 콘서트 개최, 한국농수산식품무역협회 주관 한국 농수산식품 캄보디아 판촉전, 제6회 아시아 정당 국제회의 계기 우리 전통공연단 '축제의 땅' 판굿 공연
2011	문화자선단체 〈뷰티풀마인드〉 자선공연, 제2회 한국 음악가 초청 콘서트 개최, 왕실콘서트 개최. 국립국악원 방문 공연, 한식 홍보 행사(Korea Food Festival)
2012	아시아오페라단 갈라콘서트 개최, 국립발레단 방문 공연
2013.6.	2013 Quiz on Korea 캄보디아 지역 예선 ※이후, 2014, 2015, 2017, 2018년도 개최
2013.7.	2013 K-Pop World Festival 캄보디아 지역 예선 ※2014, 2015, 2017, 2018, 2019년도에 지속적 개최
2014	'한·메콩 교류의 해' 기념 초청 공연, 2014 한마음축제 개최, 한·캄보디아 '문화체육 교류의 날' 행사
2015.2.	캄보디아 '작은도서관' 개관(문체부 지원, 캄보디아 시엠레아프(Siem Reap))
2015.6.	캄보디아-한국 친선 클래식 콘서트
2015.1	2015 Korea Day for Cambodian Friends(한마음축제)
2016.5.	국립발레단 초청 발레공연 ※시하모니 국왕 참석
2017.10~11	한-캄보디아 재수교 20주년 기념 정가악회 초청 국악 공연 및 한식축제
2018, 2019	대사배 태권도 대회
2018.11.	2018 Korea Cultural Festival 행사
2019.1.	아시아문화위원회 출범 계기 문화 공연 행사

출처: 외교부(2019). 『2019 캄보디아 개황』. 126-129, 주 캄보디아 대한민국대사관 (http://overseas.mofa.go.kr/kh-ko/index.do), 문화체육관광부(www.mcst.go.kr)

2006년 드라마 풀하우스로 점화된 한류의 시작으로 K-드라마, K-pop, 한식 등의 문화교류가 활발하다. 가장 인기 있는 한류는 K-팝으로, 다수의 커버댄스팀 및 동호회가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으며 캄보디아에서 K-팝은 국민들에게 큰 사랑을 받는 대중음악이라고 할 수 있다. 한국어 열풍으로 한국어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며 이에 따라 교육기관의 한국어 강좌개설이 활발하다.

스포츠 분야에서는 캄보디아 내 태권도의 관심이 크다. 2014년 아시아게임 태권도 종목에서 '손 시브메이' 선수가 캄보디아 최초의 금메달을 획득하며 태권도의 관심이 높아졌다. 현재 캄보디아에 전국 50여 곳의 태권도장이 운영되고 있으며 대략 1만여 명의 캄보디아인이 태권도 수련. 정기적인 태권도 용품 지원 및 매년 주 캄보디아 대사 배 태권도 대회를 개최 중이다[151].

4) 미얀마

미얀마는 동남아시아의 최서단에 위치하여 인도양에 맞닿아 있으며, 남아시아와 국경을 맞대고 있어 중국과 인도 사이에 위치해 거대한 신흥시장을 연결할 수 있는 지리적 이점을 가지고 있다. 또한 한반도 면적의 3배에 달하는(676,577㎢) 넓은 국토에는 광물자원과 천연가스가 풍부하게 매장되어 있고 약 5,283만 명의 인구가 있어 생산기지이자 소비시장으로서의 가능성을 갖추고 있다.

미얀마는 68%를 버마족을 비롯해 135개 민족으로 구성된 다민족 국가이다. 특히 샨, 카친, 카인, 카야, 몬, 친 그리고 라카인 등 주요 7개 종족은 각기 하나의 주 (state)를 형성하고 있으며, 1948년 독립 당시부터 버마족과 이들 소수민족과의 무력 분쟁이 오랫동안 지속되다가 2015년 전국적 휴전협정을 체결했으나 국가 통합유지 문제가 여전히 미얀마의 중요한 국가과제로 남아있는 상황이다[152]. 국민 대다수는 불교(88%)를 신봉하는데 원시불교의 전통과 함께 토착 정령신인 낫(nat)와 융합된 불교형태가 독특하고[153] 출생·사망 등 생활과 사상 및 도덕 등 대다수 국민들의 삶 전반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

---

151) 외교부(2019). 『2019 라오스 개황』

152) 문화체육관광부·한국국제문화교류진흥원(2020). 『2020년 해외한류실태조사 보고서』

153) 오윤아, 장준영, 최재현, 우꼬레, 강대창, 김유미, 박나리(2011). 『미얀마 사회문화·정치와 발전잠재력』. 연구보고서 2011(12). 대외경제정책연구원

1993년부터 미국 및 유럽연합을 비롯한 서방세계는 민주주의 지연과 인권탄압 등을 내세워 포괄적인 대(對)미얀마 제재를 실시해왔으나 2011년 미얀마 2011년 신정부 출범으로 국가 전 분야에 걸친 새로운 면모를 전시하여 미얀마에 대한 국제사회의 시각은 크게 변화하였고, 2013년부터 서방국가는 대(對) 미얀마 제재를 대부분 해제하였다[154]. 이렇듯 2011년 민정출범을 계기로 미얀마의 정치경제환경이 급속히 변함에 따라 미얀마 정치적 자유화는 국제적으로 인정을 받게 되었고 이에 따라 미얀마의 대외관계가 급격히 정상화되었다.

한국도 2012년 이명박 대통령이 미얀마를 전격 방문하여 새마을운동 보급, 미얀마 국가대표 감독 지원, 한국의 경제발전 경험을 공유할 수 있는 원조프로그램 지원 등 다각적인 지원과 협력을 약속했다. 이어 경제협력 포럼 및 경제협력위원회 개최, 경제협력 프로젝트[155] 추진 등 양국 정부 간 경제협력 관계강화를 노력 중이고, 우리 정부는 1987~2018년간 지출액 기준 총 353백만 달러 규모의 대미얀마 유·무상 원조를 하는 등 한-미얀마 우호협력 관계의 발전 기반을 지속·강화하고 있다.

〈표 3-34〉 한국-미얀마 교류 및 문화관련 조약체결

연도	주요 내용
1961	영사 관계 수립
1962	주양곤 총영사관 개설
1972	뉴스교환협정
1975	한국 미얀마 수교, 대사급 격상. 주양곤 총영사관, 주버마 대사관으로 격상
1989	주한 상주 대사관 개설
2003	한국어말하기대회 개최(이후 매해 개최)
2006	한국영화제개최(이후 매해 개최)
2009	한·미얀마 외교부 간 정책협의회 설립 MOU 서명
2011	미얀마 유상원조지원(2005년 이래 서방측 제재에 부응하여 중단) 재개를 결정
2011	한국상품 전시회 겸 한식소개 행사 개최
2012	Korea Kimchi Festival행사개최, Korea Week행사개최
2013	K-Pop World Festival 미얀마 지역예선 개최(이후 매해 개최)

154) 강인수, 장준영(2015). 『미얀마 국가협력전략(CPS) 수립을 위한 개발협력방안 연구』. 정책연구 15-04. 대외경제정책연구원

155) 주요경제협력프로젝트로는 '한-미얀마 경제 협력 산업단지'와 '한-미얀마 우정의 다리(Dala Bridge)'가 있음

연도	주요 내용
2014	한국도자기전시회개최, 한-메콩 교류의해 기념 문화 공연 등 개최 한-아세안특별정상회의기념지방순회문화공연개최
2015	수교40주년 기념 문화공연 개최
2016	미얀마저명작가전시회개최, 난타공연
2016	한·미얀마 교육협력 MOU 서명
2017	한-아세안 문화교류의 해 기념 한-미얀마 현대미술 교류전개최
2018	6월 미얀마독립 70주년 기념 한국전통무용 공연 '천년의 몸짓' 상연, 미얀마독립 70주년 기념 K-WindSoulBeat 개최, 미얀마독립 70주년 기념한-미얀마 현대미술교류전 개최
2019	한-아세안 대화관계수립 30주년 기념 K-PopFriendship ConcertinYangon 개최

출처: 외교부(2019). 『2019 미얀마 개황, 주 미얀마 대한민국대사관(http://overseas.mofa.go.kr/vn-ko/index.do), 문화체육관광부(www.mcst.go.kr)

한국에서 미얀마를 대상으로 실시한 문화분야 ODA 원조사업은 아시아권 문화재 보존과학 국제 연수(ACPCS), 바간유적 보존·복원을 위한 장비 지원, 2014 아시아 국가와 함께하는 문화유산 관리자 교육 진행 등과 같은 문화재청을 통한 문화재 보존 교육 및 장비 지원사업이다. 미얀마 내 재외문화원·문화 홍보관은 현재 부재하며 양곤대학교 내에 세종학당이 운영되고 있다. 스포츠 부분에서는 태권도[156]와 축구[157]를 중심으로 양 선수 간 교류가 활발히 일어나고 있다.

코이카 지역사무소의 경우 사무소 설립 국가의 경우 별도 사이트를 통해 영어·한국어 페이지를 제공하며 캄보디아·라오스·베트남 사무소의 경우 현지어 서비스를 제공한다.

한국관광공사 해외지사의 경우 별도 사이트를 갖추고 있는 국가는 인도·베트남·말레이시아 지사가 있으며 그 외 태국·싱가포르·필리핀지사는 영어버전 한국관광공사 홈페이지(http://english.visitkorea.or.kr/enu/index.kto)에서 해외지사를 소개하는 코너와 함께 공용으로 사용 중이다.

156) 한국 태권도 시범단 방문 시범(연 1회) 및 미얀마 태권도 선수 방한 전지훈련, 2006년 이래 매년 주미얀마대사 배 태권도대회 개최

157) 2013년 및 2014년 미얀마 유소년 축구팀, 한국유소년축구협회 개최 'Youth Football Festa in Korea' 참석, 2014년 인천아시안게임에 미얀마 선수단 참석. 2016년 6월 한-미얀마 국가대표 여자축구 친선경기 개최(양곤), 2018년 8월 Alpine Cup 한국 19세 이하 국가대표 참석, 2019년 5월 포항스틸러스-미얀마 프로축구팀, 미얀마 22세 이하 국가대표팀 친선경기 개최

제2절 기관 및 단체의 문화교류 현황

최근 신남방 지역과의 다양한 교류가 시도되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여러 민관 기관에서 이루어지는 문화교류가 기관별로 산발적으로 이루어지면서 유사사업이 진행되기도 하고 일회성이거나 가시성 사업도 상당 정도 진행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실질적인 지역 간 문화적 수요에 따른 문화교류라기보다는 정책 필요성에 의해 기관 주도적으로 추진되고 있기 때문이다. 물론 아직은 초기단계이므로 그 성과를 판단하기는 이르기 때문에 향후 방향성을 제시하고 정부 차원에서 보다 체계적인 문화교류 활성화 계획 수립을 위한 현황 이해 및 자료제공 차원에서 본 절을 내용을 정리하였다. 이를 편의에 따라 국가 공공기관, 민간기관, 법인체로 기관을 구분하여 정리하고자 한다.

1. 공공기관의 신남방 지역 문화교류 현황

국립아시아문화전당[158]은 아시아문화 교류와 창작, 교육 및 연구가 이뤄지는 복합문화시설로서 다양한 국제교류 및 협력사업을 추진하는 기관이다. 2019 한-아세안 특별문화장관회의가 열렸으며 신남방정책 문화교류의 핵심기지이자 광주를 아시아 대표 문화도시로 만들고자 하는 목표를 가지고 있다[159]. 전당 내 '국제교류원'은 아시아의 각국 정부 간, 문화기관 간, 전문가 간의 교류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아시아의 전통음악, 무용, 스토리, 창작 공간 관련 행사를 매 해마다 진행하여 아시아 국가 간 상호 이해와 소통의 장을 마련하고 있다. '아시아문화연구소'는 다층적, 실천적 연구활동을 통해 아시아 문화의 다양성과 창의성을 발견하는 지식생

158) 국립아시아문화전당(https://www.acc.go.kr)
159) 뉴스1(2019.10.26.).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은 신남방정책 문화교류의 핵심기지"

산의 플랫폼(platform) 역할을 수행해왔다. 또한 기록유산 보존 프로그램, 아시아 전통음악 커뮤니티, 아시아 전통음악에 대한 공동 연구 및 아시아 전통 오케스트라 공연추진, 2009년 한-아세안 전통 오케스트라 창단 등의 성과가 있었다. 2020년부터 아세안 10개국을 매년 1개국씩 방문 공연예정이며 2012년 아시아 전통 실내악단 창단, 아세안 아트페스티벌 공연(캄보디아) 외 다양한 문화교류 사업을 진행했다. '아시아 컬쳐 네트워크'에서는 아시아 문화예술기관 네트워크 구축을 통한 협력사업 발굴, 아시아 문화예술 콘텐츠 제작·유통 플랫폼 마련, 아시아 국가 및 기관별 종류 네트워크 확대, 2019년 〈1차 아시아컬쳐네트워크 회의〉 개최 등이 있다. 이외에 한국-베트남 간 콘텐츠 국제교류, 아시아 문학페스티벌 창·제작 워크숍 발표공연, 베트남 설맞이 축제, 방글라데시 문화제, 수교 40주년 기념 스리랑카 문화제, 2017 인도문화제, 한-아세안 문화교류의해 기념 아시아 전통 오케스트라 공연, 2017 아시아 문화포럼 등 다채로운 교류사업을 진행했다.

한국국제협력단 (KOICA: Korea International Cooperation Agency)에서 진행하는 신남방교육 ODA 지원사업은 '미네소타 프로젝트'방식[160]으로 2027년까지 잠정적으로 1.2억 달러(한화 약 1,300억원) 규모의 ODA 재원을 투입할 계획이다[161]. '한-아세안 미래공동체 구상 라운드테이블'에서 신남방 교육 ODA를 추진할 것을 발표하였으며, 인도네시아, 베트남, 캄보디아, 라오스 등 아세안 6개국 미래인재 양성을 위해 2027년까지 대규모 신남방 교육 ODA지원사업을 펼칠 계획을 세우고 있다. 현재 아세안 6개국(캄보디아·라오스·미얀마·베트남·인도네시아·필리핀) 소재 최상위 국·공립대학을 대상으로, 의료, 보건, 농수산, 엔지니어링, ICT, 행정, 경제 등의 분야를 지원하고 있다.

문화재청은 문화유산 ODA 모범사례로 국제사회 내 신뢰할 수 있는 공여국으로 평가되기 위한 노력을 최근에 적극적으로 펼치고 있다. 캄보디아, ICC-Angkor(앙코르 유적 보호 국제조정위원회) 전문가 그룹(Adhoc experts)에 한국인을 추천하여

160) 미네소타 프로젝트는 미국이 중기적 관점에서 체계적이고 종합적으로 서울대학교의 의대, 공대, 농대의 역량강화를 도운 교육지원 사업(1955~1962)으로, 서울대학교가 오늘날과 같은 경쟁력을 갖추는 데 필요한 기틀을 마련하고 한국 사회 전반의 교육발전 및 지식 확산발판 마련에 크게 기여한 것으로 평가되는 프로젝트임

161) 한국국제협력단(KOICA)(2019.3.6.). "코이카, 아세안 국가 미래인재양성 위해" 신남방 교육 ODA 지원사업 "추진"

앙코르 유적 프레아피투 사원 1차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하였고 2차 사업(2019~2022)을 후속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그 결과 한국 ODA팀이 캄보디아 국왕이 하사하는 기념메달을 수여하기도 하였다(2018.12월/제25회 ICC-Angkor). 문화유산 ODA를 통해 저개발국 문화재 보존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최근 문화재청은 신남방지역 문화유산 ODA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수원국의 유무형의 문화유산 보존·관리 및 유네스코 유산 등재 역량 강화를 통해 자립기반을 마련함으로써 수원국 주민의 문화복지 증진과 관광산업 활성화 등 지속가능한 발전에 기여하기 위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162]. 특히 라오스 홍낭시다 발굴 조사를 통해 미완성 사원으로 알려졌던 홍낭시다 사원 실체를 학제적으로 규명하여, 왓푸-참파삭 세계유산의 가치를 제고하였다는 평가를 받기도 하였다. 미얀마 바간유적을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등재에 확정하는데 기여하기도 하였다. 2019년에는 문화유산 ODA의 신북방·신남방 지역으로의 확대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문화유산 ODA발전방안을 수립하고 수원국 문화유산 보존관리의 실질적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라오스, 미얀마 등 기존 ODA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또한 캄보디아 앙코르와트(3월), 라오스 홍낭시다(9월), 미얀마 바간유적 등이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등재되는데 지원하였다.

한국국제문화교류진흥원에서는 문화체육관광부와의 협력을 통해 '문화동반자사업'을 추진 중에 있다[163]. 이 사업은 개발도상국 문화분야 종사자를 초청하여 전문연수를 제공함으로써 수원국의 문화역량 강화에 기여하고 쌍방향 문화교류를 기반으로 상호문화 이해 도모 및 글로벌 파트너십 구축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다. 재외문화원 공동 국제문화교류 프로젝트 일환으로 2019년 인도한국문화원에 인력을 파견하거나 해외 주요 문화프로젝트 인턴십 일환으로 2018년 살리하라 인터내셔널 페스티벌에 인력을 파견하는 사업을 수행한 바 있다. 또한 국제문화교류 프로젝트 기획 일환으로 2018년 주베트남, 인도, 인도네시아, 태국 한국문화원에 기획 및 홍보, 정책연구 인력을 파견하기도 했다. 이 외에도 이 기관은 아세안을 예술교류의 새로

162) 라오스 홍낭시다 유적 복원현장 석재보존처리장 구축 및 보존처리 기술 전수
라오스 보존처리 과정 이수자 ODA 현장 참여를 통해 수평적 협업체계 마련, 미얀마 '바간 유적', 라오스 '씨엥쿠앙 항아리 거석 유적군' 세계유산 등재신청 완료(2018년 상반기), 카자흐스탄 무형유산 지원종목(코브즈 제작과 연주예술) 인류무형유산 등재 (2018.11.)

163) 문화체육관광부(www.mcst.go.kr)

운 동력으로 자리매김하고자 국제문화교류 전문인력 양성사업(NEXT) 워크숍을 추진해왔다. 여기에는 한국, 베트남, 싱가포르, 말레이시아의 예술공간을 무대로 활동하는 예술가들이 참가하였다.

한국문화예술위원회는 2019년 11월 한국-싱가포르 간 문화예술 협력 증진을 위해 국립싱가포르예술위원회(National Arts Council Singapore)와 한-싱가포르 문화예술 협력 양해각서(MOU)를 체결하였다[164]. 이러한 양해각서 체결은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를 계기로 열린 한-싱가포르 정상회담의 의제로 격상되어 성사되었다. 한국문화예술위원회와 국립싱가포르예술위원회는 예술위의 국제예술공동기금 플랫폼을 활용하여 한국-싱가포르 간 '예술과 기술(Arts and Technology)의 융·복합'의 주제 하에 문화예술 분야 인적교류 확대 및 예술에 디지털 기술을 접속한 융합예술 발전을 위해 함께 협력을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국제예술 공동기금을 활용하여 한-싱가포르 사전 리서치 프로그램 주관처 공모를 통한 공동협업 작업을 추진하고 있다.

국립민속박물관은 어린이들에게 다문화 체험 기회를 마련하기 위하여 '다문화꾸러미'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다양한 문화 이해와 체험을 위해 몽골꾸러미(센베노 몽골), 베트남꾸러미(신짜오 베트남), 필리핀꾸러미(꾸무스따 필리핀), 우즈베키스탄꾸러미(살롬 우즈베키스탄), 인도네시아꾸러미(아빠까바르 인도네시아), 대한민국꾸러미(안녕 대한민국), 중국꾸러미(니하오중국), 일본꾸러미(곤니치와 일본), 인도꾸러미(나마쓰떼 인도), 태국꾸러미(싸왓디 태국) 등 총 10종의 체험자료 전시상자를 기획 및 개발하여 운영하고 있다.

[그림 3-2] 국립민속박물관의 다문화꾸러미 사업

출처: 국립민속박물관(https://www.nfm.go.kr/)

164) 뉴시스(2019.11.25.). "예술위, 싱가포르와 예술교류 앞장선다"

[그림 3-3] 해외문화PD 우리의 이야기, 2018년 해외문화PD 제작 대표영상

출처: (좌) 문화포털(culture.go.kr), (우) 문화체육관광부(mcst.go.kr)

한국문화정보원은 재외 한국문화원 10곳에 해외문화PD 10명을 파견하는 사업을 추진해왔다[165]. 해외문화PD는 한국문화정보원이 추진하는 영상 제작교육과정을 수료하고 재외문화원에 파견되어 다양한 영상과 블로그 콘텐츠를 제작하는 전문 인력을 의미한다. 해외문화PD는 한국어, 케이팝(K-POP), 한식, 태권도 등 한국을 대표하는 다양한 주제와 현지 한류동향 등에 대해 영상자료 약 2,700편, 블로그 콘텐츠 410여 건을 제작하였다. 〈재외 한국문화원 해외문화PD 파견 사업〉은 2012년에서 2018년까지 총 55명이 파견되어 추진해왔으며 2020년에 제9기의 모집을 예정하고 있고 아세안 국가 중 인도네시아에 PD를 파견할 계획이다.

한국콘텐츠진흥원은 〈K-콘텐츠 엑스포〉를 추진하였다. 이 사업은 국내 콘텐츠 기업의 동남아시아 시장 진출 및 한국 콘텐츠 저변 확대를 위하여 개최하였으며 2019년에는 태국·인도네시아에서 개최하였다. 해외진출을 희망하는 방송/애니메이션/캐릭터/게임/VR 등 콘텐츠기업의 참가신청을 받고 심사를 통해 선정하였다. 수출상담회 등 비즈니스 프로그램 지원, 전시·체험·홍보·이벤트 공간 구성 및 운영을 지원하였다. 해외문화원과의 연계를 통한 거점별 특화사업으로도 진행하였다. 또 베트남 호치민에 열리는 박람회인 '텔레필름 2017'에서 한국공동관을 운영해왔다. 텔레필름은 베트남 하노이와 호치민에서 교차 개최되는 방송영상마켓을 의미하며 한국공동관을 운영하여 한국드라마와 예능 포맷을 소개하는 방식으로 다양한 콘텐츠 교류협력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그리고 인도네시아 비즈니스센터와 연계해 태국,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등 아세안 주요 시장의 바이어를 대상으로 수출 상담

165) 문화체육관광부(2019.5.2.). "베를린 등 재외 한국문화원 10곳에 문화피디 10명 파견"

및 사업매칭 등도 진행하였다.

아세안문화원은 2014년 12월에 개최된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 후속 성과사업으로 외교부가 건립을 추진하였고 한국국제교류재단(KF, The Korea Foundation)이 운영하고 있다. 문화원은 아세안 문화 관련 상설전시 및 기획전시를 통해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였다. 상설전시를 통해 아세안 각국에서 기증한 유물을 전시해왔으며 기획전시를 통해 주요 주제에 대한 다양한 특별전시를 동남아 각국, 국내외 유관기관 협력 하에 정기적으로 개최해왔다. 문화원은 주한 아세안 공관과 협력 하에 아세안 10개국의 다양한 문화를 음악, 무용, 영화 등의 형태로 소개하고 주한 아세안거주자들이 자국의 문화를 향유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하기도 했다. 이외에도 한국 국민과 주한 아세안 출신 유학생 및 거주자들이 고르게 참여할 수 있는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아세안 소개 강좌와 세미나, 유·청소년 교육, 음식문화체험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아세안 정보자료실을 운영하고 있다.

한·아세안센터는 2016년부터 〈학술에세이 공모전〉을 개최하여 한국 및 아세안 국적으로 해당 대학에 재학 중인 학생들에게 참가자격을 부여하였고 한국과 아세안의 대학(원)생들이 한-아세안 관계에 대한 다양한 시각과 지식을 공유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였다. 한-아세안센터는 유관기관과 협력하여 '아세안 스쿨투어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데 이 프로그램은 교육부의 '꿈길' 프로젝트 교육파트너 인증기관으로 한국과 아세안 국가에 있는 초·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진행하고 있는 진로체험 및 국제기구견학 교육 프로그램이다. 이는 한-아세안센터로 파견된 아세안 공무원과의 대화, 국제기구와 국제협력 분야 진로에 관한 특별강연, 아세안 퀴즈대회, 창의적 문화활동 등 다양한 교육 세션으로 구성되어 있다.

2. 민간 기관의 신남방지역 문화교류 현황

가. 연구활동 중심 기관

한·인니문화연구원[166]은 1999년에 인도네시아에서 오픈하여 서울예술대학교와 인도네시아의 문화예술 융합 실험 MOU 체결하였다. 이외에도, 다양한 문화탐방

166) 인니문화연구원(http://www.ikcs.kr/ik/)

프로그램, 세미나 및 열린강좌, 인도네시아 이야기 공모전, 문화교실, 문화행사를 추진해왔으며, 한국과 인도네시아에서 다양하게 참여하고 있다.

부산외대 아세안 연구원은 1990년대 초 지역연구의 필요성에 관심을 가진 부산외국어대학교 교수들이 중심이 되어 결성한 연구모임이다. 2009년에는 한국연구재단의 인문한국(HK)지원사업 해외지역연구에 선정되어, 국내외 아세안 연구교류협정 체결기관과 연구협력 및 교류를 하였다. 부산시 성장전략국, 부산시 신남방팀, 아세안문화원, 부산국제교류재단, 아세안 각국 대사관 등 유관기관과 협력해 '팀 아세안(TEAM ASEAN)'을 구축하고 아세안 싱크탱크로서 한·아세안 교류 확대에 기여해왔다[167].

한국동남아학회는 역사학, 인류학, 언어학, 문학, 정치학, 사회학, 경제학, 경영학 등의 전공을 지닌 500여명의 회원을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다. 학회는 주로 동남아시아의 역사, 동남아시아 사회와 문화, 동남아시아의 정치와 민주화, 동남아의 경제개혁, 한국-동남아 경제 교류 등의 주제로 다양한 학술연구와 행사를 추진해왔다. 외교부의 후원으로 아세안대학네트워크(AUN)와 공동으로 동남아 현지에서 한·아세안국제학술대회를 추진하였다. 일본 교토대학 동남아연구센터(CSEAS)와 공동으로 매년 한국과 일본에서 순차적으로 한일공동학술대회를 가졌다. 학회는 한·아세안 학생 및 학자 간 교류를 강화하고자, 동남아시아학을 전공하는 학자와 대학원생들을 대상으로 연구를 위한 현지조사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을 추진해오고 있다.

사단법인 한국동남아연구소는 한국동남아월례연구발표회, 교육협력사업, 국제협력사업, 공동현지조사와 공동연구 활동을 수행해왔다. 주요 사업은 2014년,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 개최 기념 포럼을 추진했으며, 2015년, 태국 현지조사, 2016년 말레이시아 동부 해안지역 답사 활동을 했다. 2018년 3월, 한-베 공공외교 대화포럼을 개최하였다. 2019년 제4차 한-싱가포르 포럼 개최와 2019년 교육부 용역, 아세안, 인도 국가 근현대사 교육 강화를 위한 방안연구 등 공동연구를 추진한 바 있다. 2019년 7월 4일, 부산에서 한국동남아연구소 주관으로 동아시아 씽크탱크 네트워크(NEAT, Network of East Asian Thinktank) 워킹그룹 회의를 개최한 바 있다. 9개국 20여명의 참가자들이 참석하여 "Networking Cultural Institutions

167) 연합뉴스(2019.11.5.). "한·아세안 교류 확대..부산외대 아세안연구원 출범"

for Socio-Cultural Connectivity in East Asia" 주제로 열렸다.

아산정책연구원은 2008년에 설립되었으며, 안보, 핵문제, 민주주의, 외교관계, 지역, 문화와 사회, 글로벌 가버넌스, 국제법, 에너지, 과학과 기술, 경제 등 다양한 분야 연구 및 협력을 추진해왔다. 주요사업으로 지역연구센터의 아세안-대양주 연구 프로그램이 있다. 이 프로그램은 아세안-대양주 지역의 국제관계와 지역협력 및 외교정책 연구, 국내외 전문가 연계 정책연구 및 학술연구를 통한 한국 대표 아세안, 대양주 연구 허브를 만드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서강대학교 동아연구소[168]는, 동아시아 지역의 정치, 경제, 사회 및 문화 분야에 대한 기초 및 응용연구를 통하여 이 지역에 대한 전문적 이해를 증진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HK 동남아사업단이 조직되었다(1981년). 협력기관으로는, 전북대학교 동아시아 다문화 전공, 서울대학교 비교문화연구소, 서남재단, 한국동남아 연구소, 고려대학교 아세아문제연구소, 부산외국어대학교 동남아시아 지역원, 동아대학교 서당학술원 등이 있다. 연구클러스터 조성 후 다양한 연구성과물을 생산하고 있다. 국내외 저명 연구자들이 참여하는 연구 클러스터의 활성화로 세계와 소통하는 연구 업적물을 생산하고 있다. 이외에도 국내외 기관과의 협력을 통한 자료 축적 확대, 동아시아 동남아연구 네트워크 확대, 대중강좌 시행 및 대중교양서 출간 등의 활동을 한다.

서울대 아시아연구소 동남아시아센터는 교육사업(동남아 열린 강연, 지역전문가 심화과정, 연구연수생 등) 등을 중심으로 인도네시아-말레이시아 현지 조사 및 관련 학술 연구 활동, 장기적으로 동남아시아 대륙부와 도서부 10개국(미얀마, 태국, 라오스, 캄보디아, 베트남,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인도네시아, 필리핀, 브루나이)으로 연구범위 확장, 동남아시아 관련 연구주제의 경우 시의성이 있는 발굴과 심층적인 학술활동을 하고 있다[169].

---

168) 서강대학교 동아연구소(sieas.sogang.ac.kr)

169) 서울대 아시아연구소 동남아시아센터의 주요 연구 사례로, 「문화에 민감함' 시장진출 전략과 지속가능한 경제협력: 말레이-이슬람 문화권의 인도네시아와 말레이시아 사례연구」 (2012~2017), 「메콩 유역의 수자원 거버넌스와 지속가능한 개발협력의 모색 」(2013~ 2018), 「이슬람 금융은 대안적 금융인가? 동남아 이슬람 금융의 원리와 실천」(2018~) 등이 있음

나. 특정 국가 중심 활동 기관

첸나이 인코센터(InKo Centre)[170]는 2006년 첸나이에서 한-인도 양국 간 문화교류 활성화를 위하여 설립된 문화단체로 첸나이 인근에 진출한 현대자동차와 남인도 굴지의 대기업 TVS모터(2륜 및 3륜차 생산) 협력결과로 발족하여 남인도 지역에서 실질적인 한국문화원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주인도 한국대사관은 물론 첸나이 한국 총영사관, 한국문화예술위원회 등 한국의 정부/공공기관 역시 인코센터의 주요한 후원자이자 협력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주요시설 및 프로그램으로는 사무동, 한국 아티스트 레지던스 프로그램 수행을 지원하기 위한 작업실, 강습실, 갤러리 및 상업시설로 구성되어 있으며, 한국어 강좌, 인도요가, 한국서예, 태권도 등 웰빙 프로그램, 한국 및 인도 예술 전시회 등을 운영하고 있다.

사단법인 한베경제문화협회(KOVECA)[171]는 문화를 통해 한국과 베트남 간의 다채로운 문화교류와 경제, 사회, 교육, 청소년 등 각 분야에 걸친 협력강화를 이끌어내는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주요시설 및 프로그램으로 문화교류, 경제교류, 사회공헌 프로젝트, 교육사업, 인적교류 및 협력증진 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다. Art College of Hue University(후에예술대학)과 양국의 문화예술교류와 발전을 위한 MOU를 체결하였다. 코베카 포럼, 베트남 문화탐방, 베트남 달랏대학교 부설 달랏 교육원 운영활동도 하고 있다.

사단법인 한베문화교류센터[172]는 1993년도에 베트남 현지에서 베트남의 환경에 맞게 탄생한 시민단체로 이들은 한-베 수교와 동시에 베트남에 입국하여 베트남의 문화를 공부하는 한베문화교류센터를 설립하였다. 센터는 다문화가족 지원사업, 지역사회개발사업—장학사업, 교육사업, 문화교류사업 등(수원과학대·한베문화교류센터, 산학협력 협약 체결)을 수행하고 있다.

사단법인 한국 라오스 친선협회[173]는 양 국가 간 문화, 학술 및 학문, 건설 자원개발, 관광 등의 교류증진을 위해 설립(2004년)되어 문화교류사업/교육사업/농촌개발사업/투자사업/ 대학생 봉사단 파견사업 등을 수행하고 있다.

---

170) 첸나이 인코센터(http://www.inkocentre.org/)
171) 한베경제문화협회(http://www.koveca.com/)
172) 한베문화교류센터(http://koviculture.net/)
173) 사단법인한국라오스친선협회(http://www.korlaos.or.kr/)

캄보디아 교육문화 봉사회는 바티에이국제대학 소속으로 2012년 설립되었으며 캄보디아 지역 교육봉사 활동을 수행해왔다. 주로 아동교육, 중등교육, 고등교육 등 다양한 분야의 교육지원 및 문화예술교류사업을 추진해왔다.

다. 신남방 국가 일반 교류 기관

아시아문화콘텐츠 교류협회(ACCEA)[174]는 한국의 전통문화와 문화산업을 아시아에 알리고 아시아 각 국가와의 각종 문화콘텐츠 교류사업을 통해 한국 전통문화에 대한 국제사회의 올바른 인식과 이해를 도모하고 상호협력을 위해 설립된 협회이다. 주요시설 및 프로그램으로는 K-LAO Cultural Exchange Center 개관, 라오스 유관기관 및 단체와의 네트워크 구성, 문화교류사업 협력 추진, 현지 학교, 고아원 등에 대한 지원사업, 라오스 현지인에 대한 언어 및 직업 교육 등 공익사업, 한국 전통문화 및 상품 홍보와 상품개발 사업, 한·라오스 불교문화 교류사업, 한국 전통문화·대중문화 상품 수출확대를 위한 공연·전시 등 이벤트 사업, 진짜 라오스를 만나다 'LAO HOUSE' 운영, 새로운 라오스를 만들다 'LAO Internet TV' 운영 사업이 있다.

한아봉사회는 아시아와 인도차이나 지역 인재양성, 기술교육, 빈곤퇴치를 위해 1992년에 창립되었다. 주요활동은 라오스, 미얀마, 베트남 등 동남아 지역에서 학교건축, 교육지원, 문화교류 등 사업을 수행해왔다. 그 외 동남아 지역 아동 후원 결연활동 등을 추진해오고 있다.

재단법인 아시아문화교류재단은 1996년에 외교통상부 비영리법인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4조에 의해 설립되었다. 2012년에 결혼이주여성 담당공무원 초청 워크숍을 추진했으며 2013년 베트남 중앙정부가 공인한 '한-베 우정의 마을'추진본부가 발족하여 푸옌, 빈롱성, 롱안, 동나이성, 하우장성 등 260여 채의 주택 건립 및 기증사업을 추진했다. 2018년에는 빈롱성 우정의 마을 준공식, 2019년 껀터시 꼬도현 "사랑의 집짓기" 기공식을 추진하였다.

174) 아시아문화콘텐츠교류협회(http://www.accea.co.kr/business/business02.php)

제3절 신남방 지역 문화교류의 성과 및 한계

1. 신남방 지역 문화교류 사업 성과

첫째, 정부의 신남방정책에 발맞춰 아태지역 문화유산 ODA사업이 발전하였고, 관련분야 사업 수요가 증대하였다. 특히 디지털문화유산 ODA사업과 박물관 건립·보존사업과 같은 역사·문화 ODA사업이 양적으로 증가하였다. 문화재청은 기존 동남아시아에 국한되었던 문화유산 ODA 역할을 정부의 신남방정책에 발맞춰 신남방 지역으로 확대함은 물론 중앙아시아, 우즈베키스탄 등과도 국제개발 협력사업을 확대하고 있는 상황이다.

〈표 3-35〉 문화유산 ODA사업 주요내용

목적	주요사업	세부내용
문화유산 ODA 신북방 신남방 확대기반 마련	ㅇ 중앙아시아(우즈베키스탄, 카자흐스탄) 2020년도 신규사업 타당성 조사 실시 ㅇ 문화유산 ODA 중장기 발전방안 연구용역 실시	ㅇ 중앙아시아, 우즈베키스탄 국제개발협력 사업 확대 - 한-우즈벡(문화부, 과학아카데미) 업무협약 체결(4월), 사마르칸트 지역 박물관 보존환경개선 및 역량강화 사업(20년 이후) ㅇ 문화유산 ODA 개선 방안 마련(8월) - 대상국 차별화, 추진절차 개선 및 내실화 - 위탁사업 기관 관련 조직 개편 ㅇ 라오스·미얀마 2차 사업 사전타당성 조사 실시(9월~11월), 신북방 확대를 위한 파키스탄, 몽골 신규 사업 타당성 조사 실시(11월)
수원국 문화유산 보존관리 실질적 역량강화	ㅇ 라오스, 미얀마 등 기존 ODA사업지속 추진	ㅇ 문화유산ODA 사업 홍보 강화 - 문화재청-미얀마-부산국립박물관관 미얀마 특별전(11월) ㅇ (라오스) 주신전 해체·복원 및 기본자료 업데이트 ㅇ (미얀마) 벽화 매뉴얼 마련 기초조사, 주변 환경 등 분석 ㅇ (우즈벡) 아프로시압 궁전벽화 및 고고유적지 지원, 기초조사 실시 ㅇ (라오스, 우즈베키스탄) 무형유산 인벤토리 작성 및 전승역량 강화

둘째, 정부-유관기관 간 아태지역 문화예술교류를 다자간으로 확대하여 이와 관련한 교류가 확산되고 있다.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의 경우 문화도시조성협력단 출범, 2018 광주비엔날레와 제2회 아시아문학페스티벌 공동개최 등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의 국제교류 및 지역사회와의 협력을 확대하고 있다. 이에 따라서 한-아세안 문화분야 협력사업이 증대하고 다자간 교류가 확산하고 있는데, 아태 무형문화유산 중심 문화관광 교류 활성화사업 확장, 아태 무형문화유산 연계 이해관계자 간 파트너십 및 교류사업 증대, 아태 무형문화유산 연계 문화관광 교류 조사 및 연구사업 촉진, 국제포럼 및 행사 등 국내외 문화관광 교류협력 사업 강화, 아태지역 인적교류 및 NGO 협력 확대 등 다양한 문화교류·협력행사 등을 통해 한-신남방 국가 간 관광과 교육 등 인적교류 활성화에 노력하고 있다. 더불어 무형문화유산 연계 전문가뿐 아니라 NGO 연계 협력 네트워크 사업을 추진하고 아태지역 유학생 교류 증진 및 한류로 인한 한-아세안 간 인적교류 확대사업을 시도하고 있다. 이를 좀 더 구체적인 사업으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표 3-36〉 아태지역 문화교류 현황

- 한-아세안 1개국 '상호문화교류의 해'개최(양자 행사)
- 아시아문화 주간(한국 개최, 아세안 국가 개별 참여)
- 한-아세안 문화 정체성 및 협력강화 포럼 개최
- 한-아세안 문화예술 교류협업 사업 공동 지원
- 한-아세안 청년 예술가 창작 워크숍
- 한-아세안 전통음악커뮤니티 협력 강화
- ('아시아전통오케스트라' 아세안 순회공연, 아세안 전통음악인 레지던시·워크숍)
- 한-아세안 국립박물관 교류 사업 확대
- 한-아세안 국립미술관 교류·협력 강화
- 한-아세안 국립도서관 교류 활성화
- 문화산업교류 행사 개최 및 협조
- 한-아세안 영화기구 설립
- 아시아-태평양 문화유산 협력기구 신설
- ICT기반 문화유산 보존·활용 역량 공유
- 한-아세안 시각·예술기구 신설 검토

2. 신남방 지역 문화교류 정책 및 효과의 한계

전체 신남방정책에서 사회문화 분야 전략에 해당하는 문화교류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는 것은 충분히 긍정적이나 전체 정책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미약하여 그 비중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신남방지역이라는 친숙하면서도 또 생소한 지역 및 국가와 실질적 교류를 하면서 상생 방안을 찾기 위해서는 그 효과가 지속적이어야 하고 또한 실효성이 있어야 한다. 단지 문화적 호기심을 가지고 관광객을 유치하는 정도에서 사회문화 전략의 효과가 나타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면 시행착오를 거듭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첫째, 교류하고자 하는 세부지역과 국가의 사회문화적 수요를 정확하게 파악하는 작업이 우선되어야 한다. 우리나라의 입장에서가 아니라 신남방과 인도의 입장에서 우선 수요를 파악하는 작업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것이 단기간에 이루어지기는 어려울 수 있어 다양한 기관, 인력, 시스템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전략을 먼저 수립해야 한다.

이를 위해 둘째, 특히 신남방지역의 자체역량을 점검하는 작업이 우선되어야 한다. 특히 이는 해당지역의 효과적인 인력양성 시스템을 구축하는데 우리의 경험 노하우가 기여할 수 있는 분야이기도 하다. 우리나라의 인력양성 지원 스템, 교육프로그램, 인력활용 노하우, 공공/민간 교육시스템 등을 신남방 지역에 효과적으로 전달하는 방법을 고민해야 할 것이다.

셋째, 문화행정 시스템으로서 신남방지역과의 문화관광 교류를 추진할 수 있는 전담조직을 구성하고 이와 관련된 정책적 지원 및 인센티브 등을 적극적으로 고민할 필요가 있다. 특히 문화적 다양성 정책을 추진하기 위한 정책적 한계를 여전히 극복할 수 있는 국가 간 문화자원 활용 관련 법제도 구축이 선행되어야 한다. 이는 신남방지역의 문화행정 발전에 기여할 뿐 아니라 그들의 문화자원, 문화인력, 문화적 전통, 문화유산 등의 가치를 제고하여 향후 우리나라와 동등한 위상과 가치를 인정받으면서 실질적인 문화교류가 가능할 수 있는 기본적인 토대를 구성하게 될 것이다. 신남방지역의 다양한 문화자원 활용방안, 지방 소도시의 문화관광 활성화 방안, 중앙정부의 문화정책, 문화행정 시스템 검토 등을 지원할 수 있는 방안 또한 모색해야 할 것이다.

넷째, 사회문화 분야 대표사업 또한 발굴할 필요가 있다. 신남방지역과의 효과적인 사회문화 분야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두 지역의 사회문화적 차원의 차이점만이 아니라 이러한 차이점을 아우를 수 있는 보편적 공통분모를 찾아내는 작업이 우선되어야 한다. 이는 유무형 문화유산, 문화이벤트, 규범이나 관습 등 다양한 분야에서 도출 가능하며 역사적이고 전통적인 공유 경험에서 그 단초를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예를 들어 "무형문화유산 정보공유플랫폼 구축"과 같은 사업추진이 신남방 정책 사업의 대표사업으로서 가치를 가질 수 있다. 이 사업은 세계적 디지털 기술과 인적자원을 가진 우리나라에서 주도적으로 추진하면서도 신남방 지역의 무형문화유산의 가치를 널리 알리고 다양한 활용방안과 관련 정보를 공유하는데 유용하게 작용할 수 있을 것이다.

다섯째, 한국의 고유문화와 신남방의 고유문화가 서로 긴밀하게 만날 수 있는 다양한 기회를 제공할 필요(페스티벌, 인력양성 프로그램, 상호 연수 프로그램 등)가 있다. 신한류콘텐츠, K-Contents, K-Food, K-Beauty, 한글, K-출판 등의 확산 전략을 신남방지역 국가들이 고유한 전통, 문화, 민속, 문화유산 등과 결합하면서 쌍방 간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는 방법을 적극적으로 고려할 만하다.

여섯째, 추진사업의 당위성을 점검하고 사업효과를 예측하고 평가할 수 있는 종합적 시스템이 부재하므로 이를 체계화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ODA사업과 같은 경우에는 중장기적 ODA사업 및 지속가능한 사업을 비롯하여 아태지역 대상 국가별 사업 간 정보격차를 해소해야 한다. 현재로서는 신남방 지역 내 국가들의 역량이나 정보격차 등을 파악하기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특정 국가에 추진되는 사업의 당위성이나 타당성을 판단할 기준이 없다. 따라서 대부분 더 적극적으로 사업추진을 요구하는 국가에 사업이 진행될 수 밖에 없다.

일곱째, 문화인력 간 교류사업을 추진하고 이를 뒷받침해줄 수 있는 전문인력 양성이 필요하다. 이것은 관련 분야 종사자 간 상시적 참여시스템 부족, 그 결과 문화교류 및 문화 확산의 효과가 미흡한 것과 연결되는 부분이다. 문화예술교류 트렌드 변화에 대응하는 문화예술 교류사업 개발 및 다학제적 교류 확충을 위한 인력양성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이러한 시스템이 없이는 문화예술교류를 위한 정책범위나 각각의 활동 주체 범위가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빠르게 디지털 사회로 진입하고 있는 신남방지역 문화유산, 특히 무형문화유산 등을 활용한 문화콘텐츠의 창작·제

작 선순환 시스템을 정착하기 위한 여러 조건이 신남방 지역은 물론이고 이를 주도적으로 추진할 우리나라의 경우 이러한 다학제적 교류시스템이 없어 상당히 많은 한계를 가지고 있다. 특히 문화관광 교류사업에서 신남방지역에 대한 문화관광 콘텐츠 구축 및 문화유산 관광 인프라 개선을 위한 구체성·다양성·전문성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황이다. 이것이 결과적으로 신남방 지역 문화유산 관련 문화관광 콘텐츠 DB 구축 및 다채로운 콘텐츠 개발이 미흡해지는데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표 3-37〉 창·제작 선순환 시스템의 문제점 분석 사례

과정	문제점	비고
연구	지엽적 주제 1~2년 단기 연구→성과 부족 및 창·제작 활용도 저조	
자원수집	체계적인 자원 수집·정리·보존의 미비 축적된 자원의 활용성 미흡	*정리 12만(60%)/ 서비스 4만(20%)
창·제작	창·제작 콘텐츠의 결과물 도출·시연 미흡, 대중성(너무 어렵다) 부족 및 비용 대비 효과성 문제 제기	대중화 171건/ 창·제작 388건
확산(유통)	창·제작 콘텐츠의 문화전당 정례 프로그램화 107건(28%) 및 유통(사업화) 21건(5%) 수준	

* 출처: 국립아시아문화전당(2019).「성과가 눈에 보이는 해」

제4장

신남방 지역 문화교류 수요분석

제1절 수요조사 개요

1. 수요조사의 목적과 방향

신남방 지역은 단순히 하나의 지역으로 묶어내기에는 지역 내에 속해 있는 개별 국가들의 특성이 다양하게 나타나는 곳이며, 그에 따라 각 국가의 문화적 정체성과 자신의 문화에 대한 대내외적 인식 정도 또한 그 범위가 넓다. 따라서 신남방 지역을 전체로 보면서 일관된 문화교류정책을 추진한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할 정도로 개별 국가들의 문화적 특성에 대한 이해가 중요하다.

수요조사는 신남방 지역에 속한 국가들과의 문화교류 정책을 수립하기 위해 필수적으로 선행되어야 할 사전작업으로서, 본 연구에서는 코로나 등으로 인한 직접적인 현장방문이 불가능하고 대면 인터뷰 등도 어려운 상황이라 인터넷을 통해 신남방지역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는 방법을 선택하였다.

본 신남방지역 전문가의 의견조사를 토대로 신남방 지역과의 교류와 타지역 교류와의 차이점, 공통점, 비중 인식 정도, 문화교류의 성공적 추진을 위한 선결요건, 기존의 신남방정책과 현 정부 정책과의 공통점과 차이점, 문재인 정부 신남방 교류정책의 우선순위 인식 정도, 신남방 문화교류의 성과, 신남방 문화교류정책에서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할 사항, 신남방 문화교류의 장애요인과 장애요인 극복방법, 신남방 문화교류 추진주체에 대한 인식 정도, 신남방 문화교류의 추진전략, 우선적 추진과제와 사업 내용, 유형에 관한 정책제언 및 시사점을 얻고자 하였다.

2. 수요조사의 대상과 방법

〈표 4-1〉 조사개요

구분	내용
조 사 명	신남방 지역 문화교류 정책 관련 전문가 조사
조사목적	신남방(아세안 10개국, 인도) 지역 문화교류 활성화 방안 관련 전문가 의견 수렴
조사대상	신남방 지역 국가별 전문가
조사기간	2020년 6월 22일 ~ 7월 14일 (총 23일)
조사방법	구조화된 설문지에 대한 전문가들의 응답 작성
조사내용	신남방 정책 전반에 대한 견해, 문화교류 관련 기존 정책 및 향후 개선 방향성 의견
유효표본	총 80개 조사 대상 중 44개 표본의 응답 수집

본 조사는 국내 신남방 지역 전문가의 문화교류 활성화 정책 관련 의견을 조사·분석함으로써 신남방 문화교류 현황을 명확히 진단하고 향후 교류 활성화를 위한 정책 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실시하였다. 국내 신남방지역 관련 학과 및 연구소 소속 전문가를 대상으로 2020년 6월 22일부터 7월 14일까지 총 23일간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전체 80개 조사대상 표본 중 최종 44개 유효 표본을 확보하였다.

조사방법으로 서면 설문조사를 실시하였고, 구조화된 설문지에 전문가들이 응답을 기술하는 방식으로 진행하였다. 조사내용은 기존 정부 대비 신남방 정책 전반에 대한 견해, 문화교류 관련 기존 정책 및 향후 방향성에 대한 의견 등 크게 3부분으로 구성되며, 부분별 세부내용은 다음과 같다.

〈표 4-2〉 조사내용

구분	내용	문항
응답자 특성	성별, 관심분야, 관심지역, 활동기간	SQ 1,2,3,4
정책 전반에 대한 견해	기존 대비 현 정부의 신남방 지역 관심 정도	1
	현 정부의 신남방 정책 평가(역점 사업, 성과, 한계)	2,3,4
	향후 정책적 주력 사업 분야	5
신남방 지역 문화교류 정책 성과	타 국가(지역) 대비 문화교류에 대한 비중 및 의지	6
	타 국가(지역) 대비 문화교류에 대한 성과 인식 정도	7
	문화교류 의지 및 효과에 대한 신남방 지역의 예상되는 평가	8

구분	내용	문항
	문화교류 정책 성과 인식도(성과, 비성과 분야 및 원인)	9,10,10-1
	향후 문화교류 정책적 주력 사업 분야	11
신남방 지역 문화교류 정책 개선사항	문화교류 정책사업 성과 국가	12
	향후 문화교류 우선 추진 고려 국가 및 이유	13,13-1
	우선 고려할 문화교류정책 추진전략	14
	세부 추진전략별(동반자관계 및 파트너십 강화/문화콘텐츠 및 자원교류, 인적자원 교류, 프로그램 공유 및 교류, 제도 및 인프라 구축 협력, ODA사업 활성화) 우선 추진 과제	15,16,17, 18,19,20
	향후 정책 추진 시 요구사항(기반환경, 주의 고려사항)	21,22

설문조사 응답자는 신남방지역 문화교류 정책에 대해 전문적 평가가 가능한 국내 관련 전문가 리스트를 아세안 전반 및 11개 지역(인도, 캄보디아, 라오스, 베트남, 미얀마, 태국, 브루나이, 인도네시아,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필리핀)별로 추출하였다. 성별 응답자 현황은 '남성'(70.5%)이 '여성'(29.5)% 보다 높았으며, 관심분야별 응답자 현황은 '신남방 지역문화'(43.2%)가 가장 높게 나타났고, '정치·외교'(27.3%), '경제'(11.4%), '문화예술'(11,4%), '기타'(6.8%) 순으로 나타났다.

관심지역별로는 '아세아 전반'(20.5%), '인도네시아'(18.2%), '태국(13.6%)', '베트남'(13.6%) 순으로 이 4개 지역이 총 65.9%로 응답자의 관심이 높은 지역으로 나타났다. 관련 전문가로 활동한 기간은 '21년 이상'(27.3%), '6~10년(25.0%)', '11~15년'(22.7%), '16~20년'(13.6%), '1~5년'(11.4%) 순으로 분포되었다.

설문응답을 통계처리 하는 과정에서, 중복응답의 경우에는 모든 응답의 전체 수를 100%로 놓고, 전체 선택된 항목 순으로 비율을 조정하였다.

본 연구의 실질적인 문화교류 성과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해당 국가에서 우리나라와의 문화교류를 담당하는 정책담당자나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도 포함이 되었다면 보다 충실한 연구가 수행되었을 것이나, 본 과제가 수행되던 와중에 전 세계적 코로나19 상황이 발생하여, 국내의 신남방 지역 전문가의 의견만을 수렴할 수밖에 없었다.

〈표 4-3〉 응답자 현황: 성별·관심분야·관심지역·활동기간

구분		사례수(명)	비율(%)
전체		44	100.0
성별	남	31	70.5
	여	13	29.5
관심분야	정치·외교	12	27.3
	경제	5	11.4
	문화·예술	5	11.4
	신남방 지역 문화	19	43.2
	기타	3	6.8
관심지역	캄보디아	1	2.3
	라오스	1	2.3
	베트남	6	13.6
	미얀마	2	4.5
	태국	6	13.6
	인도네시아	8	18.2
	싱가포르	4	9.1
	말레이시아	4	9.1
	필리핀	3	6.8
	아세안 전반	9	20.5
활동기간	1~5년	5	11.4
	6~10년	11	25.0
	11~15년	10	22.7
	16~20년	6	13.6
	21년 이상	12	27.3

제2절 설문조사 결과

1. 동남아 지역 및 인도 지역 관련 정부정책에 대한 견해

1) 기존 정부 대비 신남방 지역에 대한 문재인 정부의 관심도 정도

기존 정부 대비 현 정부의 신남방 지역에 대한 관심도에 대해 조사한 결과, 전체 응답자 44명 중 34명(95.5%)이 '이전 정부보다 관심이 높다(상위 두 항목)'고 응답하였고, '이전 정부와 동일한 수준'이라는 응답은 2명(4.5%)으로 나타났다. '이전 정부에 비해 관심도가 낮다(하위 두 항목)'는 응답은 없어 전체적으로 현 정부의 신남방 지역에 대한 관심도가 높다고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4-4〉 현 정부의 신남방 지역에 대한 관심도

(단일응답, n=44)

구분	매우 낮음	다소 낮음	이전 정부와 동일	다소 높음	매우 높음	전체
빈도(수)	0	0	2	19	23	44
백분율(%)	0.0	0.0	4.5	43.2	52.3	100.0

2) 2017년에 시작된 문재인 정부 신남방 정책의 가장 대표적 성과

신남방 정책의 가장 두드러진 성과를 2개 중복응답으로 조사한 결과, '신남방 지역과의 경제교류 양 증가'가 전체 응답 수의 33.0%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으며, 이어서 '우호적 관계 개선'(26.1%), '우리나라 국가 브랜드 향상'(15.9%) 순으로 드러났다. 한편 '문화교류의 확장 및 증대'는 응답 수의 10.2%로 가장 낮은 비중을 차지했다.

〈표 4-5〉 신남방 정책의 성과

(중복응답, 2개 선택, n=44)

구분	신남방과 경제 교류 증가	신남방과 우호 관계 개선	한국 국가 브랜드 향상	인적교류 활발	문화교류 확장 및 증대	전체
빈도(수)	29	23	14	13	9	88
백분율(%)	33.0	26.1	15.9	14.8	10.2	100.0

3) 문재인 정부의 신남방 정책의 한계로 지적될 수 있는 것

반면 현 정부 신남방 정책의 한계를 2개 중복응답으로 조사한 결과 '한국 중심의 일방적 교류'를 지적하는 의견이 응답의 29.5%로 가장 많았으며 '경제적 측면에 치우침'(26.1%), '실질적 교류성과 미비'(17.0%)가 뒤이어 나타났다.

〈표 4-6〉 신남방 정책의 한계

(중복응답, 2개 선택, n=44)

구분	한국 중심 일방적 교류	경제적 측면 국한	실질적 교류 성과 미비	지나친 정부 주도 진행방식	지속성 부족	전체
빈도(수)	26	23	15	13	11	88
백분율(%)	29.5	26.12	17.0	14.8	12.5	100.0

이를 이전 항목(신남방 정책의 성과)의 결과와 비교해 보았을 때 신남방 정책은 경제교류 측면과 우호관계 개선 측면에서 좋은 성과를 내고 있는 반면, 경제적 측면에 국한되어 있고 교류방식이 일방향적인 한계를 지니고 있음을 알 수 있다.

4) 문재인 정부의 전반적인 신남방 정책 방향에서 가장 역점을 두고 있는 분야와 향후 보다 더 역점을 두어야 할 분야

현재 신남방 정책 방향에서 가장 역점을 두고 있는 부분에 대해 2개 중복응답으로 조사한 결과, '경제 교류협력'이 43.2%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였으며, '사회문화 교류협력'(20.5%), '정치협력'(13.6%)이 뒤를 이었다. 이는 중복 응답(2개)의 비중인 바, 응답자 대부분이 '경제교류 협력'에 큰 역점을 두고 있다고 평가하고 있는 것을 나타낸다. 한편 앞으로 역점을 두어야 할 분야에 대해서는 '사회문화교류 협

력’이라는 의견이 전체 응답의 37.5%로 가장 높았고, ‘인적교류’(29.5%), ‘정치협력’(13.6%) 순으로 집계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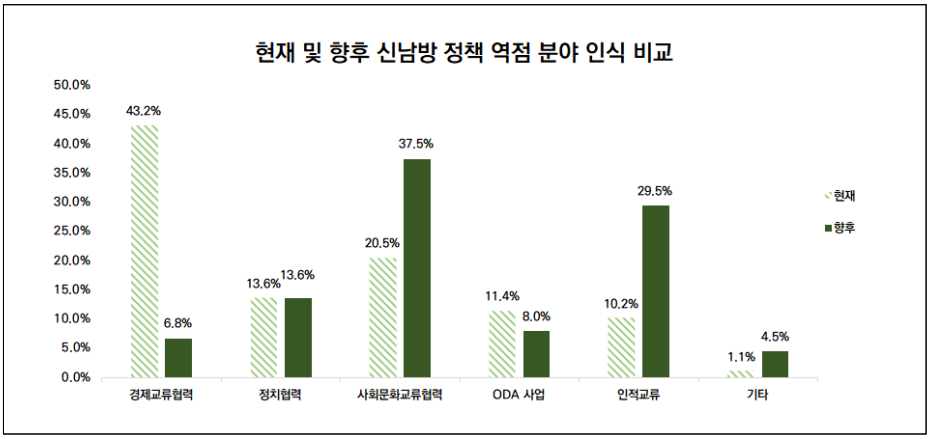
〈표 4-7〉 현재 및 향후 신남방 정책 역점 분야 인식 비교

(중복응답, 분야 별 2개 선택, n=44)

구분		경제 교류협력	정치 협력	사회문화 교류협력	ODA 사업	인적 교류	기타	전체
현재 역점 분야	빈도(수)	38	12	18	10	9	1	88
	백분율(%)	43.2	13.6	20.5	11.4	10.2	1.1	100.0
향후 역점 분야	빈도(수)	6	12	33	7	26	4	88
	백분율(%)	6.8	13.6	37.5	8.0	29.5	4.5	100.0

[그림 4-1] 현재 및 향후 신남방 정책 역점 분야 인식 비교

(단위: %, 중복응답-분야 별 2개 선택, n=44)



2. 신남방 지역 문화교류 정책 성과

1) 타 국가대비 신남방 지역과의 문화교류 의지

신남방지역 문화교류 정책 성과와 관련하여 타 국가에 비해 문화교류의 ‘상당히 의지가 있다’고 응답한 비율이 13.6%, ‘약간 의지가 있다’는 응답이 45.5%로 조사

되었다. '상당히 저조하다'는 6.3%, '약간 저조하다'는 13.6%로 나타나 정부의 신남방 지역 문화교류 의지에 대해서는 긍정적 평가를 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표 4-8〉 타 국가(지역) 대비 신남방 문화교류 비중 및 의지

구분	상당히 저조	조금 저조	보통	약간의 의지	상당한 의지	전체
빈도(명)	3	6	9	20	6	44
백분율(%)	6.8	13.6	20.5	45.5	13.6	100

2) 타 국가대비 신남방 지역과의 문화교류 성과

정부의 타 국가 대비 신남방지역과의 문화교류 성과에 대하 질문에 응답자의 47.8%가 타 국가에 비해 상대적으로 성과를 거두었다 인식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전체 응답자 중 45.5%는 신남방 지역과의 문화교류가 타 국가(지역)과 비교 시 '약간의 성과가 있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보통이다'(25.0%), '조금 저조하다'(22.7%), '상당히 저조하다'(4.5%), '상당한 의지가 있다'(2.3%) 순으로 조사되었다.

〈표 4-9〉 타 국가(지역) 대비 신남방 문화교류 성과 인식

구분	상당히 저조	조금 저조	보통	약간의 성과	상당한 성과	전체
빈도(명)	2	10	11	20	1	44
백분율(%)	4.5	22.7	25.0	45.5	2.3	100.0

3) 신남방 지역 국민의 우리나라 문화교류 의지 및 효과에 대한 평가

신남방지역 국가 국민은 한국과의 문화교류 의지나 효과에 대해 어떠한 평가를 내릴 것이라고 예측하는지에 대한 질문에 응답자들의 43%가 '보통의 평가'를 내릴 것으로 예측하였다. '상당히 긍정적으로 평가' 15.7%, '긍정적으로 평가' 31.8%로 조사대상인 전문가들의 과반이상이 긍정적으로 평가할 것이라고 예측하였다.

〈표 4-10〉 신남방 지역 국민의 한국 문화교류 의지 및 효과 평가 예상

구분	상당히 부정적 평가	어느정도 부정적 평가	보통의 평가	긍정적 평가	상당히 긍정적 평가	잘 모르겠음	전체
빈도(명)	0	3	19	14	7	1	44
백분율(%)	0.0	6.8	43.2	31.8	15.9	2.3	100.0

4) 신남방 지역과의 문화교류 정책 성과 부문

지금까지 진행된 정부의 신남방지역 문화교류 정책에서 가장 큰 성과를 낸 부문에 대한 질문에 응답자들은‘한류·대중문화 향유 및 수출’(18.8%) 분야를 꼽았다. 다음으로 ‘문화산업 분야 교류 및 교역’(12.5%), ‘관광 활성화’(10.8%), ‘신남방지역 이해제고’(10.2%), ‘신남방지역 문화에 대한 우리나라 국민의 관심제고’(9.7%), ‘한국인에 대한 호의적 이미지 제고’(8.5%), ‘문화콘텐츠 활용 및 생산’ 순으로 조사되었다.

〈표 4-11〉 신남방 문화교류 정책 성과 부문

(중복응답, 4개 선택, n=44)

구분	빈도(수)	백분율(%)
합계	176	100.0%
한류·대중문화 향유 및 수출	33	18.8%
문화산업 분야 교류 및 교역	22	12.5%
관광 활성화	19	10.8%
신남방 지역에 대한 이해 제고	18	10.2%
신남방 지역문화에 대한 우리나라 국민들의 관심 제고	17	9.7%
한국인에 대한 호의적 이미지 제고	15	8.5%
문화콘텐츠 활용 및 생산	14	8.0%
문화 관련 인력교류 활성화	12	6.8%
인력 양성	7	4.0%
쌍방 간 문화예술 교류 활성화	5	2.8%
문화 ODA 사업 활성화	5	2.8%
문화관광 분야 일자리 창출	3	1.7%
신남방 지역 출신 이주민에 대한 편견 감소	2	1.1%
문화 관련 인프라 구축 지원	2	1.1%
기타	2	1.1%

5) 신남방 문화교류 정책 비성과 부문

신남방 문화교류 정책 중 성과를 내지 못한 부문에 대해 전문가들은 '신남방 지역 출신 이주민에 대한 편견감소'부분이 15.3%로 판단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는 '인력양성'(14.8%), '신남방 지역에 대한 이해 제고'(13.6%), '신남방 지역문화에 대한 우리나라 국민의 관심 제고'(12.5%)의 순으로 조사되었다.

〈표 4-12〉 신남방 문화교류 정책 비성과 부문

(중복응답, 4개 선택, n=44)

구분	빈도(수)	백분율(%)
합계	176	100.0%
신남방 지역 출신 이주민에 대한 편견 감소	27	15.3%
인력 양성	26	14.8%
신남방 지역에 대한 이해 제고	24	13.6%
신남방 지역문화에 대한 우리나라 국민의 관심 제고	22	12.5%
쌍방 간 문화예술 교류 활성화	18	10.2%
문화 관련 인프라 구축 지원	14	8.0%
한국인에 대한 호의적 이미지 제고	10	5.7%
문화 관련 인력교류 활성화	10	5.7%
문화관광 분야 일자리 창출	10	5.7%
문화콘텐츠 활용 및 생산	7	4.0%
문화 ODA 사업 활성화	4	2.3%
문화산업 분야 교류 및 교역	2	1.1%
관광 활성화	1	0.6%
기타	1	0.6%
한류·대중문화 향유 및 수출	0	0.0%

신남방 문화교류 정책 성과부문과 비성과 부분을 비교하여 살펴보면 '한류·대중문화향유 및 수출' 부문을 가장 큰 성과라고 답변한 반면, 이 부문을 비성과라고 답변은 없어 전문가 간 이견은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신남방지역에 대한 이해제고 부문에 대해서는 성과라고 응답한 비율이 10.2%, 비성과라고 응답한 비율이 13.6%로 나타나 이 부문에 대해서는 전문가들의 의견차이가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표 4-13〉 신남방 문화교류 정책 성과 분야 및 비성과 분야 인식 비교

구분	비성과	성과
중복응답 기준응답수 n=44	응답수 176개 100%	
한류·대중문화 향유 및 수출	0.0%	18.8%
문화산업 분야 교류 및 교역	1.1%	12.5%
관광 활성화	0.6%	10.8%
신남방 지역에 대한 이해 제고	13.6%	10.2%
신남방 지역문화에 대한 우리나라 국민들의 관심 제고	12.5%	9.7%
한국인에 대한 신남방 국민들의 호의적 이미지 제고	5.7%	8.5%
문화콘텐츠 활용 및 생산	4.0%	8.0%
문화 관련 인력교류 활성화	5.7%	6.8%
인력 양성	14.8%	4.0%
쌍방 간 문화예술 교류 활성화	10.2%	2.8%
문화 ODA 사업 활성화	2.3%	2.8%
문화관광 분야 일자리 창출	5.7%	1.7%
신남방 지역 출신 이주민에 대한 편견 감소	15.3%	1.1%
문화 관련 인프라 구축 지원	8.0%	1.1%
기타	0.6%	1.1%

6) 신남방 문화교류정책 성과 부재 원인

신남방 문화교류 정책의 성과 부재 원인에 대해'체계적인 정책시스템 부재'를 20.5%로 가장 큰 원인으로 꼽았다. 이후 지적된 원인으로는 '일회성 및 지속성 부족'(19.7%), '신남방 지역 문화적 특성에 대한 이해 부족'(17.4%), '관련인력 부족'(16.7%) 순으로 조사되었다.

신남방 문화교류 정책이 실질적인 성과를 내기 위해서는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정책수립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표 4-14〉 신남방 문화교류 비성과 원인

(중복응답, 3개 선택, n=44)

구분	전체	백분율(%)
합계	132	100.0
체계적 정책시스템 부재	27	20.5
일회성 및 지속성 부족	26	19.7
신남방 문화 특성 이해 부족	23	17.4
관련 인력 부족	22	16.7
경제 산업 치중	14	10.6
국가 간 교류 추진 협력 조직 부족	7	5.3
문화교류 경험 부족	6	4.5
문화교류 가이드라인 부재	3	2.3
예산 부족	2	1.5
기타	2	1.5
해당 국가나 지역의 협조 부족	0	0.0

7) 향후 주력 신남방 문화교류 정책

향후 신남방 문화교류정책에서 가장 역점을 두어 추진해야 할 사업에 대해서 응답자들의 19.9%가 '신남방 지역에 대한 이해제고'를 꼽았다. 다음으로 '신남방 지역문화에 대한 한국민의 관심 제고'(13.6%), 그 뒤로 '인력 양성(11.4%)', '신남방 지역 출신 이주민에 대한 편견 감소(10.2%)' 순으로 조사되었다.

〈표 4-15〉 향후 주력 신남방 문화교류 정책

(중복응답, 4개 선택, n=44)

구분	사례 수	빈도
합계	176	100.0%
신남방 지역에 대한 이해 제고	35	19.9%
신남방 지역문화에 대한 우리나라 국민들의 관심 제고	24	13.6%
인력 양성	20	11.4%
신남방 지역 출신 이주민에 대한 편견 감소	18	10.2%
문화 관련 인프라 구축 지원	13	7.4%
한국인에 대한 신남방 국민의 호의적 이미지 제고	11	6.3%
문화산업 분야 교류 및 교역	10	5.7%
쌍방 간 문화예술 교류 활성화	10	5.7%
문화 관련 인력교류 활성화	10	5.7%

구분	사례 수	빈도
문화 ODA 사업 활성화	9	5.1%
문화콘텐츠 활용 및 생산	8	4.5%
문화관광 분야 일자리 창출	6	3.4%
관광 활성화	1	0.6%
기타	1	0.6%
한류·대중문화 향유 및 수출	0	0.0%

3. 신남방 지역 문화교류 정책 운영방향 및 개선사항

1) 우리나라와의 문화교류 정책사업의 성과가 가장 잘 드러나고 있는 국가

신남방 국가 11개국 가운데 '우리나라와의 문화교류 정책사업의 성과가 가장 잘 드러나고 있는 국가' 질문에 대해 응답자는 11개 국가 중 2개 국가 선택으로 중복 응답하였다. 조사 결과 1순위는 전체 응답의 47.7%의 비중을 차지한 '베트남'이었으며 2순위는'인도네시아'(23.9%), 3순위는'태국'(17.0%) 순으로 집계되었다.

〈표 4-16〉 신남방 문화교류 정책사업 성공 국가 인식

(중복응답, 2개 선택, n=44)

구분	인도	캄보디아	라오스	베트남	미안마	태국	브루나이	인도네시아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필리핀	전체
빈도(수)	1	1	1	42	0	15	0	21	2	3	2	88
백분율(%)	1.1	1.1	1.1	47.7	0.0	17.0	0.0	23.9	2.3	3.4	2.3	100.0

2) 신남방 문화교류 사업 추진 지역으로 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할 국가

신남방 국가 중 문화교류 사업을 우선적으로 추진해야 할 국가에 대한 질문(중복응답, 3개 선택)에 '인도네시아'가 전체응답의 28.0%로 가장 높게 나타나, 신남방 문화교류 우선 추진 고려 국가 1순위는 '인도네시아'로 조사되었다. 이어서 2순위는 '베트남'(18.9%), 3순위는 '태국'(15.2%)으로 집계되었다.

〈표 4-17〉 신남방 문화교류 정책사업 우선 추진 고려 국가 인식

(중복응답, 3개 선택, n=4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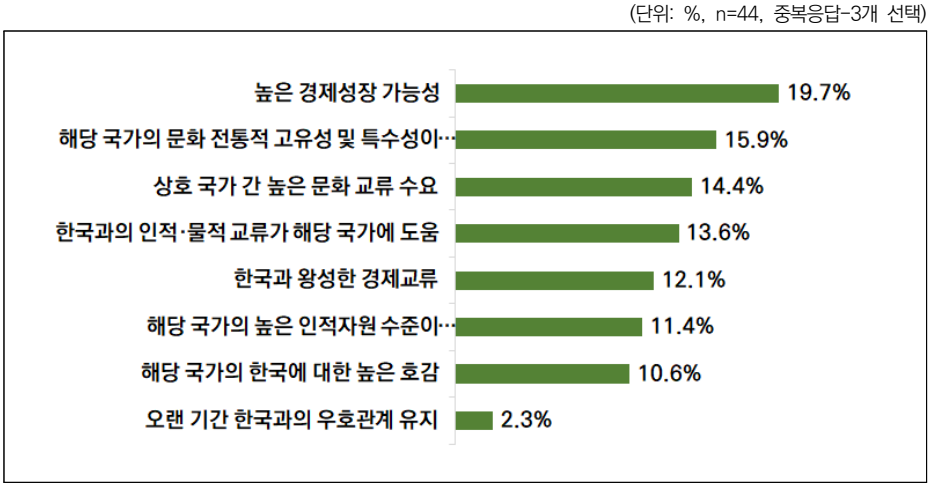
구분	인도	캄보디아	라오스	베트남	미얀마	태국	브루나이	인도네시아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필리핀	전체
빈도(수)	11	5	2	25	13	20	1	37	3	10	5	132
백분율(%)	8.3	3.8	1.5	18.9	9.8	15.2	0.8	28.0	2.3	7.6	3.8	100.0

3) 앞의 대상 국가를 문화교류의 우선 고려대상 국가로 선택한 이유

이전 조사 질문[175]의 응답에 이어 해당 세 국가를 우선 추진 대상국가로 선택한 이유에 대해 3개 중복응답으로 조사한 결과, '높은 경제성장 가능성'이 전체 응답의 19.7%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이어서'해당 국가의 문화 전통적 고유성 및 특수성이 문화 교류 효과 증대'(15.9%), '상호 국가 간 높은 문화 교류 수요'(14.4%) 순으로 의견이 제시되었다. 한편 하위 응답으로는 '오랜 기간 한국과의 우호관계 유지'(2.3%), '해당 국가의 한국에 대한 높은 호감'(10.6%)으로 나타났다. 즉 전문가들이 문화교류 우선 추진국가를 선택하는 기준은 현재 한국에 대한 호감도나 한국과의 우호관계 정도보다 '미래 경제성장 가능성'과 '해당 국가의 전통적 문화고유성 및 특수성을 통한 교류효과 증대'가 우선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4-2] 우선 고려대상 국가 응답

(단위: %, n=44, 중복응답-3개 선택)



175) 신남방 문화교류 사업 추진 지역으로 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할 국가(중복응답, 세 국가 선택)

4) 신남방 지역과의 문화교류정책 추진전략으로 가장 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할 부분

신남방 지역과의 문화교류 정책 추진전략으로 우선 고려되어야 할 부분에 대해 2개 중복응답으로 조사한 결과 '인적자원 교류'가 전체 응답의 33.0%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으며, 동반자 관계 및 파트너십 강화'(23.9%), '제도 및 인프라 구축 협력'(20.5%), '문화콘텐츠 및 지원교류'(13.6) 순으로 나타났다.

〈표 4-18〉 우선 고려대상 신남방 문화교류 추진전략

(중복응답, 2개 선택, n=44)

구분	동반자 관계 및 파트너십 강화	문화콘텐츠 및 자원 교류	인적자원 교류	프로그램 공유 및 교류	제도 및 인프라 구축 협력	해당 국가나 지역의 협조 부족 해결	ODA 사업 활성화	전체
빈도(수)	21	12	29	2	18	2	4	88
백분율(%)	23.9	13.6	33.0	2.3	20.5	2.3	4.5	100.0

4. 6가지 추진전략별 우선 추진 세부과제[176]

1) '동반자 관계 및 파트너십 강화' 전략 세부사업

신남방지역의 문화교류 정책 추진전략 6가지 중 '동반자 관계 및 파트너십 강화' 전략 추진시 가장 우선적으로 추진해야 하는 세부사업으로 응답자의 35.2%가 '신남방 문화연구 네트워크 구축사업'을 꼽았다. 다음으로 '국내 문화다양성 보호 증진 사업을 통한 신남방 인식 제고'(25.0%), '문화예술분야 민-관 기관 간 교류 네트워크 구축'(19.3%) 순으로 조사되었다.

176) 본 설문문항에서 제시된 대답 선택 항목은 연구진들이 먼저 선택할 수 있는 세부 사업 아이템을 제시하고, 그 사업들 중에 우선적으로 추진해야 하는 선택하도록 하였음. 즉 세부 과제는 전문가들이 제안한 것이 아니라 연구진들이 먼저 제시한 사업이라는 것임. 따라서 설문 항목에서 제시된 세부 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제5장 2절에 제시되어 있음.

〈표 4-19〉 '동반자 관계 및 파트너십 강화' 전략 추진 세부사업

(중복응답, 2개 선택, n=44명)

구분	빈도(수)	백분율(%)
합계	88	100.0
신남방 문화연구 네트워크 구축사업	31	35.2
국내 문화다양성 보호 증진 사업을 통한 신남방 인식 제고	22	25.0
문화예술분야 민-관, 기관 간 교류네트워크 구축	17	19.3
신남방 국가 간 문화 콘텐츠 제작 협력 사업	11	12.5
개별 국 문화교류 MOU 체결	6	6.8
국가 간 문화주간 행사 지원	1	1.1

신남방 문화교류 시 우선 추진 고려 국가로 지목되었던 상위 3개국에서 우선 추진되어야 하는 세부사업에 대해 베트남, 인도네시아, 태국 3개국 모두 '동반자 관계 및 파트너십 강화' 전략추진 세부과제의 응답과 비슷하게 '신남방 문화연구 네트워크 구축사업' 다음으로 '국내 문화다양성 보호 증진 사업을 통한 신남방 인식 제고'를 꼽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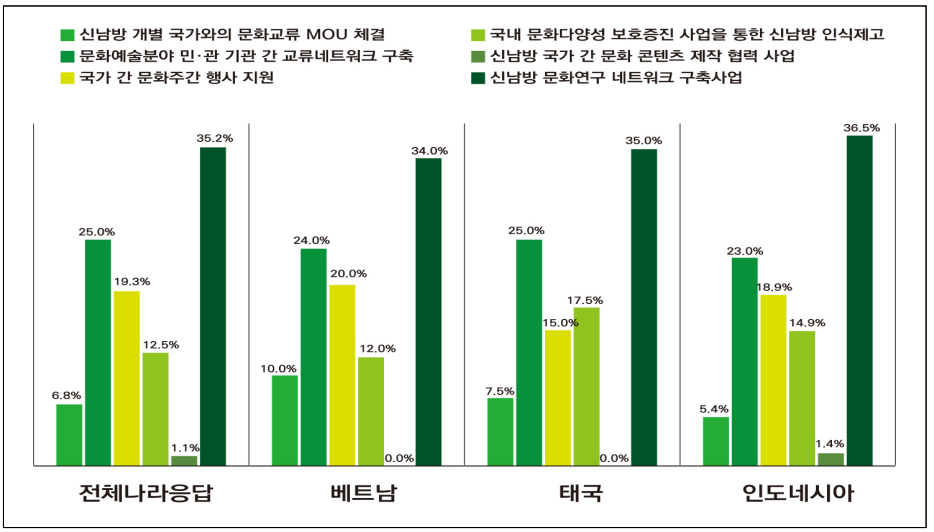
다만 태국의 경우 세 번째 추진사업에 대해 '문화예술분야 민, 관 기관 간 교류네트워크 구축' 사업이 아닌 '신남방 국가 간 문화사업 콘텐츠 제작 협력사업'을 추진해야 한다고 조사되었다.

〈표 4-20〉 우선추진 3개국 '동반자 관계 및 파트너십 강화' 전략 추진 세부사업

(중복응답, 2개 선택, n=44명)

구분	전체응답의견		베트남		태국		인도네시아	
	빈도(수)	백분율(%)	빈도(수)	백분율(%)	빈도(수)	백분율(%)	빈도(수)	백분율(%)
합계	88	100.0	50	100.0	40	100.0	74	100.0
신남방 개별 국가와의 문화교류 MOU 체결	6	6.8	5	10.0	3	7.5	4	5.4
국내 문화다양성 보호 증진 사업을 통한 신남방 인식 제고	22	**25.0**	12	**24.0**	10	**25.0**	17	**23.0**
문화예술분야 민-관 기관 간 교류네트워크 구축	17	**19.3**	10	**20.0**	6	15.0	14	**18.9**
신남방 국가 간 문화 콘텐츠 제작 협력 사업	11	12.5	6	12.0	7	**17.5**	11	14.9
국가 간 문화주간 행사 지원	1	1.1	0	0.0	0	0.0	1	1.4
신남방 문화연구 네트워크 구축사업	31	**35.2**	17	**34.0**	14	**35.0**	27	**36.5**

[그림 4-3] 우선추진 3개국 '동반자 관계 및 파트너십 강화' 전략 추진 세부사업



2) '문화콘텐츠 및 자원교류' 전략 추진 세부사업

'문화콘텐츠 및 자원교류' 전략을 위해 가장 우선 추진되어야 할 세부과제는 '신남방 지역 언어 교육 지원사업'(30.7%)인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신남방 지역 유·무형 문화유산 보존 지원 사업'(22.7%), '관광콘텐츠 개발 및 활성화를 위한 문화 자원 발 사업'(15.9%) 순으로 조사되었다. 또한 한국어 및 신남방 지역어 교육사업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전체 40.9%를 차지하고 있어 언어지원에 대한 고려가 있어야 할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표 4-21〉 '문화콘텐츠 및 자원교류' 전략 추진 세부과제

(중복응답, 2개 선택, n=44명)

구분	합계	한국어교육 활성화 사업	신남방 지역어 교육 지원 사업	콘텐츠 유통 플랫폼 개발 사업	방송영상 콘텐츠 국제 공동제작	신남방 유·무형 문화유산 보존 지원 사업	관광콘텐츠 개발 및 활성화를 위한 문화자원 발굴사업
빈도(수)	88	9	27	9	9	20	14
백분율(%)	100	10.2	30.7	10.2	10.2	22.7	15.9

문화콘텐츠 및 자원교류 전략에 대한 우선 추진 고려 국가 상위 3개국의 응답에서는 태국은 '신남방 지역 언어교육 지원 사업'(35.0%)에 대한 우선순위가 높게 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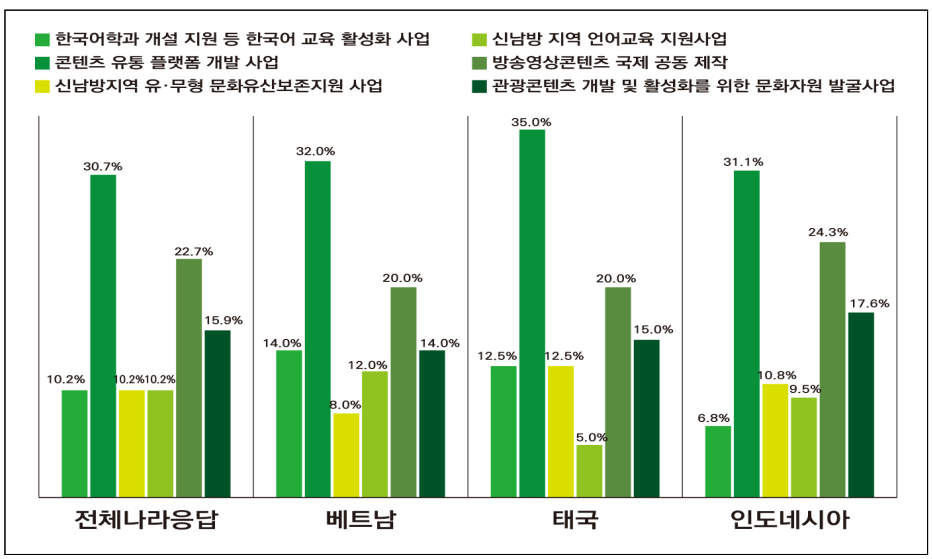
타났으며, 인도네시아의 경우 '문화유산 보존'(24.3%)과 '문화자원 발굴'(17.6%) 이타 국가에 비해 조금 높게 조사되었다.

〈표 4-22〉 우선추진 3개국 '문화콘텐츠 및 자원교류' 전략 추진 세부과제

(중복응답, 2개 선택, n=44명)

구분		합계	한국어학과 개설 지원 등 한국어 교육 활성화 사업	신남방 지역 언어교육 지원 사업	콘텐츠 유통 플랫폼 개발 사업	방송영상 콘텐츠 국제 공동 제작	신남방 지역 유·무형 문화유산 보존 지원 사업	관광콘텐츠 개발 및 활성화를 위한 문화자원 발굴 사업
전체 응답	빈도(수)	88	9	27	9	9	20	14
	백분율(%)	100	10.2	**30.7**	10.2	10.2	**22.7**	**15.9**
베트남	빈도(수)	50	7	16	4	6	10	7
	백분율(%)	100	14.0	**32.0**	8.0	12.0	**20.0**	**14.0**
태국	빈도(수)	40	5	14	5	2	8	6
	백분율(%)	100	12.5	**35.0**	12.5	5.0	**20.0**	**15.0**
인도네시아	빈도(수)	74	5	23	8	7	18	13
	백분율(%)	100	6.8	**31.1**	10.8	9.5	**24.3**	**17.6**

[그림 4-4] 우선추진 3개국 '문화콘텐츠 및 자원교류' 전략 세부과제



3) '인적자원 교류' 전략 추진 세부과제

'인적자원 교류' 전략을 위해 가장 우선 추진되어야 할 세부과제는 '분야별 전문가 교류사업'(33.0%)과 '청년·청소년 문화교류 네트워크 구축'(33.0%)이 꼽혔다. 다음으로 '정보통신기술(ICT)기반 문화유산 보존·활용 역량 공유사업'(15.9%), '청년예술가 창작 교류 지원 사업(13.6%)' 순으로 추진이 필요하다고 조사되었다.

〈표 4-23〉 '인적교류' 전략 추진 세부과제

(중복응답, 2개 선택, n=44명)

구분	합계	분야별 전문가 교류사업	청년예술가 창작교류 지원 사업	청년·청소년 문화교류 네트워크 구축	전통음악 커뮤니티 구축 및 활성화	스포츠 교류활동 지원 사업	정보통신기술(ICT)기반 문화유산 보존·활용 역량 공유 사업
빈도(수)	88	29	12	29	2	2	14
백분율(%)	100	33.0	13.6	33.0	2.3	2.3	15.9

4) '프로그램 공유 및 교류' 전략에서 가장 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할 것

'프로그램 공유 및 교류' 전략의 6가지 세부과제에 대해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하는 것을 2개 중복응답으로 조사한 결과, '한-아세안 국립 문화기관 콘텐츠 및 프로그램 교류 협력 활성화 사업'이 전체응답의 34.1%로 가장 높게 조사되었다. 이어서 2순위로 '한-아세안 국립 박물관 전시프로그램 교류사업 확대'(21.6%), 3순위로'아시아 국가문화유산 포털 구축'(19.3%)을 우선 추진해야 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결과의 상위 항목이 한-아세안 국립 문화기관 콘텐츠 및 프로그램 교류협력 활성화 사업'과 '한-아세안 국립 박물관 전시프로그램 교류사업 확대'임을 보아 국립 문화기관 및 박물관 간 협력을 통한 프로그램 공유 및 교류가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하는 세부과제인 것으로 나타났다.

〈표 4-24〉 프로그램 공유 및 교류전략 추진 세부과제 우선순위 인식

(중복응답, 2개 선택, n=44)

구분	한-아세안 국립 문화기관 콘텐츠 및 프로그램 교류 협력 활성화 사업	한-아세안 국립 박물관 전시프로그램 교류사업 확대	아시아 국가문화유산 포털 구축	예술계 장학 프로그램 교류 사업	신남방 지역 관광 활성화 국제포럼 개최	아시아전통오케스트라 공연 프로그램 교류 사업	전체
빈도(수)	30	19	17	15	4	3	88
백분율(%)	34.1	21.6	19.3	17.0	4.5	3.4	100.0

5) '제도 및 인프라 구축 협력' 전략에서 가장 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할 것

'제도 및 인프라 구축 협력' 전략의 4가지 세부과제에 대해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하는 것을 2개 중복응답으로 조사한 결과,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한 신남방 지역 문화 기술 지원 협력'이 응답의 36.4% 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이어서 '교류 협력국 문화 교육 정보화 인프라 구축사업'(33.0%), '신남방 지역 문화의 이해증진을 위한 스마트시티 플랫폼 구축'(15.9%), '신남방 지역 공공(작은) 도서관 문화 조성사업'(14.8%) 순으로 집계되었다. 이는 제도 및 인프라 구축협력에 있어서 물리적 한계를 넘는 정보인프라 구축 및 제도마련과 관련한 세부과제가 높은 순위로 나타난다.

〈표 4-25〉 제도 및 인프라 구축 협력전략 추진 세부과제 우선순위 인식

(중복응답, 2개 선택, n=44)

구분	정보통신기술 (ICT) 활용 신남방 지역문화 기술 지원 협력	교류 협력국 문화 교육 정보 인프라 구축 사업	신남방 지역문화 이해증진을 위한 스마트시티 플랫폼 구축	신남방 지역 공공 (작은)도서관 문화 조성사업	전체
빈도(수)	32	29	14	13	88
백분율(%)	36.4	33.0	15.9	14.9	100.0

6) 'ODA 사업 활성화' 전략에서 가장 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할 것

'ODA 사업 활성화' 전략을 위한 5가지 세부과제를 제시하고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하는 것을 2개 중복응답으로 조사한 결과, 전체 응답의 43.2%가 '문화유산 보호·활용 및 인재 양성 ODA 추진'으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이는 중복 응답(2개) 전체 수의 비중인 바 응답자의 대부분(86.4%)이 '문화유산 보호·활용 및 인재 양성 ODA 추진'을 가장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하는 추진과제라고 선택했음을 나타낸다. 뒤를 이어 '문화유산 디지털 DB구축 사업'이 전체 응답의 22.7%, '지역관광 자원 개발 및 활용 ODA 사업'은 전체 응답의 18.2%로 집계되었다.

〈표 4-26〉 ODA 사업 활성화전략 추진 세부과제 우선순위 인식

구분	문화유산 보호·활용 및 인재 양성 ODA 추진	문화유산 디지털 DB 구축 사업	지역관광자원 개발 및 활용 ODA 사업	취약계층의 문화교육 ODA 사업	농촌 정보화 ODA 사업	전체
빈도(수)	38	20	16	12	2	88
백분율(%)	43.2	22.7	18.2	13.6	2.3	100.0

5. 향후 정책 방향

1) 신남방 지역 문화교류 활성화 정책을 추진을 위한 보완사항

신남방 지역 문화교류 활성화 정책을 추진할 시 가장 시급히 갖추어야 할 사항으로 응답자들은 '현지에 대한 국가별·지역별 이해'를 36.4%로 꼽았다. 다음으로 '인력양성시스템 구축'(21.6%), '구체적이고 입체적인 사업계획 수립'(14.8%) 순으로 조사되었다. 신남방지역 문화교류의 시작점이 국가와 지역의 이해를 기반한 인력양성이라는 것은 교류를 진행함에 있어 기반을 형성하는 것이기에 근본적인 것을 충실히 할 필요가 있음을 상기시키는 것이다.

〈표 4-27〉 신남방지역 문화교류활성화 정책 추진 시 보완사항

(중복응답, 2개 선택, n=44명)

구분	빈도(수)	백분율(%)
합계	88	100.0
현지에 대한 국가별, 지역별 이해	32	36.4
인력양성시스템 구축	19	21.6
구체적이고 입체적인 사업계획 수립	13	14.8
전문가 네트워킹	12	13.6
협력시스템구축	6	6.8
다층적 거버넌스구축	4	4.5
성과평가 체계구축	1	1.1
기타	1	1.1

2) 신남방 지역 문화교류 사업 추진 시 고려사항

신남방 지역문화교류 사업 향후 사업 추진 시 가장 고려해야 할 사항은 '상대국의 교류 기초 데이터 확보'라는 의견이 18.9%로 가장 높게 조사되었다. 다음으로 '신남방 지역 문화교류 전문인력 수준'(17.4%), '우리나라 문화와 교류하고자 하는 의지 정도'(15.2%) 순으로 조사되었다.

전문가들은 신남방 지역 문화교류 사업을 추진할 시 교류의 기초데이터를 확보하고 이를 수행할 인력의 전문성을 확보하는 것을 중요시하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표 4-28〉 향후 문화교류 사업 추진 시 고려사항

(중복응답, 3개 선택, n=44명)

구분	빈도(수)	백분율(%)
합계	132	100.0
상대국의 교류 기초 데이터 확보	25	18.9
신남방 지역 문화교류 전문 인력 수준	23	17.4
우리나라와 문화 교류하고자 하는 의지 정도	20	15.2
국가 간 우호관계 수준	13	9.8
우리나라에 대한 신남방 지역 국민들의 편견 정도	12	9.1
신남방 지역의 경제 발전 수준 정도	9	6.8
사업을 수행하는 단체의 협력 기관과의 교류 정도	9	6.8
상호 간 외교 걸림돌 파악 우선	8	6.1
한국에 대한 호감정도	7	5.3
사증(비자) 면제협정 등 외교적 체결 정도	5	3.8
기타	1	0.8

3) 기타 의견

경제활동을 추진하기 위하여 문화적인 이해가 필수적이나 아직까지 이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부분이 있어 현지에 진출하고자 하는 기업가나 사업가 등에 현지 문화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는 프로그램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되었다.

또한, 쌍방향 문화교류를 위해 가장 시급한 문제는 신남방국가에 대해 경제적 관점으로 인식하고 평가하는 시각에서 문화적 다양성에 대한 인식과 존중하는 시각으로 변화시켜야 한다는 것을 제시하기도 하였다. 이를 위해 신남방 지역 전문가 양성을 위한 제도권(대학) 학과 신설과 같은 실질적 접근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었다.

〈표 4-29〉 전문가 설문조사 결과 요약 정리표

분야	주요질문	조사결과 요약
정책 전반에 대한 견해	기존 대비 현 정부의 신남방 지역 관심 정도	관심도 매우 높음
	현 정부의 신남방 정책 평가 (역점 사업, 성과, 한계)	신남방 지역과의 경제교류 증가 및 우호 관계 개선 한국 중심 일방적 교류, 경제적 측면에 국한되는 한계
	향후 정책적 주력 사업 분야	사회문화교류협력, 인적교류협력부분
신남방 지역 문화교류 정책 성과	타 국가 대비 신남방 지역과의 문화교류의지	교류의지가 높은편
	타 국가 대비 신남방 지역과의 문화교류 성과	약간의 성과 이상은 거둔 것으로 판단
	신남방지역 국민들의 한국과의 문화교류 의지와 효과에 대한 평가	전문가들은 보통의 이상 평가할 것으로 기대
	신남방 지역과의 문화교류 정책 성과 부분	한류 및 대중문화 향유 수출과 문화산업 분야 교류 및 교역
	신남방문화교류 정책 비성과	신남방지역 출신 이주민 편견 감소와 인력양성 부문 체계적인 정책시스템 부족, 지속성 부족, 해당국가에 대한 이해 부족, 관련 인력부족 등 전반
	향후 주력 문화교류정책	신남방지역 이해 제고
신남방 지역 문화교류 정책 개선사항	문화교류 정책사업 성과 국가	베트남, 인도네시아 태국 순
	향후 문화교류 우선 추진 고려 국가 및 이유	인도네시아, 베트남, 태국 높은 경제성장 가능성, 해당국가의 문화전통적 고유성 및 특수성이 문화교류 효과증대, 상호국가 간 높은 문화교류 수요
	우선 고려할 문화교류정책 추진전략	인적자원 교류, 파트너십 강화, 제도 및 인프라구축 협력, 문화콘텐츠 및 지원교류
	세부 추진전략	인적자원 교류, 동반자관계 파트너십 강화, 제도 및 인프라 구축협력, 문화콘텐츠 및 자원교류, ODA 사업활성화, 프로그램 및 공유 및 교류, 해당 국가나 지역의 협조 부족 해결 순
신남방 지역 문화교류 정책 추진 전략	① 동반자 관계 및 파트너십 강화	문화연구 네트워크 구축사업, 인식제고, 민관 기관 간 교류네트워크 구축, 국가 간 문화콘텐츠 제작협력사업, 문화교류MOU 체결, 국가 간 문화행사지원 순
	② 문화콘텐츠 및 자원교류	신남방지역어 교육지원 사업, 신남방지역 유무형유산 보존지원 사업
	③ 인적자원 교류	분야별 전문가 교류사업, 청년, 청소년 문화교류 네트워크 구축
	④ 프로그램 공유 및 교류	한-아세안국립문화기관 콘텐츠 및 프로그램 교류 협력 활성화
	⑤ 제도 및 인프라 구축 협력	정보통신기술활용 신남방지역 문화기술 지원협력, 교류 협력국 문화교육 인프라구축사업
	⑥ ODA 사업 활성화	문화유산 보호 활용 및 인재 양성 ODA 사업 추진
향후 정책 방향	정책추진 보완사항	현지에 대한 국가별, 지역별 이해, 인력양성시스템 구축 구체적이고, 입체적인 사업계획 수립
	정책 추진시 고려사항	상대국 교류 기초데이터 확보, 신남방지역 문화교류 전문인력 수준, 한국과의 문화교류 의지 정도

제3절 수요조사 결과 분석 및 시사점 도출

1. 동남아 지역 및 인도 지역 관련 정부정책에 대한 견해

전문가들은 현 정부가 신남방 지역에 대한 관심이 높으며 정책적인 노력을 시도하고 있다고 인식했다. 본 조사결과 신남방 지역 국가별 전문가 44명 중 42명(95.5%)의 응답자가 이전 정부 대비 현 정부의 신남방 지역에 대한 관심도가 높다고 평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7년에 시작된 문재인 정부 신남방 정책은 경제교류 측면과 우호관계 개선 측면에서 좋은 성과를 내고 있는 반면, 국가 간 교류 방식이 일방향적이고 경제적 측면에 국한되어 있는 한계를 지니고 있다고 평가된다. 먼저 신남방 정책의 가장 큰 성과로 '신남방 지역과의 경제교류 양 증가'(33.0%), '우호적 관계 개선'(26.1%)이 꼽혔다. 한편, 현 정부의 한계로는 '한국 중심의 일방적 교류'(29.5%)와 '경제적 측면에 치우침'(26.1%)을 응답해 교류의 불균형적인 방향 및 교류내용의 편중된 분야를 지적하였다.

이는 기존 신남방 정책의 역점 분야 및 향후 역점을 두어야 하는 분야에 대한 결과에서도 비슷한 맥락을 보인다. 문재인 정부의 신남방 정책 방향에서 가장 역점을 두고 있는 분야 조사 결과 '경제 교류협력'(43.2%), '사회문화 교류협력'(20.5%), '정치협력'(13.6%) 순으로 경제 부문이 압도적으로 크게 나타났다. 향후 보다 역점을 두어야 하는 분야는 '사회문화교류협력'(37.5%)와 '인적교류'(29.5%)가 높게 나타났다. 즉 전반적으로 현재 시행되는 정책의 방향성이 '경제교류협력'에 역점을 두었다고 판단하며 향후 '사회문화교류협력', '인적교류' 순으로 더욱 정책적 노력이 필요하다 인식하고 있어 그간 신남방 정책이 다각도에서 진행되지 못했음을 보여준다.

결과적으로 현 정부는 신남방 정책의 전반적인 방향에 있어 '경제교류 협력'에 역점을 두고 추진하였으며 이는 괄목할만 한 성과를 내었다고 평가된다. 하지만 향후

경제적 측면을 넘어 사회문화적, 인적교류 등 교류 분야를 확장하고 다각화된 접근 및 교류 방식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는 것을 시사해 준다.

2. 신남방 지역 교류정책의 성과

신남방 문화교류 정책에 대한 높은 관심과 의지만큼 체계성·지속성·전문성 확보 필요하다는 것이 관련 전문가들의 일반적인 의견으로 조사되었다. 우리나라는 타 국가(혹은 지역)에 비교하여 신남방 지역과의 문화교류 의지를 지니고 있으며(긍정 응답 59.1%), 응답자들의 47.8%가 소기의 성과를 보이고 있다고 평가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해당 정책의 가장 큰 성과는 '한류·대중문화 향유 및 수출'(응답자의 18.8%)로 인식하고 있는 반면 성과가 가장 미미한 부분은 '신남방 지역 출신 이주민에 대한 편견 감소'(응답자의 15.3%)로 조사되었다.

신남방 문화교류 정책의 성과부문과 비성과 부분을 비교하여 살펴보면 '한류, 대중문화 향유 및 수출'부문을 가장 큰 성과라고 답변한 반면, 이 부문을 비성과라고 한 답변은 없어 전문가 간 이견은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신남방 지역에 대한 이해제고' 부문에 대해서는 성과라고 응답한 비율이 10.2%, 비성과라고 응답한 비율이 13.6%로 나타나 이 부문에 대해서는 전문가들의 의견 차이가 존재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성과 부재의 원인으로 '체계적 정책시스템의 부재'(20.5%)와 '문화교류의 지속성 부족'(19.7%), '관련 인력 부족'(16.7%)을 꼽고 있어 실질적인 문화교류 성과를 위해서는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정책시스템 및 신남방 지역 특성에 대한 이해와 관련 전문인력 양성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향후 신남방 문화교류정책에서 가장 역점을 두어 추진해야 할 사업에 대해서 응답자의 19.9%가 '신남방 지역에 대한 이해제고'를 꼽고 있어 전문가들은 경제적 효과와 상호문화의 이해를 문화교류의 중요한 가치로 보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특히 문화교류는 쌍방 간 교류가 이루어져야 하고, 그것이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상호이해의 폭 확대라는 기본전제가 선행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국내의 신남방국가에 대한 인식은 개선이 필요한 지점이 많다고 관련 전문가들은 지

적하고 있다. 상호 간 지속가능한 교류를 위해 신남방지역에 대한 국민 의식을 제고시킬 수 있는 다양한 정책사업을 수행하여 관련 전문가를 양성하고 네트워크의 기반을 형성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할 것이다.

3. 신남방 지역 문화교류 정책 운영방향 및 개선사항

신남방 국가 11개국 가운데 '우리나라와의 문화교류 정책사업의 성과가 잘 드러나는 국가'와 '문화교류 사업 추진 지역으로 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할 국가'에 대한 두 분야 모두 상위 3개국이 인도네시아, 베트남, 태국으로 동일하게 나타났다. 이는 기존의 문화교류에 대한 결과 및 성과 축적을 바탕으로 문화교류 정책이 추진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단기적인 전략으로 상위 순위 국가에 대해 우선적 문화교류 사업추진이 필요하다는 본 결과 순위를 활용하되, 장기적으로 전반적인 신남방 지역 개별국가 간 문화교류의 시행과 성과 축적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세부 조사 결과로는 문화교류 정책사업의 성과가 잘 드러나는 국가의 경우 1순위 '베트남'(42명 선택, 47.7%), 2순위 '인도네시아'(23.9%), 3순위는 '태국'(17.0%) 순으로 나타났고, 문화교류 사업추진 지역으로 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할 국가의 경우 1순위 '인도네시아'(37명 선택, 28.0%), 2순위 '베트남'(18.9%), 3순위 '태국'(15.2%) 순으로 집계되었다.

한편 전문가들은 경제적 효과와 상호문화의 이해를 문화교류의 중요한 가치로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응답한 전문가들이 문화교류의 우선 추진국가를 선택하는 기준은 '높은 경제성장 가능성'(19.7%), '교류국의 문화적 고유성 및 특수성을 통한 교류효과 증대'(15.9%), '상호간 문화교류 수요 충족'(14.4%)순으로 나타나 문화교류의 기대효과로 상호 간 경제적 시너지와 더불어 상대 문화에 대한 이해 증대를 중요한 가치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4. 6개 추진전략별 우선추진 세부과제

6개의 신남방 지역 문화교류 정책 추진전략에 대한 각각의 세부과제를 제시하고 전략별로 우선적으로 추진되어야 하는 세부추진과제에 대하여 전문가 조사를 진행하였다. 전반적인 결과는 신남방 국가의 문화에 대한 이해와 인식제고가 필요하다는 것이며, 전략별 우선 추진과제 응답결과는 해당 전략을 위한 방향에 대한 실마리를 제공한다. 전략별 분석 결과 및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① 동반자 관계 및 파트너십 강화

동반자 관계 및 파트너십 강화 전략과 관련하여 제시된 6개 세부과제 중 우선 추진되어야 할 세부과제로 '신남방 문화연구 네트워크 구축사업'(35.2%)과 '국내문화 다양성 보호증진 사업을 통한 신남방 인식 제고'(25%)를 꼽았다. 이러한 결과를 토대로 보았을 때 신남방 지역 국가와 문화교류를 통해 지속적인 동반자 관계를 구축하고 파트너십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해당국가에 대한 문화이해와 인식제고가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즉, 해당 지역에 문화적 이해와 인식 제고가 선행되었을 때 기관 간 교류, 문화콘텐츠 제작, 국가 간 문화주간 행사 등의 문화교류 효과가 크게 나타남을 시사한다.

② 문화콘텐츠 및 자원교류

'문화콘텐츠 및 자원교류' 전략으로 제시된 6개 세부과제 중 우선 추진되어야 할 세부과제로 '신남방 지역어 교육지원 사업'(30.7%)이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이와 언어지원과 관련한 '한국어교육 활성화 사업'(10.2%)을 합산하였을 때 한국어 및 신남방 지역어 교육사업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전체 40.9%를 차지하고 있어 언어지원에 대한 고려가 있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한편, '신남방 유·무형 문화유산 보존 지원사업'(22.7%)이 두 번째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였는데 이는 신남방 국가와의 문화교류에 있어서 '문화유산' 콘텐츠의 중요도가 높다는 점을 시사한다.

③ 인적자원 교류

6가지 세부과제에 대한 우선추진 순위 조사 결과 인적자원 교류 전략을 위해 가장 우선 추진되어야 할 세부과제는 '분야별 전문가 교류사업'(33.0%)과 '청년·청소년 문화교류 네트워크 구축'(33.0%)이 꼽혔다. 이는 문화교류 정책에 있어서 국가 간 전문가의 교류를 통해 분야별 문화에 대한 이해와 장기적인 인식 제고를 위한 청년·청소년의 교류가 우선시되어야 함을 보여준다.

④ 프로그램 공유 및 교류

'프로그램 공유 및 교류' 전략과 관련하여 제시된 6개 세부과제에 대해 '한-아세안 국립 문화기관 콘텐츠 및 프로그램 교류 협력 활성화 사업'(34.1%), '한-아세안 국립박물관 전시프로그램 교류 사업 확대'(21.6%), '아시아 국가문화유산 포털 구축'(19.3%) 등의 순으로 우선적 고려가 필요할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는 신남방 지역 간 문화교류 프로그램을 발굴 및 공유하고 프로그램을 통한 질적인 문화교류를 확대하기 위해서는 국립기관 간 소통과 협력이 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함을 시사한다.

⑤ 제도 및 인프라 구축 협력

4가지 세부과제에 대한 우선추진 순위 조사 결과, '정보통신 기술을 활용한 신남방 지역 문화 기술지원 협력'(36.4%), '교류 협력국 문화 교육 정보화 인프라 구축사업'(33.0%), '신남방 지역 문화의 이해증진을 위한 스마트시티 플랫폼 구축'(15.9%), '신남방 지역 공공(작은) 도서관 문화 조성사업'(14.8%) 순으로 나타났다. 이 결과는 '제도 및 인프라 구축 협력'에 있어서 물리적 한계를 넘는 정보인프라 구축 및 제도마련과 관련한 사업의 추진이 필요함을 의미한다. 또한 문화교류에 대한 제도 및 인프라 구축은 특정 문화기반 시설을 건립하고 기구를 설립하는 것 뿐 아니라 전반적인 문화교류 기반과 여건이 조성되어야 함을 보여준다.

⑥ ODA 사업 활성화

제시된 5가지 세부과제에 대해 '문화유산 보호·활용 및 인재 양성 ODA 추진'(43.2%), '문화유산 디지털 DB구축 사업'(22.7%), '지역관광자원 개발 및 활용 ODA 사업'(18.2%) 등의 순으로 집계되었다. 특히 결과의 상위 1순위, 2순위 항목

이 '문화유산'과 관련된 공적개발원조 사업인 것은 주목할 만하다. 이는 신남방 국가와의 ODA 사업에서 문화유산 분야는 해당 국가의 문화 고유성 및 특수성을 통한 문화교류 효과가 크게 나타날 것을 시사한다.

5. 향후 신남방 문화교류 정책 방향

향후 신남방 지역 문화교류 활성화를 위해 가장 우선 보완되어야 할 부분은 '현지에 대한 이해'가 1순위, '인력양성 시스템 구축'이 2순위로 언급되어, 상대문화에 대한 깊은 이해와 이를 뒷받침하는 전문성을 갖춘 인력이 양성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동남아 지역을 중심으로 주변의 인도와 중국 멀리 중동지역까지 폭넓은 시각을 가진 전문가의 역량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볼 수 있으며, 신남방 국가의 역사적 소양과 문화적 가치를 인식하고 있는 전문가의 필요성이 절실한 때라고 전문가들은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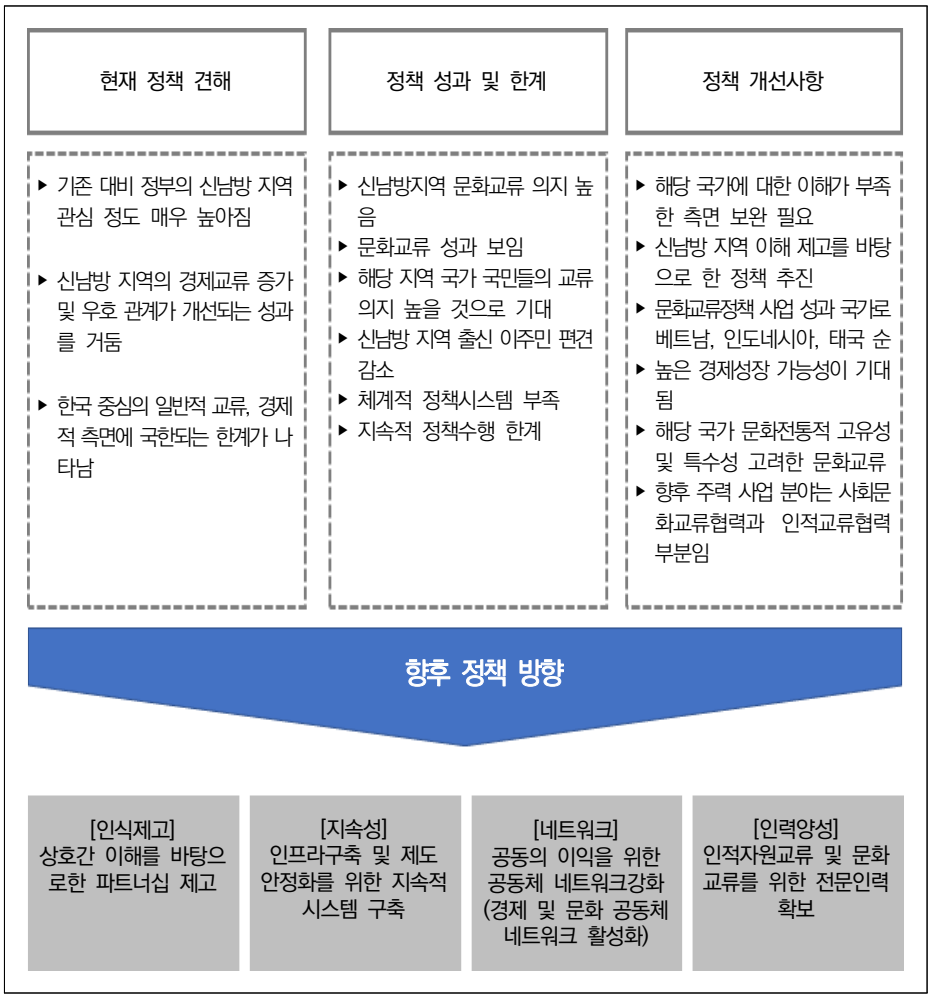
신남방 지역 문화교류 사업 향후 사업 추진 시 가장 고려해야 할 사항은 '상대국의 교류 기초 데이터 확보'라는 의견이 18.9%로 가장 높게 조사되었다. 전문가들은 신남방 지역 문화교류 사업을 추진 시 교류의 기초데이터를 확보하고 이를 수행할 인력의 전문성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단순한 자금 투입보다는 소프트파워를 통한 유연한 교류와 이를 위한 체계적인 준비를 통해 인적 교류를 확장하고 관련 인력을 수급하는 것이 앞으로의 개선사항으로 나타나고 있다.

또한 신남방국가가 한국과 문화교류를 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는지 여부를 파악하는 것도 향후 문화교류사업 추진 시 반드시 고려해야 하는 사항이다. 쌍방향 문화교류를 위해서는 동남아/인도에 대한 우리 국민의 인식이 개선되는 것이 필요하다. 국내의 신남방 국가에 대해 경제적 관점으로 인식하고 평가하는 시각에서 문화적 다양성에 대한 인식과 존중하는 시각으로 변화해야 하며 이를 위해 신남방 지역 전문가 양성을 위한 제도권(특히 대학) 학과 신설과 같은 실질적인 접근도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되었다. 신남방 지역 문화교류 사업을 추진할 시 문화교류의 양방향성을 지향하여 일회성 및 단기 목표성 사업을 지양하고 장기적 시스템 및 인적 투자에 집중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전문가가 제안한 기타 의견으로 한국 내 신남방 지역에 대한 차별적 인식 제고를 위해 체계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신남방지역 문화교류 정책에 대한 홍보, 그리고 정책사업 결과에 대해 대중적으로도 공유되고 정보가 확산될 수 있게 하는 것이다. 문화교류나 관광 등은 신남방 정책의 정책적인 성과라기보다는 신남방 지역 국가 중 베트남과 같은 국가에 대한 민간 수준에서의 관심이 보다 높아졌기 때문일 수도 있다. 일반대중은 한류의 영향으로 한국에 대해 과도하게 좋은 이미지를 갖고 있으나 실제 정책을 집행하는 여론주도층은 한국에 대한 인식이나 신뢰가 극히 낮다는 사실을 인지해야 한다. 따라서 신남방 국가의 한국과 한국인에 대한 인식(신뢰)을 개선하는데 문화교류의 목적이 있어야 할 것이다. 또한 한국문화의 일방적 전달은 중상주의적 혹은 제국주의적 성격으로 비춰질 가능성도 있어 신남방지역 여론주도층의 한국 인식도를 개선하는데 오히려 방해가 될 수도 있다. 문화교류는 신남방지역 문화를 우리 사회에 어떻게 수용시키는가,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신남방 지역의 문화가 발전하여 지속가능한 사회를 만드는가에 대해 기여하는 형태로 전개되어야 할 것이다.

국내 관련 지역 전문가 부족 및 기존 전문가에 대한 활용 부족 측면을 고려해야 한다는 의견 또한 제시되었다. 문화교류에 있어서 인력이 미치는 역할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를 위해 단순 수요조사가 아닌 현지 상황에 대한 폭넓은 이해를 바탕으로 한 장기적이고 체계적인 정책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며, 기술적 측면이 완비된 전문인력이 아니라 국가와 지역에 대한 감수성이 수반되어 있으면서 문화예술적 능력을 갖춘 인력을 지원하는 방안을 고려해야 할 것이다. 신남방 지역은 단기 정책으로 가시적 성과를 내기 어려운 요소를 가진 지역이다. 관련 정책 전체를 조망할 수 있는 큰 지도를 마련하여 점을 찍듯 11개국과 공통적인 부분, 상이한 부분 혹은 상충되는 부분 등을 이어서 그 모든 것들이 대한민국과 어떻게 조화롭게 작용할 수 있는지를 고민해야 할 것이다. 실제로 한 건의 정책을 꾸준히 수행한 예가 많지 않아 향후에는 단기적으로 바로 눈에 띄는 사업이 아니라 문화라는 특수성을 감안해 장기적인 관점에서 지속적, 계획적으로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그림 4-5] 설문조사를 통한 신남방정책 성과 및 향후 정책 방향



본 장에서 분석된 설문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하고, 향후 적극적으로 신남방지역과 우리나라와의 관계에서 추진되어야 할 문화교류의 방향과 비전, 그리고 그것을 추진하기 위한 전략과 과제 및 사업들은 다음 장에서 보다 구체적으로 제시하고자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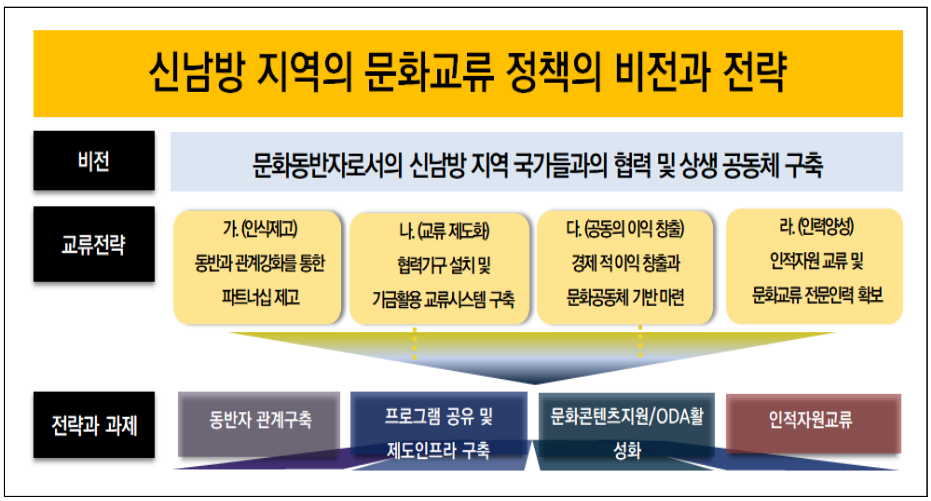
제5장

신남방 지역 문화교류 정책의 비전과 전략 및 추진과제(안)

제1절 신남방 지역 문화교류 비전 수립의 방향과 전략

1. 비전 및 추진과제 개요

[그림 5-1] 신남방 지역의 문화교류 정책의 비전과 전략



신남방 지역 문화교류 정책의 비전은 문화동반자로 발전하는 신남방 협력 및 상생 공동체 구축으로 제안한다. 구체적인 교류전략은 파트너십 인식 강화로 전략적 동반관계 형성, 교류 제도화로 지속가능 효과제고 및 공동이익 창출로 교류성과제도를 수립, 인력양성 체계화로 제안하고자 한다. 구체적인 방향은 동반자 관계 강화, 협력기구 및 기금 활용의 지속적 교류, 경제적 공동이익 창출을 통한 신남방 문화공동체 기반, 전문 인적자원 확보를 교류전략으로 모색하고자 한다. 이러한 신남방 지역 문화교류 정책의 목표는 교류와 협력 두 가지가 핵심 가치이다. 구체적으로 교류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인적자원 교류와 문화관광교류를 나눠서 구체적인 사업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또 협업의 목적을 달성하고자 콘텐츠 제작협력과 문화자

원 아카이브 구축 협력 두 가지로 크게 구분하여 구체적인 사업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무엇보다도 문화교류와 관광, 콘텐츠 교류가 향후 경제교류로 자연스럽게 이어지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계획을 세분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문화교류의 실질적이고 구체적 가치 창출 효과 극대화를 위한 민관산학 협력체계 구축을 제안한다.

2. 전략 및 방향

가. (인식제고) 동반과 관계강화를 통한 파트너십 제고

신남방 지역 문화교류 정책 전략은 신남방에 대한 국내의 인식 제고, 전문가 교류 및 네트워크 구축을 통해 문화예술 분야 동반자 관계 확립을 제안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앞서 수 차례 논의한 바와 같이 교류하고자 하는 세부지역과 국가의 사회문화적 수요를 정확하게 파악하는 작업이 우선되어야 한다. 우리나라의 입장에서가 아니라 신남방과 인도의 입장에서 우선적으로 수요를 파악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그러나 이것이 단기간에 이루어지기는 어려울 수 있으므로 다양한 기관, 인력, 시스템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전략을 먼저 수립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한다.

나. (교류 제도화) 협력기구를 설치하고 기금을 활용한 지속적 교류시스템 구축

두 번째 전략으로 지속적 협력을 위한 조직(국제기구) 설립, 안정적 재원(협력기금)을 통해 양질의 협력사업을 우선 추진하여 문화교류를 제도화하는 것을 제시할 수 있다.

전체 신남방 정책에서 사회문화 분야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는 것은 충분히 긍정적인 평가를 할 만하나 전체 정책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미약하여 그 비중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앞에서 반복적으로 강조하고 있는 바와 같이 신남방 지역이라는 친숙하면서도 또한 생소한 지역과 국가 간의 실질적인 교류가 일어나고 상생의 방안을 찾기 위해서는 그 효과가 지속적이어야 하고 또한 실효성이 있어야 한다. 단지 서로 문화적 호기심을 가지고 관광객을 유치하는 정도로 사회문화 전략과제가 효과

가 일어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다양한 시행착오를 거듭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무엇보다도 문화행정 시스템, 신남방지역의 다양한 문화자원 활용방안, 지방의 소도시의 문화관광 활성화 방안, 중앙정부의 문화정책, 문화행정 시스템 검토 등의 작업을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이는 신남방 지역의 문화행정 발전에 기여할 뿐만 아니라 그들의 문화자원, 문화인력, 문화적 전통, 문화유산의 가치를 제고하여 향후 우리나라와 동등한 위상과 가치를 인정받으면서 실질적인 문화교류가 가능할 수 있는 기본적인 토대가 될 것이다.

다. (공동의 이익 창출) 경제적 공동이익 창출을 통한 신남방 문화공동체 기반 마련

신남방 지역의 문화교류를 통한 경제적 공동 이익을 창출하고 신남방 문화공동체 기반을 마련하는 것도 전략에 포함하고자 한다. 아세안은 한국의 역량과 기술을 통해 경쟁력을 강화하고, 한국은 아세안과 함께 글로벌 시장에 진출하는 상생협력을 추진하는 것이 필요하다.

신남방 지역과 공동 이익을 창출하기 위한 사회문화 분야 대표사업 발굴이 필요하다. 신남방 지역과의 효과적인 사회문화 분야 정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두 지역의 사회문화적 차원의 차이점만이 아니라, 이러한 차이점들을 아우를 수 있는 보편적인 공통분모를 찾아내는 작업이 우선되어야 한다. 유무형의 문화유산, 문화이벤트, 규범이나 관습 등 다양한 분야에서 도출 가능하며, 이것은 과거 역사적이고 전통적인 공유 경험에서 그 단초를 도출해 낼 수 있을 것이다. 한국과 신남방의 고유문화가 서로 긴밀하게 만날 수 있는 다양한 기회(페스티벌, 인력양성 프로그램, 상호 연수 프로그램 등) 또한 적극 제공하는 것도 한 방법이다. 신한류콘텐츠, K-Contents, K-Food, K-Beauty, 한글, K-출판 등을 신남방 지역 국가의 고유한 전통, 문화, 민속, 문화유산 등과 결합하면서 쌍방 간의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는 사업을 제안할 수 있다.

그렇기에 신남방 문화공동체 기반을 다지기 위해 “무형문화유산 정보공유플랫폼 구축”과 같은 사업추진이 신남방정책 대표사업으로서 가치를 가진다. 본 사업은 세계적 디지털 기술과 인적자원을 가진 우리나라에서 주도적으로 추진하면서도 신남

방 지역의 무형문화유산의 가치를 널리 알리고 다양한 활용방안과 관련 정보를 공유하는데 유용하게 작용할 수 있을 것이다.

라. (인력양성) 인적자원 교류 및 문화교류를 위한 전문인력 확보

신남방 문화교류정책 전략으로 인력양성과 관련한 전략은 반드시 수행되어야하는 것이다. 이는 인적자원교류 및 문화교류를 위한 전문인력을 확보한다는 측면도 있으나 무엇보다 교류의 핵심은 사람 간 소통에서 시작되기 때문이다. 이는 해당 지역에 효과적인 인력양성 시스템을 구축하는데 우리의 경험 노하우가 기여할 수 있는 분야이기에 중요하다. 우리나라의 인력양성 시스템, 지원시스템, 교육프로그램, 인력 활용 노하우, 공공/민간 교육시스템 등을 신남방 지역에 효과적으로 전달하는 방법을 고민해야 한다. 따라서 음악, 예술가, 청소년, 음악 정보통신 분야 등에서 원활한 인적자원 교류가 일어날 수 있게 정책을 구체화시키는 것이 필요하다.

또 기술적인 전문인력이 아니라 국가와 지역에 대한 감수성이 수반되어 있으면서 문화예술적 능력을 갖춘 인력을 지원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특히 지역의 자체역량을 점검하는 작업이 우선되어야 한다. 일방향적 신남방정책을 지양하고 신남방정책 대상국의 수요에 대한 고민을 통해 이에 맞는 인력자원 교류 활성화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

인적자원 활성화를 위해 신남방지역 국가에 대한 기존의 편견과 선입견을 완화시킬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 상호 간 존중이 전제가 되는 문화교류 정책을 추진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현지에 이미 자리잡고 있는 한국기업을 신남방정책 활성화의 좋은 인프라로 활용할 수도 있다. 기업을 경제적인 시각으로 접근하는 것이 아닌 기업이 구축한 인적네트워크 인력 등을 신남방정책 문화교류사업에 적극 활용하는 것이다.

제2절 추진과제

본 절은 신남방 지역 문화교류정책 추진과제를 6개 분야로 나누었으며 세부 추진사업을 다음의 표와 같이 제안하였다. 이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전문가 대상 설문조사 결과를 준거로 하여 향후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신남방지역 문화교류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야 하는 사업을 제시하고 있다. 각 사업별 추진 우선순위는 본 절의 가장 마지막 부분에 정리하였다.

〈표 5-1〉 신남방 지역의 문화교류 정책 추진과제 및 세부 사업

추진과제	추진사업	
I 동반자 관계 및 파트너십 강화	1	신남방 개별 국가와의 문화교류 MOU 체결
	2	국내 문화다양성 보호 증진 사업을 통한 신남방 인식제고
	3	문화예술분야 민관 기관 간 교류네트워크 구축
	4	신남방 국가간 문화 콘텐츠 제작 협력 사업
	5	국가 간 문화주간 행사개최 지원
	6	신남방 문화연구 네트워크 구축사업
II 문화콘텐츠 및 자원교류	1	한국어학과 개설 지원 등 한국어 교육 활성화 사업
	2	신남방 지역 언어교육 지원 사업
	3	콘텐츠 유통 플랫폼 개발 사업
	4	방송영상콘텐츠 국제공동제작
	5	신남방 지역 유·무형 문화유산 보존 지원 사업
	6	관광콘텐츠 개발 및 활성화를 위한 문화자원 발굴 사업
III 인적자원교류	1	분야별 전문가 교류사업 (초청연수 및 국내 전문가 파견)
	2	청년예술가 창작 교류 지원 사업
	3	청년·청소년 문화교류 네트워크 구축
	4	전통음악 커뮤니티 구축 및 활성화
	5	스포츠 교류활동 지원사업
	6	정보통신기술(ICT) 기반 문화유산 보존·활용 역량 공유 사업

추진과제	추진사업	
IV 프로그램 공유 및 교류	1	예술계 장학 프로그램 교류 사업
	2	아시아전통오케스트라 공연 프로그램 교류 사업
	3	한-아세안 국립박물관 전시프로그램 교류 사업 확대
	4	한-아세안 국립 문화기관 콘텐츠 및 프로그램 교류 협력 활성화 사업
	5	아시아 국가문화유산 포털 구축
	6	신남방 지역 관광 활성화 국제포럼 개최
V 제도 및 인프라 구축 협력	1	신남방 지역 공공(작은)도서관 문화 조성사업
	2	신남방 지역 문화의 이해증진을 위한 스마트시티 플랫폼 구축
	3	교류 협력국 문화 교육 정보화 인프라 구축 사업
	4	정보통신기술(ICT)을 활용한 신남방 지역 문화 기술 지원 협력
VI ODA 사업 활성화	1	문화유산 보호·활용 및 인재 양성 ODA 추진
	2	농촌마을 정보화 ODA 사업
	3	취약계층의 문화교육 ODA 사업
	4	지역관광자원 개발 및 활용 ODA 사업
	5	문화유산 디지털 DB구축 사업

1. 동반자 관계 및 파트너십 강화: 인식제고 및 협력강화

가. 신남방 개별 국가와의 문화교류 MOU 체결

신남방 개별 국가와의 문화교류 MOU 체결 사업은 문화협력 수교를 기념하여 문화교류 협력사업을 확대 추진하는 사업이다. 국가 간 수교를 통해 양국 간 파트너십을 강화하고 상호 간 국가 신뢰도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문화체육관광부는 한-필리핀 상호교류의 해(2019년), 한-말 문화협력 MOU 체결을 추진 중(2020년)이다. 2022년에는 베트남과 수교 20주년, 캄보디아와 수교 25주년 기념행사, 2023년에는 태국과 65주년 수교 기념행사를 문화교류 일환으로 계획 중이다. 이러한 사업방향을 기반으로 향후 5년간 베트남, 캄보디아 등 신남방 정책 대상 국가를 대상으로 한 수교를 강화하기 위한 기념행사 등을 추진하고 이를 통해 각 국가 간 문화교류 사업을 추진할 것을 제안한다. 현재 수교계획이 활발한 국가인 베트남, 캄보디아, 태국, 브루나이, 미얀마, 싱가폴, 라오스 등의 국가와 사업을 추진이 가능할 것이다.

〈표 5-2〉 2020년 문화체육관광부 MOU추진 대상국가

연도	추진대상(안)	문화교류사업
2021	한-메콩 교류의 해(기확정)	교류기념 행사
2022	베트남/캄보디아(수교30/ 25주년)	수교기념 행사
2023	인니/태국(수교50/ 65주년)	수교기념 행사
2024	브루나이 (수교40주년)	수교기념 행사
2025	미얀마/싱가포르/라오스(수교50/50/30주년)	수교기념 행사

출처: 문화체육관광부(2020). 국제문화교류진흥 시행계획

나. 국내 문화다양성 보호 증진사업을 통한 신남방 인식제고

국내 문화다양성 보호 증진사업은 우선 사업을 위한 기초데이터를 확보한 후 신남방 국가별 주제를 선정하여 문화다양성 사업을 추진하는 내용으로, 국내의 신남방정책의 문화교류 협력에 대한 인식장벽을 해소하고 국가 간에 문화협력을 하기 위한 초기 단계 네트워크 강화를 목적으로 한다.

현재 문화다양성 관련 국내에서 추진 중인 사업은 다양한 부처에서 실시되고 있는데, 그중 문화체육관광부가 2012년부터 진행하는 '무지개다리사업'을 통해 국내 기초문화재단 등 다양한 단체가 문화다양성과 관련한 정책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또 이 사업을 통해 수행된 사업은 문화다양성아카이브(www.cda.or.kr)를 구축하여 공유하고 있다. 또한 문화체육관광부는 2020년 한국과 아세안의 문화정체성 및 협력강화 포럼 개최계획을 갖고 이를 추진 중이다.

국내 문화다양성 보호증진 사업을 통한 신남방국가에의 인식제고는 것은 문화다양성에 대한 인식의 폭을 넓혀 교류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 함과 동시에 정치, 경제, 사회 전반에 걸친 사회적 통념을 변화시킬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를 위해 우선적으로 부처 간 문화다양성과 관련한 정책사업 데이터 확보 후 교류주제를 선정하여 추진하는 등 단계별로 사업을 추진해야 할 것이다. 단계별로 사업을 추진하는 이유는 문화다양성이라는 주제가 난해하고, 정책 사업으로 이를 이해하고 수행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 부처들이 많기 때문이다. 따라서 사업을 국가 간 문화교류의 주목도를 높이고 이를 통해 문화다양성 협약을 끌어낼 수 있도록 단계별로 추진해야 한다.

국내 문화다양성 보호증진 사업은 정부가 발표한 신남방 국가 12개국과 진행이

가능할 것이며 단계별로 진행함에 있어 해당국가 선정은 한국과 교류관계가 높은 국가를 우선으로 선정하거나 교류의지가 높은 국가를 대상으로 사업을 진행하는 것이 정책사업 확대의 부담감을 줄일 수 있을 것이다.

다. 문화예술분야 민·관 기관 간 교류네트워크 구축

문화예술 분야의 민·관 기관 간 교류 네트워크 구축사업은 민간기관과 공공서비스 영역의 문화예술 행정기관 간 교류를 원활히 진행하여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사업으로 신남방 국가와 한국 간에 우호적인 관계를 형성하고 문화분야의 효율적 인프라를 구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현재 대통령직속정책기획위원회에서는 신남방 정책에 대해 대통령 공약사항으로 신남방정책특별위원회에서 "사람공동체 : 공공행정 역량강화 지원, 거버넌스 증진 기여"라는 목표 하에 다양한 사업을 추진 중이다[177]. 또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국제문화교류진흥원에서는 2005년부터 문화동반자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이 사업은 개도국 문화전문가 및 행정가 공공문화사업 기획 및 추진역량 강화를 위해 각국의 문화전문가 40여명 정도를 국내에 초청하여 연수를 진행하는 사업으로, 전문연수를 제공함으로써 개도국의 문화발전 및 지속가능한 발전목표 이행에 기여하고 문화를 활용한 교류 다각화 및 쌍방향 국제협력을 강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문화예술분야 민·관 기관 간 교류 네트워크 구축사업은 행정기관과의 교류 뿐만 아니라 민간기관 간 인적교류를 확대하여 국내의 유수 문화예술재단, 민간공연장, 민간예술단체 등과 신남방국가 간 민간기관의 교류를 확산하는 것이 사업의 목표이다. 이를 통해 문화예술행정 분야의 인력 교류 외에 문화 분야의 협력 사업을 효과적으로 발굴하고 지원할 수 있는 인프라를 구축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이 사업 수행을 위해 문화동반자사업을 통해 연수가 진행되었던 나라를 우선적으로 선정하여 사업을 수행하고 향후 신남방 국가 11개국으로 확대하면서 사업을 수행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초기 문화동반자 사업이 아시아문화동반자사업으로 수행되어 주요 신남방국가와 교류가 이루어졌기에 해당국가와 원활한 네트워크 사업을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177) 대통령직속정책기획위원회(www.nsp.go.kr)

라. 신남방 국가 간 문화콘텐츠 제작 협력 사업

신남방 국가 간 문화콘텐츠 제작 협력 사업은 신남방국가와 문화콘텐츠를 함께 제작하도록 지원하는 사업으로, 국내에 신남방국가 문화콘텐츠를 소개하고 신남방국가에 한국문화콘텐츠의 긍정적 인식을 확산하는 것에 목적이 있다.

현재 한류콘텐츠에 대한 지원은 여러 부처에서 시행되고 있으며, 문화체육관광부는 문화콘텐츠 관련 교류사업을 구체화하고 있지는 않고 있다. 문화체육관광부에서는 2020년 '모꼬지코리아'라는 정책사업을 수행할 예정인데 이 사업은 KPOP 및 한국의 생활문화를 아시아 필리핀, 카자흐스탄, 미얀마에 진출한 서비스 업체 및 중소기업과 연계하여 홍보함으로써 현지 한류확산에 기여하는 것을 목표로 한 것이다. 구체적으로는 K-POP스타와 현자 아티스트 공연, 한류 콘텐츠 및 생활문화체험, 중소기업제품 전시 등의 내용으로 진행된다.

신남방 국가 간 문화콘텐츠 제작협력 사업은 신남방국가의 콘텐츠를 한국에서 제작할 수 있게 지원한다거나, 국내의 문화콘텐츠 주요 소비 타깃이 신남방국가일 경우 해당콘텐츠를 제작비를 지원하거나, 행정적 절차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진행될 수 있을 것이다. 즉 한국문화콘텐츠를 한국이 일방적으로 제작지원하는 방식이 아닌, 신남방국가에서 한국을 소재로 하는 경우 콘텐츠 제작을 지원하는 등 상호간 문화콘텐츠 제작을 적극적으로 확산하고자 하는 데 목표를 두어야 한다. 문화콘텐츠의 범위는 교류협력 단계별로 영화, 다큐제작, 학술콘텐츠 등 주제를 제한하지 않고 진행하여 보다 많은 콘텐츠의 생산을 유도한다.

이를 위해 사업초기에는 한류문화에 기반이 비교적 단단한 국가를 대상으로 협력사업을 수행하고 향후 점차적으로 신남방국가 전체를 대상으로 하여 사업을 수행할 수 있을 것이다.

마. 국가 간 문화주간 행사개최 지원

신남방 국가 간 문화주간 행사개최 지원사업은 신남방국가와 문화주간을 두어 행사를 개최함으로써 한국과의 교류에 대해 넓은 지지층을 확보하고, 문화행사주간이라는 이벤트를 적극 활용하여 상호 국가 간 호감도를 상승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실제로 2019년 광주에서 개최된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를 계기로 한-아세안

특별문화장관회의가 개최되었는데 이 때 아시아문화주간을 운영한 바 있다. 아시아문화주간 행사는 국제회의 및 포럼, 대중 참여행사로 전시, 아시아컬처마켓, 영화제 등을 개최하였으며 특별문화장관회의에서 5개 분야 12개 협력과제가 반영된 공동성명을 발표하였다. 주요 내용은 "상호 문화 이해 증진, 공동 창작 활성화, 문화산업 협력, 문화유산 보존·활용 협력, 문화예술기관 협력강화"이다. 이처럼 문화주간행사는 활용하는 정도에 따라 국제적 주목도를 높이고 국가 간 협력을 강화시킬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신남방국가 간 문화주간행사는 한국이 주요 수행기관을 선정하여 연차별로 주제를 선정하고 문화주간행사를 개최하는 방안과, 국가를 지정하여 문화주간행사를 개최하는 방안으로 고려해볼 만 하다. 문화유산 콘텐츠 제작의 기술협약이나 상호 간 영화제 개최, 영화산업 교류를 위한 협의체 구성 논의 등 다양한 분야와 주제를 문화주간 행사에 반영할 수 있다. 혹은 국가 간 MOU 체결이나 수교기념행사와 함께 진행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고, 한-아세안문화협력 협의체의 협력사업의 일환으로 수행할 수도 있을 것이다.

일례로 아시아의 무형문화유산을 주제로 선정하여 진행할 시 전시, 교류방안, 주요기관 대표의 국제회의, 포럼 등을 협력할 수 있을 것이고, 국가를 지정하여 진행할 경우 첫 해 진행국가가 예를 들어 인도일 경우 인도와 한국의 가장 큰 이슈를 주제로 선정하여 행사를 개최하는 등의 방식이다.

바. 신남방 문화연구 네트워크 구축사업

신남방 문화연구 네트워크 구축사업은 신남방국가 간 문화연구 협력을 활성화하여 문화 분야의 국제적 역량을 강화하는 것에 그 목적이 있다. 이 사업을 위해 문화 분야를 연구하는 전문가, 학계, 산업계, 실행자 등 다양한 인력과의 교류를 진행할 수 있을 것이며, 이는 아시아문화의 학술적 아젠다, 정책적 담론을 도출하여 아시아문화연구에 대한 발전을 도모할 것으로 기대된다.

문화체육관광부의 문화예술종합계획의 후속계획으로서 '문화예술교육시행계획'(2020)에 따르면, 문화예술교육 전문인력의 국제적 역량강화를 위해 문화예술교육 국제연구 네트워크 활성화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이 사업은 유네스코 인준을 받

은 국제 연구네트워크 유니트윈(UNITWIN)과 공동연구를 추진하고 연례회의를 개최하여 국제사회 수준의 예술교육을 모니터링 분석 정리하고 국내의 관계자 대상으로 서비스를 강화하는 계획이다.

신남방 문화연구 네트워크 구축사업은 신남방국가 문화분야 연구자들이 국제 연구 네트워크인 '아시아 컬처 리서치 네트워크'를 구성하고, 아시아 문화에 대한 담론과 나라별 아젠다 분석 조사를 진행하도록 제안할 수 있다. 또 연구자 및 공동 리서치를 기반으로 한 민간단체 국제교류 사업모델 개발을 지원하고 국제 학술연구대회를 개최하여 연구주제에 대한 국제공모 실행과 선정, 연구결과의 아카이빙 및 결과자료집 발간, 학술 연구결과의 유네스코 공유 등 이 사업을 통해 국제사회에 아시아 문화를 알리는 단초역할을 할 수 있다.

이를 위해 우선 한-아세안 협력기구를 통해 파트너십을 강화하고 민간기관을 통해 사업이 수행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 국제연구자 네트워크는 특히 교육기관과의 협력이 사업 실행가능성을 높일 수 있기에 신남방국가 중 교육협력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는 나라들을 우선사업 대상으로 할 수 있을 것이다.

2. 문화콘텐츠 및 자원교류: 문화자원 활용으로 문화성장 추동

가. 한국어학과 개설 지원 등 한국어 교육 활성화 사업

국제사회에서 한국의 위상과 한국 기업의 브랜드 가치가 높아지는 상황에서 한국어 습득과 한국 문화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특히 동남아시아 국가에서 불고 있는 한류의 영향으로 한국어에 대한 수요가 높아 한류의 연속성을 유지하기 위해 정규 한국어교육이 필요하다. 이런 현실에서 한국어학과 개설 지원 등 한국어 교육 활성화 사업은 신남방 지역에 한국 문화콘텐츠를 지속적으로 보급하는 유용한 수단이 된다.

신남방 지역 국가에서 한국어 교육은 초기 한국인 이민자나 선교사들에 의해 생겨난 한글학교에서 이민 2세대를 대상으로 이루어졌다. 이후 신남방 지역에 한류가 본격적으로 영향을 주면서 한국어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고 베트남, 인도네시아 등 한국 기업의 생산기지가 많이 분포한 국가 위주로 한국어학과 등이 개설되었다.

2000년대 이후 베트남 호찌민사범대학교(Ho Chi Minh City University of Education) 한국어학과나 인도네시아대학교(University of Indonesia) 한국어학과가 정식으로 개설되었다. 한국어학과 개설로 한국에 대한 이미지 개선과 관심이 증대되고 한국과 해당 국가와 문화교류의 구심점이 확립되었다.

기존에 신남방 지역 한국어교육 활성화 사업과 유사한 사업은 교육부가 지속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해외 한국어교육 지원 추진계획'이 대표적이다. 본 사업은 한국어 확산을 통한 동반성장 기반 구축이라는 비전 아래 ① 현지 한국어교육 여건에 따른 현지 맞춤형 한국어교육 지원, ② 한국어 교육 수요가 많은 신남방·신북방 중심으로 지원 확대, ③ 관계부처인 문체부와 외교부와의 한국어교육사업 협력을 수행 중이다.[178] 본 사업의 세부 추진과제는 한국어 교육 기획 확대, 한국어 교육 전문성 제고, 한국어 교육 인프라 강화, 한국어 교육 추진체계 구축으로, 한국어반 확대, 한국인 교원 파견, 현지 교원 양성과정 개설, 현지교원 방한 연수 등의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교육부가 추진하는 해외 한국어 교육 사업은 한국어 교육을 할 수 있는 교원 양성에 특히 중점을 둔다. 한국인 교원 파견사업이나 현지교원 방한 연수 등이 그것이다. 하지만 한국어 교육과 관련하여 새로운 방향성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즉 기존의 교육부, 문체부, 외교부가 공동으로 사업의 방향성을 한국어학과 개설 지원 사업 등으로 확장하여 한국어 교육이 아닌 한국의 정치·경제·사회·문화 분야 등 다방면의 지식을 한국어로 습득할 수 있는 문화적 기회를 제공하는 것으로 선회할 수 있어야 한다.

현재 신남방 지역 대학 국가 중 베트남에 가장 많은 한국어학과가 개설되어 있으며, 캄보디아, 인도네시아, 라오스, 태국, 말레이시아에도 학과가 운영 중이다. 한국어 교육에 대한 현지의 관심이 점차 증가하고, 해당 국가에서도 정책적으로 한국어학과 개설이 필요한 시점이기에 신남방 지역 11개국에 본 사업의 추진이 필요하다.

178) 재외교육기관포털(http://okep.moe.go.kr)

나. 신남방 지역 언어교육 지원 사업

신남방 지역에 분포한 11개국은 국어와 공용어가 있으며 특정 국가와의 교류에 있어 해당국 언어 사용은 문화교류의 대상 폭을 넓히는데 매우 효과적인 방안이다. 또한 신남방 지역의 말레이·인도네시아어, 태국어, 베트남어 등은 언어별로 1억 명에서 4억 명까지 사용하는 동아시아 대표 지역 언어로서 가치가 있다. 신남방 지역 언어교육 지원 사업은 단순히 호기심 차원에서 제3세계 언어습득을 뛰어넘는 가치가 있다.

신남방 지역 언어교육 지원사업은 국내에서 이 지역에 대한 이해를 증진시키는 가장 기본적인 교육활동이다. 또한 신남방 지역 언어교육의 대상을 넓히고 다양한 커리큘럼을 제공하는 것은 신남방 지역 정부와 지속적 협력을 강화하는 데 효과가 있다.

기존에 신남방 지역의 언어교육 지원과 유사한 사업사례는 동남아 관련 학과나 연구소에서 이루어지는 '동남아 언어교육 사업'이다. 특히 서강대 동아연구소에 학기별로 열리는 '열린 동남아 학교, 동남아 언어강좌'는 학생뿐만 아니라 인근의 직장인들에게 높은 호응과 좋은 평가를 받고 있다. 이 사업은 2011년 1학기부터 매 학기(봄, 가을) 마다 〈동남아 언어 강좌〉를 진행했으며, 2020년 현재 누적 수강생 총 1,251명에 이르는 가장 성공적인 동남아 언어교육 사업이다. 약 4억 명이 사용하는 말레이-인도네시아어, 최근 한국인 투자가 급증하는 베트남어, 개혁·개방과 함께 다양한 형태의 진출이 늘어나는 미얀마어, 동남아 산업생산과 관광의 중심지인 태국어 강좌를 개설하여 운영 중이다. 또한 동남아 언어 뿐 아니라 신남방 지역 박사급 전문가가 정치, 경제, 사회 및 문화에 대한 다양한 이론 업적을 제공함으로써 신남방 지역에 대한 다차원적 이해를 도모한다.

신남방 지역 언어교육 지원사업 추진에 있어 고려해야 할 점은 어떤 언어를 선택하여 대중에게 제공할 것인가이다. 이는 서강대 동아연구소가 10년 동안 〈동남아 언어 강좌〉를 운영하면서 겪은 경험을 통해 유추할 수 있다. 원론적으로는 신남방 지역 전체 국가에 대한 언어 교육이 필요하다. 하지만 실제 운영 결과 말레이·인도네시아어, 베트남어, 태국어, 미얀마어 순으로 수강생의 수요가 높은 반면, 그 외 크메르어, 라오스어, 따갈로그어 등은 적절한 강사를 찾는 것에 어려움이 있고 실제

로 개설이 되더라도 수강생이 적어 폐강이 되는 경우가 대다수이다.

결국 본 사업은 수요가 높은 언어 중심으로 강좌 개설이 필요하다. 장기적 관점에서는 신남방 지역 전체 국가에 대한 언어교육의 중요성을 차츰 확산시켜 소수언어에 대한 사회적 수요가 동반될 때 관련 언어강좌 개설에 대한 지원 대비책이 필요하다.

다. 콘텐츠 유통 플랫폼 개발 사업

최근 정보 데이터 분석기술의 발달은 콘텐츠 유통시장에 새로운 방향을 제시한다. 특히 국가와 기업의 빅 데이터(big data) 수집과 분류능력, 데이터 수요층의 정보접근성이 중요하다. 신남방지역 국가들은 한국이 경제적으로 큰 성과를 이루었다고 믿고 그 요인을 기술과 정보를 토대로 한 산업성장으로 본다.

본 사업은 한국의 문화콘텐츠와 신남방 지역 국가의 문화콘텐츠를 하나의 유통 플랫폼에 구축하는 것이다. 콘텐츠 유통 플랫폼 사업의 목적은 신남방 지역 국가가 한국의 산업 전 분야에 대한 관심을 실질적으로 교류하고 활용할 수 있는 온라인 공간을 구축하는 것이다. 콘텐츠 유통 플랫폼 사업은 21세기 가장 중요한 자원 중 하나인 정보와 콘텐츠 유통망으로서 역할을 할 것이다. 콘텐츠 유통 플랫폼 구축에 기술력과 경험을 토대로 관련 사업을 조속히 시행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신남방 지역 문화콘텐츠에 대한 원천자료 확보가 필요하며, 인포그래픽과 같은 형식의 정보의 가공이 필요하다.

콘텐츠 유통 플랫폼 개발사업과 유사한 사업사례는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이 운영하고 있는 '에듀넷·티-클리어' 사업이다.[179] 본 사업은 '모두를 포용하는 교육학술정보 서비스 구축'을 목표로 운영 중이다. 구체적인 사업내용은 ① 교육 수혜자 대상 개별화 교육지원을 위한 지능형 맞춤학습 환경 구축, ② 현장 중심 초·중등 교육정보 서비스 활성화, ③ 클라우드 기반 교육학술정보 플랫폼 및 학술연구정보 유통 고도

179) 에듀넷·티-클러어(https://www.edunet.net/nedu/main/mainForm.do#)
해당 사이트 일평균 방문자 수는 53,005명이며, 교육정보 원문 공유 시·도는 8개로 확장되었다. 사용자 참여 중심 서비스 기획·운영이 이루어져 e학습터 서비스가 활성화됨. 특히 2015 개정 교육과정·교육정책 지원을 위해 신기술 활용 실감형(AR/VR) 콘텐츠 및 SW교육 지원 콘텐츠 개발 및 보급이 이루어짐. 주목되는 지점은 클라우드 기반 초·중등 교육정보서비스 플랫폼 기반을 조성하였고, 정보화전략계획(ISP)를 수립하여 맞춤형 학술연구정보 유통 고도화를 이루었다는 점임

화, ④ 수요자 맞춤형 고등교육 교수·학습서비스 운영 내실화 등이 포함된다.[180]

플랫폼 구축은 신남방 지역 국가가 사용하는 언어를 기준으로 우선순위를 정한다. 약 4억 명의 인구가 사용하는 말레이·인도네시아어 관련 문화콘텐츠와 약 1억 명이 사용하는 베트남어와 태국어 관련 문화콘텐츠 구축에 우선순위를 둔다.

라. 방송영상콘텐츠 국제 공동제작

최근 신남방지역 국가의 한류문화 성장은 주로 아이돌 중심의 K-Pop 시장의 발전에 기인한다고 보고 있지만 사실 2003년 아시아 대륙을 휩쓴 '대장금' 드라마가 신남방 지역의 한류의 시작이라고 할 수 있다. 신남방 지역 국민들이 대장금을 시청하면서 한국의 전통문화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혔고, 해당 드라마의 주인공이었던 이영애와 지진희에 대한 관심이 한국 대중문화 확산의 주요한 원인이 되었다.

기존 방송영상콘텐츠 국제공동제작 지원 중 주목할 만 한 사업은 한국콘텐츠진흥원이 주관하는 '국제방송문화교류지원(국제공동제작) 지원사업'이다. 지원대상은 방송영상독립제작사, 방송사(지상파, 종합편성채널, 케이블 TV사업자 등)으로, 지원규모는 2개 부문 총 5개 과제로 전체 예산은 14.35억 원이다. 구체적 지원내용은 다큐멘터리 부문과 드라마, 예능, 교양 등(다큐 외) 부문으로 나뉜다.

방송영상콘텐츠는 일차적으로 원 제작 국가의 문화콘텐츠에 대한 관심의 증가를 불러오지만 실질적으로 국가 간 교류와 문화적 이해를 증진시키는 데 더욱 큰 역할을 할 수 있다. 따라서 양국 사이의 이해와 공감이 가능한 소재와 주제의 방송영상을 국제공동으로 제작하면 양국 문화에 대한 이해의 폭이 넓어질 것이며 문화교류 전파 속도 역시 더욱 빨라질 것이다. 이에 베트남, 인도네시아, 캄보디아, 미얀마, 태국, 브루나이, 인도, 필리핀,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등 신남방 지역 11개국의 제작사 및 방송사와 사업 추진이 필요하다.

이와 관련한 사례는 2018년 제작된 한국-인도네시아의 첫 합작 웹드라마인 '러브 디스턴스(Love Distance)'이다. 한국 배우 4명과 인도네시아 배우 3명을 중심으로 국경 없는 세 커플의 사랑 이야기를 다룬다. 한국-인도네시아 간 모바일을 통한 예술 및 문화교류 차원에서 공동제작 방식으로 결정되었고, 제작에 참여한 기업

180) 한국교육학술정보원(2020). 2020회계년도 사업계획(안)

은 웹드라마를 시작으로 다양한 콘텐츠를 선보였다. 그 결과 방송영상콘텐츠의 국제공동제작이 양 국가의 문화를 이해하는데 중요한 시발점이 되었고, 특히 인도네시아에 진출하고자 하는 국내 브랜드를 적극 지원하여 경제적 부가가치 창출을 이끌어내고 있다.

선행사례를 통해 도출할 수 있는 이 사업의 정책 지원조건은 다음과 같다. 상대국(해외)의 방송사(제작사)와 방송 프로그램을 공동 제작해야 하고, 상대국(해외) 방송사를 통해 협약기간 내 상대국에 방영되어야 하며, 국내 방송사를 통해 협약기간 내 국내에 방영되어야 함을 조건으로 제시하도록 한다.

사실 신남방 지역 국가와 한국이 처한 문화적 환경 차이와 생소함 때문에 공동프로그램을 제작하는 데 쉽지만은 않다. 특히 가장 걸림돌은 언어적 차이인데, 예를 들어 해당 국가 언어와 한국어 더빙과 자막 등 이중 언어를 드라마 같은 장르에서 어색하지 않게 구현하는 것이 어려운 부분이다. 이에 신남방 지역의 언어로 제작될 수 있는 인력지원 또한 필연적으로 수반되어야 한다.

마. 신남방 지역 유·무형 문화유산 보존 지원 사업

신남방 지역 유·무형 문화유산 보존 지원사업의 목적은 총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다. 첫째 신남방 지역 유·무형 문화유산 정보공유를 통해 효율적인 보존 방안을 모색한다. 둘째 무형문화유산과 관계된 다양한 이해관계자 특성에 맞는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보호 활동을 증진한다. 셋째 선진국의 유·무형 문화유산보다 상대적으로 잘 알려지지 않은 문화유산에 대한 인식을 고취시킴으로써 문화유산 보호의 수준을 향상시킨다.

신남방 지역 유·무형 문화유산 보존 지원사업은 제3세계 국가가 현대화 과정에서 겪는 전통 및 문화재 파괴와 경제성장 과정에서 겪게 되는 딜레마를 극복하는 경험을 공유하고 문화유산 보존에 대한 전문지식의 부재를 극복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기존에 신남방 지역 유·무형 문화유산 보존 지원 사업과 유사한 사례는 유네스코 아태무형유산센터(이하 Ichcap)의 다양한 활동이 있다. Ichcap은 2011년 설립된 유네스코 카테고리2 기구로서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무형문화유산 보호 및 증진 활

동에 기여하였다. 무형유산 정보의 관리와 효과적 공유를 통해 공동체, 단체, 개인, 국가, 기관의 무형유산 보호 활동을 촉진하는데 일차적인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아태지역 내 정보 관리와 공유 체계를 구축하고, 센터를 포함한 여러 주체가 생산·보유한 정보를 효과적으로 보급하는 중이다. Ichcap의 주요 사업은 무형유산 영상 제작 보급, 무형유산 기록자료 디지털화 지원, 무형유산 ICT 기반 강화 및 지원, 무형유산 정보공유 플랫폼 구축, 무형유산 전문가 및 기관 네트워크 활성화, 무형유산 종사자 교류 지원, 무형유산 인식제고 프로그램 운영, 무형유산 행사 및 축제 지원 등이 있다 [181].

과거 캄보디아 대표 유적지이자 유네스코 세계 문화유산인 '앙코르와트' 보존과 복원을 위해 헌신하여 2017년 막사이사이상을 수상한 일본인 이시자와 요시아키 교수의 사례처럼 일본을 비롯한 선진국은 신남방 지역 국가의 유·무형문화유산 보호를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 왔다. 이는 유·무형문화유산이 전 인류의 공통의 자산이라는 대전제이자 문화유산이 위치한 국가와 교류의 발판으로 보존사업을 활용한 것을 우리의 선례로 삼을 필요가 있다.

원론적으로 유·무형 문화유산의 보존이 필요한 신남방 지역 11개국이 본 사업의 대상이지만 과거 식민지 기간 유물 약탈의 문제와 문화재 보호 자체 역량의 성장으로 실제 우선추진이 필요한 국가는 미얀마, 캄보디아, 라오스이다.

바. 관광콘텐츠 개발 및 활성화를 위한 문화자원 발굴 사업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등재된 문화유산과 자연유산은 보유 국가의 관광 자원으로 활용되면서 해당 국가의 관광산업을 활성화하는 효과를 나타낼 수 있다[182]. 유네스코 등재유산은 국내·외에서 'UNESCO Heritage Tour', 'World Heritage Tour' 등의 이름으로 관광 상품화가 활발하게 이루어져 있다. 본 사업은 신남방 지역의 문화자원을 관광콘텐츠로 개발 및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는데 목적이 있다. 한국의 문화유산 보존의 경험이 신남방 국가의 보존사업에 이바지함으로써 관련 사업에 협력을 이끌어낼 수 있다.

---

181) 유네스코 아태무형유산센터(https://www.unesco-ichcap.org/program-areas/information-sharing-ko/?lang=ko)

182) 유네스코한국위원회(http://heritage.unesco.or.kr/)

관광콘텐츠 개발 및 활성화를 위한 문화자원 발굴 사업은 유네스코 문화유산 등재와 같은 계승 및 발전 열망이 해당국가에서 높아질 수 있다. 또 신남방 지역의 문화자원의 보존과 활용에 기여하여 '유네스코의 세계 문화 및 자연 유산 보호 협약'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관광콘텐츠 개발 및 활성화를 위한 문화자원 발굴 사업에서 유의해야 할 점은 아세안 국가들이 과거 식민지 경험으로 인하여 자국의 문화자원의 조사와 연구에 대해 보수적인 입장을 취한다는 점을 사전에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다.

기존에 본 사업과 유사한 사업은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의 아시아문화연구소가 추진했던 일련의 사례가 있으며 다음 〈표 5-3〉과 같다.[183] 아시아문화연구소의 사업 내용 중 2014년부터 2015년까지 진행된 말레이시아 보르네오섬 소수민족 의복문화 연구는 주목된다. 본 사업은 아시아문화연구소 연구과제 공모를 통해 진행한 연구로 약 2억 원의 예산이 소요되었는데, 주요성과는 소수민족 의복문화 연구보고서 1권, 소수민족 의생활 문화 관련 콘텐츠 개발 및 제작의 일환으로 소수민족 문화지도 2종, 아카이브 영상 DB 700분, 의생활 사진 DB 700컷, 소수민족 의생활 웹북 1종, 전통 문양복 1종 구축이다.[184] 말레이시아에서 말레이계가 아닌 소수민족의 문화유산은 상대적으로 주목받지 못하였으나 해당 연구 과정에서 소수민족 문화자원의 콘텐츠화를 시도하였고 이는 사라져가는 소수민족의 문화자원을 콘텐츠로서 재발견했다는 의의가 있다.

〈표 5-3〉 국립아시아문화전당 대표 국제교류 사업

연구명	연도
아시아 문화 인벤토리 구축을 위한 기초자료 조사연구	2018
동남아시아 무형문화유산 조사 및 영상기록 사업	2017~2018
아시아 생활양식 및 의례 문화 연구: 아시아 소수민족	2017~2018
아시아 생활양식 및 의례 문화 연구: 아시아 문신	2016~2017
아시아 소수민족 문화·예술 콘텐츠 연구 (말레이시아 보르네오섬 소수민족 의복문화 연구)	2014~2015

183) 국립아시아문화전당-사업소개(https://www.acc.go.kr/info/contents.do?PID=020601)
184) 아시아문화개발원(2015). '14~'15년 아시아문화연구소 사업실적 및 계획

본 제안사업은 신남방국가 전체이지만 문화분야 예산이 적은 캄보디아, 라오스, 미얀마를 우선적으로 고려할 수 있다. 나아가 다종족 국가인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태국의 사례는 향후 단계에서 사전에 계획을 수립하는 것도 필요하다.

3. 인적자원 교류: 예술·문화 전문가 및 지역 공동체 간 교류

가. 분야별 전문가 교류사업(초청연수 및 국내 전문가 파견)

분야별 전문가 교류사업의 목적은 한국과의 우호적 문화 관계망이 유지되고 확장되도록 하여 양국의 상호교류를 지속 및 증진, 국가 간 호혜적 관계를 구축하여 국제적 문화발전에 기여, 신남방 지역의 문화분야별 전문가 및 매개인력의 지속적이고 자생적인 협력을 도모하는 효과가 있을 것이다. 분야별 전문가 교류사업의 추진 가능 국가는 신남방 정책 관련 11개국 전체이다.

기존의 분야별 전문가 교류사업과 유사한 사례는 '문화동반자사업'과 '아세안지역 문화 ODA협력 강화사업'이 있다. '문화동반자사업'은 개발도상국의 문화·예술·미디어 및 문화산업 분야의 전문가들을 초청해 공동 창작과 인적 교류 활성화를 촉진하고 전문연수 기회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특히 종료 후에도 지속적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문화동반자 동창회'와 연계한다. 문화동반자 동창회는 2016년부터 연수 참가국 현지에서 시행되고 있으며 2016년 베트남, 인도네시아, 필리핀, 2017년 태국, 2018년에는 미얀마 동창회를 설립하였다. 한편 아세안 지역 ODA협력 강화사업[185]은 문화매개자 교육을 진행(베트남 24회/인도네시아 10회)하였으며, 2020년에도 계속 추진 예정이다.

기존의 문화 분야별 전문가 교류사업의 특징은 공적개발 원조를 통한 교육 및 네트워크 구축 시도가 이루어진다는 반면 사업내용이나 분야의 다양성이 다소 떨어진다는 것이다. 신남방 전 지역에서 문화 전문가 및 매개인력이 활발히 교류하기 위해 문화행정, 문화매개, 관광, 스포츠 등 다양한 분야 인력의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상시적 포럼을 통한 국가별 문화정책 및 문화 저변의 이슈공유, 교육 및 파견 등을

185) 문화체육관광부(2020). 국제문화교류진흥 시행계획

통한 지속적 관계 유지가 필요하다.

한-아세안 특별문화장관회의 계기로 개최[186]되었던 '한-아세안 문화관광포럼', '한-아세안 문화혁신포럼'등 전문가 간 교류가 일회성으로 끝나지 않도록 개별 국가마다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지속적인 교류를 유지할 수 있는 국가별 방안을 마련하도록 한다. 이러한 네트워크 구축을 통해 확보된 국가별 정보 및 인적자원이 개별국가에 대한 문화정책을 수립·추진할 때 적극적으로 활용될 것이다.

나. 청년예술가 창작 교류 지원 사업

청년예술가 창작 교류 지원 사업의 목적은 한국과 신남방지역의 청년 예술네트워크 형성에 기여하고 국제 예술교류의 장을 마련하는데 있다. 즉 새로운 예술저변을 확대하고 국제사회에서 한국과 신남방지역의 청년예술가 역량을 강화해 중장기적으로 예술분야의 신남방 국제교류 기반을 다지는 것이다. 더불어 예술적 교류와 동반성장 과정을 통해 국가 간 문화예술 산업 및 기획 환경의 이해를 제고하는 효과가 있다.

청년예술가 창작 교류 지원사업의 세부 내용으로 신남방 지역의 국제 레지던스 프로그램 참가 지원 확대가 있다. 현재 문화체육관광부가 '해외 레지던스 프로그램 참가 지원 확대'[187]를 추진하고 있는데 분야별 예술단체 및 예술가가 해외 레지던스에 직접 초청 혹은 참가 허가를 받은 경우(비지정형), 또는 예술위원회와 약정을 맺은 레지던스 프로그램(지정형)에 예술가가 참가 지원을 하는 형식이다. 이 사업에서 지정형 프로그램의 경우 독일, 네덜란드, 스웨덴, 미국(뉴욕), 이탈리아 등 대부분이 유럽 및 미주지역 내의 기관과 진행되었으며, 2020년도에는 신규 레지던스 기관·국가 발굴을 위해 미국, 영국, 프랑스, 오스트리아 해당 기관[188]과의 연계를 추진 중에 있다.

따라서 기존 사업을 신남방 지역으로 교류를 확장하고, 신남방 지역의 창작스튜디오 간 프로그램 정보의 교환 등 협력체계의 구축을 제안한다. 이를 통해 국내 청

186) *ibid.*

187) 문화체육관광부(2020). 국제문화교류진흥 시행계획

188) 미국의 ISCP, NARS, I-Park지정형 레지던시 추진, 주영한국문화원공동 기획프로그램 추진, 프랑스 몽펠리에 국립안무센터 MOU추진, 오스트리아 Ars Electronica연계 추진 계획

년예술가의 신남방 국가로의 진출과 예술교류가 활성화되기를 기대한다. 이러한 신남방 국가와의 협력체계 구축 및 청년예술가 교류는 국내에서 운영되는 국제 레지던스 프로그램에 대한 신남방 청년 예술가의 방한이 활성화되는데 기여할 것이다.

또한 아세안 국가 및 개별국가 간 청년 창작워크숍 프로그램 진행을 제안한다. 작년 한국과 아세안 10개국 문화 장·차관들은 '2019 한·아세안 특별문화장관회의'를 통해 '한·아세안 청년예술가 창작 워크숍 개최'에 합의하였다.

레지던스 교류 지원사업은 국제 레지던스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인도, 인도네시아, 싱가포르, 태국, 베트남[189]을 우선 추진대상으로 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예상한다. 이후 개별 국가 간 창작워크숍을 지속적으로 추진함으로써 일회성으로 끝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다. 청년·청소년 문화교류 네트워크 구축

청년·청소년 문화교류 네트워크 구축사업의 목적은 신남방 국가와 한국의 청소년 및 청년의 문화교류를 통해 해당 국가에 대한 청년층의 문화 관심도를 제고하는데 목적이 있다. 미래 주역인 청소년 및 청년층을 대상으로 한 것은 미래지향적 문화교류 네트워크이며 이를 통해 창조적 자극과 문화다양성 확산에 기여할 것이다.

기존에 진행하고 있는 청년 문화교류 사업으로는 '세종학당 문화인턴 운영'과 '아우르기'를 들 수 있다. '세종학당 문화인턴'은 지역별, 문화권별로 특화된 고품질의 문화프로그램을 운영하기 위한 일환으로 세종학당에 문화인턴을 파견(대학과 MOU 체결하여 학점인정)[190]해 현지 문화프로그램을 활성화하려는 것이다. '아우르기'[191]는 외국인 유학생 한국문화탐방단으로 주한 외국인 유학생의 한국사회 적응과 문화체험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이다. 두 사업은 각각 다자 간 발신형과 다자간 수신형으로 한국문화를 알리는 성격, 문화홍보의 교류방식이다.

본 연구는 청년·청소년 문화교류 네트워크 구축사업의 주요 내용으로 '청년·청소년 문화교류단 구축과 운영'을 제안하고자 한다. 이는 문화교류단의 선발·파견과 상대국 청년의 초청 방한을 통해 현지 및 국내에서 상대 국가의 문화·예술·역사의 폭

189) 한국문화예술위원회 해외공모 기준, 해외 레지던스 프로그램 운영 국가
190) '19년 문화인턴 17개국 24개소 41명, 문화전문가 100명 파견(('20년) 45명 목표)
191) 한국국제문화교류진흥원, GKL사회공헌재단이 주최. 문화체육관광부 후원

넓은 이해를 위한 교류활동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문화유적지 방문, 예술문화행사 체험, 전문가 강의 및 토론 등으로 구성된 프로그램을 통해 외세의 침략과 지배, 문화재 약탈 등 한-아세안 국가의 역사적 특징을 공유·공감하고 각 국의 고유한 문화와 예술을 직접적으로 체험, 이해하도록 한다.

사업 추진 대상국가는 청소년·청년의 교류가 가능한 신남방 전 국가이나, 기존 타 부처 사업인 여성가족부·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의 '국가 간 청소년교류사업'과 연계해 우선 추진할 수 있다. 즉 청소년교류 체결국으로 지정한 말레이시아, 베트남, 필리핀, 인도, 인도네시아, 싱가포르, 부루나이 7개국이 대상국가에 속한다.

라. 전통음악 커뮤니티 구축 및 활성화

전통음악 커뮤니티 구축 및 활성화 사업의 목적은 한-아세안 전통음악의 교류 활성화와 콘텐츠 발굴 및 확산에 있다. 본 사업은 한-아세안 각국의 전통음악에 대한 교류를 통해 국가 간 이해를 높이고 아시아 전통음악에 대한 고유 가치를 전달하며 한-아세안 국가 간의 결속력을 강화시키는 효과를 기대한다.

기존의 전통음악 커뮤니티 구축 및 활성화와 유사한 사업사례로는 아시아문화전당에서 추진하는 '아시아 전통음악 커뮤니티 사업'이 있다. 이 사업은 대한민국과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 간 제1차 아시아 문화협력 프로젝트 회의를 통해 아시아전통음악위원회를 창설하였다. 아시아전통음악위원회는 대한민국과 ASEAN 측 공동위원장과 대한민국과 ASEAN 회원국 등 11개국 정부 관계관들과 음악전문위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아시아 전통음악에 대한 공동 연구 및 아시아 전통 오케스트라 공연추진을 기획하고 있다.[192] 이 커뮤니티를 통해 2009년 한-아세안 11개국 전통 음악인으로 구성된 한-아세안 전통 오케스트라를 창단하였고 국내공연 성공을 기반으로 해외진출 및 교류·유통 본격화를 추진 중에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위 사업의 확장개념으로서 각국 전통음악 학계 및 전공학생, 관련 기관, 기획 및 매개자 간 커뮤니티 확장을 제안한다. 이러한 커뮤니티 확장은 국가 간 전통음악 연구자들의 공동연구 및 학술포럼, 전통음악 전공 학생의 쌍방향 교류 프로그램, 전통음악 교류전 등을 통한 문화교류 활성화를 이끌어 낼 것으로 기대된

192) 국립아시아문화전당(https://www.acc.go.kr)

다. 또 현재 추진되고 있는 아시아전통오케스트라의 순회공연 확대[193]와 더불어 한-아세안 전통음악에 대한 인지도를 효과적으로 제고할 수 있을 것이다.

추진 국가로는 현재 아시아 전통음악 커뮤니티 사업의 해당국가인 아세안 10개국이 가능할 것이다.

마. 스포츠 교류활동 지원사업

스포츠 교류활동 지원사업의 목적은 스포츠 정신 교류를 통해 국가 간 문화이해와 협력을 도모하고 스포츠를 통한 한-아세안의 네트워크 강화, 신남방 국가의 스포츠 저변 확대, 스포츠 공여국가로서의 이미지 확립, 국제 스포츠 무대에서의 공존과 번영이라는 가치를 실현하기 위한 것이다.

이러한 스포츠 교류활동 지원사업의 세부 내용으로 '한-아세안 스포츠 국제 행사 개최 지원 및 확대'를 제안한다. 회원종목 단체에 신남방 정책국과의 친선교류 행사 및 주니어 종합경기 대회 개최 등 다양한 행사의 지원을 확대한다. 이를 위해 국제 스포츠 기구 및 종목별 국제 연맹 등 다양한 기관과 연계하여 업무 제휴, 지원 등 협조체계를 선행해야 할 것이다.

기존에 대한체육회가 주최하고 회원종목 단체가 주관하는 '개발도상국 스포츠 발전 지원사업[194]'은 선수 초청 합동훈련, 개도국 스포츠 지도자 교육과정, 스포츠 동반자 프로그램 등으로 구성되어 운영되고 있다. 그런데 참가 개도국 측 스포츠 기관의 열악한 행정력과 사업운영 실무인력 부족[195]으로 인해 사업 추진 개별 국가 간 지속적인 네트워크를 구축하기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 따라서 사업이 1회성 사업 및 교류에 그치지 않도록 관련 인적 인프라 및 사업수혜자와의 지속적인 교류, 인적 자원 풀 관리가 필요하다. 특히 정부차원에서 스포츠 관련 각종 포럼, 세미나, 환영행사 등을 주최하고 참가자 출입국 문제 해결을 위해 법무부와 협약을 맺는 등 보다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할 것을 제안한다.

---

193) '19년 인도네시아, '20년 말레이시아(수교 60주년)/ 캄보디아(수교 25주년) 예정

194) 대한체육회-회원종목단체 주최주관/문체부 국민체육진흥공단 재정 후원(개도국 스포츠 발전지원(ODA) 예산: 7,243백만원
(문화체육관광부(2020). 2020년도 예산 및 기금 운용계획)

195) 김성하, 임수원(2019). 스포츠공적개발원조 Dream Together 사업의 문제점과 발전방안. 「한국체육정책학회지」, 50, 157-176

사업의 우선추진 국가 선정에 있어서는 신남방 국가의 현지 조사, 전문 용역 등을 통해 실질적으로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국가를 파악하여 국가별 종목선정을 고려해야 사업효율과 성과를 증진시킬 수 있을 것이다.

바. 정보통신기술(ICT) 기반 문화유산 보존·활용 역량 공유 사업

정보통신기술(ICT) 기반 문화유산 보존·활용 역량 공유사업의 목적은 국내외 문화유산, 정보통신기술 등 전문가 및 관계자 간 네트워크 체제를 구축하여 문화유산 전문지식과 첨단 정보통신기술 융합에 대한 국제적 역량을 공유하고 활용하는데 있다. 또한 문화산업이라는 새로운 동반성장 모델로 발전할 효과성이 높을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사업을 통해 정보통신기술을 기반으로 한 문화유산 보존·활용의 선도국으로서 한국의 국제적 위상이 강화되는 효과가 있을 것이다.

정보통신기술(ICT)을 통한 문화유산 보존 활용은 현재 국제적 관심을 받고 있으며, 사업 추진 시 파급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된다. 2019년에 개최된 '한·아세안 특별문화장관회의'에서 한국과 아세안은 문화유산 보존·활용 협력 분야 협력 방안을 마련하는 데 합의했는데, 주목할 만한 주요 협력사업 중 하나는 '정보통신기술(ICT) 기반 문화유산 보존·활용 협력'사업이다.[196] 과학기술부도 '제14차 한-아세안 정보통신 장관회의'를 통해 5G, 인공지능(AI), 데이터 등 ICT 분야에서의 협력 방안을 담은 '2020 한-아세안 ICT 협력계획'을 제안했으며 이를 제14차 한-아세안 공동선언문을 채택했다.

현재 문화재청에서는 첨단기술 기반의 문화재 안전관리 고도화사업으로서 전기화재 위험요소를 미리 감지하여 사전에 제거할 수 있는 전기화재 예방 ICT시스템을 문화재에 최초 적용하거나, 딥러닝, 드론 등 최신기술을 활용하여 접근성이 떨어지는 곳에 위치한 문화재의 안전관리 기능을 개선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197]

또 한-아세안 간 문화유산 국제교류 관련 유사사업으로 아시아문화전당에서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아시아·태평양지역위원회[198](MOWCAP, 이하 'MOWCAP')

196) 대한민국 정책브리핑(2019.10.25.). "한·아세안 문화협력 강화 획기적 계기 마련"
197) 문화재청(2020). 2020년 문화재청 업무계획
198)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아시아·태평양지역위원회(MOWCAP, Memory of the World Committee for Asia and the Pacific):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프로그램(MoW)의 지역위원회이자 세계기록유산

과 2015년부터 MOU를 통해 진행하는 협력사업이 있다. 이는 MOWCAP 오피스 설립 및 전당 내 운영을 통해 아시아·태평양 지역 기록유산 아카이브 구축 및 전시, 세미나, 컨퍼런스, 교육 프로그램 개발 등 기록유산 및 아카이빙 관련 다양한 협력을 추진 중이다.[199]

그 외에 한국원자력연구원에서 개최하는 '제4회 중성자 영상을 활용한 연구 및 산업적 적용 워크숍' 은 문화유산 ODA의 일환으로 진행하고 있는데, 2019년 행사의 테마는 '문화재 보존'으로 중성자 영상기술을 활용한 문화재 보존 및 복원에 대한 내용을 중심으로 진행되었다.[200]

본 연구가 정보통신기술(ICT) 기반 문화유산 보존·활용 역량 공유 사업의 구체적 내용으로 제안하는 것은 우선 정보통신기술(ICT) 기반 문화유산 보존·활용에 대한 국내 협의체 조직을 구성하는 것이다. 정보통신기술, 문화정책, 문화유산, 국제교류 등 다방면의 전문인력으로 구성된 관련 정부 부처와 공공기관 및 단체 간 통합조직이 필요할 것이다.

또한 정보통신기술(ICT) 기반 문화유산 보존·활용에 대한 한-아세안 포럼 및 컨퍼런스, 워크샵 개최 사업을 모색할 수 있다. 포럼 및 컨퍼런스를 통해 현재 대한민국에서 구축한 문화유산 ICT 기술력을 공유하고 이를 한-아세안 국가에서 활용하는 방안을 모색하는 자리를 마련하는 것이다. 문화유산 ODA사업, 문화동반자 사업에 문화유산 관련 ICT 워크숍 및 교육을 포함하고 현지기술교육은 물론 현지인들의 한국초청 연수를 추진하여 우리의 문화재 복원·활용 기술력을 전수할 수도 있다. 본 사업의 우선추진 국가는 포럼 및 컨퍼런스의 경우 신남방 전 국가, 워크샵 및 교육의 경우 ODA 중점 협력국인 라오스, 미얀마, 베트남, 인도네시아, 캄보디아, 필리핀이 적절할 것으로 보인다.

국제자문위원회(IAC, International Advisory Committee)의 보조기구로 1997년 설립, 중국 베이징에서 제1차 총회를 개최(1998년)하며 정식 발족

199) 국립아시아문화전당(https://www.acc.go.kr)

200) 에너지데일리(2019.9.23.). "'중성자과학' 활용 문화유산 ODA(공적개발원조) 나선다"

4. 프로그램 공유 및 교류: 프로그램 제작 노하우 및 지식 교류 확대

가. 예술계 장학 프로그램 교류사업

예술계 장학프로그램 교류사업은 신남방국가의 예술계통 전공자들에게 장학금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우수한 인력의 활발한 교류를 통해 아시아 예술인들과의 소통을 선도하고 아시아 예술 인재의 예술교류 창작을 지원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2005년부터 한국예술종합학교는 아세안협력사업의 일환으로 Art Major Asian (AMA) 장학사업 지속적으로 추진해 오고 있다. 이 사업은 아시아 각국의 우수한 예술인재들을 한예종 국비 장학생으로 유치하며 대학 생활과 한국적응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이다. 해마다 몽골, 중국, 태국, 말레이시아, 베트남 등 아시아 20여 개국 예술 인재를 장학생으로 선발하여 현재까지 총 242명의 학생에게 예술교육의 기회를 제공해 왔다. AMA 장학생들은 한예종 정규교육 과정 안에서 문화예술을 학습하고 한국문화를 가장 생동감 있게 접하고 느끼며 예술가로 성장한다[201].

신남방국가들을 대상으로 한 예술계 장학프로그램 교류사업은 한국에서 교육을 마친 학생들이 자국으로 돌아가 문화를 선도하고 한국의 문화를 전파하는 전문가이자 문화예술의 외교관 역할을 수행할 것이다. 장학금 지원을 통해 신남방 예술인들의 역량을 확인받고 발전시킬 수 있는 계기를 제공함과 동시에 한국에서의 교육에 어려움이 없게 한국어를 공부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여 한국문화에 대한 이해를 높일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다.

사업의 방향은 신남방국가를 대상으로 우선적으로 지원하되 초반에는 한국에 오는 학생들을 지원하고 한국에서 신남방국가의 예술을 배우고자 하는 현지 학생을 지원하는 방향으로 사업을 확장시키는 방향이 적절할 것이다.

나. 아시아전통오케스트라 공연 프로그램 교류사업

아시아전통오케스트라공연 프로그램 교류사업은 한국과 신남방 국가 간 전통오케스트라 공연을 지원함으로써 문화협력을 활성화하기 위한 사업이다. 아시아 국가 간 전통음악교류를 기반으로 신남방국가 간 아시아 전통오케스트라 공연프로그램

201) 한국예술종합학교, 'STORY 5 -Vol.23'-ART LAB: Lit·M·US 한예종

교류사업을 통해 공연교류 및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한다면 문화유산 협력까지 이어질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할 수 있을 것이라 기대된다.

한국에는 한-아세안 전통오케스트라단이 2009년 창설되어 활발히 활동 중이다. 2005년 10월 한-아세안 대화 관계 수립 15주년 기념 '아세안 심포니오케스트라 초청 공연'을 계기로 발족된 이 단체는 2019년에 한-아세안 대화관계 30주년 기념 공연을 진행한 바 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2019년에는 신남방 국가 중 필리핀과 K-POP 우정콘서트, 필리핀 한국영화제 등의 프로그램 등을 제공하였고, 2020년부터는 아세안과의 교류를 진행할 예정에 있다. 향후 아시아전통오케스트라 교류사업 관련 계획을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을 중심으로 진행할 예정이다.[202]

아시아전통오케스트라공연 프로그램 교류사업은 단순히 아시아 전통음악을 교류하고 공연하는데 그치는 것이 아닌 학술적 교류, 공연개최, 상호 국가 간 공연 연수 등의 프로그램을 진행할 것을 제안한다. 이를 통해 아시아전통음악에 대한 이해의 폭을 확장시키고 아시아 대표문화콘텐츠로 자리매김 할 수 있는 기반을 제공할 것이다.

다. 한-아세안 국립박물관 전시 프로그램 교류사업 확대

이 사업은 양 지역의 실질적 문화교류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그동안 서구와 동북아시아에 편중된 전시프로그램 교류사업을 최근 문화예술 분야에서 새롭게 주목받는 아세안 지역으로 확장해 네트워크를 활성화하여 쌍방 국가 간 이해 및 관심도를 증진하고, 한국 국립박물관의 위상을 향상시키는 데 기여할 것이다. 2019년에 정부는 한-아세안 약탈문화재 환수에 공동대응하는 내용의 공동성명을 발표[203]하였는데 이는 아세안의 문화협력 기반 마련에 큰 효과를 나타낼 것으로 기대된다.

국립중앙박물관은 인도·동남아실을 운영하면서 이 지역의 국립박물관과 지속적인 전시협약을 맺어왔다. 인도·동남아시아 전시는 '다양한 문화 그리고 확장된 시선'이라는 주제로 '인간을 닮은 신들의 세계'에 관한 전시를 열고 있다. 불상의 발원지인 간다라와 마투라 지역 불상, 크메르 미술에 등장하는 신상, 세밀화에 그려진

202) 문화체육관광부(2020). 국제문화교류진흥 시행계획
20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2019.10.25), '한·아세안 문화협력 강화 획기적 계기 마련'

여러 힌두교 신 등 인간을 닮은 다양한 모습의 신을 선보인다[204]. 또한 '베트남 국립역사박물관 소장품전'을 2019년 전시하였는데, 베트남의 구석기시대 유물부터 19세기 청동·도자·불교 조각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문화를 경험하게 하였다.[205] 또한 '우리 문화재의 국외 전시 활성화 및 외국 박물관 한국실 지원'[206]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해당 국가는 콜롬비아, 중국, 러시아로서 아세안 국가는 해당지원 대상에 포함시키지 않고 있다. 이는 한국실이 아세안 국가에는 거의 없는 실정과 및 홍보효과가 큰 주요국을 우선으로 하는 것이 그 요인이다.

기존에 본 사업과 유사한 사업사례는 국립중앙박물관의 아시아 지역 국립박물관 협의체인 '아시아국립박물관협의회'가 있다. 이 협의회는 아시아 국립박물관 간 전시·학술·인적자원의 교류협력을 정례화하고 구체적인 협력방안을 논의하려는 목적에서 창설되었다. 2006년 사전 실무위원회가 개최되었고 2007년 국립중앙박물관, 중국 국가박물관, 싱가포르 아시아문명박물관 등 11개국 국립박물관이 협의체를 구성하여 출범하였다.[207] 그러나 이는 창립 이후 가시적인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

이 외에도 문화체육관광부의 해외박물관 한국실 운영 지원[208]사업이 있다. 이 사업에서는 국가 홍보효과가 큰 주요국 해외박물관을 우선지원하고 있으며 한국실 운영 내실화를 위해 지원 요청관에 대한 심의를 통한 지원을 병행하고 있으나 아세안 지역에 대한 내용은 부재하다.[209]

따라서 본 사업에서는 일차적으로 과거에 진행했던 '아시아국립박물관협의회'를 복원시켜 관련 학술대회, 세미나, 실무자 협의회 등을 정기적으로 운영할 필요가 있다. 이를 토대로 전시프로그램 교류 확대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또한 아세안 국가와의 문화교류를 확대 추진하는 시점에서 기존 사업의 국가 대상을 아세안 국가 대상으로 확대할 것을 제안한다. 특히 신남방 지역 11개국의 국

204) 국립중앙박물관 세계문화관
205) 국립중앙박물관-베트남 국립역사박물관 소장품전
206) 사업 시작·종료일자: 2020.04.01.~ 2021.07.31. / 사업 내용: 흙과 삶, 한국의 도자기'('20.10. ~ '21.4. / 콜롬비아 황금박물관) 한·러 수교 30주년 기념 '한국문화재 특별전'('20.11. ~ '21.2. / 러시아 푸시킨미술관) '한국의 역사와 문화'('20.12. ~ '21.6. / 중국 사천박물원 외 1개) 한국실 지원사업: 신규 지원 대상 기관 선정, 소장품 대여, 홍보자료 제작 등
207) 국립중앙박물관
208) 문화체육관광부(2020), 〈국제문화교류진흥 시행계획〉
209) '19년도 해외박물관 한국실 운영 지원관: 미국 센프라시스코아시아미술관, 영국 빅토리아앨버트박물관, 캐나다 로얄온타리오박물관, 프랑스 세르누치미술관

립박물관 뿐 아니라 중국과 일본의 박물관을 포함시켜 문화적 유사성을 공유하는 동아시아 지역 단위 교류사업을 기획할 수도 있다. 우선 추진국가로는 아세안 국가 중 문화협정체결 국가인 말레이시아, 필리핀, 베트남, 싱가포르, 인도네시아, 태국, 캄보디아 7개국을 제안한다.

아세안 국가와의 협업 전시 콘텐츠를 발굴하고 쌍방향 교류 전시를 진행하는 내용의 한-아세안 국립박물관 간 협업형 전시 지원사업도 추진 가능하다. 국가 간 국립박물관과의 콘텐츠 교환·지원, 특별전시 및 협업전시 등의 전시프로그램 확대 뿐 아니라 큐레이터 및 연구자들의 인적교류 및 학술교류가 우선적으로 진행되어야 할 것이며 이러한 교류가 실질적 전시프로그램으로 확장하는 과정까지 지원하는 방향으로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아세안 국가 간 전시프로그램의 교환을 통해 양 국가의 유물과 유적 비교연구를 가능케 하는 등 실질적인 연구 성과를 도출할 수도 있다. 그리고 전시프로그램 교류와 함께 경영과 교육 등 박물관의 전반적인 운영 노하우를 공유할 수 있는 장이 될 수 있다. 결국 박물관의 전시, 교육, 경영 분야의 협력을 위한 토대를 마련하는 본 사업을 통해 양 지역의 실질적인 문화교류에 기여하게 된다.

라. 한-아세안 국립문화기관 콘텐츠 및 프로그램 교류협력 활성화 사업

이 사업은 콘텐츠 분야 종사자, 기업 관계자 네트워크 구축을 통해 한-아세안 문화예술 콘텐츠 및 프로그램의 제작과 유통을 활성화하는 데 있다. 문화예술 공동창작 과정은 상호 간 이해의 폭을 넓히는 계기를 마련할 것이다. 협력 활성화를 위한 방안으로 제시할 분야는 ① 한-아세안 문화협력 워크플랜 구축, ② 중소문화산업 간 교류 및 공동 마케팅 행사를 위한 플랫폼 제공, ③ 국립문화기관의 다양한 세미나와 워크숍을 통한 인적교류 방안 등이다. 본 사업은 신남방 지역 11개 국가를 대상으로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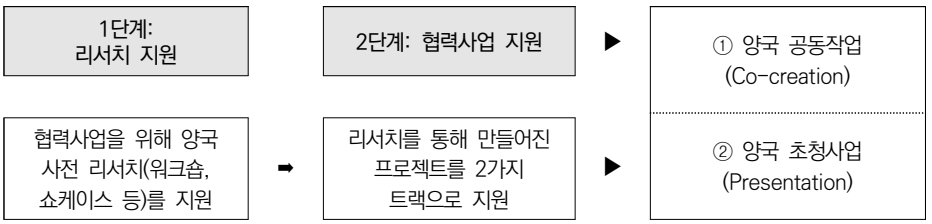
본 사업과 유사한 사례는 한국의 문화예술위원회와 영국(영국예술위원회)· 독일(주한독일문화원)·덴마크(덴마크문화청)의 문화기관과 2016년부터 2019년까지 진행한 협업 프로젝트가 있다(〈표 5-4〉). 한국과 해당국의 예술가는 협업을 통해 문화협력 방안을 모색하고 공동작업을 통해 일정한 성과를 이루어 냈다. 한국문화예술위

원회는 이러한 경험을 바탕삼아 2019년에는 국립싱가포르예술위원회와 문화예술 협력 양해각서를 체결하여 문화예술 분야 협력의 발판을 마련하였다(〈표 5-5〉).[210]

〈표 5-4〉 문화예술위원회의 해외협업 프로젝트

영국('16~'17)	독일('17~'18)	덴마크('18~'19)
- 리서치 사업 15건 지원 (문학, 시각예술 분야 등) - 협업사업 11건 지원 (문학1건, 연극, 무용 등)	- 협업사업 4건 지원 (다원예술, 연극, 음악)	- 리서치사업 13건 지원 (시각예술, 연극, 무용 등) - 협업사업 12건 지원 (문학, 시각예술, 음악 등)

〈표 5-5〉 국립싱가포르예술위원회-한국문화예술위원회 사업진행 체계도



기존에 추진 중인 유사 사업의 또 다른 사례는 아시아문화전당에서 주관하여 2019년부터 추진 중인 '아시아 컬쳐네트워크 사업'이다. 주요내용[211]은 2019년 「1차 아시아 컬쳐네트워크 회의」를 개최하고 참여기관으로부터 국가별 네트워크 구축의 필요성을 확인하여 앞으로 연간 회의개최를 통해 참여 국가와 기관의 범위를 확대할 예정이다. 또한 아시아 컬쳐네트워크 참여기관과의 MOU 체결로 실질적 협력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현재 아시아 컬쳐네트워크 참여기관은 2019년 기준 말레이시아, 태국, 홍콩, 일본 네 국가의 문화예술 기관이다.[212]

기존 사업의 보완 및 개선방안으로는 첫째, 한-아세안 참여 문화 국가 및 기관의 양적 확장이다. 현재 참여기관 중 아세안 문화기관은 말레이시아의 이스타냐 부다야(Istana Budaya), 태국의 BACC 방콕예술문화센터 두 기관이다. 참여 기관의 확장을 위해 아세안 국가 내 문화기관 풀을 정비하고 적극적인 홍보와 지속적인 관리

210) 한국문화예술위원회(https://www.arko.or.kr)
211) 국립아시아문화전당(https://www.acc.go.kr)
212) 말레이시아 Istana Budaya 이스타냐 부다야, 태국 BACC 방콕예술문화센터, 홍콩Hong Kong Arts Centre 홍콩아트센터, 일본 Knowledge Capital 날리지 캐피탈

가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둘째, 홍보목적의 선도사업을 마련해야 한다. 연구 및 포럼을 통해 각 국가 문화기관 간의 콘텐츠 및 프로그램을 적극 홍보함으로써 한-아세안 국립 문화기관 교류 활성화가 보다 빠르게 진행될 것이다.

마. 아시아 국가문화유산 포털 구축

이 사업은 아시아 국가문화유산과 관련된 정보를 하나의 플랫폼에 구축하여 아시아 국가문화유산에 관한 총체적인 사이버 정보센터로서 역할을 수행하려는 것이다. 그저 특정 사이버 공간에 구현하고 정보를 단순히 수집하는데 그치지 않고 비교연구 자료로 활용할 수 있게 국가별, 지역별, 종목별로 구분하여 일반인의 아시아 문화유산에 대한 지적 호기심을 충족시킬 수 있다. 이는 아시아 국가문화유산에 대한 원천자료가 필요하기에 관련 사업 중 Ⅱ. 문화콘텐츠 및 자원교류 분야의 '콘텐츠 유통 플랫폼 개발사업'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 또 문화재청의 국가문화유산포털과 긴밀하게 연동될 필요가 있다.

아시아 국가문화유산 포털과 유사한 사업사례는 문화재청에서 운영하는 국가문화유산포털이다.[213] 국가문화유산포털은 국보, 보물 등 주요 지정문화재와 전국 박물관 소장의 유물정보 등 총 250만 여 건의 문화유산 디지털 콘텐츠 정보를 제공한다. 종합정보시스템으로 문화유산 검색, 궁궐·종묘, 조선왕릉, 기록유산, 유네스코 등재유산, 3D(3차원) 문화유산 메뉴로 구성되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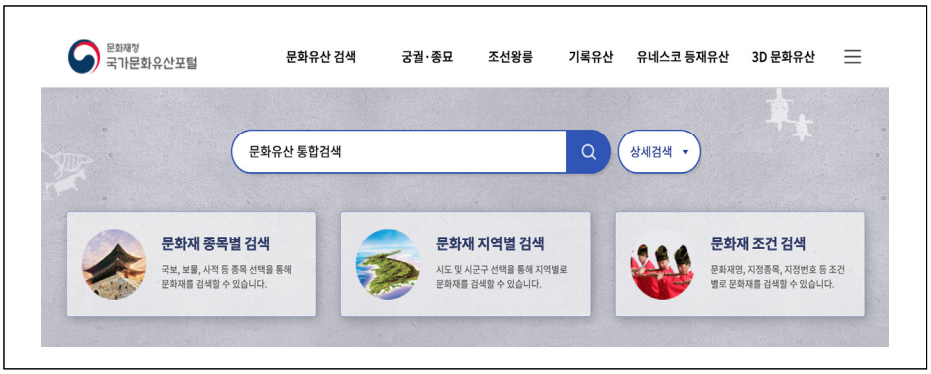
국가문화유산포털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문화재 검색' 항목은 관련 단어 일부 검색이 가능케 하여 대중이 문화재 관련 정보를 좀 더 폭넓게 접근할 수 있는 통로가 된다. 또한 문화재청에서 직접 운영하기에 정보의 공신력을 확보할 수 있고 사진, 고문헌, 국역자료, 문화재 안내판 정보 등 일반적으로 쉽게 접하기 힘든 자료를 디지털의 형식으로 제공한다는 특징이 있다.

아시아 국가문화유산 포털은 상대적으로 문화자원에 대한 정보화 수준이 높은 싱가포르, 브루나이, 말레이시아를 1단계 사업대상 국가로 선정할 필요가 있다. 다음으로 태국, 베트남, 인도네시아, 인도와 같이 신남방 지역문화의 거점이자 역사적 문화유산을 다수 보유한 국가를 대상으로 디지털화를 시도할 수 있다.

---

213) 문화재청 국가문화유산포털(htttp://heritage.go.kr/)

[그림 5-2] 문화재청 국가문화유산포털 화면



바. 신남방 지역 관광 활성화 국제포럼 개최

이 사업은 일견 관광과 경제 분야 선진국으로 한국의 관광 콘텐츠 개발 능력을 신남방 지역 국가에 전수하는 수혜적인 차원의 포럼으로 보일 수도 있다. 그러나 이 사업의 목적은 국제포럼을 통해 신남방 지역 관광 대상물의 개발과 발전 가능성을 검토하고 신남방 지역의 국가와 대한민국의 관광 대상물 교류의 가능성을 탐색하는 것이다. 한국의 관광 콘텐츠 개발과 활용의 경험은 신남방 지역 국가 관광 활성화에 이바지할 것이다.

관광 활성화 국제포럼 진행은 매년 1회, 장소는 한국과 신남방 지역 국가 순회 개최 방식으로 진행한다. 개최 장소선정과 진행은 한국과 신남방 지역 국가가 공식적인 수교를 체결한 해를 기념하여 개최되는 다양한 교류 행사와 함께 기획될 필요가 있다. 이를 통해 국제포럼 개최의 목적 중 하나인 관광 대상물 교류의 가능성을 높일 수 있고 양국 국민 간 상호 이해 및 우호 관계를 확장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된다.

본 사업을 추진하는데 참고할 만한 사례는 한국과 인도네시아 정부가 인적 교류 활성화 차원에서 진행했던 '한-인니 영 리더스 다이얼로그(KOR-RI Young Leaders' Dialogue)' 사업이다. 이는 한국과 인도네시아 양국 정상 간 합의에 의해 추진된 본 사업이며 2019년에 첫 포럼이 개최되었다.[214] 한국과 인도네시아 양국의 경제,

214)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서 2019년 10월 10일부터 11일까지 양일간 개최된 제 1회 회의는 양국의 외교부가 공동주최 형식으로 행사를 진행함. 총 3개의 세션으로 구성된 본 회의는 'Overcoming the Gap in Perceptions and Fostering Mutual Understanding', 'The Role of Business Interactions in Enhancing Mutual Understanding', 'Contribution of Indonesian and South Korean Youth in

사회, 문화 등 주요 분야의 차세대 경제 및 정책관계자, 학자 30명이 참여하는 연례 회의체 형식으로 진행되었다. 양국의 신진리더 및 전문가들의 공개/비공개 토론을 통한 상호이해 제고 및 새로운 협력방안을 모색함으로써 미래지향적 한-인니 관계를 구축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또한 태국 방콕, 인도네시아 발리, 필리핀 세부와 같은 세계적인 동남아시아 관광지의 경험을 수용하는 자세도 필요하다. 결국 관광활성화 국제포럼은 양 지역의 관광 발전을 위한 상호이해 제고 및 새로운 협력방안을 모색하는데 초점이 맞추어져야 한다. 본 사업은 신남방 지역 11개국 관광 관련 기관의 협조를 얻어 동아시아 지역 단위 국제포럼으로 사업의 기틀을 마련할 수 있다.

5. 제도 및 인프라 구축 협력: 문화교류 기반 및 여건 조성 사업

가. 신남방 지역 공공(작은)도서관 문화 조성사업

이 사업의 목적은 교육문화 인프라가 열악한 신남방 지역 대상의 작은 도서관 조성·지원을 통해 해당 국가의 교육문화 개선 및 국가 브랜드 향상, 교육·문화 분야 사업의 일환으로 독서문화 증진 도모, 신남방 지역의 언어로 된 한국문화 콘텐츠를 지원하여 문화교류를 활성화하기 위한 것이다. 또 신남방 지역 주민에 대한 독서와 교육 측면에서의 유엔 지속가능발전목표(SDGs)와 교육 개발목표 달성에 기여하고 교육 불평등을 해소할 수 있다.

기존 신남방 지역 공공(도서관) 문화 조성사업과 유사한 사례는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국제문화교류진흥원이 시행하는 '해외 공공도서관 조성'사업이 있다. 이 사업은 '해외 작은도서관 조성 지원' 사업도 함께 추진되고 있으며 구체적인 사업내용은 ① 수혜국이 제공한 기존 건물을 작은 도서관으로 리모델링, ② 전문가 선정 도서 2~3천여 권 지원, ③ 컴퓨터, 책장, 책상, 의자 및 기타 비품 지원, ④ 작은 도서관 운영 및 관리 지원 등을 포함한다[215]. 2019년 예산은 5억 6천 7백만 원 소요되

---

the Region and Beyond'의 주제가 선정되어 관련 발제와 토론이 이루어짐. 제 2회 포럼은 2020년 10월 한국에서 개최 예정이며 양국 간 사회 제 분야의 협력방안을 모색하는 주제 선정이 이루어질 것임

215) 행정안전부 국가기록원 대통령기록관(http://17clip.pa.go.kr/intro/intro_05_17.jsp)

었으며, 이 사업 추진성과는 지난 2007년부터 2019년까지 13개국에 작은 도서관 132개관을 조성하였고[216] 2019년에는 베트남 및 몽골 및 11월에 탄자니아에 이를 조성하였다. 주요성과[217]로는 3개국 9개(베트남 3개, 몽골 3개, 탄자니아 3개) 작은 도서관이 완료되었으며, 도서 및 한류 콘텐츠, 기자재 지원 및 쾌적한 도서관 환경을 구축하였다. 아시아와 아프리카 등 개발도상국의 소외지역을 선정하고 지원함으로써 직접 수혜자 학생은 9,800여 명을 달성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기존 사업의 보완 및 개선방안은 더 많은 사람들이 교육 문화적 혜택을 얻을 수 있도록 공공도서관의 영역을 확대하여 지원하고, 아시아 및 아프리카 일대의 개발도상국 뿐 아니라 신남방 지역에도 공공(작은)도서관 문화조성사업을 펼칠 수 있도록 이 사업을 확장해나가야 한다. 무엇보다 문체부 사업은 주로 학생들을 대상으로 지원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공공도서관에서 주민들과 일반 시민 뿐 아니라 취약계층에게도 교육문화적 혜택을 줄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기를 제안한다. 특히 신남방 지역 공공도서관 조성사업의 일환으로 한류 콘텐츠를 지원하는 사업 뿐 아니라 신남방 지역 콘텐츠도 한국에서 쉽게 볼 수 있도록 지원하는 쌍방향 문화교류 정책이 활성화될 필요가 있다.

이 사업의 추진 가능 국가는 교육문화 인프라가 열악한 11개국 중 농촌지역 중심으로 공공도서관 조성이 가능한 국가들을 대상으로 지원책을 마련할 수 있다. 베트남, 인도네시아, 캄보디아, 미얀마, 태국, 브루나이, 인도, 필리핀,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등 신남방 지역 11개국이 가능하다.

나. 신남방 지역 문화의 이해증진을 위한 스마트시티 플랫폼 구축

이 사업의 목적은 신남방 지역 각국의 스마트시티 플랫폼을 구축하여 이를 기반으로 향후 스마트시티 분야에서 지역문화를 연계해 민간 교류 및 협력사업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각국의 지역 문화 이해증진에 기여하고자 하는데 목적이 있다. 특히 신남방 지역 각국의 도시문제 노하우를 공유하고 지속적인 협력 사업을 통해 신남방 정책의 비전인 '사람 중심의 평화와 번영의 공동체' 실현, 신남방 지역 문화교류

216) 문화체육관광부(2019.9.19.). "문체부,보도자료 베트남에 14번째'작은도서관' 문 열어"
서울신문(2019.11.6.). "탄자니아 학생들에게 책을... '작은도서관' 3곳 개관"
217) 문화체육관광부(2020), 국제문화교류진흥 시행계획

정책비전인 '문화동반자에게 경제파트너로 발전하는 신남방 협력 및 상생 공동체 구축' 실현에도 부합할 수 있다.

본 사업의 유사사례로는 2019년 부산에서 개최한 '한·아세안 스마트시티 장관회의'가 있다. 해당 장관급 회의체 발족의 배경은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를 계기로 한-아세안 10개국 간에 신남방정책의 핵심인 스마트시티 분야의 실질적이고 지속가능한 협력을 위해 아세안 7개국 장관 및 3개국 차관이 모여 구체적인 협력사업을 논의한 것이다. 이 회의는 국토개발부,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환경공단 등이 주최하고 신남방 각국 스마트시티 담당 정부 부처 및 공공기관이 참여하였다[218].

아세안 10개국 회원국은 최첨단 정보통신기술(ICT)이 풍부한 한국의 스마트시티 개발을 위해 국토교통부는 한국과 아세안 간 도시개발, 안전, 교통과 물관리 등 분야에서 추진된 스마트시티 협력성과를 공유하며 4가지 방안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여 사업을 확대하고자 한다. ① 2020년부터 'Korea Smart City Open Network' 구축사업, ② 1.5조원 규모의 '글로벌 플랜트·건설·스마트시티(PIS) 금융지원 펀드 조성 중 3천억 원 내외 아세안 스마트시티 개발사업 투자 계획, ③ 아세안 4개국 내외 스마트시티 글로벌 협력센터 설치, ④ 스마트시티에 특화된 초청연수 프로그램 개발 등이 있다. 이 회의의 개최로 인구집중, 수재해 등 각종 도시문제에 직면한 아세안 국가들이 한국과 범정부 차원에서 협력하여 한국형 스마트 시티 정책 및 기술 확대 및 아세안의 상생번영을 실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219].

위 유사사례에서 보완할 점 및 개선방안은 신남방 지역 문화의 이해증진 차원에서 스마트시티 플랫폼을 구축하는 사업을 활발하게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점이다. 기존의 스마트시티 구축사업은 도시 건설과 경제 지원 부분의 비중이 높은 편이다. 이에 지역문화 발전을 위한 신남방 지역 스마트시티 네트워크를 구축사업도 중요하기에 인식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지속가능한 도시 재생과 문화교류 간 접목을 통해 스마트시티 플랫폼 구축사업의 범위를 확장하는 방안을 모색해볼 필요가 있다.

이 사업의 추진가능 국가는 현재 한-아세안 10개국 스마트시티 협력국(캄보디아,

218) 구체적인 한-아세안 스마트시티 협력 추진현황 자료는 국토교통부 보도 자료에 있음 (국토교통부(2019.11.25.). "한·아세안 10개국, 스마트시티 협력 본궤도 올린다")

219) 이후 아세안 스마트시티 네트워크 협력사업, 아세안 국가 담당자가 참여한 부산 에코델타 스마트 시티 국가시범 도시 착공식 등 유사한 행사가 개최되기도 하였음

라오스, 베트남, 미얀마, 태국, 브루나이, 인도네시아,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필리핀)을 포함하며 인도도 이 사업에 포함할 수 있다.

다. 교류협력국 문화교육 정보화 인프라 구축 사업

이 사업의 목적은 신남방 지역을 대상으로 문화교육 정보화 인프라를 지원하고, 문화 교육 전문가 초청연수를 통해 신남방 지역 속 한국 문화교육 브랜드 가치제고 및 문화교육 기회 확대를 높이는 것이다. 또한 신남방 지역 간 문화교육 지식 격차를 해소하고 문화 교육화 관련 기업, 문화 교육기관 및 대학의 해외 진출 계기를 마련할 수 있다. 궁극적으로 신남방 지역 간 미래지향적 문화교육 산업기반 구축에 이바지하며 다자 간 문화교육 정보 교류를 강화할 수 있다.

이 사업과 유사한 기존 사례를 살펴보면, 경북교육청의 과테말라를 대상으로 교류협력국 교육정보화 지원사업이 있다[220]. 위 사업은 시도교육청 단위에서 공적개발 원조를 통해 개발도상국을 대상으로 교육 정보화 인프라를 지원하고 선도 교원을 초청한 연수사업으로[221], 이러닝의 세계화로 경북교육의 브랜드 가치를 높이고자 2006년부터 14년째 이러닝 인프라 구축용 컴퓨터 1960대를 지원했으며 교원 234명을 초청해 정보화 교육을 실시한 바 있다[222].

다른 유사사업 사례는 아세안사이버대학프로젝트(ASEAN Cyber University: ACU) 및 아세안 이러닝 역량 강화사업이 있다. 교육부와 한국학술교육정보원이 추진하는 아세안 사이버대학 프로젝트 사업은 2009년 6월 한·아세안 정상회의에서 아세안 사무총장이 아세안 국가 간 교육 및 인적교류 확대를 위해 사이버 대학 설립을 한국정부에 건의한 이후 한국 정부에서 추진해 온 사업이다[223]. 이는 한국의 이러닝 기술을 바탕으로 한국을 비롯한 아세안 10개국 학생들이 온라인으로 강의를 수강할 수 있는 프로젝트이며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통해 고등교육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224]. 특히 아세안 활성화 및 정보화 격차 해소를 위해 ICT 환경이 열악한 4개

220) 중앙아메리카에 위치한 과테말라는 마야문명의 중심지이며 한국정부는 1991년 과테말라에 무상원조사업을 처음 시작해 2019년도에 한국-과테말라 정부 간 무상원조에 관한 기본 협정을 체결한 바 있음
221) 프레시안(2019.9.2). "경북교육청, 과테말라 정보화지원활동 14년. 전진석 부교육감에게 듣는다"
222) 프레시안(2019.8.12.). "경북교육청, 14년째 과테말라 공화국 교류협력 정보화 지원 및 연수"
223) 채재은, 우명숙(2013). 『베트남의 교육분야 개발협력 방안: 직업교육훈련을 중심으로』. 정책연구 13-08. 대외경제정책연구원. 172

국, 즉 캄보디아, 라오스, 미얀마와 베트남 중심으로 우선적으로 운영하고 이후 10개국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아세안 교육 이행계획 2016~2020)'[225]에 따르면 ① 온라인 및 국경 간 이동을 통한 아세안 연구 진흥, ② 양질의 교육에 대한 접근성 향상을 위한 소프트웨어 개발 및 온라인 교육 설계 관련 개인·기관의 역량 확대, ③ IT 기술을 통한 디지털 학습 관련 접근성 및 활용법에 대한 역량 강화, ④ 21세기 기술에 대한 교사의 역량 강화를 우선순위로 두고 있다. '아세안+3(한중일) 교육 분야 행동계획 2018~2025'에서는 아세안대학 이러닝 지원사업이 고등교육 영역 주요사업으로 선정되어 있다. 2012~2019년 아세안 사이버 대학 네트워크 현황을 살펴보면 브루나이, 캄보디아, 인도네시아, 라오스, 말레이시아, 미얀마, 필리핀, 태국, 베트남에 ACU 회원대학이 있으며 이러닝 협력을 통한 고등교육 관련 연구협력 증진과 인적교류 확대 등의 성과를 평가한 바 있다[226].

위 사례와 같은 기존 사업은 개발대상국 및 아세안을 대상으로 교육 정보화 인프라 구축사업을 추진하고 있지만 문화교육 차원의 측면은 부족하다는 것이다. 특히나 4차산업 혁명과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이러닝과 온라인 교육협력은 한-아세안 핵심 제도적 협력 분야로 부상할 잠재력이 높다. 따라서 이에 발맞추어 제도적 시스템 확충에 필요한 문화교육 정보화 인프라 구축이 시급하다. 또 문화교류 프로그램 활성화, 문화정보 격차 해소 및 기회 확대를 위한 신남방 지역과 문화체육관광부, 문화교육 전문가와 문화교육 기관 등 정부와 민·관 간에 협력하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이 사업의 추진 가능 국가는 신남방 지역 11개국으로, 캄보디아, 라오스, 베트남, 미얀마, 태국, 브루나이, 인도네시아,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필리핀과 인도 등이 모두 해당된다.

---

224) 조선에듀(2019.8.28.). "고등교육 위기이자 기회...한-아세안 협력 강화해야"
225) ASEAN_Korea Centre 뉴스레터(http://newsletter.aseankorea.org/?p=5578)
226) ibid.

라. 정보통신기술(ICT)을 활용한 신남방 지역 문화기술 지원 협력

이 사업의 목적은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하여 지역 문화 기술 인프라를 확충하고 신남방 지역 간 문화기술 및 정보 격차를 줄이는 것, 국가 간 문화기술 지원을 도모하는 것, 국가 간 문화교류 협력을 확대하여 주민들의 문화적 향유 기회를 높이는 것이다. 또 신남방 지역 국가의 ICT 역량 강화뿐만 아니라 문화기술지원 협력을 통한 인적 네트워크 강화에도 기여할 수 있다. 이 사업의 추진 가능 국가는 신남방 지역 11개국 전체가 될 수 있다.

이 사업과 유사한 기존 사례는 한-아세안 ICT 스타트업 교류협력 사업이 있다. 이는 정부의 신남방정책 관련 아세안(동남아시아국가연합) 회원국과의 스타트업 교류 사업을 지원하기 위해 2018년 9월 10일에서 9월 14일까지 '한-아세안 ICT 스타트업 투자활성화 세미나'를 경기창조경제혁신센터(GCCEI) 및 한-아세안센터와 공동 개최한 것이다. 위 사업의 목적은 한-아세안 참가국 간 최신 투자동향과 비즈니스 환경에 대한 정보공유 및 상호교류 활성화에 기여하는데 있다[227]. 이 세미나의 참여 규모는 아세안 8개국(브루나이, 캄보디아,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필리핀, 싱가포르, 태국, 베트남), 아세안 참가국 투자진흥기관(IPAs) 정부관계자 및 아세안 스타트업 32개사 등이 포함되었다.

기존 사업에서 보완할 점 및 개선방안은 한-아세안 ICT 활용 교류협력 사업이 경제적인 측면에 주로 집중되어 있어 문화기술 지원 차원이 상대적으로 부재하다는 것이다. 신남방 지역의 문화교류 활성화 및 콘텐츠 개발 지원을 위해 지역 문화기술 인프라를 확충하고 제도적 기반을 마련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또 지역주민의 다양한 문화적 향유 기회 및 문화적 다양성을 증진하기 위해 ICT 기술을 보다 광범위하게 활용하는 것도 필요하다.

227) 경기창조경제혁신센터-2018 한-아세안 ICT 스타트업 교류협력 사업(https://ccei.creativekorea.or.kr/)

마. 신남방 지역 미술협력체제 구축 사업

이 사업은 신남방 지역 간 미술 관련 연구 및 담론을 구축하고 제도 및 인프라를 조성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신남방 지역 미술협력체제 구축사업의 목적은 신남방 지역 간 미술 분야 협력 활성화를 도모하여 문화예술 분야에서의 한-아세안 간의 국제교류 활성화 협력체계를 구축하는 데 있다. 신남방 지역 미술협력체제 구축사업의 추진 가능 국가는 신남방 지역 11개국 전체가 해당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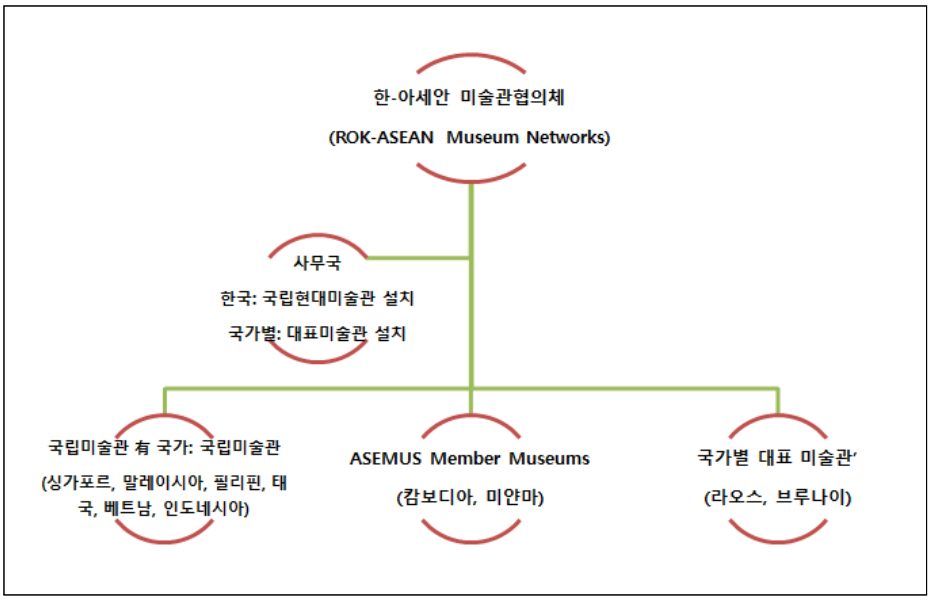
기존의 유사사례를 살펴보면 아세안문화원의 전시, 공연·행사, 영화, 교육학술체험, 인적교류와 같은 주요 사업 중 아세안 문화전시(상설전, 기획·협력전) 사업이 있다. 2019년도에 아세안 문화원이 추진한 전시 사업의 경우 ① 우리국민 외국인 참여 ACH ASEAN 사진·영상 공모전 및 우수작 기획전시 "공감하는 시선(ASEAN Gaze)," ② 한·아세안 대화관계 수립 30주년 기념 기획전시 "아세안공예: 전통의 진화", ③ 상설전시인 한·아세안 관계 및 아세안 국가별 문화소개 코너와 아세안 문화유산 VR 운영 등이 있다[228].

또 다른 유사사례는 국립아시아문화전당에서 추진하는 ACC(Asia Culture Center) 사업을 들 수 있다. ACC 미술관련 분야의 통합 레지던시 프로그램 〈ACC-R〉은 아시아를 기반으로 모든 문화·예술 장르의 창작자들과 함께 창작, 제작, 교류의 장을 펼칠 수 있는 '국제 레지던시 거버넌스 구축'을 목표로 둔다. 〈ACC_R〉 레지던시 사업은 총 3종(창제작, 연구, 기관협력) 10개 분야로 구성되어 'ACC_R 통합 레지던시'로 운영되고 있다[229]. 이 사업은 아시아 문화·예술의 다양성 증진을 위해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의 시설, 인력 및 다양한 네트워킹 프로그램 등을 지원하고 있다.

기존 사업의 보완 및 개선할 부분은 신남방지역 간 쌍방향 교류가 부재하고 문화·예술을 이해하는 데 한계를 보인다는 점이다. 따라서 다양한 문화예술 분야에 대해 양적인 교류협력 활성화와 더불어 질적 협력이 필요한 상황이다. 또한 일회성 및 단기적 목적에 의한 교류에 그치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지속적으로 추진될 수 있는 인프라 및 제도적 지원사업이 미흡한 상황이다.

228) 아세안문화원(https://www.ach.or.kr/ct/2/2/1)
229) 국립아시아문화전당-사업소개(https://www.acc.go.kr/info/contents.do?PID=020601)

[그림 5-3] (가칭) 한-아세안 미술관 협의체 구성(안)



김혜인의 연구에 따르면[230] 아시아 미술협력체계 구축방안으로 한-아세안 미술관협의체 운영 및 한-아세안미술교류센터를 추진하는 방안을 제안한 바 있다. 따라서 이 사업의 주요내용은 첫째, 신남방 지역 국가 간 미술교류 활성화를 위해 중심적이고 대표적인 미술협의체를 구성하여 플랫폼 역할을 수행하도록 하는 것이다. 현재, 아세안 국가 중 국립미술관 현황을 살펴보면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필리핀, 태국, 베트남, 인도네시아, 인도 등이 해당되며 라오스, 미얀마, 캄보디아와 브루나이는 국립미술관이 없는 상황이다. 따라서 국립미술관이 있는 국가를 중심으로 국립미술관협의체를 우선적으로 구성하고 국립미술관이 없는 국가는 해당 협의체 회원국으로 점진적으로 포함시킬 수 있다.

둘째, 신남방 지역 미술협력체제 구축사업의 또 다른 방안은 (가칭) 한·아세안 미술교류센터를 추진하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국립아시아문화전당 및 광주국제비엔날레 등 시각예술 분야 국제교류 기반이 조성된 국립아시아문화전당 내에 '한·아세안 미술교류센터'설치를 제안한다. 한·아세안 미술교류센터의 주요 사업은 ① 한·아세안 미술계 조사 & 아카이빙 사업, ② 한·아세안 아티스트 발굴 및 지원사업, ③ 한·

230) 김혜인(2020). "아시아 미술협력체계 구축방안". 「KCTI 정책리포트」. 한국문화관광연구원

아세안 디지털 프로젝트 공동개발 사업, ④ 전시/프로그램 공동기획 사업, ⑤ 국제 심포지엄 및 컨퍼런스 사업 등을 들 수 있다[231].

6. ODA 사업 활성화: 국제문화교류 차원의 상생적 개발원조 사업

가. 문화유산 보호·활용 및 인재 양성 ODA 추진

문화유산 보호·활용 및 인재 양성 ODA 추진사업의 목적은 문화유산 보호·활용 및 전문인력 양성을 통한 신남방 지역 문화권과의 문화다양성 증진, 문화유산 가치 제고 및 문화유산 보존 기반을 확충하는데 있다. 이를 위해 무형문화유산 보호 및 개발에 국제원조가 필요한 신남방 국가를 대상으로 국내외 문화 ODA 사업을 효과적으로 연계하는 문화교류 협력이 요구된다. 특히 문화유산 보호·활용 및 인재양성 측면의 ODA활동에 대한 관심제고와, 공여국 확대를 위한 OECD 개발원조위원회 등과의 긴밀한 협력체계 구축이 절실한 상황이다. 해당 사업의 기대효과는 문화재 분야에 한정되어 있는 문화유산 ODA의 범위를 확장하여 문화교류사업의 효과성을 높일 수 있다.

문화유산 보호·활용 및 인재양성 ODA 추진사업과 유사한 사례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추진하고 있는 '문화예술 나눔으로 발전하는 ODA 강화사업'이 있다. 해당사업은 타 문화권과 지속가능한 교류협력 제고와 문화 ODA를 통한 문화다양성 강화 및 국제사회 기여 확대를 목표로[232] 2012년 문화체육관광부-유네스코 한국위원회와 공동주최 아래 국내외 '문화와 발전' 논의 활성화 및 성공사례 발굴 및 국제회의

231) *ibid.*

232) 해당 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음
① 유엔, 유네스코 등 국제기구를 활용한 한국의 다자간 문화예술 ODA 전략 수립을 위한 '문화와 발전' 논의
② 문화예술 인프라 구축 및 인력양성 등 무상 원조 강화
③ 유네스코, WIPO 등 국제기구를 통한 원조 강화
④ 아프리카 지역 10개 저개발 국가 대상으로 관광개발을 통한 광광수입 창출을 지원하기 위한 개도국 관광발전 지원사업 실시
⑤ 국제경기대회 성공개최 경험을 콘텐츠화하고 성공개최 경험을 모델·프로그램으로 개발하여 공적개발원조의 일환으로 대회유치 및 개최경험 공유
⑥ 드림프로그램을 확대하여 종목체험은 물론 선수 및 코치 양성까지 가능한 동계 스포츠 아카데미로 발전 등(문화체육관광부-ODA강화사업
(https://www.mcst.go.kr/usr/kwave/plan/modern/strategy10.jsp))

를 유치하는 것이다. 특히 국제기구를 활용한 논의를 살펴보면 아시아 등 타 문화권과의 지속가능한 문화 교류·협력모델 발굴, 문화유산의 보존 및 발굴, 콘텐츠산업 협력 및 저작권 교육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기존 사업에서 보완할 점 및 개선방안은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지속가능성을 지닌 사업을 추진하도록 해야 한다는 점이다. 이들은 단위사업을 제안하는 차원이거나 이미 사업 진행이 과거형에 머물러 있다. 따라서 각 국가의 정보화 기술 확산과 문화유산 및 IT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 ODA를 적극 활용할 수 있다. 또 신남방 지역 무형유산 보호 및 관련 인재 양성을 위한 ODA사업으로 연계할 수 있도록 해당 기관과의 협력 체계와 문화다양성 인프라를 구축해야 한다.

문화유산 보호·활용 및 인재 양성 ODA 추진 사업이 가능한 국가는 신남방 지역 9개국으로 캄보디아, 라오스, 베트남, 미얀마, 태국,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필리핀과 인도 등이 해당할 수 있다. 참고로 아세안 내 한국의 ODA 중점 협력국은 캄보디아, 인도네시아, 라오스, 미얀마, 필리핀, 베트남 등 6개국이며 한국의 비중점협력국은 말레이시아와, 태국이고, ODA 지원 불가능한 국가는 브루나이, 싱가포르가 해당된다.[233]

나. 농촌마을 정보화 ODA 사업

농촌마을 정보화 ODA 사업의 목적은 신남방 지역의 열악한 농촌마을을 대상으로 정보화를 지원해 도시-비도시와 신남방 지역 간, 소득수준, 교육, 성별 등 소외된 계층 간 정보 격차 해소를 도모하여 지속가능한 문화교류 기회 증진 및 국제사회의 문화다양성을 제고하는 데 있다. 소외 지역인 농촌, 어촌과 산촌에 인터넷 이용 환경 조성 및 전자거래와 정보콘텐츠를 구축하여 지역주민의 정보공유에 대한 접근성 및 문화교류 활성화를 제고할 수 있다. 또한 신남방 지역에 한국형 정보화 인프라를 수출하여 정보화 산업을 통한 경제 활성화, 지역주민의 정보 생활화를 토대로 문화 지식격차를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농촌마을 정보화 ODA 사업을 통해 신남방 지역의 일자리 창출 및 문화 활성화에도 이바지할 수 있을 것이다.

---

233) 유애라(2019). "ASEAN 의 ODA 중점협력국에 대한 지원 현황과 특징". 「KIEP 기초자료」. Vol. 19(08).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농촌마을 정보화 ODA 사업의 기존 유사사례를 살펴보면 한국국제협력단(KOICA)에서 추진하는 라오스와 네팔의 농업분야 ODA사업[234], 농촌진흥청의 2017년~2021년 간 라오스 해외농업기술개발사업(KOPIA)을 무상으로 투자하는 계획(총 사업 예산 25억 원, 19년 예산, 5.23억 원)을 들 수 있다.[235]

KOICA에서도 2014년~2020년까지 라오스 농촌공동체 개발사업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으며 총 사업예산은 162.66억 원, 2019년 예산은 20.11억 원으로 무상지원 계획을 하고 있다. 또 미얀마 ICT를 활용한 개발 소외지역의 농촌개발 사업을 2020년~2025년까지 추진할 계획에 있다[236]. 네팔의 경우 2015년-2019년까지 행정안전부의 맞춤형 새마을운동 지원사업(ODA)이 있으며 네팔 새마을 운동 시범마을 조성 및 관리를 추진하고 있다. 총 예산은 1.44억 원이며 2019년에는 1천7백만 원 규모의 투자계획을 마련하였다.[237]

기존 사업의 보완 및 개선사항은 2001년부터 시작된 행정안전부의 정보화마을 사업과 새마을운동 사업의 경우 예산이 많이 투입되고 한국에 치중되는 경향이 있어 신남방 지역으로 확대해 나갈 필요성이 있다는 것이다. 비록 아세안 국가들과의 ICT 정보화 해외교류 프로그램이 있지만 신남방 지역 농촌마을을 대상으로 정보화를 지원하는 사업보다 주로 아세안 지역의 해외연수공무원들이 한국을 방문하여 정보화 마을을 체험하는 프로그램으로 구성되어 있는 실정이다. 또한 개발도상국이나 아세안 국가의 농업분야 ODA사업은 KOICA(한국국제협력단)에서 추진하는 사업 중 라오스와 농진청의 전문가 교류 및 농업기술 공동연구개발을 통한 말레이시아 지원사업 등 일부 신남방 지역에 제한되어 있다.

이러한 한계점을 보완하기 위해 신남방 지역의 농촌마을 정보화를 구축하고 보다 더 많은 지역 주민들이 혜택을 얻을 수 있도록 다채로운 ODA 지원책이 마련되기를 제안한다. 농촌마을 정보화 ODA 추진사업이 가능한 국가는 신남방 지역 8개국으로, 농촌지역을 중심으로 최빈국인 캄보디아, 라오스, 미얀마를 비롯하여, 중소득국

234) 대한민국 ODA 통합홈페이지(http://www.odakorea.go.kr/oz.main.OdaMain.do)
235) 대한민국 ODA 통합홈페이지-2019년 부처별 라오스 지원계획
(http://www.odakorea.go.kr/oz.main.OdaMain.do)
236) ODA 정보포털
(http://www.oda.go.kr/opo/bsin/bsnsInfoCntntsDetail.do?P_BSNS_NO=2020-00031)
237) 대한민국 ODA 통합홈페이지-2019년 부처별 네팔 지원계획
(http://www.odakorea.go.kr/oz.main.OdaMain.do)

인 베트남, 태국,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필리핀 등이 해당될 수 있다.

다. 취약계층의 문화교육 ODA 사업

취약계층의 문화교육 ODA 사업의 목표는 신남방 지역의 취약계층들을 대상으로 양질의 문화교육을 제공하고, UN의 지속가능개발목표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SDGs) 중 4번째 목표로 제시된 '모두를 위한 포용적이고 평등한 양질의 교육 보장 및 평생학습 기회증진'을 도모하는데 있다. 여기서 취약계층 범주는 장애인, 토착민, 취약한 상황에 처한 아동·여성·노인과 저소득층 등 취약계층의 문화교육권 실현을 목표로 한다. 또한, 취약계층의 문화교육을 통해 문화예술 전문 분야로 진학할 수 있는 교육 기회를 확대할 수 있다.

취약계층의 문화교육 ODA 사업의 기대효과는 경제적 지원에 치중했던 기존의 ODA 사업과 달리 문화교육 지원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문화교육으로부터 누구나 평등하게 기회를 제공받을 수 있으며, 소외된 취약계층의 타 문화 이해 증진 및 문화 다양성 제고를 기대할 수 있다.

취약계층의 문화교육 ODA 사업과 유사한 기존 사업 사례를 살펴보면,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의 문화예술교육 ODA 사업을 들 수 있다.[238] 해당 사업의 목적은 개발도상국을 대상으로 예술적 성취를 얻을 수 있는 문화예술교육을 통해 지역의 교육 및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는데 있다. 또한 수혜국 정부관계자 및 교육매개자를 대상으로 문화예술교육의 가치를 전파하고 현지에서 지속가능한 문화예술교육의 추진체계를 마련하는데 도모하고자 한다.[239] 지원대상은 현지교사, 문화예술교육 분야 전문가, 지방정부 관계자, 소외지역 아동·청소년과 지역주민 등이 해당된다. 해당 사업의 지원 분야는 미디어아트, 연극, 공예 등이며, 사업기간은 2020년 2월부터 12월까지이다. 구체적인 사업추진체계는 다음과 같다.[240] ① 수원국 협의 및 사업승인, ② 파견 예술단체(예술가) 및 현지 사업운영단체 선발, ③ 현지 교육실행 및 사업관리 등이 해당한다.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은 베트남 라오까이성-KOICA

238)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문화예술교육 ODA
(https://www.arte.or.kr/business/international/oda/intro/index.do)
239) *ibid.*
240) *ibid.*

베트남사무소 MOU 체결을 통한 2013~2017년 5개년 문화예술교육 사업 운영을 추진한 바 있다. 또한 2018~2019년 인도네시아 사업 국가 확대 추진 및 베트남 KOICA 설립 기숙사 학교 학생·교사 대상 문화예술 교육 확대를 실행한 바 있다.

최근에, 문화체육관광부가 주최하고,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이 주관하는 '문화예술교육 ODA' 사업 교육 결과 전시회 '디지털 시대의 문화예술교육'을 2018년 11월 24일과 25일 동안 베트남 한국문화원에서 개최한 바 있다.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은 2013년~2017년 동안 베트남 북부에 위치한 소수민족 거주 지역인 '라오까이'(Lao Cai)에 아동·청소년과 현지 교사를 대상으로 문화예술교육 ODA 사업을 펼친 바 있다. 해당 사업의 성과는 사진, 시각미술, 무용, 연극 등 교육 프로그램을 지원하여, 청소년들의 독서활동 장려 및 디지털 리터러시 제고에 기여해왔다.[241]

또 다른 사례는 한국국제협력단(KOICA)과 국제교육개발협력분야의 시민사회 기관들이 SDGs 교육 목표수립방향을 고려하고 KOICA 교육전략(2016-2020) 수립에 기여하고자 '기초 및 취약계층 교육지원을 위한 공동제안서'를 개발해 왔다. 이는 최초의 교육 분야 민관 공동제안서로서 한국 교육 분야 ODA의 목표와 가치에 대한 기초 및 취약계층 교육지원을 위한 세부전략과 이행전략을 제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큰 의의를 지니고 있다.[242] 해당 사업의 목표는 2030년까지 모든 아동과 청소년들에게 평등하고 통합적인 양질의 기초교육을 제공하는데 있다. 이러한 목표를 실현하고자 하는 3대 핵심 가치는 형평성, 양질의 교육과 포용성이다. 이 외에도 2013년도에 추진했던 문화체육관광부와 KOICA에서 추진해온 문화 분야 ODA의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들이 있으며 공여국과 수원국의 동반자적 발전 목적을 바탕으로 이루어졌다.[243]

기존 사업의 보완할 점 및 개선사항을 보면, 문화예술교육 ODA 사업의 경우,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지원하는 프로그램의 전문성과 지속가능한 집중 투자가 부족한 실정이다. 이러한 사업은 일방적으로 한국 문화예술교육 방식과 한류 문화를 전수하고 전파하는 차원을 넘어 현지 주민들의 문화와 정서를 존중하면서 쌍방향적·다

241) 에듀동아(2018.11.22.).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문화예술교육 ODA' 사업 교육 결과 전시회 24~25일 개최"

242) 한국국제협력단-시민사회 공동제안서 TF(2016). "2016~2020,년 기초 및 취약계층 교육지원 공동제안서," https://www.worldvision.or.kr/

243) 백소연, 박경철(2016). 문화분야 ODA 의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현황 연구: 문화체육관광부와 KOICA 중심으로.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16(2). 57-67

자간 방식의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는데 노력할 필요성이 있다. 무엇보다도 신남방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취약계층의 입장을 잘 이해하고 공감할 수 있는 문화예술교육 전문가 양성이 필요하기 때문에 현지 문화를 잘 이해하고 있는 문화예술교육 전문가 간 교류를 증진하는 방안을 모색하기를 제안한다.

취약계층의 문화교육 ODA 추진 사업이 가능한 국가는 신남방 지역 8개국으로, 캄보디아, 라오스, 베트남, 미얀마, 태국,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필리핀 등이 해당될 수 있다.

라. 지역관광자원 개발 및 활용 ODA 사업

지역관광자원 개발 및 활용 ODA사업의 목표는 신남방 지역의 다양한 관광자원을 활성화하고 콘텐츠 개발 및 활용을 극대화해 신남방 지역 간 관광교류 상호협력을 증진시키고자 하는 데 있다. 또한 관광콘텐츠의 다양성을 제고하고 지역주민 뿐 아니라 관광객이 지역 관광자원을 다양하게 향유할 수 있는 고부가가치를 증대시켜 주민들의 삶의 질을 제고할 수 있다. 신남방 지역 간 국제관광교류를 확대하여 지역관광 문화를 적극 육성하고 국내외 관광객 증대로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한다. 무엇보다 신남방 지역 간 문화관광 교류를 통한 협력을 확대하여 지역문화자원을 지속적으로 활용해 국제 문화교류의 시너지 효과를 창출할 수 있을 것이다.

지역관광자원 개발 및 활용 ODA사업의 기존 사례는 한국국제협력단(KOICA)에서 실시한 관광분야 ODA사업이며 관광계획 컨설팅, 지역주민 관광역량 개발 및 프로그램 지원 등으로 기술협력에 중점을 두고 아시아, 아프리카와 중남미 지역을 대상으로 한다[244]. 2019년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문화관광연구원이 공동 주최하였으며 광주 국립아시아문화전당에서 개최된 '2019 한-아세안 문화관광포럼'에서는 한국과 아세안 국가 간 관광 교류를 확대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논의한 바 있다. 이 포럼은 아세안 지역의 풍부한 문화자원을 활용해 한·아세안 상호 관광교류를 확대하고 관광산업의 발전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었다. 티다르 아에 미얀마 호텔관광부 관광홍보 과장은 "동남아시아는 유네스코에 등재된 세계문화유산이 40곳에 달할 정도로 풍부한 문화자원을 보유하고 있다"며 "문화와 유산은 책임감 있게 관리

244) 신용석(2014). "관광분야 ODA 확대방안". 「KCTI 정책리포트」. 한국문화관광연구원

한다면 지속가능한 관광자원이 될 수 있다고"고 강조했다[245]. 또 다른 사례는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가 추진한 관광 노하우 나눔 프로젝트 사업인데[246] 이 사업은 저개발국가인 26개국을 대상으로 여행 및 관광 노하우 전수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기존 한류콘텐츠의 교류 및 문화예술교육을 위한 콘텐츠 교류 지원은 활발한 편이지만 구체적인 지역관광자원 개발 및 활용을 위한 ODA 사업 진은 미흡한 상황이다. 우리나라는 여전히 다른 선진국과 달리 ODA 분야에서 관광 콘텐츠 활용 분야가 차지하는 비중이 낮아 이를 개선하는 방안으로 지역관광자원 개발 및 활용 ODA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것을 제안한다.

지역관광자원 개발 및 활용 ODA 추진사업이 가능한 국가는 신남방 지역 8개국으로 캄보디아, 라오스, 베트남, 미얀마, 태국,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필리핀 등이 해당된다.

마. 문화유산 디지털 DB 구축 사업

문화유산 디지털 DB 구축 사업의 목표는 신남방 지역 문화유산에 대한 이해 증진 및 인식 제고와, 4차혁명 시대에 대응해 소외 계층 없이 누구나 정보 및 지식을 공유할 수 있는 문화유산 정보를 접근할 수 있도록 하여 문화유산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는데 목적이 있다. 또 신남방 지역 문화유산과 관련한 다양한 분야의 자료를 공유함으로써 콘텐츠 활용가치가 극대화되고 문화적 브랜드 및 국가 브랜드 가치의 시너지 효과를 창출할 수 있다.

그리고 유네스코 연계 기관들과 협력하여 무형문화유산 발굴·전승·발전을 도모하고 유네스코 등재지원을 위한 신남방 지역 ODA 문화자원 지원사업을 구축할 수 있다는 점이다. 국내에서 시행되고 있는 기존 ODA 사업 중 신남방 지역 대상 문화 ODA 사업과의 협력체계 구축도 병행할 수 있다.

이 사업과 유사한 기존 사례를 살펴보면 문화재청은 국내에 분포하고 있는 문화유산의 원형 보존 및 복원을 위한 3D DB 구축 및 융·복합 디지털 콘텐츠 활용기반

245) 한국경제(2019.10.23.). "문화·관광 교류협력으로 한·아세안 공동체 박차"
246) 매일경제(2014.9.28.). "[관광 ODA] 관광 노하우 나눔 프로젝트 펼친다"

을 조성하기 위해 2018년도 문화유산 3D DB 구축사업을 추진한 바 있다[247]. 2007년도에 문화재청과 유네스코한국위원회, 한국과학기술원(KAIST) 문화기술대학원은 저개발국 문화유산 보존협력사업(ODA) 일환으로 베트남 중부의 고도 후에시에 자리잡은 후에 황성을 디지털 기술로 활용하여 3D로 복원하여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인 '후에 황성 디지털화 사업'을 펼친 바 있다[248].

또 다른 사례는 아세안 사무국(ASEAN Secretariat)이 주관하는 아츠다(ACHDA, ASEAN Cultural Heritage Digital Archive) 프로젝트가 있다[249]. 이 사업은 아세안 국가의 문화유산을 보존하고 디지털화하여 보관하는 사업이며 일본 정부의 투자로 2006년 설립된 '일본-아세안 통합 펀드'의 재정지원을 받았다[250]. 일본-아세안 인터그레이션 펀드(JAIF Management Team)를 통해 일본 정부가 후원하고 일본의 NTT 데이터 코퍼레이션(NTT DATA Corporation, 이하 NTT)이 프로젝트를 담당하고 있다. 2018년부터 시작된 1단계 프로젝트가 완료되어 인도네시아, 태국, 말레이시아의 문화유산 160점이 디지털아카이브로 구축되어 온라인으로 이를 접할 수 있다[251]. 2020년부터 시작하여 2단계는 베트남, 캄보디아, 미얀마, 라오스의 문화유산을 대상으로 디지털 아카이브를 진행해왔다.

기존 사업의 보완 및 개선사항은 문화유산 디지털 DB 구축사업을 문화유산 디지털DB 구축 인프라가 열악한 신남방 국가에 집중 지원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 정부와 공공·민간기관은 아태무형문화유산센터의 아태무형문화유산 정보공유플랫폼을 구축하는 사업과 협력하여 문화유산 디지털 DB 구축사업을 활발하게 추진할 것을 제안한다. 일본-아세안이 추진하고 있는 아츠다(아세안 문화유산 디지털 아카이브) 프로젝트와 공동 협력하는 방안도 모색하여 아세안과 아시아뿐만 아니라 국제 문화교류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다.

문화유산 디지털 DB 구축사업이 가능한 국가는 신남방 지역 9개국으로 캄보디아, 라오스, 베트남, 미얀마, 태국,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필리핀, 인도 등이 이에 해당한다.

---

247) (사)한국3D프린팅협회(http://www.k3dprinting.or.kr/)
248) 통합무역정보서비스-디지털 문화유산 커버스토리(2016)(http://tradenavi.or.kr/)
249) 아세안 문화유산 디지털 아카이브(https://heritage.asean.org/)
250) 아세안익스프레스(2020.3.2.). "와 '디지털 아카이브'다! 온라인으로 '아세안' 문화유산 만난다", 아시아아츠(2020.2.28.)."아세안 문화유산 디지털 아카이브 시스템 온라인 공개"
251) 아세안익스프레스(2020.3.2.). "와 '디지털 아카이브'다! 온라인으로 '아세안' 문화유산 만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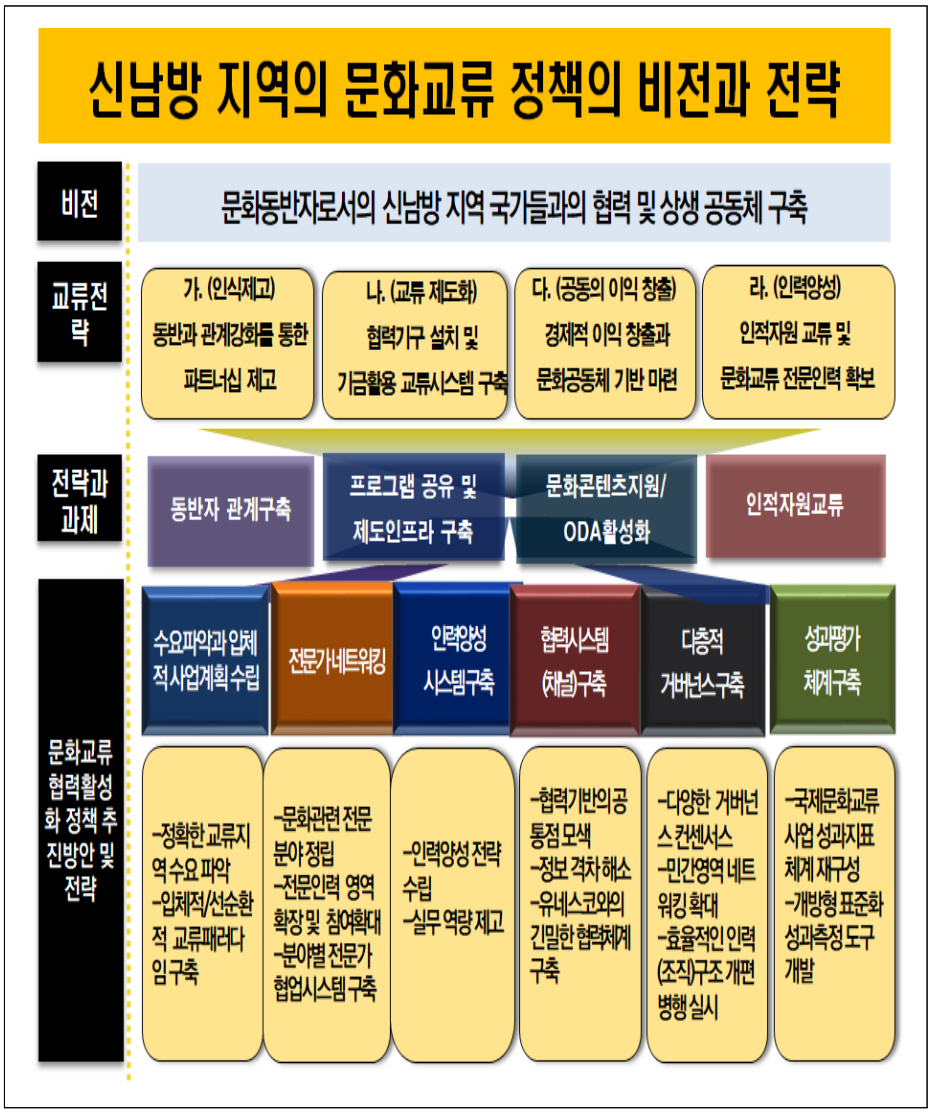
〈표 5-6〉 추진사업 리스트 및 수요조사 반영 우선순위

	과제	추진사업		우선순위
I	동반자 관계 및 파트너십 강화	1	신남방 개별 국가와의 문화교류 MOU 체결	5
		2	국내 문화다양성 보호 증진 사업을 통한 신남방 인식제고	2
		3	문화예술분야 민관 기관 간 교류네트워크 구축	3
		4	신남방 국가간 문화 콘텐츠 제작 협력 사업	4
		5	국가 간 문화주간 행사개최 지원	6
		6	신남방 문화연구 네트워크 구축사업	1
II	문화 콘텐츠 및 자원교류	1	한국어학과 개설 지원 등 한국어 교육 활성화 사업	4
		2	신남방 지역 언어교육 지원 사업	1
		3	콘텐츠 유통 플랫폼 개발 사업	4
		4	방송영상콘텐츠 국제공동제작	4
		5	신남방 지역 유·무형 문화유산 보존 지원 사업	2
		6	관광콘텐츠 개발 및 활성화를 위한 문화자원 발굴 사업	3
III	인적자원 교류	1	분야별 전문가 교류사업(초청연수 및 국내 전문가 파견)	1
		2	청년예술가 창작 교류 지원 사업	4
		3	청년·청소년 문화교류 네트워크 구축	1
		4	전통음악 커뮤니티 구축 및 활성화	5
		5	스포츠 교류활동 지원사업	5
		6	정보통신기술(ICT) 기반 문화유산 보존·활용 역량 공유 사업	3
IV	프로그램 공유 및 교류	1	예술계 장학 프로그램 교류 사업	4
		2	아시아전통오케스트라 공연 프로그램 교류 사업	6
		3	한-아세안 국립박물관 전시프로그램 교류 사업 확대	2
		4	한-아세안 국립 문화기관 콘텐츠 및 프로그램 교류 협력 활성화 사업	1
		5	아시아 국가문화유산 포털 구축	3
		6	신남방 지역 관광 활성화 국제포럼 개최	5
V	제도 및 인프라 구축 협력	1	신남방 지역 공공(작은)도서관 문화 조성사업	4
		2	신남방 지역 문화의 이해증진을 위한 스마트시티 플랫폼 구축	3
		3	교류 협력국 문화 교육 정보화 인프라 구축 사업	2
		4	정보통신기술(ICT)을 활용한 신남방 지역 문화 기술 지원 협력	1
VI	ODA 사업 활성화	1	문화유산 보호·활용 및 인재 양성 ODA 추진	1
		2	농촌마을 정보화 ODA 사업	5
		3	취약계층의 문화교육 ODA 사업	4
		4	지역관광자원 개발 및 활용 ODA 사업	3
		5	문화유산 디지털 DB구축 사업	2

제6장

신남방 지역 간 문화교류 및 협력활성화 정책과제 추진 방안

[그림 6-1] 신남방지역 문화교류 정책 비전과 전략 및 추진방안 종합 개요도



제1절 문화교류 수요파악과 입체적인 사업계획 수립

1. 정확한 교류지역 수요 파악

대외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해당 지역민의 실질적인 수요파악이 우선되어야 할 것이다. 신남방 정책의 방향과 내용, 전략은 아세안국가와 인도 등 해당지역이 실제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또는 실제로 그들은 우리와 적극적인 교류를 원하는지, 그들이 지향하는 바와 우리가 지향하는 바의 차이점은 무엇인지, 그리고 그러한 차이점은 어떻게 극복하여 교류를 성공적으로 이끌어낼 수 있는지에 대한 사전 분석이 필수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현재는 이 모든 과정이 동시다발적으로 한꺼번에 추진되어 정책효과성이나 효율성에 대한 확신 없는 임시방편적 정책이 남발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회의적이다.

한편 신남방 지역 연구예산을 대폭 확충해 학술연구는 물론이고 다양한 정책영역에 대한 현지기반형 연구가 수행되어 그 결과물이 정책에 구체적으로 활용되어야 한다. 현재 ODA 사업 등에서 부분적으로 수행되고 있는 문화재 현황의 연구범위를 넘어서 신남방 국가의 사회문화적 맥락을 이해할 수 있는 기초연구가 탄탄히 쌓여 있어야 다양한 정책의 효과성이 높아질 수 있다. 이것은 교류하고자 하는 세부지역과 국가의 사회문화적 수요를 정확하게 파악하는 작업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이다.

2. 일방적/일회적 접근에서 입체적/선순환적 접근으로 교류 패러다임 변화

신남방 정책은 기존 상대적으로 소외되어 왔던 지역에 대한 국가적 관심이 본격적으로 대두된 것뿐 아니라, 신남방 지역을 이윤창출의 수단이나 대상국가가 아닌 상생하는 협력국가(지역)로 간주하기 시작하는 교류의 위상 변화를 반영하는 것이다. 즉 저렴한 인건비 대비 상대적으로 우수한 노동력을 활용하여 우리나라의 기업 생산비 절감 지역으로 간주하면서 경제적 이윤을 얻어내는 전략적인 지역으로 활용되던 지역에서 서로 상생하는 지역으로 지역을 이해하는 인식 패러다임의 변화가 일어나 이를 적극적인 공동발전의 모멘텀으로 활용하고자 하는 의지가 구현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신남방 지역 국가와의 문화교류는 일회성 교류사업이 아니라 지속가능한 관계형성과 신남방 지역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정책이 추진되어야 한다. 지금까지 간헐적으로 추진해 온 정부 간, 지방자치단체 간 다양한 추진사업의 현황을 종합적으로 조사, 검토, 정리할 필요가 있다. 단지 문화적 호기심을 가지고 관광객을 유치하는 정도로는 다양한 시행착오를 거듭할 수밖에 없다.

또 기존의 일방적/단선적 교류 추진방안을 지양하고 입체적/선순환 계획수립 원칙을 정립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문화교류 사업의 일차적 수행 완료 후 향후 신남방 국가 내에서 영향력 모니터링, 문제점 분석, 개선방안 제시, 경쟁력 확보 정도 등에 대한 지속적 사업효과 피드백 과정까지 최초 계획안에 포함되도록 해야 한다. 또한 국제문화교류사업의 구상단계와 수요조사, 모집 단계에서 교류의 지속가능성을 담보할 수 있는 조건과 목적을 분명히 명시할 필요가 있다. 교류국이 문화교류를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우호적인 영향력이 파급될 수 있는 상황으로 준비되었는지에 대한 검토 항목을 반드시 포함해야 할 것이다.

제2절 전문가 네트워킹

1. 문화관련 전문분야 정립 및 전문인력 관리

본 정책패러다임의 성패여부는 경제교류 일변도의 정책방향에서 문화예술, 문화산업, 관광, 스포츠 등 다각적인 분야로 정책방향의 질적인 변화가 적극적으로 유도될 때 가능하다. 그런데 현재 사회문화 관련 부분은 정치, 경제 분야와 동일한 수준에서 접근하거나 부수적인 수단으로 간주해도 무방한 것으로 고려되고 있다. 문화가 정치나 경제의 하위분야로 다루어져서는 실효성을 거두기 어려울뿐더러 자칫 경제교류 등의 효과를 반감시킬 수 있다.

사회문화 분야는 그 세부과제가 추진되는 지역적 환경이 신남방 지역이라는 하나의 이름으로 통칭될 수 없을 정도로 각 국가와 지역의 역사와 문화, 전통과 관습, 종교 등이 표현되는 양상이 상당히 달라 질적인 차원에서 섬세한 접근이 필요한 부분이다. 따라서 국제적 문화교류를 다각적이고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문화관련 전문분야 정립이 필요하며 분야별 주요 행위자 맞춤형 인력관리가 체계적으로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문화인력에 대한 직업적 분류가 아직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상태이므로 문화자원의 가치 확산을 위해 필요한 인력 구조를 정립하고 해당분야별 맞춤형 역량 강화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전략수립이 필요하다. 효과적인 전문인력 관리를 위하여 ①국제문화교류 실현자 및 기능 보유자, ②관련사업 기획·운영 인력, ③교육 전문인력, ④연구 전문인력, ⑤아카비스트 등으로 구분하여 각 국가의 상황과 전문인력 특성 등을 고려하고 단계별·분야별로 세분화한 교육과정이 필요하다. 무형유산의 예만 보아도 다음의 〈표 6-1〉과 같이 여러 세분화된 단계에서의 역량 강화프로그램 구성이 필요한 것을 알 수 있다.

〈표 6-1〉 무형유산 전문 인력 및 역량 강화 프로그램 예시

전문 인력 유형 예시	교육 예시
① 국제문화교류 실현자 및 기능 보유자	이수자·전수자 역량 강화 전시·공연 콘텐츠 개발 국내·외 국제문화교류 기능 보유자 교류
② 관련 사업 기획·운영 인력	국제문화교류 활용 공연·전시 기획자 역량 강화 국제문화교류 관리자 과정 국제문화교류 홍보 전문가 역량 강화 국제문화교류 관련 국제교류 전문가 역량 강화
③ 교육 전문 인력	국제문화교류 가치 확산을 위한 교육자 역량 강화 교육콘텐츠 개발 교육 어린이·노인 대상 전문 교육 인력 양성 교육
④ 연구 전문 인력	무형유산 보존 및 활용 방안 모색을 위한 연구 교육 전통공예 기술 복원을 위한 연구 교육 국제문화교류-지역 문화 연계를 위한 연구 교육
⑤ 아카비스트	국제문화교류 기록화 과정 관리 체계 구축을 위한 교육 아카이빙을 위한 IT기술 전수 교육

출처: 국립무형유산원(2016).『국립무형유산원 무형유산 교육 중장기 기본계획 수립 연구』(연구책임: 백제예술대학교 산학협력단), 문화재청(2017).『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 기본계획, 한국교육개발원(2011).『전통문화 전문인력 특성화 방안 연구』(연구책임: 변종임). 연구자 재구성

〈표 6-2〉 전문 인력 역량 강화 프로그램 예시 - 국립아시아문화전당

프로그램 명	프로그램 내용
디지털 아키비스트	문화유산의 디지털 기록 수집 및 활용을 주제로 진행되는 강연으로 기록관리 재직자 및 관련 전공자, ACC 전문인력 수료생 대상의 교육 프로그램
도슨트	박물관, 미술관 등 현장에서 다양한 문화예술, 전시 콘텐츠를 관람객에게 전하는 도슨트 대상의 교육프로그램
문화교육가	예술가로서의 전문성뿐 아니라 교육자로서의 역량과 자질을 통해 문화예술교육을 현장에서 실행하는 문화교육가 대상의 교육프로그램
융복합 문화 기획자	다원화, 탈장르 등의 키워드가 중심인 동시대 문화예술 현장에서 다양한 콘텐츠를 발굴, 기획하는 융복합 문화기획자의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한 교육프로그램
어린이 문화콘텐츠 기획자	ACC 어린이문화원 소리와 음악을 기반으로 창의적 놀이와 문화예술을 활용한 어린이문화콘텐츠를 기획할 수 있는 교육프로그램으로 관련분야에 대한 이론수업 및 사례연구 등 어린이문화콘텐츠 분야에 종사하는 기획자의 전문성을 높일 수 있는 기회 제공
전시 테크니션	확장된 현대미술 분야에서 전시테크니션의 세분화된 특성을 공유하고, 전문성을 강화하는 교육프로그램
사운드 엔지니어	음향 산업의 각 분야별 전문가를 모시고 사운드 엔지니어 실무역량 강화를 위한 음향 기술의 전문적 지식을 공유하는 교육 프로그램

출처: 국립아시아문화전당 - 2019 ACC 전문인력 아카데미 전문가 역량강화과정
(https://www.acc.go.kr/main/contents.do?PID=040402)

2. 관련영역 확장 및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 참여 확대

기존의 국제문화교류 관련 인력풀이 담당하던 영역을 확대하여 협력국의 지속가능한 발전방안을 수립할 수 있는 분야로 전문가풀 및 전문분야/영역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단순한 지역발전, 지역개발 차원을 넘어서 지역문화와 예술, 지역의 문화정체성, 지역민의 성향과 역사의식, 심리적 특성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를 확보하고 구체적인 협업시스템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

국제문화교류가 다각적이고 효과적으로 추진되기 위해서는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 참여 확대가 필요하다. 문화분야는 다양한 분야와 융합이 가능하고 이에 따른 부가가치의 상승이 크게 나타난다. 국제문화교류에 있어 다분야와 양질의 융합이 진행되기 위해서는 기술, IT, 사회, 경제, 교육, 스포츠, 지역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를 적극적으로 참여시켜야 할 것이다. 또한 청년층의 유연하고 참신한 아이디어가 적극 발휘될 수 있도록 젊은 인력들의 전폭적인 참여 기회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 최근 융합과학의 등장에 따른 새로운 학문 및 참신한 연구 분야의 젊은 청년층을 유입하고 새로운 영역에 도전하는 다양한 분야 전문가들을 문화교류 사업에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

3. 분야별 전문가 협업시스템 구축

국제협력사업 추진을 위해서는 다양한 분야의 정책전문가 협의체 구성 및 연구/사업성과물 공유가 필요하다. 즉 분야별 전문가가 체계적으로 소통하고 교류할 수 있는 협업시스템이 필요하다. 문화교류 사업 전담조직을 구성하여 인적자원 관리 및 사업성과물의 DB구축 및 공유시스템을 개발해야 한다. 데이터 관리 ICT 전문가, 문화자원 콘텐츠 융복합 활용 및 개발 전문가, 지역관광 활성화 분야 정책 전문가, 관광콘텐츠 개발 전문가, 문화자원의 상품화 및 브랜드 가치창출 관련 전문가 등 다분야 전문가의 협업이 필요하다.

단순한 지역발전, 지역개발의 차원을 넘어 지역 문화와 예술, 지역의 문화정체성, 지역민의 성향과 역사의식, 심리적 특성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를 기반으로 한 구체적 협업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협력국의 청년층을 전문 인력으로 양성하고 이들의 유연하고 참신한 아이디어가 적극 발휘될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해야 각 국가별 특성에 맞는 문화분야 발전이 이뤄질 수 있을 것이다.

문화교류 관련 국제협력사업 추진을 위한 전문가협의체를 구성할 필요가 있다. 국제적 관심을 제고하고 지역 간 지속적인 협력이 가능하기 위해 교류하는 전체 혹은 주요국가가 참여하는 전문가협의체 구성은 교류의 효과를 극대화하는 데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다. 신남방 지역 문화교류 정책의 어젠다 설정 및 참여국가별 현황 및 사업진행 상황, 노하우 공유 등의 기능을 수행해야 한다. 또 국가 단위 이외에도 유네스코 등 국제기구, C2 기관, 대학, 연구기관, NGO, 민간 등 다양한 단위에서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개방해야 할 것이다.

제3절 인력양성 시스템 구축

1. 인력양성 전략 수립

다음으로는 교류국가 간 자체 인력양성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는 방안을 수립해야 할 것이다. 구체적으로 우리나라의 인력양성 시스템, 지원시스템, 교육 프로그램, 인력 활용 노하우, 공공/민간 교육시스템을 신남방 지역에 효과적으로 전달하는 방법을 고민해야 할 것이다. 이는 해당 지역의 효과적인 인력양성 시스템을 구축하는데 우리의 노하우가 기여할 수 있는 분야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운영방안 수립이나 인력 자원의 일시적 지원이 아닌 지속성과 효과성을 담보할 수 있는 인력양성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신남방 지역에 포함된 개별국가의 자체 문화역량을 점검하는 작업이 우선되어야 한다. 사업이 시작되는 것과 동시에 해당 인프라나 콘텐츠가 실제로 활용되는데 기여할 수 있는 교류국 내의 인력양성 시스템을 동시에 가동할 수 있도록 하고, 사업진행 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향후 실제 사업운영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대부분 문화교류 사업에서 수혜국의 인력을 우리나라에 초청하여 일정 기간 연수나 우리 문화를 체험 또는 여행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면서 각 인력의 역량을 제고한다고 하지만 실질적 역량제고 효과는 의문이 남는다. 따라서 실제 그 인력이 해당 국가에서 실질적인 업무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인력양성 시스템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기존 사업과 동시에 추진하는 것이 병행되어야 효과를 담보할 수 있을 것이다.

2. 실무역량 제고

문화교류 시 필요한 정보는 실무에 적절히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 궁극적으로 수혜국에서의 실제 수행력을 향상시키는 것이다. 따라서 정보 공유가 실질적인 문화교류 효과를 높이는 데 기여하기 위해서는 문화유산자원의 활용단계별(생산 - 보존·관리 - 활용·분석)로 맞춤형 정보가 제공되어야 한다. 생산 단계를 돕기 위해서는 조사와 발굴, 연구를 위해 필요한 노하우, 학술연구 자료 등에 관한 정보를 체계적으로 제공하고, 필요에 따라 관련 전문가와 직접 연결까지도 가능하게 구성되어야 한다.

보존·관리 단계를 지원하기 위해서는 국제문화교류의 복원에 필요한 기술과 해당 기술을 습득할 수 있는 구체적인 통로, 무형유산의 보존 현황, 예능보유자에 대한 정보 등을 파악할 수 있어야 한다. 활용 단계에서는 국제문화교류의 관광콘텐츠화, 공연 및 축제화 등 다양한 모범사례의 성공요인을 구체적으로 확인하고 각 국가별 상황에 맞춰 시도할 수 있는 수준의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또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교류·협력의 경우에는 인공지능(AI) 등 다양한 기술 적용을 시도하여 정보공유와 네트워킹을 보다 효과적으로 이룰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252]. 즉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해 공유와 개방 수준을 높이고, 국제문화교류에 관한 정보가 보다 보편적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예를 들어 기존에 개발된 인공지능 기술 가운데 방대한 데이터베이스에 기반을 둔 사진이미지 식별 기술은 국제문화교류 정보공유플랫폼에서 매우 활발하게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밖에도 다양한 인공지능 기술이 무형유산 질적보호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에 대해 논의할 수 있다. 플랫폼에서 사용되는 기술을 민간에 개방한다면 국제문화교류와 관련한 다양한 시도가 자발적으로 이뤄지도록 촉진할 수 있다.

252) 한겨레신문(2017.3,6). "인공지능 기술 숨 가쁜 발전 배경엔 '공유와 개방' 문화"

제4절 협력시스템(채널) 구축

1. 협력기반의 공통점 모색

이를 원활히 실행하기 위한 전제는 문화교류 관련사업 진행 시 필요한 실무적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교류국가 또는 단체 간 커뮤니케이션 채널을 구체화하는 것이다. 기본적으로는 신남방 지역 전체의 문화사업 현황 정보, 모범 사례, 사업 진행 노하우 등 유관기관 실무자에게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문화교류 시 필요한 정보는 텍스트 위주의 간략한 소개를 넘어 사업의 진행과정, 주요 행위자에 대한 정보 등 구체적이고 실용적인 형태로 제공해야 하는 것이 중요하다.

내용 면에서의 협력은 사회문화 분야를 공통분모로 한 대표사업 발굴에 각국이 협력할 필요가 있다. 신남방 지역과 사회문화 분야정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두 지역의 사회문화적 차원의 차이점만이 아니라 이러한 차이점들을 아우를 수 있는 보편적인 공통분모를 찾아내는 작업이 수행되어야 한다. 예를 들어 유무형의 문화유산, 문화이벤트, 규범이나 관습 등 다양한 분야에서 도출 가능하며 이것은 역사적이고 전통적인 공유 경험에서 그 단초를 도출해 낼 수 있을 것이기도 한다.

이외에도 한국과 신남방국가의 고유한 문화가 서로 긴밀하게 만날 수 있는 다양한 기회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 신한류콘텐츠, K-Contents, K-Food, K-Beauty, 한글, K-출판 등의 확산 전략을 신남방 지역 국가의 고유한 전통, 문화, 민속, 문화유산 등과 결합하면 교류의 시너지 효과는 높아질 것이다.

2.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정보플랫폼 구축

정보격차 해소는 본래 UN 회원국 사이에서 2000년대부터 꾸준히 제기되어온 과제[253]이기도 하다. 유네스코 역시 WSIS와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협력하며 정보 접

근성 제고 방안을 고안하고 있는 중이다. 다양한 협력 국가 및 기관이 행위주체로 참여할 때 국가별 정보격차 해소가 보다 수월하게 해결될 것이기 때문에 신남방 지역 내 정보격차 해소를 위해 유네스코 국제문화교류 관련 기관 및 행위자 간 협업체계 구축이 절실한 상황이다.

신남방 지역 내에는 국제문화교류와 관련하여 연구가 활발하게 이뤄지는 국가에서부터 국제문화교류의 목록조차 미비한 국가까지 정보 수준의 차이가 극심하게 나타나는데, 정보공유플랫폼을 통한 교류·협력은 이러한 정보 격차를 해소하는 데에 큰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회원국 및 유관기관 전체가 평등하게 정보에 접근하기 위해서는 개발도상국에 대한 인터넷 인프라 구축사업, 정보 체계화 작업 등이 선행과제로 반드시 고려해야 할 사안이다.

뿐만 아니라 단순히 정보플랫폼 구축사업만 추진하기보다는 회원국의 정보·인터넷 환경에 상관없이 정보공유플랫폼 접근성을 확대하는 지원사업이 연계되어야 한다. 그러한 지원사업의 핵심내용은 정보공유플랫폼 구축 사업규칙 내에 협력기관에 대한 지원, 협력기관의 원활한 참여 및 활동을 위해 플랫폼사업 참여를 위한 기본 장비 및 시스템 구입, 장비 및 시스템 사용을 위한 인력 교육, 아카이브 구축을 위한 시스템 점검 및 컨설팅, 초청연수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내용 등이 포함될 수 있다. 또한 규정된 내용 외에도 협력기관의 요구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는 규정을 두어 유연한 지원사업을 전개할 수 있도록 지원 근거를 마련해두는 것도 중요하다.

예를 들면 "국제문화교류 정보공유플랫폼 구축"과 같은 사업이 신남방정책 사업의 대표사업으로 가치를 가진다. 이러한 사업은 세계적 디지털 기술과 인적자원을 가진 우리나라에서 주도적으로 추진하면서도 신남방 지역의 국제문화교류의 가치를 널리 알리고 다양한 활용방안과 관련 정보를 공유하는데 유용하게 작용할 수 있을 것이다.

253) 2001년 유엔 총회의 결의를 기점으로 '디지털 혁명이 이루어지는 가운데 디지털 격차를 해소하자'는 목표 하에 정보사회세계정상회의(WSIS, World Summit on the Information Society)가 설립되었음. WSIS는 정보화가 국제사회에 미치는 긍정·부정적인 영향을 명확히 이해하고, 국가별 정보 격차 발생과 같이 지구적 차원에서 발생하는 정보화의 부작용에 전 세계가 공동 대응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음[최선희(2002). "정보사회 세계정상회의 개요와 의의". 「정보통신방송정책」. Vol. 14(14). 정보통신정책연구원]

제5절 다층적 거버넌스 구축

1. 다양한 행위자와의 거버넌스(협치)체제를 통한 컨센서스 형성

거버넌스 체제는 국제기구와 같은 제3섹터와 중앙정부 및 산하기관, 지방정부, 공공기관과 같은 다양한 주요 국제문화교류 행위자 간 의사소통 체계를 조직하고 다른 입장을 갖는 각각의 의견을 원활히 조율할 수 있도록 긴밀한 파트너십을 형성하는 것에서부터 시작한다. 각 국가의 정부가 보다 적극적으로 국제문화교류 정책을 추진할 수 있도록 동력을 부여하는 계기를 마련해야 하는데, 중앙정부를 비롯하여 유관 공공기관, 지방정부, NGO 등의 역량을 집중시키고, 국제문화교류 활성화를 위한 협력을 이끌어낼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한다.

일련의 교류·협력사업을 통해 국제문화교류의 보존·보호 가치를 확산하기 위한 활동에 다양한 행위자가 유입되면서 국제문화교류를 기반으로 다양한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기회가 만들어진다면 국제기구와 각국 정부 외에도 다양한 행위자가 국제문화교류 활성화에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국제문화교류의 특성 상 다양한 국가들과 어떻게 협력관계를 설정해 나갈지에 대해서는 국제기구의 기존 네트워크를 활용하는 의미에서 국제기구의 자문을 받거나 함께 거버넌스에 대해 공동주최하는 등이 효과적일 수 있다. 유네스코를 비롯해 국제문화교류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다양한 국제기구의 역량을 집중시키고, 공통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국제적 단위의 협력을 촉진하게끔 하는 것이다.

거버넌스 체제의 의사결정을 통한 국제교류·협력은 전 세계 다양한 행위자에게 국제문화교류 보존과 보호의 중요성을 일깨우는 장기적 비전을 알리는 데 주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각 국가의 문화예술활동을 진흥·발전시키기 위해 분야를 막론한 전 지구적 노력이 필요함을 다자기구 및 관련 행위자들 간의 긴밀한 거버넌스 정책결정 속에서 각국민 및 참여자들에게 컨센서스를 만들어낼 수 있을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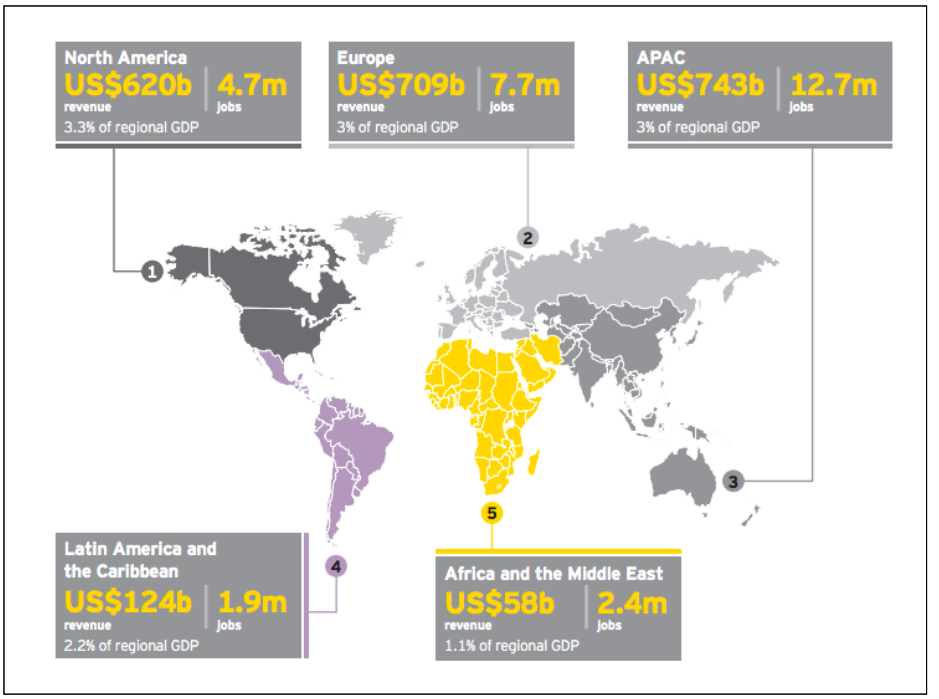
신남방 지역의 국제문화교류 거버넌스는 지역적으로는 아시아·태평양, 유형적으로는 국제문화교류에 국한된 시도이나 궁극적으로는 전 세계의 모든 문화유산에 대한 정보를 거버넌스 협력체제 속에 연합시킬 수 있다는 가능성도 시사한다. 국제문화교류 보호와 활용을 위한 다층적인 거버넌스가 형성될 때, 국제문화교류가 정체되거나 단절되지 않고 현대에서 활기를 가지고 전통을 이어갈 수 있게 될 것이다.

2. 국가 간, 기업 간 거버넌스 결성으로 정책협력 및 문화산업 활성화

국제문화교류 활동은 해당 국가의 의지와 역량에 따라 그 양상과 결과가 크게 달라진다. 따라서 추진주체가 중심이 된 거버넌스 체제가 바로 서로 간에 활발한 의사소통을 통해 각 국이 원하는 바와 지원할 수 있는 부분, 참여가능한 사안이 무엇인지를 수시로 논의할 수 있는 소통의 장 역할을 하게 되는 것이다. 거버넌스 속에서 국가별 국제문화교류에 대한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고, 국가 내 국제문화교류 보호를 위한 역량을 집중할 수 있도록 지원 역할을 담당하는 분배작업이 이 협치 가운데에서 나타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재외기업들에게도 국제문화교류 관련 활동에 적극적인 행위자가 될 수 있도록 문화산업 부문 주요행위자들을 국가 및 민간기구 거버넌스에 참여시키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사실 거버넌스라는 구성체에서는 민간분야의 역할이 경제적, 재정적 측면에서 의사결정을 원활히 하는데 누구보다도 결정적인 역할을 행사하는 주체이기 때문이다. 또 실물 환경에서 공공의 이익이나 문화적 상생, 발전과 같은 추상적인 부분도 물론 중요하지만 체감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것이 바로 경제적 효과, 즉 산업의 부가가치 창출이 얼마나 이루어질 수 있는가도 영향력이 크다. 그렇기 때문에 국제문화교류와 연관이 깊은 산업인 문화산업 구성원들과 호혜적 관계를 구축하는 역할을 추진체계가 해주어야 하는 것이다.

[그림 6-3] 전 세계 5개 지역별 문화산업 수익 및 종사자 집계(2013)



출처: 국제저작권관리단체연맹(CISAC)·EY(2015). 『Cultural Times: the First Global Map of Cultural and Creative Industries』

전 세계적으로 문화산업의 영향력이 점차 확산되고 있으며, 특히 위 연구에 따르면 아시아태평양 지역은 다른 지역에 비해서도 문화산업의 규모가 크고 종사인원이 많은 것을 알 수 있다[254]. 국제문화교류는 결국 문화산업의 영역에서 활성화될 수 있을 때 자생력을 가질 수 있다. 때문에 문화산업과의 연결고리를 만들어나가는 노력이 이루어져야 한다. 그 과정에서 문화산업의 주요 행위자들 역시 거버넌스 내로 포섭하여 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때 국제문화교류활동은 보다 다양화되며 민간의 신속한 현장대처 능력과 기획력을 활용하여 보다 활기를 띌 수 있을 것이다.

유네스코에서도 동남아 지역 발전에 가장 중요한 것은 문화와 문화산업이고, 이의 효과적인 발전을 위해서는 국가 간 긴밀한 협력과 기금조성 등 실질적인 지원이

254) 국제저작권관리단체연맹(CISAC)·EY(2015). 『Cultural Times: the First Global Map of Cultural and Creative Industries』

필요함을 강조하고 있다. 그러므로 우리나라 신남방 지역 정책에서 이러한 방향을 인식해 문화산업과 문화적 도시개발과 관련한 보다 적극적인 정책수립이 필요하다. 우리나라 유네스코 신탁기금사업(KFIT)으로 유네스코 방콕사무소에서 진행한 아세안 지역 문화산업 재정환경 분석 보고서인 〈유네스코 방콕사무소의 동남아시아 지역문화와 문화산업 재정지원 방안 보고서(2020)[255]〉는 문화 및 창조산업(CCI: Cultural and Creative Industries)은 동남아시아(SEA: South-East Asia)의 많은 국가에서 경제성장의 원동력으로 한동안 인식되어 왔다. 해당 지역의 문화산업 발전을 위한 재원이 부족하다는 판단 하에 해당지역의 문화산업 환경 및 금융환경을 분석하였다. 이 보고서는 동남아 지역 국가의 문화적 다양성에 근거한 문화산업 활용가치가 상당히 많음에도 불구하고 정책 수준에서 CCI 개발 로드맵을 작성한 국가는 거의 없으며, 재정적인 여건이 열악하여 충분히 활용되지 못하고 지속가능 발전에 기여하지 못하고 있음을 설명하고 있다. 이 보고서의 내용을 간단히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정치 및 경제적 불안정, 확고한 정책방향 부족, 문화가치에 대한 인식 부족 또는 제한된 인식, CCI 부문 및 해당 시장에 대한 단편적 이해 등의 문제가 결합되면서 CCI 조직환경이 여러 도전에 직면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이를 해결하기 위해 우선적으로 이 보고서는 3가지 목표를 제시한다. (1) 문화를 위한 지속 가능한 거버넌스 시스템 지원, (2) 지속가능한 개발 프레임워크에 문화 통합, (3) 인권 및 기본적 자유 증진이며, 이를 추진하기 위한 전략으로 다음과 같은 사항들을 제시하고 있다.

(1) 정책 검토: SEA 지역 중 인도네시아와 싱가포르의 사례를 주목할 필요가 있다. 지역 내 협력이 저개발국가의 정부 기술과 지식부족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생산 및 유통망 연결에 필요한 데이터 구축은 독립 연구를 통해서 확보할 수 있다. 재정 지원과 함께 중요한 부분은 예술교육과 연계된 청중 개발, 예술가 및 창작/문화 노동자의 기술 개발, 하드인프라 제공, 풍부한 인력자원과 소프트인프라 결합, 비즈니스 및 규제 프레임워크의 용이성 제고,생산 및 유통체인 시장 분석이 있다.

(2) 지역 거버넌스 및 지역사회 참여: 정부와 시민 사회 간의 단절을 극복해야 한다. 과도한 국가적 통제는 CCI부문 개발을 저해할 뿐더러 2005년 인권협약의 목표와도 위배된다. CCI 개발책임은 지방자치단체, 지구, 주, 도 등 전국에 걸쳐 모든 수준에서 제시되어야 한다. 공무원 및 시민사회 단체와 CCI 실무자 및 그룹 간의 대화도 촉진되어야 한다.

255) "Financing Cultural and Creative Industries in South-East Asia", 2020, Report by Sunitha Janamohanan and Audrey Wong for UNESCO Bangkok In cooperation with independent country consultants Kai T. Brennert (Cambodia and Myanmar), Cecil Mariani (Indonesia), Chanmaly Panyaphone (Laos), Jefferson M. Chua (Philippines), Kamonrat Chayamarit (Thailand), Thuy Tran (Vietnam) and research assistant Natasha Lau

(3) 조직의 새로운 모델: 합법적인 사회적기업이 태국과 베트남에 도입되고 있으며 이는 장기적으로 도움이 된다. 인도네시아에서는 협력기업이 CCI의 요구와 융복합적 특성을 지원하는 형태로 확인되었으나 등록절차가 복잡해 광범위하게 채택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글로벌 변화 추세에 맞춰 SEA의 국가정부가 사회적기업 뿐 아니라 지역기반 수익창출형 기업(Community Interest Company)의 모델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

(4) 소지역 협력 강화: SDG 목표는 "북-남, 남-남 및 삼각협력을 포함하여 모든 지속가능한 개발목표를 구현하기 위한 국가계획을 지원함으로써 개발도상국에서 효과적인 목표달성 역량을 구축할 수 있도록 국제적인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유네스코 또는 아세안과 같은 기관을 통한 지역 내 협력을 위한 역량구축 및 지식 교환이 중요한 것이다.특히 인도네시아와 싱가포르에서 현재 시행 중인 일부 지원시스템과 다양한 계획은 가능한 적응모델로 주목할 가치가 있다. 문화기관과 부처 간의 ASEAN 수준의 협력은 인프라가 부족한 국가의 정부부서 내 기술 및 지식부족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된다.

(5) 지속가능한 개발 프레임워크에 문화 통합: 도시화로 인한 부작용이 베트남, 캄보디아 등에서 나타나 산업으로서의 문화의 경제적 가치가 계속 부각되는 중이다. 인도네시아와 싱가포르와 같은 경우 국가 보조금 없이는 이미 개발사업이 불가능한 상황이고, 임대료 상승의 압박으로 예술가와 창작자의 생존 투쟁은 더욱 어려워지고 있다. 정부가 디지털 경제의 개념을 수용하고 디지털 애플리케이션이나 플랫폼을 통해 기술혁신, 연계 상품과 서비스에 관심이 집중하면서 창조산업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데 이것이 창의지구, 혁신공원 및 '스마트 시티'(예 : 태국, 베트남,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개발 등으로 이어지면서 상징적 문화상품과 표현을 다루는 CCI의 측면의 가치를 상쇄시켜버리는 부작용도 있다. 세계화로 인한 아시아 문화강국은 물론이고 세계 강대국과도 경쟁해야 하는데, 여전히 일부 국가에서는 자신들의 문화가치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다.

3. 거버넌스를 중심으로 한 민간영역과의 네트워킹 확대

거버넌스 체제는 원래 태생적으로 공공과 민간 간의 협력이 전제된 것이다. 기존에 국가는 국가대로, 민간은 민간대로 혹은 국가가 민간을 통제하고 명령하던 것에서부터 이들의 기존 영역이 무너지고 특정한 사안이나 정책에 대해 공동의 목적을 향해 열린 경계 속에서 지속적인 협상과 의사결정이 이루어지게 되는 협의체가 거버넌스다. 즉 거버넌스에서 주요 구성원은 공공이나 중앙정부가 아니다. 오히려 민간의 정치적 권한이 강화되어야 하는 것이다.

실제로 민간영역에서의 국제문화교류 활동은 공공에서 추진하는 사업에 비해 보다 현장과 가깝고, 대상 국가와 활발히 소통하고 공감하며, 다양한 문화교류 활동을 기획하고, 그 목적이 서로의 문화예술을 질적으로 발전시키겠다는 보다 궁극적인 지향점을 가지고 활동하는 경향이 짙다. 그래서 민간영역, 특히 개인의 거버넌스 참여가 활발해질 때 국제문화교류 보호와 가치 제고라는 궁극적인 목표가 이뤄질 수 있을 것이다.

민간영역이 이 거버넌스에 참여하는 것은 기존에 민간의 경제적인 혹은 규모의 한계로 자신들이 할 수 없었던 다양한 국제문화교류 분야 사업을 실현할 수 있는 기회로 작용하게 될 것이다. 기존에 산발적으로 분산되어 있어 구득하기 어려웠던 정보의 수집부터, 현장연구를 위한 학술정보를 얻거나 실무정보와 같은 노하우를 거버넌스 속에서 다양한 섹터의 구성원들과 공유하게 되면 결과적으로는 국제문화교류의 실천성과 잠재력이 이들의 참여를 통해 강화되는 것이다.

따라서 개별 민간단위의 행위자들을 국제문화교류 보존·보호 활동의 거버넌스 체제에 주요 행위자로 적극적으로 포섭시켜 그들이 갖고 있는 풍부한 역량을 무한히 발휘할 수 있도록, 그리고 정책의사결정 과정에 그들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하는 역할을 거버넌스를 통해 기대할 수 있다. 그러기 위해서는 민간의 거버넌스 참여라는 내재적 동기를 유인할 수 있도록, 일례로 그들이 기존에 해 왔고 잘할 수 있는 형태의 다양한 사업을 사전에 제안하는 방식으로 거버넌스에 참여하도록 하는 접근방법이 하나의 유입전략이 될 수 있다.

4. 거버넌스 구축과 동시에 효율적인 인력(조직)구조 개편 병행 실시

일반적으로 국제문화교류 협력국인 신남방국가의 경우, 효과적인 문화-관광 사업의 협력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는 조직구조 개선이 거버넌스 구축에 선행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많은 경우 문화유산 담당부서와 관광부서는 완전히 별개로 나뉘어져 있는 경우가 많아 효과적인 거버넌스가 협력국 자체 내에서도 일어나기 어려운 상황인 것이 사실이다. 따라서 신남방국가 국제문화교류사업 초기에 이러한 분리적 상황을 정확히 인지하고 거버넌스 구축을 우한 사전작업으로서 조직개편을 동시에 진행하는 것이 필요하다.

역사적이고 전통적인 각 국가의 문화자원이 바로 국제문화교류의 자원으로 활용될 수는 없다. 혹은 많은 경우 문화유산의 훼손이나 급진적인 상품화로 문화자원의 고유성과 진정성의 가치를 평가할 수 없게 되기도 한다. 이러한 문화/관광자원 및 콘텐츠-프로그램-브랜딩-상품화의 선순환 구조가 확립되어 있지 않으면 지속가능한 사업추진이 어렵다. 특히 각 단계에서 활약하는 인력은 사업운영의 핵심 축이므

로 인력구조를 재조직하는 것이 이들을 관리하고 계발, 육성하는 데 기반이 되므로 1차적 과제로 조직관리를 생각해야 하는 것이다. 이 각각의 단계별 투입되어야 할 전문가의 분야나 영역이 다르고, 각각의 단계에서 투입되어야 할 자원이나 기술도 완전히 상이하기 때문에 각 단계별 해당분야 전문가의 컨설팅과 협력이 거버넌스 속에서 자원과 지식, 정보가 교류되는 방식으로 반드시 수반되어야 한다.

단순한 거버넌스 구축만이 아니라 각각의 분야별 전문가 양성과정을 운영하여 국제문화교류 거버넌스가 결국 거버넌스의 자생력을 확보하는 차원에서 협력국의 전문가 양성으로 이어지도록 해야 할 것이다. 여기서 말하는 전문가는 일차적으로는 지원국의 전문가가 먼저 고려되어야 하지만, 여기서 끝나면 안 되고 협력국의 해당분야 전문가를 발굴하고 지원국과 협력국의 전문가 간 긴밀한 협의과정을 거버넌스 체제 속으로 포섭해야 한다. 혹시 단계별 전문가가 충분히 않은 경우 사전파악을 통해 전문가 양성과정을 사업진행과 동시에 운영하는 것도 처음부터 거버넌스 협의체와 일관되게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제6절 성과평가 체계 구축

1. 국제문화교류사업 성과지표 체계 재구성

국제문화교류사업은 성과평가 시스템이 미비한 경우가 많고, 효과가 가시적으로 드러나지 않아 정성적 요인을 측정하기 어렵다는 한계가 있다. 문화체육관광부의 사례를 보면 문화교류 사업건수나 사업 참여자 수 등 정량적인 요인과 사업 참여자의 설문조사 등에 의존하는 경향이 높다[256]. 그렇기 때문에 국제문화교류 사업의 기존 성과범위를 재설정하여 향후 지속가능성 및 경쟁력 제고방안까지 포함하는 성과지표 재구성이 필요하다.

성과체계 평가는 기간적으로는 인프라 지원사업의 개시시점부터 완료(준공)까지 한정되었으나, 점차 해당 인프라가 수혜국의 장기적인 발전에 기여하고 있음을 증명해 줄 수 있는 정량적/정성적 성과지표체계를 재구축할 필요가 있다. 구체적으로는 하드인프라 구축 지원사업과 그 인프라를 운영하고 활용할 다양한 수준의 인력양성의 성과를 포함한 성과지표를 포함해야 한다.

많은 경우 국제문화교류 사업은 수원국은 물론이고 수혜국의 경우에도 소수의 전문가 몇 사람이나 공무원들까지만 영향을 미치며 그 이외에 수많은 참여자들까지 평가대상으로 포함시키기는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 게다가 성과평가체계는 수혜국 일반국민들이 이해하기 어려운 수준이고 혹은 이 평가체계에 대한 접근성이 먼 경우가 다반사이다. 이러한 측면을 감안해 보편적인 성과지표체계를 재작성하는 것은 국제문화교류 사업과 반드시 병행되어야 할 것이다.

256) 문화체육관광부(2019). 2018년 자체평가 결과보고서. 106-107

2. 협력기관 전체가 동의할 수 있는 개방형 표준화 성과측정 도구 개발

그동안은 각 기관 및 국가별로 자체적 기준 하에 사업성과를 측정해왔기 때문에 국제문화교류 관련 문화교류 사업의 질이 관리되지 못했다. 예를 들어 문화ODA 사업의 경우 평가시스템 등이 제대로 관리되지 않았다는 점이 주요 한계점으로 지적되어 왔다[257].

국제문화교류 사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협력기관 전체가 활용할 수 있는 사업성과 지표구축이 필요하다. 인적 네트워크를 중심으로 운영되는 국제문화교류 사업 특성상 당장의 사업성과를 측정하는 것은 어렵겠으나, 해당 문화교류 사업에서 비롯하는 직원의 역량강화 수준, 파생된 사업 등을 연계하여 평가하는 지표체계 설계작업이 필요하다.

그러한 성과측정 지표를 구축하기 위한 한 방안으로 본고는 국제문화교류보호협약 이행수준 및 단계별 성과측정을 위해 채택된 '종합성과평가체계'(Overall Result Framework)를 참조하는 방안을 제시한다[258]. 2018년 유네스코 총회에서 채택된 '종합성과평가체계'는 국제문화교류보호협약의 활동이 지속가능한 미래를 만들기 위해 필요한 항목을 구체화하고, 단계별 성과를 평가하는 시스템[259]이다. 이 종합성과평가체계는 제도적·인적 역량, 전파 및 교육, 인식제고, 국제협약 등 8개 분야에 대해 26개 핵심 지표를 선정하고 협약의 단계별 성과를 측정하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또한 국제문화교류 사업의 체계화와 질적 향상을 위해 문화교류 사업이 수혜국의 장기적인 발전에 기여하고 있음을 증명해 줄 수 있는 정량적·정성적 성과지표체계를 마련해야 한다. 국제문화교류사업 역시 국제문화교류보호협약 이행의 일환이므로, 해당 지표를 기준으로 세부 평가지표를 마련하는 것이 현실적인 방안이 될 것이다.

257) 문화체육관광부(2018). 『국제문화교류 진흥 종합계획 수립 연구』. 한국문화관광연구원(연구책임: 김혜인)
258) 유네스코-국제문화교류(https://ich.unesco.org/en/overall-results-framework-00984)
259) 유네스코 한국위원회(https://unesco.or.kr/data/unesco_news/view/739/493/page/0)

제7장

결론

2017년 11월 신남방 정책 발표 이후 아세안 10개국 및 인도와의 문화교류·협력에 대한 중요성이 빠르게 부각되고 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2019년 '한-아세안 특별문화장관회의' 개최 등 아세안을 비롯한 신남방지역과 문화 교류·협력 확대 위한 정책 추진기반 마련에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인구 6억 5,000만 명, 평균 경제성장률 5~6%, 인구 절반 이상이 30세 이하인 무한한 성장잠재력이 있는 지역인 신남방 지역은 한국의 제2대 교역 대상지역임에도 불구하고, 문화교류는 경제교류의 부대효과 정도로 간주될 정도로 그것이 가지는 실질적인 중요성에 대한 관심이 부족했던 것은 사실이다. 그 동안의 성과로 간주되는 한류를 통한 한국대중문화콘텐츠의 인기, 상호방문객 증가 등은 사실 정부의 적극적인 문화교류정책의 결과라기보다는 시장원리에 의해서 촉발된 것들이 많았기 때문이다. 이제 신남방 지역과 우리나라 간의 상대적으로 산발적이고 비체계적인 문화교류의 내용과 방향성을 검토하고, 본격적인 정책적 관심과 실질적인 추진체계 수립이 필요한 시점이다.

이에 본 연구는 기존의 일본과 중국, 미국과 서유럽 등 주요 지역과 국가에 치중되었던 우리나라의 국제문화교류 정책의 방향을 신남방 지역으로 확장하여 해당 지역과의 효율적인 문화교류의 내용과 전략을 살펴보고, 이를 통해서 신남방 정책의 효율성을 제고하는 것과 동시에 우리나라 국제문화교류 정책의 기존 패러다임 수정 재고에 기여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수행되었다.

이를 위해 정부의 신남방 정책의 방향과 특징을 조사하고, 한국의 국제문화교류 특징과 신남방문화교류 정책의 사업현황과 성과를 분석하였다. 신남방 지역 주요 국가와 한국과의 교역액을 기준으로 문화교류환경 및 환경분석을 진행한 결과 신남방 지역 사회문화 분야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으나, 전체 정책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미약하다는 정책적 한계를 드러내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또한 해당 사업의 당위성을 점검하고 사업효과를 예측하고 평가할 수 있는 종합적 시스템이 없어 이를 체계화 하는 작업이 필요함도 알 수 있었다. 문화교류사업에서 신남방 지역에 대한 문화관광 콘텐츠 구축 및 문화유산 관광인프라 개선을 위한 정책의 구체성, 다양성에 대한 인식, 전문성 등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것은 물론이고, 국가 간 문화자원을 활용할 수 있는 법제도 및 문화다양성 정책을 추진하기 위한 정책기반의 한계도 드러났다.

본 연구를 진행하며 신남방 지역 문화교류의 수요분석을 위해 관련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하였다. 이는 코로나19 발생이라는 특수한 상황에서 현장 전문가를 직접 인터뷰하지 못하는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최대한 많은 수의 전문가 설문을 받기 위한 것이었다. 전문가 설문조사 결과 정부의 신남방 문화교류관련 정책에 대한 견해와 성과, 그리고 한계 등에 대한 의견과 향후 신남방 문화교류 정책의 운영방향과 개선사항, 사업전략 등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할 수 있었다. 문헌조사와 설문조사 결과 등의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향후 보다 체계적으로 추진되어야 할 신남방 지역 문화교류 정책 비전과 전략을 제시하고 이에 대한 추진과제를 제시하였다.

연구를 통해 제시된 신남방 지역의 문화교류 정책의 비전은 '문화동반자로서의 신남방 지역 국가들과의 협력 및 상생 공동체 구축'으로 설정하였다. 이에 따른 교류전략으로 (1)인식제고: 동반 관계 강화를 통한 파트너십 제고, (2)교류제도화: 협력기구 설치 및 기금 활용 지속적 교류시스템 구축, (3)공동의 이익창출: 경제적 공동이익 창출을 통한 신남방 문화공동체 기반 마련, (4)인력양성: 인적자원교류 및 문화교류를 위한 전문인력 확보 등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에서 제시하고자 하는 향후 신남방 지역 간 문화교류 및 협력 활성화 정책 추진방안은 ①문화교류 수요파악과 입체적인 사업계획수립, ②전문가 네트워킹, ③인력양성시스템 구축, ④협력시스템 구축, ⑤다층적 거버넌스 구축, ⑥성과평가 체계 구축 방안 등이다. 이것은 향후 문화체육관광부의 국제문화교류 업무뿐만이 아니라, 문화재청, 국립아시아문화전당 등을 비롯한 국공립 국제문화 교류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과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추진 가능한 사업의 방향 설정이나, 민간기관과의 협업 방향이나 전략 설정 시 참고하면 유용한 기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특히나 본 연구는 기존의 일본과 중국, 미국과 서유럽 등 주요 지역과 국가에 치중되었던 우리나라의 국제문화교류 정책의 방향을 신남방 지역으로 확장하여 향후 적극적으로 추진되어야 할 해당 지역과의 효율적인 문화교류의 방향과 내용과 그리고 추진전략을 제시하고자 한 것으로, 신남방 지역과의 문화교류정책의 효율성을 높이는 것은 물론 우리나라 국제문화교류 정책의 기존 패러다임 수정 및 보완에 기여하게 될 것으로 본다.

현재 한국 뿐 아니라 세계는 코로나19의 여파로 팬더믹 상황이라는 유래 없는 공황상태가 지속되고 있다. 때문에 정부의 신남방 문화교류 정책을 빠른 시일 내에 실행할 수 있을지 여부를 예측하기는 어렵다. 다수의 미래학자들이 예견한 것처럼 코로나19 이전 세계로 갈 수 없을 것이라는 전망을 무시할 수 없다. 그러나 한국은 세계 그 어느 나라보다 뛰어난 IT 기반을 확보한 국가로서 언택트 시대를 맞아 발빠르게 대응이 가능할 수 있는 충분한 역량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환경에의 대응 또한 빠르게 가능할 것으로 예측된다. 이러한 기술력을 바탕으로 언택트 시대에 맞는 신남방국가 대응 문화전략 수립 연구 등이 후속연구로 추진되기를 희망한다. 본 연구에서도 부분적으로 언급하기도 하였으나, 본격적으로 다루기에는 연구 주제의 범위를 상당히 넘어서는 것으로 판단하였다. 언택트 시대의 문화정책의 흐름에 대한 연구는 국가적 차원에서 수행되어야 하기에, 이에 따르는 신남방 지역과 관련한 대응 정책 또한 좀 더 구체적인 실행 방안 등을 중심으로 추가적으로 연구되어야 것이다.

신남방 문화교류 관련 정책연구로서의 거의 처음으로 정책과제로 다뤄지면서 여러 한계로 인한 부족한 점이 있는 것은 사실이나, 본 연구를 시작으로 하여, 향후 세계적인 정세가 보다 유연한 교류가 가능해질 때를 대비하여 추진될 구체적인 연구나 정책사업 계획에 본 연구가 중요한 시작점이 되기를 희망한다.

참고문헌

(단행본 및 연구보고서)

- 강인수·장준영(2015), 『미얀마 국가협력전략(CPS) 수립을 위한 개발협력방안 연구』, 정책연구 15-04, 대외경제정책연구원.
- 관계부처합동(2016), 필리핀 국가협력전략.
- 관계부처합동(2019), '19년 국제개발협력 종합시행계획.
- 국립무형유산원(2016), 『국립무형유산원 무형유산 교육 중장기 기본계획 수립 연구』(연구책임: 백제예술대학교 산학협력단).
- 국립아시아문화전당(2019), 「성과가 눈에 보이는 해」.
- 국립외교원 외교안보연구소 아세안인도연구센터(2018), 『신남방정책의 전략환경 평가 및 추진방안』(연구책임: 최영종 외 5인).
- 국제저작권관리단체연맹(CISAC)·EY(2015), 『Cultural Times: the First Global Map of Cultural and Creative Industries』.
- 문화재청(2012), 문화재 보존·관리·활용 5개년 기본계획(2012~2016).
- 문화재청(2017),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 기본계획.
- 문화재청(2020), 2020년 문화재청 업무계획.
- 문화체육관광부(2010), 『문화분야 공적개발원조(ODA) 사업개발 연구』, 한국문화관광연구원(연구책임: 정정숙).
- 문화체육관광부(2010), 『대외문화교류 업무의 효율화를 위한 기초연구』, (사)미래정부연구원(연구책임: 김병섭).
- 문화체육관광부(2015), 『국제문화교류정책 중장기계획 연구』, 한국문화관광연구원(연구책임: 김혜인).
- 문화체육관광부(2017), 『국제문화교류 지표개발 기초연구』, 한국문화관광연구원(연구책임: 김혜인).
- 문화체육관광부(2018), 『국제문화교류 진흥 종합계획 수립 연구』, 한국문화관광연구원(연구책임: 김혜인).

- 문화체육관광부(2019), 『2019 문화예술정책백서』.
- 문화체육관광부(2019), 2018년 자체평가 결과보고서.
- 문화체육관광부(2020), 2020년도 예산 및 기금 운용계획.
- 문화체육관광부(2020), 국제문화교류진흥 시행계획.
- 문화체육관광부(2020), 문화예술교육 시행계획.
- 문화체육관광부·한국국제문화교류진흥원(2020), 『2020년 해외한류실태조사 보고서』.
- 문화체육관광부·한국문화산업교류재단(2017), 『2016~2017 글로벌한류실태조사』.
- 신남방정책특별위원회(2019), 『아세안-인도-경제·무역·투자 통계집』.
- 아시아문화개발원(2015), '14~'15년 아시아문화연구소 사업실적 및 계획.
- 오윤아·장준영·최재현·우꼬레·강대창·김유미·박나리(2011), 『미얀마 사회문화·정치와 발전잠재력』, 연구보고서 2011(12), 대외경제정책연구원.
- 외교부(2019), 『2019 라오스 개황』.
- 외교부(2019), 『2019 말레이시아 개황』.
- 외교부(2019), 『2019 베트남 개황』.
- 외교부(2019), 『2019 브루나이 개황』.
- 외교부(2019), 『2019 싱가포르 개황』.
- 외교부(2019), 『2019 외교백서』.
- 외교부(2019), 『2019 인도 개황』.
- 외교부(2019), 『2019 인도네시아 개황』.
- 외교부(2019), 『2019 지구촌 한류현황』.
- 외교부(2019), 『2019 캄보디아 개황』.
- 외교부(2019), 『2019 태국 개황』.
- 외교부(2019), 『2019 필리핀 개황』.
- 외교통상부(2012), 『2012 ASEM 길라잡이』.
- 이재호·박나리(2012), 『싱가포르의 주요 산업: MICE, 의료관광을 중심으로』, 전략지역심층연구 12-18, 대외경제정책연구원.
- 정책기획위원회(2018), 『신남방정책 기본 추진전략 연구』,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연구원(연구책임: 성백웅).
- 채재은·외교부·우명숙(2013), 『베트남의 교육분야 개발협력 방안: 직업교육훈련을 중심으로』, 정책연구 13-08, 대외경제정책연구원.
- 한국교육개발원(2011), 『전통문화 전문인력 특성화 방안 연구』(연구책임: 변종임).

• 한국교육학술정보원(2020), 2020회계년도 사업계획(안).
• 한국국제교류재단(2019), 『2019 한국국제교류재단 연차보고서』.
• 한국국제문화교류진흥원(2019), 『2019 한류의 경제적 파급효과 연구』(공동연구: 전종근·김승년).
• (Singapore) National Arts Council(2008), 『Arts Development Plan』.
• Sunitha Janamohanan and Audrey Wong(2020), 『Financing Cultural and Creative Industries in South-East Asia』. Report by for UNESCO Bangkok In cooperation with independent country consultants Kai T. Brennert (Cambodia and Myanmar), Cecil Mariani(Indonesia), Chanmaly Panyaphone (Laos), Jefferson M. Chua (Philippines), Kamonrat Chayamarit(Thailand), Thuy Tran(Vietnam) and research assistant Natasha Lau.

(칼럼 및 세미나자료)

• 길성원(2019), “아세안 국가의 콘텐츠 시장 동향과 콘텐츠 파트너쉽 사업 소개”, 「이슈리포트」, Vol. 2019-06, 정보통신산업진흥원.
• 김혜인(2020), “아시아 미술협력체계 구축방안”, 「KCTI 정책리포트」, 한국문화관광연구원.
• 나승권 외 2인(2018), “일본·중국의 소프트파워 정책과 신남방정책에 대한 시사점”, 「오늘의 세계경제」, Vol. 18, 대외경제정책연구원.
• 사단법인 국제문화협력지원센터(2014), 「문화동반자사업 우수성과 사례분석 성과보고회」 자료집.
• 유네스코한국위원회, 문화재청(2015), “문화유산 국제개발협력의 파트너십 전략”, 「유네스코 문화유산 개도국 협력 전략세미나」, 세미나자료집.
• 유애라(2019), “ASEAN의 ODA 중점협력국에 대한 지원 현황과 특징”, 「KIEP 기초자료」 ,Vol. 19(08), 대외경제정책연구원.
• 이재현(2018), “Zoom In : 외교 다변화로 위기 극복…신남방정책 날개 편다”, 「통일의길」, Vol. 409, 평화문제연구소.
• 정법모(2017), “말레이시아에서의 종족 소비: 말레이계를 위한 MARA 디지털 몰의 탄생을 중심으로”, 「동남아 이슈페이퍼」, Vol. 19, 서울대학교 아시아연구소.
• 조대현(2019), “한-아세안 경제협력 성과와 과제: 신남방정책 추진경과와 방향”, 「POSRI 이슈리포트」, 포스코경영연구원.
• 조의윤·손승표(2018), “아세안 할랄시장 허브로서의 말레이시아의 잠재력과 한국의

대응방안 연구”, 「트레이드포커스」, Vol. 55,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연구원.
- 신용석(2014), “관광분야 ODA 확대방안”, 「KCTI 정책리포트」, 한국문화관광연구원.
- 최선희(2002), “정보사회 세계정상회의 개요와 의의”, 「정보통신방송정책」, Vol. 14 (14), 정보통신정책연구원.
- 황인원(2019), “신남방정책의 정치적 함의와 말레이시아”, 「문화와 관광으로 여는 평화와 번영의 미래」, 한국문화관광연구원 개원 17주년 기념 특별세미나 자료집.

(연구논문 및 학회 발표자료)

- 권오신(2007), 필리핀에서의 한류: 현황, 특성, 그리고 지속가능성, 「아시아연구」, 10(2), 109-139.
- 김상현·장원호(2016), 국가 이미지와 한류 소비 요인간의 관계 분석: 중국, 태국, 필리핀, 베트남 설문 결과를 바탕으로, 「글로벌문화콘텐츠」, 24, 289-310.
- 김성하·임수원(2019), 스포츠공적개발원조 Dream Together 사업의 문제점과 발전방안, 「한국체육정책학회지」, 50, 157-176.
- 김수정(2012), 동남아에서 한류의 특성과 문화취향의 초국가적 흐름, 「방송과 커뮤니케이션」, 13(1), 5-54.
- 김윤희·박치완(2011), 인도의 문화코드와 글로컬문화콘텐츠, 「국제지역연구」, 14(4), 79-106.
- 김형종(2013), 한국의 말레이시아 연구 동향, 「아시아리뷰」, 3(2), 107-138.
- 문효진(2018), 한국 방송콘텐츠의 태국 진출 및 교류 협력을 위한 방안 연구, 「글로벌문화콘텐츠」, (33), 63-87.
- 백소연·박경철(2016), 문화분야 ODA 의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현황 연구: 문화체육관광부와 KOICA 중심으로,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16(2), 57-67.
- 심두보(2013), The Korean Wave in Southeast Asia: The Case of Singapore, 「동남아시아연구」, 23(1), 277-311.
- 우양호(2019), 동아시아 해역공동체를 향한 ‘신남방정책’의 의미와 평가, 「인문사회과학연구」, 20, 135-175.
- 이경찬·황인원(2015), The Evolution of Korea-Malaysia Relations: From Low-key to an Interdependent Relationship, 「동남아시아연구」, 25(3), 272-312.
- 이은형·방정혜(2009), 싱가포르의 르네상스 시티 프로젝트 사례 연구: 한국에 주는 시사점, 「서울도시연구」, 10(4), 121-141.
- 이혁구(2019), 한국과 대만의 대 (對) 아세안 경제정책 비교, 「비교경제연구」, 26(2),

115-138.
- 임학순(2012), 필리핀 청소년들의 K-pop 소비요인 및 영향인식에 관한 연구, 「비교한국학 Comparative Korean Studies」, 20(1), 85-112.
- 장병옥·최활식(2013), 말레이시아 주요 산업 및 경제협력에 관한 연구, 「동남아연구」, 22(3), 269-308.
- 장원호·송정은(2015), 필리핀 K-Pop 팬덤이 K-Pop 의 현지화에 미치는 영향: PKCI의 사례를 중심으로, 「한국엔터테인먼트산업학회논문지」, 9(3), 31-43.
- 정환문·정다정(2014), 한국 문화분야 ODA 문제와 나아가야 할 방향, 「문화산업연구」, 14(1), 7-16.
- 채향순(2011), 동아시아 사회문화공동체 형성에 따른 무용예술교류의 방향, 「한국사회체육학회지」, 46(1), 207-220.
- 최영종(2019), 인도태평양 시대 한국의 '신남방정책'과 새로운 지역주의 전략의 모색, 「동북아연구(구 통일문제연구)」, 34(1), 5-35.
- 하이파·김진영(2019), 이슬람, 한류에 빠지다, 「글로벌문화콘텐츠학회 학술대회」, 189-193.
- 허윤정·송정은·장원호(2016), 필리핀의 한류수용 특징,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16(4), 153-169.
- Zainal, K., & Salleh, N. M.(2010). Ethnic relation among the youth in Malaysia: toward fulfilling the concept of one Malaysia. *Procedia-Social and Behavioral Sciences, 9,* 855-858.

(언론기사 및 보도자료)

- 뉴스1(2019.10.26.),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은 신남방정책 문화교류의 핵심기지".
- 뉴시스(2019.11.25.), "예술위, 싱가포르와 예술교류 앞장선다".
- 매일경제(2014.9.28.), "[관광 ODA] 관광 노하우 나눔 프로젝트 펼친다".
- 서울신문(2019.11.6.), "탄자니아 학생들에게 책을…'작은도서관' 3곳 개관".
- 아세안익스프레스(2020.3.2.), "와 '디지털 아카이브'다! 온라인으로 '아세안' 문화유산 만난다".
- 아시아아츠(2020.2.28.), "아세안 문화유산 디지털 아카이브 시스템 온라인 공개".
- 에너지데일리(2019.9.23.), "'중성자과학' 활용 문화유산 ODA(공적개발원조) 나선다".
- 에듀동아(2018.11.22.),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문화예술교육 ODA' 사업 교육결과 전시회 24~25일 개최".

- 연합뉴스(2018.11.18.), “필리핀 수도권 10개 고교서 한국어 교육…지방으로 확대 계획”.
- 연합뉴스(2019.11.25.), “정부, 베트남 등 5개국과 '신남방 ODA' 양해각서 체결”.
- 연합뉴스(2019.11.5.), “한·아세안 교류 확대..부산외대 아세안연구원 출범”.
- 조선에듀(2019.8.28.), “고등교육 위기이자 기회...한-아세안 협력 강화해야”.
- 컬쳐타임즈(2019.7.22.), “국립무형유산원, 무형유산 유튜브 영상공모전 개최, 오늘 8월 19일부터 30일까지 공모”.
- 프레시안(2019.8.12.), “경북교육청, 14년째 과테말라 공화국 교류협력 정보화 지원 및 연수”.
- 프레시안(2019.9.2.), “경북교육청, 과테말라 정보화지원활동 14년, 전진석 부교육감에게 듣는다”.
- 한겨레신문(2017.3.6.), “인공지능 기술 숨 가쁜 발전 배경엔 ‘공유와 개방’ 문화”.
- 한국경제(2019.10.23.), “문화·관광 교류협력으로 한·아세안 공동체 박차”.
- 한국국제협력단(KOICA)(2019.3.6.), “코이카, 아세안 국가 미래인재양성 위해 ”신남방 교육 ODA 지원 사업 “추진”.
- 헤럴드경제(2016.4.27.), “리메이크 판권 수출 급증, 왜일까?”.
- The Straits Times(2019.11.27.), “Korean may be taught as a foreign language in Singapore schools”.
- 국토교통부(2019.11.25.), “한·아세안 10개국, 스마트시티 협력 본궤도 올린다”.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2019.10.25.), “한·아세안 문화협력 강화 획기적 계기 마련”.
- 문화체육관광부(2019.8.29.), “작년과 달라지는 주요사업”.
- 문화체육관광부(2019.10.24.), “한·아세안 문화협력 강화 획기적 발전 계기 마련 - 한·아세안 특별문화장관회의 공동 언론성명 채택 -”.
- 문화체육관광부(2019.5.2.), “베를린 등 재외 한국문화원 10곳에 문화피디 10명 파견”.
- 문화체육관광부(2019.9.19.), “문체부, 보도자료 베트남에 14번째 ‘작은도서관’ 문 열어”.
- 외교부(2019.3.15.), “〈캄보디아 국빈방문 첫날, 동포간담회〉 ‘한강의 기적’을 ‘메콩강의 기적’으로”.

(홈페이지 및 웹사이트)

- ASEAN_Korea Centre 뉴스레터(http://newsletter.aseankorea.org/?p=5578).
- culture360.ASEF.ORG(https://culture360.asef.org/opportunities/2019-asia-pacific-youth-ich-storytelling-contest/).
- every contry's tourism slogan (https://mk0fbfinderxb7r4cblw.kinstacdn.com/wp-content/uploads/2016/11/Every-Countrys-Tourism-Slogan-large.png).
- KOICA ODA 정보포털(http://www.oda.go.kr/).
- Kotra 국가정보-라오스 (https://news.kotra.or.kr/user/nationInfo/kotranews/14/nationMain.do?natnSn=64).
- ODA 정보포털 (http://www.oda.go.kr/opo/bsin/bsnsInfoCntntsDetail.do?P_BSNS_NO=2020-00031).
- 경기창조경제혁신센터-2018 한-아세안 ICT 스타트업 교류협력 사업 (https://ccei.creativekorea.or.kr/).
- 국립민속박물관(https://www.nfm.go.kr/).
- 국립아시아문화전당-2019 ACC 전문인력 아카데미 전문가 역량강화과정 (https://www.acc.go.kr/main/contents.do?PID=040402).
- 국립아시아문화전당(https://www.acc.go.kr).
- 국립아시아문화전당-사업소개 (https://www.acc.go.kr/info/contents.do?PID=020601).
- 국립중앙박물관 세계문화관 (https://www.museum.go.kr/site/main/showroom/list/756?showroomCode=DM0027).
- 국립중앙박물관(https://www.museum.go.kr/site/main/archive/united/7256).
- 국립중앙박물관-베트남 국립역사박물관 소장품전 (https://www.museum.go.kr/site/main/exhiSpecialTheme/view/specialGallery?exhiSpThemId=469502).
- 나무위키-신남방정책(https://namu.wiki/w/신남방정책).
- 네이버 지식백과-DAC (https://terms.naver.com/entry.nhn?docId=645322&cid=43126&categoryId=43126).
- 대통령직속정책기획위원회(www.nsp.go.kr).
- 대한민국 ODA 통합홈페이지 (http://www.odakorea.go.kr/oz.main.OdaMain.do).

- 대한민국 ODA 통합홈페이지-2019년 부처별 네팔 지원계획 (http://www.odakorea.go.kr/oz.main.OdaMain.do).
- 대한민국 ODA 통합홈페이지-2019년 부처별 라오스 지원계획 (http://www.odakorea.go.kr/oz.main.OdaMain.do).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http://www.korea.kr).
- 문화재청 국가문화유산포털(htttp://heritage.go.kr/).
- 문화체육관광부 해외문화홍보원 (http://www.kocis.go.kr/koreanet/view.do?seq=1013440&RN=1).
- 문화체육관광부(www.mcst.go.kr).
- 문화체육관광부-ODA강화사업 (https://www.mcst.go.kr/usr/kwave/plan/modern/strategy10.jsp).
- 문화포털(culture.go.kr).
- 사단법인한국라오스친선협회(http://www.korlaos.or.kr/).
- (사)한국3D프린팅협회(http://www.k3dprinting.or.kr/).
- 서강대학교 동아연구소(sieas.sogang.ac.kr).
- 서울관광재단(http://www.sto.or.kr/).
- 세종학당재단(https://www.ksif.or.kr/).
- 신남방정책특별위원회(http://www.nsp.go.kr/policy/policy02Page.do).
- 아세안 문화유산 디지털 아카이브(https://heritage.asean.org/).
- 아세안문화원(https://www.ach.or.kr/).
- 아시아문화콘텐츠교류협회(http://www.accea.co.kr/business/business02.php).
- 에듀넷·티-클리어(https://www.edunet.net/nedu/main/mainForm.do#).
- 유네스코 아테무형유산센터 (https://www.unesco-ichcap.org/program-areas/information-sharing-ko/?lang=ko).
- 유네스코-국제문화교류 (https://ich.unesco.org/en/overall-results-framework-00984).
- 유네스코무형문화유산센터-뉴스(https://www.irci.jp/news/2017-0207/).
- 유네스코와 유산(heritage.unesco.or.kr).
- 유네스코한국위원회(http://heritage.unesco.or.kr/).
- 유튜브-러브디스턴스 채널 (https://www.youtube.com/watch?v=REmKbkIhR0Y).

- 재외교육기관포털(http://okep.moe.go.kr).
- 주 라오스 대한민국대사관(http://overseas.mofa.go.kr/kh-ko/index.do).
- 주 미얀마 대한민국대사관(http://overseas.mofa.go.kr/vn-ko/index.do).
- 주 베트남 대한민국대사관(http://overseas.mofa.go.kr/vn-ko/index.do).
- 주 브루나이 대한민국대사관(http://overseas.mofa.go.kr/bn-ko/index.do).
- 주 싱가포르 대한민국 대사관(http://overseas.mofa.go.kr/sg-ko/index.do).
- 주 인도 대한민국대사관(overseas.mofa.go.kr/in-ko/index.do).
- 주 인도네시아 대한민국대사관(http://overseas.mofa.go.kr/th-ko/index.do).
- 주 캄보디아 대한민국대사관(http://overseas.mofa.go.kr/kh-ko/index.do).
- 주 태국 대한민국대사관(http://overseas.mofa.go.kr/th-ko/index.do).
- 주 베트남 한국문화원(http://vietnam.korean-culture.org/ko).
- 주 인도네시아한국문화원(http://id.korean-culture.org/ko).
- 주 인도 한국문화원(http://india.korean-culture.org/ko).
- 주 태국 한국문화원(http://thailand.korean-culture.org/ko).
- 주 필리핀 한국문화원(http://phil.korean-culture.org/ko).
- 첸나이 인코센터(http://www.inkocentre.org/).
- 통합무역정보서비스-디지털 문화유산 커버스토리(2016) (http://tradenavi.or.kr/).
- 한·인니문화연구원(http://www.ikcs.kr/ik/).
- 한국국제문화교류진흥원(http://kofice.or.kr/).
- 한국무역협회·산업통상자원부 K-stat(http://stat.kita.net/).
-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문화예술교육 ODA (https://www.arte.or.kr/business/international/oda/intro/index.do).
- 한국문화예술위원회(https://www.arko.or.kr).
- 한베경제문화협회(http://www.koveca.com/).
- 한베문화교류센터(http://koviculture.net/).
- 행정안전부 국가기록원 대통령기록관 (http://17clip.pa.go.kr/intro/intro_05_17.jsp).

ABSTRACT

Plan for Promoting Cultural Exchange with the New Southern Policy(NSP) Region

Since the proclamation of the New Southern Policy (NSP) in November 2017, there has been a growing emphasis on the importance of cultural exchange and cooperation with the 10 ASEAN nations and India. The Ministry of Culture, Sports and Tourism has been actively working to build a foundation for policy implementation to expand cultural exchange and cooperation with the NSP region, with efforts such as the hosting of the 2019 Special Meeting of the ASEAN-Republic of Korea Ministers Responsible for Culture and Arts.

The NSP region is characterized by remarkable growth potential, with a population of 650 million, average GDP growth of 5~6%, and young population of over 50% aged 30 or younger. Despite its position as South Korea's second largest regional trade partner, interest in cultural exchange and its real importance has been lacking, with cultural exchange being seen an auxiliary effect of economic exchange. The popularity of Korean popular culture dubbed the "Korean Wave" and the increase in both inbound and outbound visitors have been viewed as achievements but were triggered more by market forces rather than active government policy to promote cultural exchange. It is time to critically examine the content and direction of the relatively disorganized and unsystematic cultural exchange between the NSP region and Korea to date, in order to consider future policies and establish a system of implementation.

Therefore the study is conducted to broaden the scope of South Korean international cultural exchange policy which has been focused on major powers

such as Japan, China, U.S. and Western Europe to the NSP region, examining the content of and strategies for effective cultural exchange with the region, to propose a revision of the existing paradigm of international cultural exchange policy in South Korea.

To this end, we examine the orientation and characteristics of the government's New Southern Policy and analyze the characteristics of South Korea's international cultural exchange, as well as the current status and outcomes of NSP in cultural exchange. Analyzing the cultural exchange environment in major NSP nations based on the total volume of trade with South Korea, we explore that while there is a growing recognition of the importance of the socio-cultural sector, the importance is poorly reflected in the weight it is given in the overall policy. Furthermore, the lack of a comprehensive system to examine the justification for the policy programs, as well as predict and evaluate their effectiveness pointed to a need for systematization. There is not only an absolute lack in specific policy, awareness of diversity and expertise to create cultural tourism content and improve cultural heritage tourism infrastructure for the NSP region, but also limited legal institutions for international utilization of cultural resources and foundation for the implementation of cultural diversity policies.

As part of the research, we also survey experts working in related fields to analyze the demand for cultural exchange in the NSP region. This is to obtain insight from as many experts as possible, to make up for in-depth interviews that barely conduct due to the COVID-19 crisis. From the expert survey, we are able to collect a wide range of opinions on the government's cultural exchange policies for the NSP region, its outcomes and limitations, as well as future direction, improvements and strategies for cultural exchange policies towards the NSP region. Based on our review of the literature and analysis of the survey results, we present a policy vision and strategy for cultural exchange with the NSP region that should be implemented in a more systematic manner, together with proposed projects.

Our proposed vision for the cultural exchange policy towards the NSP region

is to create a community of cooperation and mutual benefit with NSP region nations as a cultural partner. The proposed strategies for cultural exchange in line with the vision are (1) raising awareness: elevating the partnership through strengthened ties, (2) institutionalization of exchange: establishment of organizations for cooperation and funds to build a sustainable system of exchange, (3) generating mutual benefit: building the foundation for a NSP cultural community through the generation of mutual economic benefit, (4) personnel training: procuring personnel with expertise for human resource exchange and cultural exchange.

The methods proposed in implementing policies to promote cultural exchange and cooperation with the NSP region include ① understanding the demand for cultural exchange and establishing a well-developed project plan, ② expert networking, ③ creating a system for personnel training, ④ making a system for cooperation, ⑤ building a multi-level governance structure, and ⑥ exploring a system for outcome evaluation. The findings will be useful references in order to establish the direction of future projects and private-sector cooperation strategies in international cultural exchange at not only the Ministry of Culture, Sports and Tourism, but also public institutions in charge of international cultural exchange duties such as the Cultural Heritage Administration and Asia Culture Center, as well as local authorities.

The purpose of the study is to broaden the scope of Korean international cultural exchange policy which has been focused on major powers such as Japan, China, U.S. and Western Europe to the NSP region, to propose the direction, content and strategy for effective cultural exchange with the region that should be actively implemented in the future. The findings not only contribute to increasing the effectiveness of the cultural exchange policy towards the NSP region, but also to improve the existing paradigm of international cultural exchange in South Korea.

The global community including South Korea continues to face unprecedented challenges from COVID-19, making it difficult to say whether the central government of South Korea is able to implement these cultural exchange policies

within the NSP in the near future. Many futurists are predicting that the world will not return to its pre-COVID stage. Nonetheless, as Korea is equipped with the best IT infrastructure in the world, giving it the capacity to adapt quickly to the contact-less paradigm, we expect timely response to such changes in the environment as well. We hope for a follow-up study to be conducted on the establishment of a cultural policy for the NSP region in the contact-less era based on such technological capacities. Although this topic is touched upon in the study which is not fully addressed therein. As research on the direction of cultural policy in the contact-less era should be conducted at a national level, the associated policies for the NSP region should also be studied further, with a focus on specific implementation methods.

The study has inevitable limitations and shortcomings, being almost the first policy study for cultural exchange with the NSP region. However, it is our hope that the study shall be a starting point for more specific research and policy project planning to be implemented when the global environment becomes more suitable for flexible cultural exchange.

Keywords

New Southern Policy, NSP Region, Korea'S International Cultural Exchange, Cultural Diversity Policies

부록

【부록1】 설문지

Code		ID	

신남방 지역 문화교류 정책 관련 전문가 설문 조사

본 설문조사는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국책연구기관인 한국문화관광연구원의 기본과제, 『신남방 지역(아세안 10개국, 인도) 문화교류 활성화 방안』의 일환으로 수행되는 조사입니다. 귀하의 답변은 신남방 지역 문화교류정책을 수립하는데 소중한 자료로 활용될 것입니다. 응답하신 내용은 연구 목적으로만 이용될 것입니다. 바쁘시더라도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한국문화관광연구원

연구과제명: 『신남방 지역(아세안 10개국, 인도) 문화교류 활성화 방안』

연구책임: 류정아 선임연구위원(02-2669-9839)

조사담당: 이안전략컨설팅(02-6929-1922)

※ 이 조사에서 조사된 모든 내용은 통계목적 이외에는 절대로 사용될 수 없으며 그 비밀이 보호되도록 **통계법(제13조 및 제14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성별	① 남 ② 여
관심 분야	① 정치·외교 분야 ② 경제 분야 ③ 문화예술 분야 ④ 관광 분야 ⑤ 신남방 지역 문화 분야 ⑥ 기타 ( )
관심 지역	① 인도 ② 캄보디아 ③ 라오스 ④ 베트남 ⑤ 미얀마 ⑥ 태국 ⑦ 브루나이 ⑧ 인도네시아 ⑨ 싱가포르 ⑩ 말레이시아 ⑪ 필리핀 ⑫ 아세안 전반
활동 기간	① 1~5년 ② 6년~10년 ③ 11년 ~ 15년 ④ 16년 ~20년 ⑤ 21년 이상

Ⅰ. 동남아 지역 및 인도 지역과 관련한 정부정책에 대한 견해를 묻는 질문입니다. 해당항목에 ✓ 표시 하세요.

1. 기존 정부 대비 신남방 지역에 대한 문재인 정부의 관심도는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십니까?
   ① 이전 정부보다 관심이 매우 낮다
   ② 이전 정부보다 관심이 낮다
   ③ 이전 정부와 실질적으로 동일한 수준이다
   ④ 이전 정부보다 관심이 높다
   ⑤ 이전 정부보다 월등히 관심이 높다

2. 문재인 정부의 전반적인 신남방 정책 방향에서 어느 부문에 가장 역점을 두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2개 선택)
   ① 경제교류협력 ② 정치협력
   ③ 사회문화교류협력 ④ ODA사업
   ⑤ 인적교류 ⑥ 기타( )

3. 2017년에 시작된 문재인 정부의 신남방 정책에서 거둔 성과로 가장 두드러진 점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2개 선택)
   ① 신남방 지역과의 경제교류의 양이 증가하였다
   ② 신남방 지역과의 우호적인 관계가 현격히 개선되었다
   ③ 문화교류의 내용과 양이 증가하였다
   ④ 인적교류가 활발해졌다
   ⑤ 신남방 지역에서 우리나라의 국가 브랜드가 높아졌다

4. 문재인 정부의 신남방 정책의 한계로 지적될 수 있는 것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2개 선택)
   ① 지나치게 경제적인 측면만 강조되었다
   ② 우리나라 중심의 일방적인 교류에 치중하였다
   ③ 실질적인 교류의 성과가 크게 나타나지 않고 있다
   ④ 지나치게 정부 주도적인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다
   ⑤ 지속성이 부족하다

5. 향후 문재인 정부의 신남방 정책에서 보다 더 역점을 두어야 할 것은 다음 중 어떤 분야라고 생각하십니까?(2개 선택)

① 경제교류협력 ② 정치협력
③ 사회문화교류협력 ④ ODA사업
⑤ 인적교류 ⑥ 기타( )

Ⅱ. 신남방 지역 문화교류 정책의 성과에 관한 질문입니다.
해당항목에 ✓ 표시 하세요.

6. 우리나라 신남방 지역과의 문화교류를 타 국가와 비교해 보았을 때 문화교류에 대한 비중이나 의지는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십니까?

① 상당히 저조하다 ② 조금 저조하다
③ 보통이다 ④ 약간의 의지가 있다
⑤ 상당한 의지가 있다

7. 우리나라 신남방 지역과의 문화교류를 타 국가와 비교해 보았을 때 상대적으로 어느 정도의 성과를 거두었다고 생각하십니까?

① 상당히 저조하다 ② 조금 저조하다
③ 보통이다 ④ 약간의 성과가 있다
⑤ 상당한 성과가 있다

8. 귀하는 신남방 지역의 국민들이 우리나라의 문화교류 의지나 효과에 대해 어떠한 평가를 내릴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① 상당히 부정적 평가를 내릴 것이다
② 어느 정도 부정적 평가를 내릴 것이다
③ 보통의 평가를 내릴 것이다
④ 긍정적 평가를 내릴 것이다
⑤ 상당히 긍정적 평가를 내릴 것이다
⑥ 잘 모르겠다

9. 지금까지 진행된 신남방 지역과의 문화교류 정책에서 성과를 내었다고 판단되는 부분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4개 선택)

① 문화산업 분야 교류 및 교역
② 문화콘텐츠 활용 및 생산
③ 한류·대중문화 향유 및 수출
④ 신남방 지역에 대한 이해 제고
⑤ 한국인에 대한 신남방 국민들의 호의적 이미지 제고
⑥ 신남방 지역문화에 대한 우리나라 국민들의 관심 제고
⑦ 신남방 지역 출신 이주민에 대한 편견 감소
⑧ 쌍방 간 문화예술 교류 활성화
⑨ 문화 관련 인력교류 활성화
⑩ 문화 ODA 사업 활성화
⑪ 문화 관련 인프라 구축 지원
⑫ 관광 활성화
⑬ 문화관광 분야 일자리 창출
⑭ 인력 양성
⑮ 기타(　　)

10. 신남방 문화교류 정책에서 가장 성과를 내지 못한 부분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4개 선택)

① 문화산업 분야 교류 및 교역
② 문화콘텐츠 활용 및 생산
③ 한류·대중문화 향유 및 수출
④ 신남방 지역에 대한 이해 제고
⑤ 한국인에 대한 신남방 국민들의 호의적 이미지 제고
⑥ 신남방 지역문화에 대한 우리나라 국민들의 관심 제고
⑦ 신남방 지역 출신 이주민에 대한 편견 감소
⑧ 쌍방 간 문화예술 교류 활성화
⑨ 문화 관련 인력교류 활성화　　⑩ 문화 ODA 사업 활성화
⑪ 문화 관련 인프라 구축 지원　　⑫ 관광 활성화
⑬ 문화관광 분야 일자리 창출　　⑭ 인력 양성
⑮ 기타(　　)

10-1. 성과를 내지 못한 것에 대한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3개 선택)

① 체계적인 정책시스템 부재
② 관련분야 인력 부족(전문가 인력 및 현장 인력 등)
③ 문화 분야 교류의 경험 부족
④ 문화교류 가이드라인 부재
⑤ 해당 국가나 지역의 문화적 특성에 대한 이해 부족
⑥ 해당 국가나 지역의 협조 부족
⑦ 국가 간 교류를 추진하기 위한 협력 단체나 조직의 부족
⑧ 일회성으로 끝나고 지속성 부족
⑨ 예산부족
⑩ 경제 산업에만 치중
⑪ 기타( )

11. 향후 신남방 문화교류정책에서 가장 역점을 두어야 할 부분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4개 선택)

① 문화산업 분야 교류 및 교역
② 문화콘텐츠 활용 및 생산
③ 한류·대중문화 향유 및 수출
④ 신남방 지역에 대한 이해 제고
⑤ 한국인에 대한 신남방 국민들의 호의적 이미지 제고
⑥ 신남방 지역문화에 대한 우리나라 국민들의 관심 제고
⑦ 신남방 지역 출신 이주민에 대한 편견 감소
⑧ 쌍방 간 문화예술 교류 활성화
⑨ 문화 관련 인력교류 활성화
⑩ 문화 ODA 사업 활성화
⑪ 문화 관련 인프라 구축 지원
⑫ 관광 활성화
⑬ 문화관광 분야 일자리 창출
⑭ 인력 양성
⑮ 기타( )

Ⅲ. 신남방 지역 문화교류 정책에 대한 운영방향 및 개선사항에 관한 질문입니다. 해당항목에 ✓ 표시 하세요.

12. 다음 국가 중 지금까지 우리나라와의 문화교류 정책사업의 성과가 가장 잘 드러나고 있는 국가는 어디라고 생각하십니까?(2개국 선택)

① 인도	② 캄보디아	③ 라오스
④ 베트남	⑤ 미얀마	⑥ 태국
⑦ 브루나이	⑧ 인도네시아	⑨ 싱가포르
⑩ 말레이시아	⑪ 필리핀	

13. 신남방 문화교류 사업 추진 지역으로 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할 국가는 어디라고 생각하십니까?(3국 선택)

① 인도	② 캄보디아	③ 라오스
④ 베트남	⑤ 미얀마	⑥ 태국
⑦ 브루나이	⑧ 인도네시아	⑨ 싱가포르
⑩ 말레이시아	⑪ 필리핀	

13-1. 위의 질문에서 우선적인 문화교류의 고려대상 국가로 선택한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3개 선택)

① 우리나라와의 경제 교류가 왕성한 국가이기 때문에
② 향후 경제 성장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③ 우리나라의 인적·물적 교류가 해당 국가에 상당히 큰 도움이 될 것이기 때문에
④ 상호 국가 간 문화교류의 수요가 높기 때문에
⑤ 해당 국가가 한국에 대해서 상당히 호의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⑥ 해당 국가의 문화적인 전통의 고유성과 특수성이 문화교류의 효과를 높일 것이기 때문에
⑦ 해당 국가의 인적자원의 수준이 높아서 문화교류의 상호 시너지 효과가 높을 것이기 때문에
⑧ 오랜 기간 동안 우리나라와 우호관계를 맺어 왔기 때문에

14. 신남방 지역과의 문화교류정책 추진전략으로 다음 항목 중 가장 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할 부분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2개 선택)

① 동반자 관계 및 파트너십 강화 ② 문화콘텐츠 및 자원교류
③ 인적자원 교류 ④ 프로그램 공유 및 교류
⑤ 제도 및 인프라 구축 협력 ⑥ 해당 국가나 지역의 협조 부족
⑦ ODA 사업 활성화

IV. 본 연구에서는 신남방 지역 문화교류 정책의 추진전략으로 6개를 제시하고자 합니다.
1) 동반자 관계 및 파트너십 강화 / 2) 문화콘텐츠 및 자원교류 /
3) 인적자원 교류 / 4) 프로그램 공유 및 교류 /
5) 제도 및 인프라 구축 협력 / 6) ODA 사업 활성화
각 추진전략 별 세부 추진과제와 관련한 다음의 질문입니다.
해당항목에 √표시 하세요.

15. '1) 동반자 관계 및 파트너십 강화' 전략에 대한 질문입니다. 다음과 같은 추진과제들 중 가장 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할 것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2개 선택)

① 신남방 개별 국가와의 문화교류 MOU 체결
② 국내 문화다양성 보호 증진 사업을 통한 신남방 인식 제고
③ 문화예술분야 민-관 기관 간 교류네트워크 구축
④ 신남방 국가 간 문화 콘텐츠 제작 협력 사업
⑤ 국가 간 문화주간 행사 지원
⑥ 신남방 문화연구 네트워크 구축사업

16. '2) 문화콘텐츠 및 자원교류' 전략에 대한 질문입니다. 다음과 같은 추진과제들 중 가장 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할 것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2개 선택)

① 한국어학과 개설 지원 등 한국어 교육 활성화 사업
② 신남방 지역 언어교육 지원 사업
③ 콘텐츠 유통 플랫폼 개발 사업
④ 방송영상콘텐츠 국제공동제작
⑤ 신남방 지역 유·무형 문화유산 보존 지원 사업
⑥ 관광콘텐츠 개발 및 활성화를 위한 문화자원 발굴 사업

17. ‘3) 인적자원교류’ 전략에 대한 질문입니다. 다음과 같은 추진과제들 중 가장 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할 것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2개 선택)

① 분야별 전문가 교류사업(초청연수 및 국내 전문가 파견)
② 청년예술가 창작 교류 지원 사업
③ 청년·청소년 문화교류 네트워크 구축
④ 전통음악 커뮤니티 구축 및 활성화
⑤ 스포츠 교류활동 지원 사업
⑥ 정보통신기술(ICT) 기반 문화유산 보존·활용 역량 공유 사업

18. ‘4) 프로그램 공유 및 교류’ 전략에 대한 질문입니다. 다음과 같은 추진과제들 중 가장 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할 것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2개 선택)

① 예술계 장학 프로그램 교류 사업
② 아시아전통오케스트라 공연 프로그램 교류 사업
③ 한-아세안 국립박물관 전시프로그램 교류 사업 확대
④ 한-아세안 국립 문화기관 콘텐츠 및 프로그램 교류 협력 활성화 사업
⑤ 아시아 국가문화유산 포털 구축
⑥ 신남방 지역 관광 활성화 국제포럼 개최

19 ‘5) 제도 및 인프라 구축 협력’ 전략에 대한 질문입니다. 다음과 같은 추진과제들 중 가장 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할 것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2개 선택)

① 신남방 지역 공공(작은) 도서관 문화 조성사업
② 신남방 지역 문화의 이해증진을 위한 스마트시티 플랫폼 구축
③ 교류 협력국 문화 교육 정보화 인프라 구축 사업
④ 정보통신기술(ICT)을 활용한 신남방 지역 문화 기술 지원 협력

20. ‘6) ODA 사업 활성화’ 전략에 대한 질문입니다. 다음과 같은 추진과제들 중 가장 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할 것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2개 선택)

① 문화유산 보호·활용 및 인재 양성 ODA 추진
② 농촌마을 정보화 ODA 사업
③ 취약계층의 문화교육 ODA 사업
④ 지역관광자원 개발 및 활용 ODA 사업
⑤ 문화유산 디지털 DB구축 사업

V. 향후 신남방 문화교류 정책 방향에 관련한 질문입니다.
해당항목에 ✓ 표시 하세요

21. 신남방 지역 문화교류를 활성화하고자 하는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서 가장 시급하게 갖추어야 할 것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2개 선택)

① 현지에 대한 국가별·지역별 이해
② 구체적이고 입체적인 사업계획 수립
③ 전문가 네트워킹
④ 인력양성 시스템 구축
⑤ 협력시스템 구축
⑥ 다층적 거버넌스 구축
⑦ 성과평가 체계 구축
⑧ 기타(　　)

22. 신남방 지역 문화교류 사업 추진 시 가장 주의해서 고려되어야 할 사항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3개 선택)

① 국가 간 우호관계 수준
② 한국에 대한 호감정도
③ 상대 국가에 대한 교류 기초 데이터 확보
④ 상호 간 외교 걸림돌 파악 우선
⑤ 우리나라에 대한 신남방 지역 국민들의 편견 정도
⑥ 사증(비자) 면제협정 등 외교적 체결 정도
⑦ 신남방 지역의 경제 발전 수준 정도
⑧ 우리나라와 문화 교류하고자 하는 의지 정도
⑨ 사업을 수행하는 단체의 협력 기관과의 교류 정도
⑩ 신남방 지역 문화교류 전문 인력 수준
⑪ 기타(　　)

23. 귀하께서 신남방 지역 문화교류 정책에 대해 추가적인 의견이 있으면 자유롭게 적어 주십시오.

【부록2】 문항 간 교차분석 표

〈부록표 1〉 Ⅰ-2. 문재인 정부의 전반적인 신남방 정책 방향 중 가장 역점을 둔 부분 * Ⅰ-3. 2017년에 시작된 문재인 정부의 신남방 정책 중 가장 큰 성과

* 역점 분야(2개 응답), 현 정부 성과(2개 응답) (n=44)

구분		사례수	신남방과 경제교류 증가	신남방과 우호관계 개선	문화교류 확장 및 증대	인적교류 활발	한국 국가브랜드 향상	성과 계
전체		88	29	23	9	13	14	88
		100.0%	33.0%	26.1%	10.2%	14.8%	15.9%	
현재 역점 분야 / 성과	경제교류협력	38	28	20	5	10	13	76
		43.2%	36.8%	26.3%	6.6%	13.2%	17.1%	
	정치협력	12	6	10	2	2	4	24
		13.6%	25.0%	41.7%	8.3%	8.3%	16.7%	
	사회문화교류협력	18	9	7	8	5	7	36
		20.5%	25.0%	19.4%	22.2%	13.9%	19.4%	
	ODA사업	10	9	5	0	2	4	20
		11.4%	45.0%	25.0%	0.0%	10.0%	20.0%	
	인적교류	9	6	3	2	7	0	18
		10.2%	33.3%	16.7%	11.1%	38.9%	0.0%	
	기타	1	0	1	1	0	0	2
		1.1%	0.0%	50.0%	50.0%	0.0%	0.0%	
	현재 역점 분야 계	88	58	46	18	26	28	176

〈부록표 2〉 Ⅰ-5. 향후 신남방 정책에서 보다 더 역점을 두어야 할 분야 * Ⅰ-4. 문재인 정부의 신남방 정책의 한계

* 향후 역점 필요 분야(2개 응답), 현 정부 한계(2개 응답) (n=44)

구분		사례수	경제적 측면 국한	한국 중심 일방적 교류	실질적 교류성과 미비	지나친 정부주도 진행방식	지속성 부족	한계 계
전체		88	23	26	15	13	11	88
		100.0%	26.1%	29.5%	17.0%	14.8%	12.5%	
향후 역점 분야 / 한계	경제교류협력	6	1	4	4	1	2	12
		6.8%	8.3%	33.3%	33.3%	8.3%	16.7%	
	정치협력	12	5	9	4	4	2	24
		13.6%	20.8%	37.5%	16.7%	16.7%	8.3%	
	사회문화교류협력	33	19	21	9	9	8	66
		37.5%	28.8%	31.8%	13.6%	13.6%	12.1%	
	ODA사업	7	3	3	3	2	3	14
		8.0%	21.4%	21.4%	21.4%	14.3%	21.4%	
	인적교류	26	15	13	10	9	5	52
		29.5%	28.8%	25.0%	19.2%	17.3%	9.6%	
	기타	4	3	2	0	1	2	8
		4.5%	37.5%	25.0%	0.0%	12.5%	25.0%	
	향후 역점 분야 계	88	46	52	30	26	22	176

〈부록표 3〉 Ⅲ-13. 신남방 문화교류를 우선적으로 추진해야 할 국가 * Ⅲ-13-1. 선택한 이유

* 우선 추진 국가(3개 응답), 이유(3개 응답) (n=44)

구분		사례수	한국과 왕성한 경제교류	높은 경제성장 가능성	한국과의 인적·물적 교류가 해당 국가 도움	상호 국가 간 높은 문화 교류 수요	해당 국가의 한국에 대한 높은 호감	해당 국가의 문화 전통적 고유성 및 특수성이 문화교류 효과 증대	해당 국가의 높은 인적자원 수준이 문화교류의 상호 시너지 효과 증대	오랜기간 한국과의 우호관계 유지	이유 계
전체		132	16	26	18	19	14	21	15	3	132
		100.0%	12.1%	19.7%	13.6%	14.4%	10.6%	15.9%	11.4%	2.3%	
우선 추진 국가/ 선택 이유	인도	11	3	9	4	2	1	9	4	1	33
		8.3%	9.1%	27.3%	12.1%	6.1%	3.0%	27.3%	12.1%	3.0%	
	캄보디아	5	1	1	4	2	1	3	3	0	15
		3.8%	6.7%	6.7%	26.7%	13.3%	6.7%	20.0%	20.0%	0.0%	
	라오스	2	1	1	2	1	0	0	1	0	6
		1.5%	16.7%	16.7%	33.3%	16.7%	0.0%	0.0%	16.7%	0.0%	
	베트남	25	12	15	6	10	8	11	11	2	75
		18.9%	16.0%	20.0%	8.0%	13.3%	10.7%	14.7%	14.7%	2.7%	
	미얀마	13	5	10	6	4	3	6	5	0	39
		9.8%	12.8%	25.6%	15.4%	10.3%	7.7%	15.4%	12.8%	0.0%	
	태국	20	6	11	8	9	9	10	4	3	60
		15.2%	10.0%	18.3%	13.3%	15.0%	15.0%	16.7%	6.7%	5.0%	
	브루나이	1	0	0	1	0	1	0	1	0	3
		0.8%	0.0%	0.0%	33.3%	0.0%	33.3%	0.0%	33.3%	0.0%	
	인도네시아	37	15	22	16	17	12	17	10	2	111
		28.0%	13.5%	19.8%	14.4%	15.3%	10.8%	15.3%	9.0%	1.8%	
	싱가포르	3	1	1	1	3	1	0	2	0	9
		2.3%	11.1%	11.1%	11.1%	33.3%	11.1%	0.0%	22.2%	0.0%	
	말레이시아	10	3	5	4	5	5	5	3	0	30
		7.6%	10.0%	16.7%	13.3%	16.7%	16.7%	16.7%	10.0%	0.0%	
	필리핀	5	1	3	2	4	1	2	1	1	15
		3.8%	6.7%	20.0%	13.3%	26.7%	6.7%	13.3%	6.7%	6.7%	
	우선 추진국가 계	132	48	78	54	57	42	63	45	9	396

〈부록표 4〉 Ⅲ-13. 신남방 문화교류를 우선적으로 추진해야 할 국가 * Ⅱ-11. 향후 신남방 문화교류정책에서 가장 역점을 두어야 할 부분

* 우선 추진 국가(3개 응답), 역점 분야(4개 응답) (n=44)

구분		사례수	문화산업 분야 교류 및 교역	문화콘텐츠 활용 및 생산	한류·대중문화 향유 및 수출	신남방 지역에 대한 이해 제고	한국인에 대한 신남방 국민의 호의적 이미지 제고	신남방 지역문화에 대한 한국국민의 관심 제고	신남방 지역 출신 이주민관련 편견 감소	쌍방 간 문화예술 교류 활성화	문화 관련 인력 교류 활성화	문화 ODA 사업 활성화	문화 관련 인프라 구축 지원	관광 활성화	문화 관광 분야 일자리 창출	인력 양성	기타	역점 분야 계
전체		44	10	8	0	35	11	24	18	10	10	9	13	1	6	20	1	176
		100.0%	5.7%	4.5%	0.0%	19.9%	6.3%	13.6%	10.2%	5.7%	5.7%	5.1%	7.4%	0.6%	3.4%	11.4%	0.6%	
우선 추진 국가/ 역점 추진 분야	인도	11	3	3	0	11	1	7	4	1	2	1	4	0	0	6	1	44
		8.3%	6.8%	6.8%	0.0%	25.0%	2.3%	15.9%	9.1%	2.3%	4.5%	2.3%	9.1%	0.0%	0.0%	13.6%	2.3%	
	캄보디아	5	0	0	0	4	2	3	2	0	1	1	2	0	1	3	1	20
		3.8%	0.0%	0.0%	0.0%	20.0%	10.0%	15.0%	10.0%	0.0%	5.0%	5.0%	10.0%	0.0%	5.0%	15.0%	5.0%	
	라오스	2	0	0	0	2	0	1	0	1	0	2	0	0	1	1	0	8
		1.5%	0.0%	0.0%	0.0%	25.0%	0.0%	12.5%	0.0%	12.5 %	0.0%	25.0%	0.0%	0.0%	12.5%	12.5%	0.0%	
	베트남	25	4	5	0	20	7	14	11	6	6	3	7	1	3	12	1	100
		18.9%	4.0%	5.0%	0.0%	20.0%	7.0%	14.0%	11.0%	6.0%	6.0%	3.0%	7.0%	1.0%	3.0%	12.0%	1.0%	
	미안마	13	6	4	0	9	1	6	6	2	4	5	3	0	2	4	0	52
		9.8%	11.5%	7.7%	0.0%	17.3%	1.9%	11.5%	11.5%	3.8%	7.7%	9.6%	5.8%	0.0%	3.8%	7.7%	0.0%	
	태국	20	4	4	0	16	4	12	8	6	5	3	6	0	3	9	0	80
		15.2%	5.0%	5.0%	0.0%	20.0%	5.0%	15.0%	10.0%	7.5%	6.3%	3.8%	7.5%	0.0%	3.8%	11.3%	0.0%	

구분		사례수	문화산업 분야 교류 및 교역	문화콘텐츠 활용 및 생산	한류·대중문화 향유 및 수출	신남방 지역에 대한 이해 제고	한국인에 대한 신남방 국민의 호의적 이미지 제고	신남방 지역문화에 대한 한국 국민의 관심 제고	신남방 지역 출신 이주민관련 편견 감소	쌍방 간 문화예술 교류 활성화	문화 관련 인력 교류 활성화	문화 ODA 사업 활성화	문화 관련 인프라 구축 지원	관광 활성화	문화 관광 분야 일자리 창출	인력 양성	기타	역점 분야 계
	브루나이	1	0	0	0	1	0	0	0	0	1	1	1	0	0	0	0	4
		0.8%	0.0%	0.0%	0.0%	25.0%	0.0%	0.0%	0.0%	0.0%	25.0%	25.0%	25.0%	0.0%	0.0%	0.0%	0.0%	
	인도네시아	37	8	6	0	28	11	22	18	9	7	7	10	1	5	16	0	148
		28.0%	5.4%	4.1%	0.0%	18.9%	7.4%	14.9%	12.2%	6.1%	4.7%	4.7%	6.8%	0.7%	3.4%	10.8%	0.0%	
	싱가포르	3	1	0	0	2	1	1	1	0	0	0	2	0	1	3	0	12
		2.3%	8.3%	0.0%	0.0%	16.7%	8.3%	8.3%	8.3%	0.0%	0.0%	0.0%	16.7%	0.0%	8.3%	25.0%	0.0%	
	말레이시아	10	2	2	0	9	4	4	3	2	3	3	4	1	1	2	0	40
		7.6%	5.0%	5.0%	0.0%	22.5%	10.0%	10.0%	7.5%	5.0%	7.5%	7.5%	10.0%	2.5%	2.5%	5.0%	0.0%	
	필리핀	5	2	0	0	3	2	2	1	3	1	1	0	0	1	4	0	20
		3.8%	10.0%	0.0%	0.0%	15.0%	10.0%	10.0%	5.0%	15.0%	5.0%	5.0%	0.0%	0.0%	5.0%	20.0%	0.0%	
	우선 추진국가 계	132	30	24	0	105	33	72	54	30	30	27	39	3	18	60	3	528

〈부록표 5〉 SQ. 응답자 관심지역 * Ⅲ-14. 신남방 지역과의 문화교류정책 추진전략으로 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할 부분

* 응답자 관심지역(단일 응답), 우선 추진 전략(2개 응답) (n=44)

구분		사례수	동반자 관계 및 파트너십 강화	문화콘텐츠 및 자원 교류	인적자원 교류	프로그램 공유 및 교류	제도 및 인프라 구축 협력	해당 국가나 지역의 협조 부족	ODA 사업 활성화
전체		88	21	12	29	2	18	2	4
		100.0%	23.9%	13.6%	33.0%	2.3%	20.5%	2.3%	4.5%
관심 지역	인도	0	0	0	0	0	0	0	0
		0.0%	0.0%	0.0%	0.0%	0.0%	0.0%	0.0%	0.0%
	캄보디아	2	1	0	1	0	0	0	0
		2.3%	50.0%	0.0%	50.0%	0.0%	0.0%	0.0%	0.0%
	라오스	2	0	0	0	1	1	0	0
		2.3%	0.0%	0.0%	0.0%	50.0%	50.0%	0.0%	0.0%
	베트남	12	2	2	6	0	2	0	0
		13.6%	16.7%	16.7%	50.0%	0.0%	16.7%	0.0%	0.0%
	미얀마	4	0	1	2	0	1	0	0
		4.5%	0.0%	25.0%	50.0%	0.0%	25.0%	0.0%	0.0%
	태국	12	4	1	4	1	2	0	0
		13.6%	33.3%	8.3%	33.3%	8.3%	16.7%	0.0%	0.0%
	브루나이	0	0	0	0	0	0	0	0
		0.0%	0.0%	0.0%	0.0%	0.0%	0.0%	0.0%	0.0%
	인도네시아	16	3	2	4	0	5	1	1
		18.2%	18.8%	12.5%	25.0%	0.0%	31.3%	6.3%	6.3%
	싱가포르	8	1	2	2	0	2	0	1
		9.1%	12.5%	25.0%	25.0%	0.0%	25.0%	0.0%	12.5%
	말레이시아	8	3	0	2	0	2	0	1
		9.1%	37.5%	0.0%	25.0%	0.0%	25.0%	0.0%	12.5%
	필리핀	6	2	0	2		0	1	1
		6.8%	33.3%	0.0%	33.3%	0.0%	0.0%	16.7%	16.7%
	아세안 전반	18	5	4	6	0	3	0	0
		20.5%	27.8%	22.2%	33.3%	0.0%	16.7%	0.0%	0.0%

【부록3】 국가별 문화교류 사업 우선 순위비율

〈부록표 6〉 Ⅲ-13. 신남방 문화교류를 우선적으로 추진해야 할 국가 * Ⅳ-15. 동반자 관계 및 파트너십 강화전략 중 우선 고려되어야 할 세부 추진과제

* 우선 추진 국가(3개 응답), 우선 고려 동반자 관계 및 파트너십 세부전략(2개 응답) (n=44)

구분		사례수	신남방 개별 국가와의 문화교류 MOU 체결	국내 문화다양성 보호 증진 사업을 통한 신남방 인식 제고	문화예술분야 민-관 기관 간 교류 네트워크 구축	신남방 국가 간 문화 콘텐츠 제작 협력 사업	국가 간 문화 주간 행사 지원	신남방 문화연구 네트워크 구축사업	동반자 관계 및 파트너십 세부전략 계
전체		44	6	22	17	11	1	31	88
		100.0%	6.8%	25.0%	19.3%	12.5%	1.1%	35.2%	
우선 추진 국가/ 우선 고려 동반자 관계 및 파트너십	인도	11	2	6	5	2	1	6	22
		8.3%	9.1%	27.3%	22.7%	9.1%	4.5%	27.3%	
	캄보디아	5	0	3	3	1	0	3	10
		3.8%	0.0%	30.0%	30.0%	10.0%	0.0%	30.0%	
	라오스	2	1	1	1	0	0	1	4
		1.5%	25.0%	25.0%	25.0%	0.0%	0.0%	25.0%	
	베트남	25	5	12	10	6	0	17	50
		18.9%	10.0%	24.0%	20.0%	12.0%	0.0%	34.0%	
	미얀마	13	3	6	5	2	1	9	26
		9.8%	11.5%	23.1%	19.2%	7.7%	3.8%	34.6%	
	태국	20	3	10	6	7	0	14	40
		15.2%	7.5%	25.0%	15.0%	17.5%	0.0%	35.0%	
	브루나이	1	0	0	1	0	0	1	2
		0.8%	0.0%	0.0%	50.0%	0.0%	0.0%	50.0%	
	인도네시아	37	4	17	14	11	1	27	74
		28.0%	5.4%	23.0%	18.9%	14.9%	1.4%	36.5%	
	싱가포르	3	0	1	1	1	0	3	6
		2.3%	0.0%	16.7%	16.7%	16.7%	0.0%	50.0%	
	말레이시아	10	0	7	4	2	0	7	20
		7.6%	0.0%	35.0%	20.0%	10.0%	0.0%	35.0%	
	필리핀	5	0	3	1	1	0	5	10
		3.8%	0.0%	30.0%	10.0%	10.0%	0.0%	50.0%	
	우선 추진국가 계	132	18	66	51	33	3	93	264

〈부록표 7〉 Ⅲ-13. 신남방 문화교류를 우선적으로 추진해야 할 국가 * Ⅳ-16. 문화콘텐츠 및 자원교류전략 중 우선 고려되어야 할 세부 추진과제

* 우선 추진 국가(3개 응답), 우선 고려 문화콘텐츠 및 자원교류 세부 전략(2개 응답) (n=44)

구분		사례수	한국어학과 개설 지원 등 한국어 교육 활성화 사업	신남방 지역 언어교육 지원 사업	콘텐츠 유통 플랫폼 개발 사업	방송영상콘텐츠 국제 공동제작	신남방 지역 유·무형 문화유산 보존 지원 사업	관광콘텐츠 개발 및 활성화를 위한 문화 자원 발굴 사업	문화콘텐츠 및 자원교류 세부전략 계
전체		44	9	27	9	9	20	14	88
		100.0%	10.2%	30.7%	10.2%	10.2%	22.7%	15.9%	
우선 추진 국가/ 우선 고려 문화 콘텐츠 및 자원교류	인도	11	5	6	4	2	4	1	22
		8.3%	22.7%	27.3%	18.2%	9.1%	18.2%	4.5%	
	캄보디아	5	0	1	1	4	3	1	10
		3.8%	0.0%	10.0%	10.0%	40.0%	30.0%	10.0%	
	라오스	2	0	0	1	1	1	1	4
		1.5%	0.0%	0.0%	25.0%	25.0%	25.0%	25.0%	
	베트남	25	7	16	4	6	10	7	50
		18.9%	14.0%	32.0%	8.0%	12.0%	20.0%	14.0%	
	미얀마	13	2	6	2	2	9	5	26
		9.8%	7.7%	23.1%	7.7%	7.7%	34.6%	19.2%	
	태국	20	5	14	5	2	8	6	40
		15.2%	12.5%	35.0%	12.5%	5.0%	20.0%	15.0%	
	브루나이	1	0	1	0	0	1	0	2
		0.8%	0.0%	50.0%	0.0%	0.0%	50.0%	0.0%	
	인도네시아	37	5	23	8	7	18	13	74
		28.0%	6.8%	31.1%	10.8%	9.5%	24.3%	17.6%	
	싱가포르	3	0	3	0	0	1	2	6
		2.3%	0.0%	50.0%	0.0%	0.0%	16.7%	33.3%	
	말레이시아	10	3	7	2	1	3	4	20
		7.6%	15.0%	35.0%	10.0%	5.0%	15.0%	20.0%	
	필리핀	5	0	4	0	2	2	2	10
		3.8%	0.0%	40.0%	0.0%	20.0%	20.0%	20.0%	
	우선 추진국가 계	132	27	81	27	27	60	42	264

〈부록표 8〉 Ⅲ-13. 신남방 문화교류를 우선적으로 추진해야 할 국가 * Ⅳ-17. 인적자원교류전략 중 우선 고려되어야 할 세부 추진과제

* 우선 추진 국가(3개 응답), 우선 고려 인적자원교류 세부 전략(2개 응답) (n=44)

구분		사례수	분야별 전문가 교류 사업(초청연수 및 국내 전문가 파견)	청년예술가 창작 교류 지원 사업	청년·청소년 문화교류 네트워크 구축	전통음악 커뮤니티 구축 및 활성화	스포츠 교류활동 지원 사업	정보통신기술(ICT) 기반 문화유산 보존·활용 역량 공유 사업	인적자원교류 계
전체		44	29	12	29	2	2	14	88
		100.0%	33.0%	13.6%	33.0%	2.3%	2.3%	15.9%	
우선 추진 국가/ 우선 고려 인적 자원 교류 전략	인도	11	9	4	6	0	0	3	22
		8.3%	40.9%	18.2%	27.3%	0.0%	0.0%	13.6%	
	캄보디아	5	4	0	2	1	1	2	10
		3.8%	40.0%	0.0%	20.0%	10.0%	10.0%	20.0%	
	라오스	2	2	0	1	0	0	1	4
		1.5%	50.0%	0.0%	25.0%	0.0%	0.0%	25.0%	
	베트남	25	15	8	18	1	0	8	50
		18.9%	30.0%	16.0%	36.0%	2.0%	0.0%	16.0%	
	미얀마	13	9	4	8	0	1	4	26
		9.8%	34.6%	15.4%	30.8%	0.0%	3.8%	15.4%	
	태국	20	12	5	16	0	1	6	40
		15.2%	30.0%	12.5%	40.0%	0.0%	2.5%	15.0%	
	브루나이	1	1	0	0	1	0	0	2
		0.8%	50.0%	0.0%	0.0%	50.0%	0.0%	0.0%	
	인도네시아	37	23	11	25	2	1	12	74
		28.0%	31.1%	14.9%	33.8%	2.7%	1.4%	16.2%	
	싱가포르	3	3	0	2	0	0	1	6
		2.3%	50.0%	0.0%	33.3%	0.0%	0.0%	16.7%	
	말레이시아	10	6	2	7	1	1	3	20
		7.6%	30.0%	10.0%	35.0%	5.0%	5.0%	15.0%	
	필리핀	5	3	2	2	0	1	2	10
		3.8%	30.0%	20.0%	20.0%	0.0%	10.0%	20.0%	
	우선 추진국가 계	132	87	36	87	6	6	42	264

〈부록표 9〉 Ⅲ-13. 신남방 문화교류를 우선적으로 추진해야 할 국가 * Ⅳ-19. 제도 및 인프라 구축협력전략 중 우선 고려되어야 할 세부 추진과제

* 우선 추진 국가(3개 응답), 우선 고려 제도 및 인프라 구축 세부 전략(2개 응답) (n=44)

구분		사례수	신남방 지역 공공(작은) 도서관 문화 조성사업	신남방 지역 문화의 이해 증진을 위한 스마트시티 플랫폼 구축	교류 협력국 문화 교육 정보화 인프라 구축 사업	정보통신기술(ICT)을 활용한 신남방 지역 문화 기술 지원 협력	제도 및 인프라 구축 계
전체		44	13	14	29	32	88
		100.0%	14.8%	15.9%	33.0%	36.4%	
우선 추진 국가/ 우선고려 제도 및 인프라 구축	인도	11	3	3	8	8	22
		8.3%	13.6%	13.6%	36.4%	36.4%	
	캄보디아	5	3	1	2	4	10
		3.8%	30.0%	10.0%	20.0%	40.0%	
	라오스	2	1	0	1	2	4
		1.5%	25.0%	0.0%	25.0%	50.0%	
	베트남	25	9	8	16	17	50
		18.9%	18.0%	16.0%	32.0%	34.0%	
	미얀마	13	4	3	8	11	26
		9.8%	15.4%	11.5%	30.8%	42.3%	
	태국	20	3	7	13	17	40
		15.2%	7.5%	17.5%	32.5%	42.5%	
	브루나이	1	1	0	1	0	2
		0.8%	50.0%	0.0%	50.0%	0.0%	
	인도네시아	37	12	12	25	25	74
		28.0%	16.2%	16.2%	33.8%	33.8%	
	싱가포르	3	0	2	2	2	6
		2.3%	0.0%	33.3%	33.3%	33.3%	
	말레이시아	10	2	4	8	6	20
		7.6%	10.0%	20.0%	40.0%	30.0%	
	필리핀	5	1	2	3	4	10
		3.8%	10.0%	20.0%	30.0%	40.0%	
	우선 추진국가 계	132	39	42	87	96	264

【부록4】 교역액 기준 국가별 문화특성 비교표(종합분석표)

〈부록표 10〉 한국과의 교역액 상위 국가 문화 특성 비교표

국가	인구 ('20년 기준, 만명)	1인당 GDP ('17년, 천 달러)	GDP ('17년 기준, 10억 달러)	경제 성장률 ('18년 기준, %)	한국 교역액 ('18년 10억 달러)	ODA 총액 (억원)	예술 투자 금액 ('18 기준$)	민족 구성	언어	문화적 특징	문화상징 대표이미지	사회문제와 갈등의 핵심	한국문화와의 접점 콘텐츠/계기	한류 특성	혐한, 반한류 가능성	현지 세종 학당 수	한글의 위상: 제2외국어, 한국어시험	TOPIK 시험장 수	국가별 응시자 수	한국어반 개설 현황	문화원 유무	세종 학당 개수 ('19년 6월 기준)
인도네시아	2억 7천	3.8	1,015	5.17	20	733	90만 3천	자바족, 순다족 등 300 종족	인도네시아어	다종교 사회 87% 무슬림 300여 종족, 600여 언어	보로부두르 불교 사원군, 와양 인형극 바틱(수공예 직물 염색)	무슬림과 기독교 간의 충돌 증가, 사회적 우려유발 (이슬람-87%)	조선왕조 초기 인도네시아 왕국에서 조선으로 무역상 방문 기록 존재. 1973년 외교관계수립, 2006년 관광협정, 2007년 문화협정 2017년 '특별전략동반자관계' 수립	한류 우호적. 한국에 대한 긍정적 이미지	이슬람 문화-종교적 가치, 문화민족주의, 열성팬 반감	6	대학 한국어학과 개설 운영, 한국어 강좌 운영	4	883	41(주인도네시아대사관)	0	6
인도	13억 8천	1.9	2,597	6.98	21	-	4만 3천	말레이계, 중국계, 기타	힌디어, 영어	22개 언어, 다양한 종교, 카스트 잔존	타지마할 (아그라) 발리우드 영화	극심한 빈부격차, 높은 문맹률, 카스트 제도의 잔존	2000년전 인도와 한국 교류. 허황후 기념공원 리모델링 사업, 설화 역사화 세미나, 기념우표 MOU 등 1973년 외교관계/문화협력 협정, 1993년 관광협력 협정 2015년 '특별전략동반자관계'로 격상	소수관심 단계에서 확산단계 발전 〈올드보이〉이후, 한국영화 리메이크	반한류 공감도 높은편 (33.7%)	4	대학 한국어학과, 한국어 강좌 TOPIK, 연 2회 (2018 년 904명/2019 년 1,184명)	5	416	-	0	4
베트남	9,734만	2.3	223	7.08	68	1708	257만 7천	비엣족 등 53개 소수 민족	베트남어	다민족사회 (54개 민족) 역사 혼합적 고유 문화 존재	아오자이 (전통의상), 논(모자) 하롱베이, 후에 고도유적지	빈부격차, 빈곤 인구 72%	동남아 한류진원지(1997년 한국드라마 소개) 1992년 베트남 정부와 한국 외교관계수립 1993년 문화협력협정, 2002년 관광 협정. 2009년 '전략적 협력동반자관계'로 격상	한류 역사 지속 k-pop 인기 큼(동호회 46개, BTS 팬클럽 회원수 51만)	케이팝의 열성팬에 대한 반감	15	29개 학교 16,000명 한국어 전공(증가) 중등학교 제2외국어 채택하는 '2020 교육안' 전개	2	4,430	7(호치민시 한국교육권)	0	15

〈부록표 11〉 한국과의 교역액 중위 국가 문화 특성 비교표

국가	인구 ('20년 기준, 명)	1인당 GDP ('17년 기준, 달러)	GDP ('17년 기준, 10억 달러	경제 성장률 ('18년, %)	한국과 교역액 ('18년 기준,10억 달러)	ODA 총액 (억원)	예술 투자 금액 ('18년, 달러)	언어	문화적 특징	문화상징 대표 이미지	사회문제와 갈등의 핵심	한국문화와의 접점 콘텐츠/ 계기	문화적 힘의 원천	한류 특성	혐한, 반한류 가능성	현지 세종 학당 수	한글의 위상: 제2외국어, 한국어시험 여부	TOPIK 시험장 수	국가별 응시자 수	한국 어반 개설 현황	문화원 유무
태국	6,980만	6,590	455	4.13	14	-	-	태국어, 중국어, 말레이어	타이족 85%, 화교 12%, 말레이족 2%	쑹크란	1946년 이후 총 16번의 쿠데타 발생.	6·25전쟁당시 전투 병 파견 다자 관계에서 밀접한 우호협력 관계	인도·미얀마·크메르 문화 융합 불교문화는 인도·스리랑카에서 도입	2013년 한국문화원 개원. 동남아 한류 거점	한국 문화 호감도가 높은 편임	4	2016년 대학한국어 제2외국어 채택.6개 도시에서 한국어능력시험 시행	6	947	114 (태국 한국교육원)	0
필리핀	3,237만	2,990	313	4.72%	15	898	-	타갈로그어, 영어	가톨릭 83%	보라카이, 세부. 아르니스 (필리핀 대표 무술)	이슬람 분리 독립파 테러 세력 대 공산반군 등에 의한 테러 위협 상존	6.25 전쟁에 7천여 명 파병. 한류가 필리핀 관광산업 육성에 적극적으로 활용	현 인도네시아인 수마트라의 스리비자야 왕국과 자바섬의 마자파힛 왕국과의 교역 역사	300여 편 한국 드라마 방영	한류의 문화우월주의 등으로 기성세대의 부정적 반응	4	마닐라의 10개 공립 고교한국어 선택 추가 한국어교육을 위한 교원 양성	3	33	-	0
말레이시아	3,237만	9,950	314	4.72	19	-	25만 7천	말레이어, 영어, 중국어	62%의 말레이, 22%의 중국계 민족	쿠알라룸프르 트윈타워 실랏(말레이시아 전통 무술	1960년대부터 최근까지 인종폭동, 민족 간 충돌, 종족별 소비 등의 종족 분쟁 문제를 겪고 있음.	한국을 국가 발전 모델로 삼음 할랄 식품 산업으로 국내 기업 진출 확대(라면)	하나의 말레이시아 사회 통합과 민족 간 조화로운 문화 발전을 추구	K-Pop 과 드라마, 예능 등 엔터테인먼트 콘텐츠 선호가 높음.	한류 콘텐츠가 이슬람 전통 가치관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우려	2	'14년 정규교육 과정에 한국어가 제2외국어 포함 국립말라야대학에는 한국학 전공과정이 개설	1	333	10(주 말레이시아대사관)	x
싱가포르	585만	57,710	323,907	3.14%	19	-	758만 3천	영어, 중국어, 말레이어	불교 33%, 이슬람교 8%, 기독교 15%,	머라이언 (싱가포르의 상징물)	복잡한 민족 구성으로 인한 갈등, 중국계로의 부의 집중	1995년 '예술·문화·체육 협정', 1997년 체육 교류약정', 2006년 한-싱 FTA	9,000여개의 다국적기업과 다양한 비즈니스 기회를 바탕으로 MICE산업 발달	K-Pop과 한국 드라마, 예능 프로그램이 인기	싱가포르 대비 한국인의 관심 상당히 저조	-	국립대 '18년부터 한국어 부전공 중고등학교, 한국어 제3언어 채택 여부 논의	1	218	-	x

〈부록표 12〉 한국과의 교역액 하위 국가 문화 특성 비교표

국가	인구 ('20년 기준, 명)	1인당 GDP* ('17년 기준, 달러)	GDP ('17년 기준, 10억 달러)	경제 성장률 ('18년, %)	한국과 교역액 ('18년 기준, 백만 달러)	ODA 총액 (억원)	예술 투자 금액 ('18년, $)	종교	민족구성	언어	문화적 특징	문화 상징 대표 이미지	한국문화와의 접점 콘텐츠/계기	한류 특성	혐한, 반한류 가능성	현지 세종 학당 수	한글의 위상: 제2외국어 한국어 시험	TOPIK 시험장 수	국가별 응시자 수	한국어반 개설 현황	문화원	세종 학당 개수 (2019년 기준)	문화적 힘의 원천
라오스	728만	2,460	16	6.5	105	889	-	불교(69%), 기독교, 무교	라오룸(60%), 라오퉁, 라오숭 등 (50개 공식 종족)	라오어	소수민족의 고향 태국 유사성, 불교에 뿌리	루앙 프라방 '탓루앙 불탑'	1995년 외교관계 재개)	태국 TV방송을 통해 한류 인식	적음	1	한국어학과: 라오스 국립대학	2	117	-	x	1	불교문화
브루나이	44만	28,290	12	0.05	669	-	-	이슬람교(국교나 기타 종교 인정, 포교는 금지)	말레이계 (65%), 중국계, 기타	말레이어, 영어	이슬람문화(이슬람교가 국교, 왕실권한 절대적)	모스크 사원	1984년 외교관계 수립	K-pop 팬규모, 구매력 낮은 편	가능성 존재	-	비교적 낮음	1	37	-	x	0	이슬람문화, 왕조의 정통성 보유라는 문화적 자존심 높음
캄보디아	1,671만	1,380	22	7.52	984	735	60만	불교(95%), 기타(5%)	크메르족 97%,	크메르어 90%	개방적 앙코르제국의 후예 자부심	앙코르 와트	1973년 문화협정, 2006년 신규협정	K-POP 인기 상당.	-	-	TOPIK 연 3회, 응시자수 2018년 2,000여명)	2	534	-	x	0	앙코르와트로 대변되는 찬란한 역사 및 유산
미얀마	5,441만	1,300	69,322	6.08%	1,063	839	17만 5천	불교(88%), 기독교, 이슬람교	버마족(68%), 소수족, 등 135개 민족	미얀마어, 기타 소수어	다민족 국가, 인도로부터의 영향이 큰 편, 불교문화 지대	바간	(교류)한국 전쟁시 미얀마의 쌀 지원/(한류)2002년 〈가을동화〉 방영 계기	K-pop, 방송, 한식, 뷰티, e-콘텐츠 등	-	-	2018년 기준 3,393명 응시 (아세안 3위)	2	3,471	-	x	1	영국 독립 후 문화부 설치, 전통문화 보호 육성 역점

집필내역

연구책임자

류정아 한국문화관광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제1장, 제2장, 제5장, 제6장, 제7장, 연구총괄

연구 참여

김준호 이안전략컨설팅 대표: 제4장
신한나 홍익대 문화예술경영학 박사과정: 제3장, 제4장
염윤돌 고려대 신문방송학과 석사: 제5장
이경은 서울대 지리학과 박사과정 수료: 제2장, 제6장
이지현 문화가치평가센터 센터장: 제4장, 제5장
정정훈 서강대 동아연구소 연구교수: 제2장, 제4장

신남방 지역(아세안 10개국, 인도) 문화교류 활성화 방안

발행인 김 대 관

발행처 한국문화관광연구원
서울시 강서구 금낭화로 154
전화 02-2669-9800 팩스 02-2669-9880
http://www.kcti.re.kr

인쇄일 2020년 10월 19일

발행일 2020년 10월 19일

인쇄인 (사)한국장애인이워크협회 일자리사업장

ISBN 978-89-6035-813-3 93300

DOI https://doi.org/10.16937/kcti.rep.2020.e6

www.kcti.re.kr

Plan for Promoting Cultural Exchange with the New Southern Policy(NSP) Region

아래의 DOI 또는 QR코드를 통해
이 보고서를 무료로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https://doi.org/10.16937/kcti.rep.2020.e6

RYOO, Jeungah

서울특별시 강서구 금낭화로 154 **전화** 02-2669-9800 **팩스** 02-2669-9880

93300
9 788960 358133
ISBN 978-89-6035-813-3